

콘치타

어느 어머니의 영적 일기

마리 미셸 필리폰 신부 편저
요한 실비아 옮김

차 례

추기경의 편지
헌사
머리말 (1)
머리말 (2)

제1부 콘치타의 삶 이야기

제1장 멕시코의 딸

1. “화산 지대”: 가정 환경
2. 영혼의 첫 성향
3. 우아한 여장부
4. 열세 살의 약혼녀
5. 하느님에 대한 열망
6. 큰오빠 마누엘의 비극적인 죽음

제2장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

1. 결혼
2.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3. 가족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4. 영적인 진보
5. “너의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6. 그리스도의 모노그램
7. 그리스도와의 영적 약혼
8. 새로운 단계: 고통 속의 기쁨
9. 십자가의 사도
10. 변화된 일상 생활
11. “내적인 수도원”
12. 신적 계시의 조명
13. “그들은 내 영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제3장 흠어미 생활

1. 남편의 죽음
2. 묘지 참배
3. 남편의 면모
4. 아버지를 여윈 여덟 아이들과 함께 산 홀어미 생활
5. 루지에 신부와의 만남
6. “신적인 칼이 내 영혼 안에서...”
7. 하느님의 은혜들
8. 영성 생활의 “중심 은총”
9. 성지 순례와 로마 여행
10. 자녀들의 교육자
11. 예수회의 사제가 된 아들 마누엘
12. 수녀가 된 딸 콘차
13. 살아남은 네 명의 자녀들
14. 자녀들이 본 어머니의 모습
15. 어느 어머니의 증언
16. 멕시코 — 가공할 박해
17. 만년의 고독
18.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얼굴

제2부

위대한 영성 주제들

제1장 신비적인 저술가

- 주님께 의한 “받아쓰기”

제2장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

1. 십자가 복음
2. 근본적인 관점
3. 성령의 수위성
4. 핵심 직관
5. 인간의 운명
6. 금욕과 속죄
7. 그리스도교 덕행들과 성령의 선물들
8. 신비적 강생

제3장 십자가의 동정 마리아

1. 콘치타의 마리아관

2. “십자가의 동정녀”
3. 선호한 신비: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신비
4. “하느님 어머니의 고독”
5. 이 새로운 신심의 사목적 풍요

제4장 교회의 신비

1. 원초적이고 포괄적인 교회관
2. 강생하신 말씀의 교회
3. 성령의 교회
4. 새로운 성령 강림

제5장 삼위일체의 심연들

1. “성삼위에 대한 크나큰 신심”
2. 초기의 체험들
3. 합일을 향한 삶
4. 삼위일체와 강생의 신비
5. 결합에서 일치로
6.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비
7. “어두운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과 같이...”

후기: 콘치타 — 교회 안에서의 사명

부록: 콘치타 연보

멕시코의 수석 대주교
미겔 다리오 미란다
추기경의 편지

본인은 하느님의 종 콘셉시온 카브레라 데 아르미다(=콘치타)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코요아칸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의 작품들을 읽었으며, 그녀의 덕행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하느님의 눈에도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답고 단순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느님의 종은 바로 여기 멕시코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고통을 받았고, 더욱이 그리스도와 의 일치에서 오는 힘으로, 지금도 감탄할 만한 수확을 내며 발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방대한 문서들이 우리 손을 거쳐갔습니다. 시복 및 시성 청원을 위한 교구 차원의 심사 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이 문서들에는, 그녀가 쓴 경탄할 만한 글들 외에도,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 그녀의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신분에 고유한 덕행으로 성화된, 순수하고 고결한 영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큰 가치를 지니는 이 문서들은 현재 교황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영웅적인 덕행은, 이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시복 및 시성 절차를 그녀에게 영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거니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젠가는 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는 그녀를 보게 될 것이니, 모쪼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밤에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는 사람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까지 차례차례 지평선 위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본인의 사목적 의무가 본인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우리 교구민들도 지평선에 눈길을 모으고 막 떠오르기 시작한 새로운 별 하나를 바라보라고 권고하게 합니다. 수없이 많고 귀한 별들로 우리의 하늘을 단장하신 분의 섭리에 따라 궤도를 그리기 시작한 새로운 별, 이 별이 바로 은총의 기묘하고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이 하느님의 종입니다. 갈수록 높이 떠오르는 이 별을 유심히 바라보며 따라갑시다. 그녀의 모범이라는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넘쳐흐르도록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빛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이 특은적인 영혼의 삶은 무엇보다도 특히 가정 생활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단순하고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성화의 길을 간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 속

에서 살아간 그녀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노라면, 우리 시대와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지닌 영적인 힘과 사랑의 힘, 그리고 지혜의 비할 데 없는 보화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비추는 빛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삶의 모범을 우리나라 전국으로 내보내면서, 이것이 멕시코의 모든 가정에 가져올 크나큰 유익을 생각하며 기쁨과 위로를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을 영예롭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멕시코 수석 대주교
미구엘 다리오 미란다 추기경

이 책을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사신 어머니,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께 바칩니다.

머리말 (1)

이 책은 ‘도미니코 수도회’의 위대한 영성 신학자 고(故) 마리 미셸 필리폰 신부의 유저(遺著)로서, 하느님의 종 마리아 콘셉시온 카브레라 데 아마다(=콘치타)의 영혼과 교의에 관한 신학자다운 고찰이다. 필리폰 신부는 여기에 다만 「**콘치타, 어느 어머니의 영적 일기**」라는 단순한 표제만을 붙였지만, 이 책이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하느님 섭리의 선물, 곧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생의 말년 대부분을 이 연구에 바쳤다.

필리폰 신부가 콘치타의 생애 및 교리와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1954년의 여행 동안이었다. 이때 그는 일련의 영성 강의 차 멕시코에 있는 우리 신학교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신부의 직관적 재능이, 그 자신의 표현대로 “교회를 위한 이 위대한 보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알리고 싶은 열망이, 특히 유럽의 자기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열망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 책은 출간뿐만 아니라 저작 자체가 지연되었다. 문체가 매우 독특하고 개성적인 콘치타의 글을 감안해 볼 때 그에게는 외국어 이해라는 문제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다, 특히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다시 통합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 섭리로 길을 열어 주셨고, 필리폰 신부의 순명 정신이 이 작업 수행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설교자회’ (곧 도미니코 수도회)의 그의 장상들이 그에게 콘치타의 영성 교리를 알림으로써 교회에 봉사하라는 지시를 표명했던 것이다. 오늘날은 특히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가치의 의미가 상당히 망각되거나 상실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필리폰 신부는 (콘치타의) 주변 환경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또 그 자신의 방법론에 따라 생생하고 진솔한 증언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멕시코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리하여 일단 전체적인 개관을 잡게 되자 자료들을 편집하고 저작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마쳐 갈 무렵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자 하셨다. 책은 그러나 거의 완성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필리폰 신부가 “콘치타의 삶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인 제1부는 전적으로 그에 의해 기술되었고, 제2부 “위대한 영성 주제들”의 제1장과 제2장, 곧 “신비적인 저술가”와 “십자가 교리”도 그렇다. 단, 제1장에 대해서는 더 길게 쓰고자 했던 것 같지만 본인은 텍스트 전체를 존중해서 그가 쓴 원고대로 수록하였다. 그리고 그는 제2장 “십자가 교리”를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제2부의 제2장까지는 전부 필리폰 신부가 편집·저술한 것이다.

그는 오직 마지막 세 장들 곧 “십자가의 동정 성모”, “교회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몇몇 관점들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마리아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 그를 불러 가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한 주해와 요점 및 텍스트 선정에 대한 자료를 남겼다. 그러므로 본인은 다만 이들 텍스트에 형태를 부여하여 — 이 안에 영적 풍요가 있기 때문에 —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는 책임을 맡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문학적 정직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때문이다.

본인이 이 일을 완성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필리폰 신부를 알게 된 1954년 당시 그가 영성 강의를 하러 온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었고, 우리는 서로 깊이 공감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그 때부터 그가 본인을 자신의 주된 협조자와 조연자로 택했는데 그것은 콘치타의 기록에 대한 본인의 지식 때문이었다.

긴 대화 끝에 그는 거듭해서 “나도 완전한 자유와 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고 익살스럽고 진지하게 말하곤 하였다. 그리고 그의 메모 속에는 “데라 로사 신부님과 수백 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음.”이라는 기록도 있다. 본인이 그의 내밀한 생각까지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거의 완전히 알게 된 그의 생각을 최대한 충실히 따르면서 이 책을 완성할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필리폰 신부는 또한 자기 저서의 의미와 의도 및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상의 원칙을 설명하는 서문을 쓸 작정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는 저자가 자기 작품 전체를 되짚어 보면서 책 말미에 써 붙이는 것이 관례이지만, 필리폰 신부는 다행히도 미리 그 주된 생각들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나중에 그 자신 특유의 문체로 공들여 다듬을 생각이었으리라.

이는 그의 사후에 나온 이 책의 이해에 꼭 필요한 기록으로 보이기에 아래에 옮겨 실기로 한다.

“나는 콘치타에 관한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에 의해서, 곧 하느님 섭리에 떠밀려서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콘치타를 개인적으로 알았거나 그 교리를 알고 있었던 몇몇 고위 성직자들이 글을 쓰도록 나를 설득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말하고자 하는 거만을 떨기보다는 오히려 이 책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다만 하느님 교회의 탄복할 만한 이 딸의 영적 메시지를 소개하려고 애쓰는 펜이 되어, 하느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했을 뿐이다.

기본 자료인 그녀의 “내심 이야기”(La cuenta de conciencia)는 전기라기보다는 ‘일기’이고, 그것도 날마다 생활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는 완전한 일기가 아니라 주로 영혼과 하느님의 내밀한 관계만을 상술한 ‘영적 일기’이다. 영성 지도자

들의 공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40여 년 동안 충실히 기록한 것이다.

이 독특하고 섭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녀가 32세부터 75세까지 점진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올라간 진보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오늘날의 온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영적 메시지를 받은 비범한 영웅적 자질의 영혼이었으니, 하느님께로부터 오직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상기시킬 사명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진솔한 “이야기” 속에는 **문학적인 배려란 것이 전연 없다**. 집안 살림을 맡아 하는 어머니로서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전업 주부로서의 요리법이 적힌 글이, 지극히 고상한 신비적 상승 이야기 바로 옆에 되는 대로 섞여 있는 것이다. “말씀의 탄생”과 하느님의 영원성에 관한 글을 쓰고 있을 때 식사하자고 부르는 소리가 나면 서둘러 달려가서 자녀들과 즐겁게 식탁에 앉았다가, 식사가 끝나면 다시 글 쓰는 일로 돌아와서 삼위일체의 신비와 하느님의 다른 신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계속 써내려 가는 식이었다.

콘치타의 일기는 물론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그런즉 심리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 초자연적인 직관과 영적인 교리가 솟아났기 때문이다. 이 두 부분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편의상 이렇게 나누었다).

— 콘치타의 삶 이야기

— 교리, 위대한 영성 주제들

그러나 이 신비적인 저술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페이지들을, 어쩌면 현대 문학 작품 중 가장 방대할지 모르는 기록을, 단 한 권의 책 속에다 수록하며 언급하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그 원고가 66권의 두꺼운 노트들 묶음인 ‘영적 일기’의 본질만이라도 성공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사실 이 기록 속에 포함된 십자가의 신비와 하느님의 신비들이 지닌 무궁무진한 풍요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야심이나 소망은 없었다. 현대 그리스도 교회의 보화들 중의 하나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직 교회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고, 당신 성령의 도움으로 그르침 없이 영을 분별하는 선물도 주신 까닭이다.

필자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비를 새삼 세상에 상기시키기 위한 이 시도를 기탄 없이 교회에 맡기는 바이다. 십자가의 신비는 그리스도 신비의 핵심에, 복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어떤 점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이 멕시코 여인의 생애와 교리 앞에서 놀라움과 동시에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과는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위험은 우리의 현대적인 범주에 의거하여, 그것도 이내 시대에 뒤떨어지기 마련인 범주에 의거하여 변형시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양인이 쓴 중국 사상이나 힌두교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거북함과 의혹을 느끼기 십상이다. 유럽화될 위험, 곧 변형 내지 변질될 위험이 늘 있는 것이니, 중국 사상을 변형시키지 않고서는 유럽화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콘치타의 심리적 반응과 그 특유의 정신성을 표현하면서 가급적 충실한 번역을 꾀함으로써 원문과의 개별적인 만남으로 독자를 인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참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콘치타의 스페인어 원문은 온통 멕시코식 스페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기야 오늘날은 멕시코 풍물이 여행자들에게 유행이다. 라디오, 텔레비전, 화려한 잡지와 미술품 컬렉션이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 및 현대 멕시코를 연상시키고, 따라서 이 나라를 우리와 아주 가깝게 느끼게 한다.

현대 문명은 갈수록 더 세계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사람들을 밀착시키거나 서로 갈라놓는 동질성과 이질성 및 그들의 문명과 문화, 종교심의 다양한 표현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보편성은 획일(劃一)이 아니라 다양성 안의 일치임을 체험하게 했거니와, 이제껏 인간은 그들의 기본적인 일치와 정당한 다양성을 이와 같은 이해력과 객관성으로 잦 적이 없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동양인이셨으나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신 신분과 종족과 피부색이 어떠하건, 사회적 지위나 교양 정도가 어떠하건, 심지어 문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 사람 콘치타는 우리 자신의 성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매이다. 그녀는 사도적인 열성과 영웅적인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고, 이들은 그녀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과 함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해 온 것이다. 콘치타는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 멕시코의 딸은 바로 성인들의 통공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모방할 수 없는 개인적인 카리스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교회를 위해 바친 삶에 있어서 모든 이의 모범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보편성(catholicité)의 정신으로 그녀의 모범과 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중심 은총”이 (그녀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풍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데카르트적 정신과 헤겔적·실존주의자적 정신 및 서양식 정신성이다. 교회의 중심지는 로마에 있지만, 교회의 광채는 단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로 뻗어 가는 것이다.

콘치타는 바로 이 보편성의 증인이다. 그녀의 메시지는 모든 사제와 수도자와 평

신도를 향해 있다. 그녀가 그 모두의 모범이다.
하느님의 계획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상이 필리폰 신부가 모아둔 주해와 생각이었다.

성령 선교 수도회, 로베르토 데 라 로사 신부

머리말 (2)

교회는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와 모든 시대에 걸쳐 수없이 많은 사도들과 교회 박사들과 영성 교사들 및 남성이나 여성의 다양한 성덕 유형들 안에 놀랍도록 풍성한 보고(寶庫)를 지니고 있다.

사도들과 동방의 성인들 이후, 또 성 아우구스티노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와 십자가의 성 요한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같은 성인들 이후, 보스코 신부와 푸코 신부와 같은 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교회는 우리 시대에 근접하여 리지외의 데레사와 마리아 고레티 같은 동정 성녀들을 보여 주었고, 때를 같이하여 맑고 밝은 눈빛으로 더없이 아름다운 멕시코의 한 처녀도 보여 주었다. 나중에 아홉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고 여러 손자들의 할머니가 된 그녀는 자기 가족과 친지들에 에워싸여 여느 여인들과 똑같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 특별한 사도적 불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같이 됨으로써 그분과 함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영웅적인 열정이 감춰져 있었다.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친 그녀를 교회는 가정 주부의 비길 데 없는 모범으로, 평신도의 영광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사명과 가장 높은 성덕으로 불린 평신도의 소명을 상기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산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두 개의 장엄 수도회 창립에 영감을 주었는데, 하나는 ‘십자가 관상회’라는 여자 수도원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선교 수도회’라는 남자 수도원이다.

지나치게 오랜 세월 동안 성덕은 수도 생활이나 사제직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상당수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이 이 배타적인 관념에 이의를 표명한 것과 같이, 성화(聖化)는 교회 전체, 곧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의 의무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거룩한 겨레, 사제의 직책을 맡은 백성, 왕의 백성”(출애 19,6; 1베드 2,9 참조)이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완덕 헌장이다. 오늘날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도처에 있는 성인들, 곧 수도원이나 제단 아래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and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는 성인들이니, 성화는 곧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부르심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평신도는 온 세상 앞에서 눈에 띄게 성덕을 증거할 소명이 있다. 그런즉 하느님께서, 제단을 향해 아홉 명의 자녀를 데리고 가는 이 어머니를 통하여, 그런 본보기 하나를 보여 주시는 셈이 아니겠는가?

콘치타는 이 세상에서 자기 가족에 둘러싸여 단순하고 명랑하게 살았지만,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그 영혼의 깊고 은밀한 곳에서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교회의 지평권(地平圈) 안에서 강렬한 사도적 광채에 휩싸인 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성덕을 창시하며** 살았다.

콘치타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점은 그 **삶의 다면성(多面性)**이다. 곧 약혼녀, 아내, 어머니, 과부, 할머니로서 여성의 모든 역할을 다했을 뿐더러, 심지어 임종 순간에는 교황 비오 12세의 특별 유훈로, 가족의 일원이라는 신원을 잃지 않고 자녀들의 팔에 안긴 채, 교회법상 수도자 신분으로 죽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부류의 하느님 백성에게, 곧 평신도와 기혼자들, 사제와 주교들, 수도자와 온갖 형태의 봉헌 생활자들에게 말을 건넨다.

그리고 하느님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뿐만 아니라, 하느님, 그리스도,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신비, 사람의 삶 전체가 지니는 영원성의 의미 따위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위대한 주제들에도 접근한다. 극히 하찮은 집안일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느님의 광채 속에서의 ‘말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흔히 아무런 이행 과정 없이 힘들이지 않고 올라가는 그녀의 「영적 일기」는 66권의 방대한 원고와 아울러 그 내용이나 규모의 폭이 가히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신학 대전」을 방불케 한다. 또 그 글의 깊이와 숭고함으로 보면 시에나의 가타리나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못지않다.

콘치타를 조사할 책임을 맡은 위원회의 한 위원이 1913년 로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본서는 (앞의 ‘머리말’에 나와 있는 필리폰 신부의 구분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콘치타의 전모를 소개한다.

제1부: 콘치타의 삶 이야기

제2부: 위대한 영성 주제들

1972년 3월 3일, 콘치타 서거 35주년 기념일
에

제1부

콘치타의 삶 이야기

“나의 인생이 영화의 화면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기쁨과 고통의 순간들,
내 결혼과 내 아이들,
그리고 ‘십자가 사업들’이...”

제1장 멕시코의 딸

“나는 들풀처럼 자랐다.”

1. “화산 지대”: 가정 환경

콘치타는 멕시코의 딸이다. 그러니 멕시코적 풍토라는 배경 속에 있는 그녀를 보아야 한다. 멕시코는 폭력과 대립의 땅, 곧 “화산 지대”이지만, 또한 베라크루스,¹⁾ 곧 “진짜 십자가”와 과달루페의 성모²⁾ 성지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듯 대조적인 성격은 더할 수 없이 평범한 외관 아래 갈수록 더 신적인 삶을 산 콘치타의 전생애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필자가 처음으로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이들, 그러니까 그녀를 알고 지냈던 이들은 한결같이 “단순함(sencillez)”이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곤 하였다. 콘치타는 복음적인 “단순함”을 산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일반 농장(hacienda)과 대규모 농장(rancho)에서 지냈는데,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며 물 속에 침범 뛰어드는가 하면, 친구들이나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떠밀어 놓고 깔깔 웃어대곤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렸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타고나서인지 음악과 노래를 열렬히 좋아하였다. 나중에는 최초의 십자가 찬가들을 작곡하여 노래하면서 스스로 피아노 반주도 하였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눈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눈길은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 속에 자연스럽고도 비할 데 없이 신선한 문체로 자기의 가정 환경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두었다. 그 몇 대목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부모님 성함은 옥타비아노 데 카브레라와 글라라 아리아스이다. 두 분 다 (멕시코 중부의) 산루이스포토시 출신으로 여기에서 결혼하셨고, 나도 여기에서 태어났다...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내게 젖을 빨릴 수 없었지만, 어떻게

<역주>

1) 베라크루스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이름이며, 13세기 초에 건립된 이 베라크루스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조각이 성(聖)유물로 모셔져 있다.

2) 1531년 12월에 멕시코의 과달루페에서 아즈텍 인디언인 요한(=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 이 사건으로 7년 만에 멕시코인 8백만 명이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고 한다. 요한의 고향인 틸마 안쪽에 새겨져 있었던 ‘과달루페의 평생 동정 마리아’ 성화를 모신 성당이 발현지인 테페약산 정상에 세워졌으며, 1709년에는 이 과달루페의 성모가 멕시코의 수호자로 선포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1979년에 이 성지를 순례했다.

해서든지 꼭 먹여 보려고 여간 애쓰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거의 죽게 되자, 의사는 나를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큰 농장에 급히 데려가게 하였다. 농장 문지기의 아내가 그런 나를 가엾게 여기고 계속 젖을 먹여 주겠다고 자청했고, 자기 자신의 아들은 다른 유모에게 맡겼다... 내 생명을 구한 그 부인의 이름은 마우리시아였다. 나는 그녀를 무척 사랑했으며, 철들 나이가 되자 그 은덕을 더 잘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 농장으로 가는 여행 도중에 내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을 벗겨 보기가 두려웠다고 하셨다.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줄곧 죽은 아기를 팔에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었다.”(자서전 1,6-8)

“내가 태어난 도시는 산루이스포토시이고, 생가(生家)는 ‘하느님의 성 요한 교회’ 맞은편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집이었다... 나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 주거지를 옮겼던 짧은 기간 외에는 늘 그 집에서 살았다. 결혼하기 위해 떠났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돌아와 있는 동안 내 아들이 그나시오를 낳았다. 이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언니 카를로타와 오빠 콘스탄틴도 죽었다.”(자서전 367)

“부모님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셨다. 아버지는 날마다 농장의 경당에서 온 가족과 농장 일꾼들과 주민들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합송의 진행을 맡으셨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진행을 하실 수 없을 때에는 내가 대신하기를 원하셨다. 때때로 묵주기도가 끝나기 전에 돌아오셨고, 경당에서 나가시면서 내 기도예 정성이 부족하다고 나무라시곤 하셨다. 내가 바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들이 나와 함께 연옥에 돌아다닐 것이며, 너무 아무렇게나 읊어댔기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셨다.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도와 주곤 하셨으며... 쾌활하고 솔직한 성품이셨다. 나는 아버지의 선종을 도와 드렸는데, 그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크고 힘찬 교훈을 주셨다. 몸소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제단을 마련하셨고, 당신 탓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거나 좋지 못한 표양을 보인 모든 것에 대하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서를 청하셨으며, 한 사람씩 차례로 팔에 안고 입맞추면서 충고도 한마디씩 해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유연하시기를, 기념 액자나 묘비나 심지어 이름 표시도 없이 무덤에 묻되, 오직 십자가만 하나 무덤 앞에 세워달라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유연대로 실행했다.”(자서전 365) “어머니는 성녀 같은 분이셨다. 두 살에 고아가 되어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열일곱 살에 결혼하셨다. 열두 명의 자녀들을 낳으셨는데, 여덟이 아들이고 넷이 딸이었다. 나는 일곱째로서 두 아들 사이에 태어났으니, 오빠는 후안이고 남동생은 ‘예수회’에 입회한 프리미티보이다.

어머니는 내 영혼에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성체께 대한 사랑을 전해 주셨다... 나를 각별히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결혼했을 때 무척 괴로워하셨지만, 내 남편은 보기 드문 사람이며,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분명히 해 주셨다. 내가

괴로워할 때면 함께 우셨고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하셨다. 어머니는 큰 고통들을 겪어 내야 하셨고, 가난을 열렬히 사랑하셨으며, 수많은 덕행들을 남몰래 실천하셨지만, 어머니의 순교자적인 고통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돌연한 발병(發病)으로 열두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으나, 기도의 힘으로 하느님께서 마지막 고해성사를 받을 시간을 주셨다. 또 한 번의 발병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나는 그 임종을 도운 끝에 관 속에다 모셨던 것이다.”(자서전 366)

“나는 학교라고는 세 곳밖에 다니지 않았다. 아주 어렸을 때는 선량한 몇몇 할머니들이 세운 집인 산티야나라는 이름의 학교에 다녔고, 좀 뒤에는 잠시 마담 네그레테의 학교, 마지막으로 자비회 수녀들이 경영하는 학교였다. 이 수도회가 추방되었을 때에 나는 아직 여덟 살인가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다른 어디에도 보내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교사들이 집으로 와서 우리를 가르쳤고 음악도 가르쳐 주었다.”(자서전 1,23)

“나의 교육 정도는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탓이 아니라 나의 둔함과 게으름 탓이었고, 또한 한창 공부할 나이에 이리저리 너무 많이 옮겨 다닌 탓이기도 하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특히 음악에 몰두했다.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 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집안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마루를 닦는 일에서부터 자수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열두 살에 나는 벌써 집안의 경비 지출을 담당했으며, 농장에서는 소뿔을 짜고 빵 반죽을 하고 음식 장만을 해야 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빈둥빈둥 놀며 지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 점을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주시하곤 하셨다. 의복 수선과 갖가지 재봉일, 전채(前菜) 요리와 과자나 케이크 만들기 등 무엇이나 그 눈길 아래에서 행해졌다. 게다가 어머니는 우리가 항상 깊은 겸손 속에서 살며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셨다. 교육과 이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엄마는 이 문제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른다. 우리의 (이기적인) 뜻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얼마나 단호하게 양육하셨는지! 일요일에는 흔히 산책을 하자면서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시곤 했고 죽은 사람들과 다친 사람들을 보도록 하셨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족 중의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즉시 힘 자라는 데까지 그를 돌보며 봉사해야 했다. 이와 같이 엄마는 나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죽음을, 그리고 부자와 빈자들의 죽음을 보게 하셨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그들을 도와 주며 수의를 입히고 깨끗하게 매만져 주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아이들이 염살부리는 것을 봐주지 않으셨다. 내가 여섯 살 때 혼자 달랑 말에 태워진 적이 있었는데, 말이 놀라 뒷발로 일어서는 바람에 나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내가 앙앙 우는데도 아랑곳없이 물 한 잔을 마시게 하시더니 곧장 다시 말에 태우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말을 겁내지 않게 되었고, 성질이 더없이 격한 말들도 자랑스럽게 탈 수 있을 정도가 되었

다. 그런 말들을 나 외에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정열적이라고 할 만큼 언제나 말을 좋아했다. 여기 멕시코 시티에서 남편과 산책할 때에도 번번이 내 주의를 끈 것은 다만 말들이었다. 사람들은 모두가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이었다.”(자서전 15-16)

2. 영혼의 첫 성향들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는 내 안에 좋은 성향들을 심어 주셨다. 그러나 마땅히 했어야 할 만큼 그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한 것은 순전히 내 잘못이다. 아주 어릴 적부터 기도와 속죄 고행과 특히 순결에 대한 강한 경향을 마음속으로 느꼈고(자서전 1,10), 고행은 내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되었다. 글읽기를 배우자 집의 서재에 틀어박히곤 했고, 「교회 전례주년」이라는 여러 권의 책들 속에서 오직 성인들의 속죄 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만 뽑아서 읽었던 것이다. 즐겨 읽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후딱 지났다. 그들이 어떤 고행을 했는지 알아내고는 몹시 부러워하면서 흉내도 내려고 애썼기 때문이다.”(자서전 1,12)

“또한, 아버지와 여동생 글라라와 말을 탄 채 들판을 가로질러 긴 산책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어느 산 속의 동굴에서 살면서 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마음껏 속죄 고행을 하며 기도에 전념할 수 있을까 하고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모른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었으므로 나는 온 정열을 기울여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 두곤 하였다. 때로는 먼 길을 따라가면서 —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어머니의 농장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 복되신 성체께 혹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내가 외우고 있는 기도들을 바쳤는데, 한 마디 한 마디 묵상하면서 아주 천천히 바쳤다. 나의 어린이다운 마음은 이 모든 것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할 때까지, 누구나 그렇게 다른 이들 모르게 속죄 기도를 바치는 줄 알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행을 몹시 싫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원, 세상에! 어째서 그럴까?”(자서전 17-18)

“내가 첫 고해를 한 것은 일곱 살인가 여덟 살 때였다. 중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짓지도 않은 죄들을 고백하고 말았다. 신부님은 몸을 구부리고 나를 내려다보셨다. 나는 서 있었지만 (키가 작아서) 고해실의 격자창에 닿을 듯 말 듯 했기 때문이다. 신부님은 나를 엄하게 꾸짖으시고 보속으로 묵주기도 네 께미를 바치라고 하셨다! 그것은 조그마한 아이에게는 굉장한 양의 보속이었다.”(자서전 24-26)

“나는 1872년 12월 8일, 그러니까 열 번째 생일인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에 첫영성체를 했다. 워낙 미지근하고 멍해서 이렇다할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한없는 내적 기쁨과 흰옷을 입은 데 대한 큰 행복감만은 생각한다. 그 날 이후 성체께 대한 사랑이 날로 자라났다. 이 시기부터 자주 영성체하기를 좋아

하게 되었고, 열다섯 혹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일주일에 네 번, 조금 뒤부터는 매일 성체를 배령하였다. 영성체를 할 수 있을 때면 나는 행복했다, 너무나 행복했다! 그것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무도회나 극장에서 돌아온 다음날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영성체하러 가곤 했다. 밤이 되면 먼저 성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약혼자를 생각했으며, 영성체 후나 성체조배 중에 얼마나 자주 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른다. 『주님, 저는 아무래도 제대로 당신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을 많이 주시어 그들이 저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내게는 걸맞지 않기는커녕 도리어 합당한 기도로 보였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영혼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곧 나의 피와 생명으로 내게서 난 자녀들에 의하여 그분께서 한층 더 사랑 받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자서전 1,27-29)

3. 우아한 여장부

“나는 무척 빨리 자랐고, 너무 갑자기 자라서 병에 걸렸다. 그러자 의사는 내가 시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처방해 주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승마 산책이었다. 가족들이 필요한 마구 일체를 농장에서 가져왔고, 나는 아침마다 한 오빠와 나가곤 했다. 인구가 희박한 산루이스에서 거의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서 지냈으나 아무도 나를 몰랐으니, 내가 이 산책을 함께 하는 오빠의 아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그 때 열세 살이었던 나는 아는 애들도 거의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세뇨리타’(곧 아가씨)라고 불렀던 첫날,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해지는가 싶더니 결국은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좋았으므로 처녀로 보이는 것이 소름끼치도록 싫었던 것이다. 집에서는 짧은 드레스를 입고 시내에 나갈 때는 긴 드레스를 입었는데, 한 젊은 관리가 우리의 긴 산책에 합류하곤 했다. 그는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렇게 나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나로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지 몰랐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하곤 하였다. 얼마나 숫기가 없었던지!

나중에 내 남편이 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내가 말을 타고 다닌 그 시기에 나를 처음으로 보았다고 한다.”(자서전 1,67-69)

4. 열세 살의 약혼녀

“나는 무도회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긴 드레스를 입을 나이가 되면 참석해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12월 12일에 집에서 열렸던 첫 무도회가 기억난다. 이미 시간이 다 되었으나 나는 이 댄스파티를 위한 드레스를 입기보다는 차라리 침실로 가고 싶었다. 그래도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전에 가족들에게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 자리에서 한 오빠가 장차 내 남편이 될 사람을 소개해 주

었다. 12월 24일에 또 다른 무도회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내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찬사와 영광적인 고백을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편치 않아 죽을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술한 남자들이 같이 춤추자고 내게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토록 나를 좋아했다. 정작 나로서는, 내가 이미 판초와 사귀고 있는데도 많은 남자들이 교제하고 싶어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재미로 해아려 보니 그런 구혼자가 스물 두 명인데다 모두가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직 판초만을 사랑했을 뿐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자서전 69-70)

“그러면 여러 해 뒤에야 결혼하게 된 그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 보겠다.

1876년 1월 16일 가족들이 나를 어느 가정에서 열린 무도회에 데리고 갔는데 — 산루이스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많이 추니까 — 거기에서 그가 내게 정식으로 사랑을 고백했고, 나도 곧 그의 감정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내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는 무척 괴로울 것이라는 둥, 나도 그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불행할 것이라는 둥, 그런 종류의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였다. 이런 말들이 첫 순간에 내게 아무 느낌을 주지 않았던 것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긴 적이 없는데다 몹시 당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워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보였고, 그래서 마침내 나도 사랑하니까 그런 하찮은 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쩐지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무겁기도 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방금 내게 일어났으니, 일말의 불안과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판초에게 편지를 쓰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5월까지 내 요구를 따라 주었다. 내 가족들은 당연히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으므로, 시간적으로도 간격을 두고 다소 뜸하게 만난 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약혼했는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야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 와 보니 판초가 내 순진함을 악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이다. 그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정중한 약혼자였던 것이다. 나로서는 첫 편지에서부터 그를 하느님께로 들어올리려고 힘썼고, 갈수록 신앙심이 깊어지는 그를 보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에 대하여, 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쳐야 할 사랑에 대하여 말하곤 하였고, 그는 기도서와 신앙을 소재로 한 시집 및 「준주성범」(Imitation de Jésus-Christ) 한 권을 아주 예쁜 상자에 넣어 보내 주었다... 나는 또한 그가 되도록 자주 고해하고 영성체를 하도록 독려했으며, 그 이후에도 그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자서전 70-72)

“약혼이 나를 하느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근심스러웠던 적은 결코 없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 내게는 아주 쉬운 일로 보였던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판초를 생각하고 나서 나의

더할 수 없는 기쁨인 성체를 생각했고, 날마다 영성체를 하러 갔으며, 그런 뒤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곤 했으니, 판초에 대한 기억 때문에 기도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 약혼 시절에 나는 더욱 아름다워졌으며 오직 그를 기쁘게 해 주려고 의상도 우아하게 차려 입었다. 오직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극장이나 무도회에 가곤 했을 뿐,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내 하느님을 잊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했으며, 그분께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당신께 끌어당기셨다.

그러므로 극장이나 무도회에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서도 — 실크가 아니라 다른 조잡한 천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 그 옷 안쪽에 번번이 고행자가 두르는 거친 띠를 매고 내 예수님 때문에 즐겨 그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자서전 1,73-74)

5. 하느님에 대한 열망

“이 헛된 것들과 무도회들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래서 탐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되도록 많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지상적인 것들의 무가치함과 존재의 허무, 그리고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비추어 주는 큰 빛을 받기 시작했고, 성령께 대한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내 십자가상을 꼭 붙안곤 했는데, 그러면 무언지 모를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즉, 심오한 내적 감동이 일어 마음이 형언할 수 없도록 그분께 집중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끌어당기시고 흡수하시며 매료시키시는 것이었고, 마침내 눈물과 함께 그런 순간이 끝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감명이 사라지면 나는 다시 미지근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생활로 돌아갔고, 이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내 환심을 사려고 드는 그 술한 아침과 오락과 파티들 복판에서 영혼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마치 어떤 내적 음성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의 참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 내게 수도 성소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스도교 연감」을 읽으면서 여기에 언급된 수도자들에게 열중했음에도 그들 모두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며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주 사촌들과 수녀 놀이를 하였다. 오랫동안 끓어 옆드려 있노라면 영혼이 하느님께 끌리는 것을 체험하곤 했는데, 사촌들은 이내 이 놀이를 따분하게 여기게 되었으므로 약혼자 놀이로 넘어갔던 것이다.

소명과 순결! 나는 이 두 낱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결혼이 나의 운명이어서 달리 실현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결혼의 신적 숭고함과 의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지만 말이다. 나의 고행 사제들 역시

다른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홀로 삼촌 사제만이 이따금 내게 동정녀들과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대목을 읽어 주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미처 들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자유롭게 속죄 고행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생각으로 마음의 큰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고해성사를 받으려고 ‘리오의 성녀 마리아 성당’에 갔다. 한 훌륭한 사제가 『당신 영혼 안에는 대단한 유순함이 있습니다. 고해 사제를 택하는 것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고 조언해 주셨는데 이 조언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그 때에야 비로소 나는 내 영혼이 유순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제의 격려 덕분에 영적으로 좀 진보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나의 한심한 점들과 허망한 것들 가운데서, 동시에 하느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내 생의 여러 해가 지나갔다. 무도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떠받들었던 것은 나의 순진함 때문이었을까? 도착하기 무섭게 댄스 초대장들이 온통 나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는 파트너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춤을 많이 춘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는지! 무도회에는 큰 위험들이 있기 마련이라고들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양재사들은 내 몸매가 아름답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우쭐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이 마음을 끄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유행을 따르긴 했으나, 단순히 내 약혼자의 마음에 드는 것이 기뻐서였으며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판초가 옆으로 지나가거나 나를 보러 오는 몇 분 동안만 몸치장에 관심을 가졌을 뿐, 그가 길모퉁이를 돌아가자마자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렸던 것이다. 엄마가 그러셨듯이, 나 역시 귀걸이며 반지 따위가 여간 불편하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장신구라는 말 때문인가) 지금 문득 약혼 선물을 받았던 날이 기억난다. 그날은 1884년 10월 24일 성 라파엘 축일이었다. 판초가 내게 자물쇠가 달린 금팔찌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것이 손목을 죄는 바람에 말할 수 없이 아팠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끼고 있었다.

덧없는 모든 것, 모든 겉치레, 부질없고 인위적인 것 —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치게 했다. 옷감 따위 (물질적인) 것은 결코 내 마음을 채워 줄 수 없었고, 영혼 깊은 곳으로 다른 어떤 것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없는 공허감이었다. 이 공허감은 판초처럼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채워질 것 같았다. 판초는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결혼이 내 열망의 대상이 되었고, 하느님과 성 요셉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바치는 기도의 지향이 되었다.”(자서전 1,75-81)

6. 큰오빠 마누엘의 비극적인 죽음: 새 생활의 출발점

“하나의 무서운 타격이 나로 하여금 세속과 그 헛된 행실들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다가가게 하였다.

내가 끔찍이 사랑했던 큰오빠 마누엘이 손님 접대를 하러 갔던 식당에서 갑자기 총에 맞아 죽은 것이다. 손님은 돈 판초 카요였는데 오빠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우기다시피 붙잡았던 사람이었다. 이 큰 불행은 그러나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그 손님이 커피를 마시려고 자리에 앉은 순간, 허리에 차고 있었던 총의 방아쇠가 무엇인가에 걸려 저절로 당겨졌고, 총알이 오빠의 한쪽 뺨에 날아들어 머리를 관통하면서 천장에 박힌 것이다. 오빠는 무너지듯 쓰러져 죽었고, 아내와 세 자녀를 남겼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헤수스마리아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즉시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신 다음 비탄에 잠기셨다. 그 비극적인 사고는 오후 두 시에 일어났으며, 나는 저녁 열 시 경에 오빠의 시신 옆에 있었다.

부모님은 괴로워서 정신이 나간 듯 하셨지만 체념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셨다. 나는 혹독한 고통을 겪었고, 카요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내 남동생 프리미티보는 천둥과 번개가 교차하는 테라스에서 넋없이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의 성소가 솟아났던 것이다. 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참으로 호된 타격이었지만,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던 내 가련한 영혼에게는 유익한 사건이기도 하였고, 이 점은 온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초상으로 인한 큰 슬픔 중에서 하느님께 나 자신을 더 온전히 바치고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며 지상적인 무익한 것들로 나를 끌어가는 유행을 멀리하기로 결심하면서 돌아왔다. 하기가 나는 워낙 민감해서 늘 많은 고통을 겪어 온 터였다. 딱히 죽음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가족 중 누군가가 집에 없는 경우에도 그 부재가 늘 염두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오빠들이 왔다갔다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곤 했는지 모른다! 과연 내 영혼은 그 다감한 감수성 때문에 늘 무척 괴로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냉정하고 무관심해 보이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었던 것이다.”(자서전1,82-85)

· “나는 들풀처럼 자랐다.”

“나는 내 본성에 따라 들풀처럼 자랐다.

— 저의 하느님, 저는 이 가련한 영혼을 감싸주신 당신의 은총과 호의와 특별한 총애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글을 쓰고 싶었다. 열여섯 살 때에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 찬 생활 이야기를 썼다가 그 대부분을 찢어 버렸는데, 이는 우리가 페레그리나에서 살 무렵이었고, 이 농장에서 저녁마다 함께 기도를 바치곤 하였다. 해가 지면 내 영혼은 땅을 떠나 올라가면서 열렬히 하느님을 찾았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좋아한 시간이었으니, 어떤 것이, 그렇다,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땅에서 들어올려 결

정적으로 하늘을 향하게 하는 어떤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는 느낌이었다...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판초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마음에 차는 생활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산루이스에 있었다.”(자서전 1,101-103)

이 글을 읽자 다음과 같이 외친 프랑스의 한 시인이 연상된다.

“오직 한 사람이 없으니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아라.”(라마르틴)

제2장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이 나의 영성 생활에 장애가 된 적은 없었다.”

1. 결혼

콘치타의 소녀 시절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기대 속에서 별 문제 없이 흘러갔다.

“드디어 청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내 의견을 물으셨다.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냐? 하시면서. 나는 판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부유하진 않아도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거듭 말하지만, **얼마나 가득한 애정을 품고 있었건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 적은 결코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안에 온통 휩싸인 채 극히 단순하게 그를 사랑했고, 하느님을 향한 다른 길이 내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혼인 전날 흰 드레스를 받았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른다. 값이 매우 비싸고 우아한 그 드레스와 아울러 혼수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귀걸이, 반짝이는 진주들, 다이아가 촘촘히 박힌 십자가 — 이것이 나중에는 수도원의 성체현시대에 붙일 작은 비둘기로 제작되었다 — 와 목걸이 및 반지였다. 이런 물품이 내 주의를 끌지 않았던 것은 이전부터도 보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외에도 많은 선물들과 의상들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느꼈던가? 그것은 내적인 슬픔과 기이한 두려움과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어쨌든, 11월 8일에 프란시스코 아르미다 씨와 나의 혼인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11월 7일 자정부터 마음을 다하여 묵주기도 15단을 바치기 시작하여 아침 여덟 시까지, 그러니까 내가 혼인 서약을 하게 될 순간까지 그렇게 했다. 혼인 서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다. 오전 여섯 시에는 판초와 함께 ‘하느님의 성 요한 성당’에서 영성체를 했고, 그런 다음 우리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 예수님께, 좋은 아내가 되어 곧 내 동반자로 주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리고 온통 오렌지 꽃 자수로 뒤덮인 그 흰 예복이 내게 다시 입혀졌으며 — 나중에 나는 이 예복의 한 부분을 원죄 없으신 동정녀께 봉헌하였고, 나 머지는 내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할 때 기도대를 장식하거나 성탄 전야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베개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 면사포와 화관도 머리에 씌워졌다. 이와 같이 예식을 위한 몸치장을 마친 다음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꿇어앉았

다. 부모님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지만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가르멜 성당’으로 출발했다. 성당은 흰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예식은 오전 여덟 시에, 내 외삼촌인 루이스 아리아스 수사 신부님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 미사 참례를 한 다음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와 관례적인 인사를 드리고 민법상의 결혼식도 올렸다. 좀 뒤에 우리는 사진을 찍으러 갔고, 마침내 밤늦도록 피로연과 무도회가 열릴 ‘퀀타 데 산호세’로 갔다.”(자서전 1,104-108)

“혼인 잔치 석상에서 건배를 하는 순간 이미 내 남편이 된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받아낼 생각을 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것은 날마다 자유롭게 영성체를 하러 가게 할 것과 질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가엾게도! 그래서 그는 이후 여러 해 동안 내가 성당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남아 있었고, (임종 전) 마지막 병을 앓던 시기에도 내게 우리 주님을 모시러 갔다 왔느냐고 묻곤 하였다. 하느님께서 내 삶 전체를 이룬 이 열성을 보시고 틀림없이 그에게 보답해 주셨으리라.

저녁이 되었을 때 옥타비아노 오빠가 나를 불렀다. 그는 내가 어머니 몰래 서둘러 판초와 함께 떠나기를 원했다. 나는 표현할 수 없도록 불안해서, 몹시 당황한 채 말없이 울면서 출발하였다. 판초는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와 단둘이 간다는 것이 여간 괴롭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집에 도착했는데, 온통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흰 장미꽃이 가득한 집이었다.”(자서전 1,110)

“내 남편은 언제나 존경과 애정의 더할 나위 없는 모범이었다. 여러 신부님들이 내게 그는 확실히 하느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 택해 주신 사람이라고들 하셨다. 그는 과연 남편들의 모범이요, 덕행의 모범이었다.”(자서전 1,111)

“결혼한 지 한 달이 된 12월 8일에 스물 두 번째의 내 생일 파티가 있었으나 그때 이미 나는 병들어 있었다. 병이 얼마나 골지, 얼마나 영성체를 못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사람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꽃과 불빛, 행복과 꿈이 가득한 이 집에 들어왔었던 내가, 아홉 달 뒤에는 화재로 인한 공포에 싸여 한밤중에 거기에서 나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다.”(자서전 1,112)

2.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1885년 9월 28일, 월요일, 저녁 아홉 시에 내 첫 아기가 태어났다. 나는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과 그 직후에 온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였다. 아기 아빠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면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께서 내게 여덟 달 동안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뒤 부득이 젖을 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었다. 아기가 유모의 젖을 원치 않는 바람에 결국 나귀 젖을 먹이게 된 것이다. 그것이 아무래도 내 젖과 가장 비슷한 모양이었다.

또 한 가지 웃기는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아기의 첫말이 ‘마마’(=엄마)가 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건만 ‘가토’(=고양이)라고 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다. 나는 늘 그토록 덜떨어진 데가 있는 인간이었다... 아기는 그러나 아빠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자 흠 잡을 데 없이 자랐다.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올곧고, 자긍심이 강하고, 언제나 품행이 방정하고, 격한 성격이지만 마음이 착한 아이여서 더 붙일 말이 없을 정도였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결혼 성소를 주신 것 같았다.”
(자서전 1,114-115)

“남편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속내 이야기를 하거나 영적 독서나 속죄 고행을 하며 지냈고, 남편이 귀가할 무렵이면 고행용의 산양 털 띠를 풀어 두었다. 한번은 남편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었다. 내가 아이들을 돌보며 젖을 먹이고 나 자신의 병치레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받을 기회를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를 느끼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런) 내가 다른 이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시려고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거니와, 고해사제가 앞으로 삼 년 동안 고행을 금한다고 하였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자서전 1,129-130)

“1887년 3월 28일 월요일 자정에 내 아들 카를로스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온전히 내 젖을 먹일 수 있었다. 매우 활발하고 영리하고 조숙한 아이였는데, 6년밖에 살지 못하고 1893년 3월 10일에 장티푸스로 죽었다. 그 아이는 괴로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곤 했다. 많은 고통을 겪고 견진 성사도 받지 못한 채 죽었으니, 그 애통함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 죽음이 내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끔찍한 충격이었고, 그 때까지 결코 체험한 적이 없었던 고통이었다. 죽은 아이 곁에서 몸을 댈 수가 없었지만, 순종하라는 음성이 들린 즉시 아이를 남겨 두고 떠나는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남편의 사업도 불황 중에 있는 상태여서 아이의 장례에 필요한 돈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께서 그 때 내게 창피와 재정적 어려움을 잔뜩 안겨 주셨던 것이다. —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카를로스가 죽은 뒤 내 영혼은 완덕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끼고 있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기도 했는데, 아이에게 쓴 약을 맛있는 약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했던 것 때문이었고,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아이의 옷 한 벌을 마지막 추억으로 간직하였다. 내 마음이 이 옷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깨우침을 주시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내 심경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 한 가난한 아이를 불러 그 옷을 입혀 주면서, 마치 내 아이를 한 번 더 빼앗기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었다.”(자서전 1,131-132)

“내 아들 마누엘은 1889년 1월 28일 산루이포토시의 로사리오가에서 태어났다.

로사리오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거리로 이사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내게 대단히 큰 희생을 치르게 한 이 아기는 삼중기도 중 성모송을 바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 태어났고, 같은 시각에 한 사제가 세상을 떠났다. 바로 호세 카마초 신부님이었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듣자 제단에서 그 사제를 대신하도록 내 아기를 주님께 바쳤다. 진지하게,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께 봉헌했던 것이다. 좀 뒤에 나는 병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까지 젖을 먹일 수 있었다. 세례명을 마누엘로 하고 싶었던 것은 성체께 대한 나의 크나큰 사랑 때문이었다. 세례식은 그리스도의 성체 축일에 거행되었다. 마누엘은 언제나 착하기 그지없는 성격을 드러내었다. 단순하고 명랑하며 겸손하고 유순한 그는 어릴 때부터 덕행을 닦고 싶어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두드러져 보였다. (성령의) 빛을 받아 세속의 허망함과 초연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일곱 살쯤 되었던 어느 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식사 중이었던 아버지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서 자라서 가게비 지출을 도와 주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마누엘이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제가 도와 드리겠어요. 도와드리고말고요. 하지만 영적인 면으로, 곧 영혼과 관계 있는 것으로 돕겠어요. 저는 돈을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그건 이 세상의 일이고 헛된 일이거든요.』 판초와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마누엘은 (너무 세심하여) 심한 가책에 시달리는 시기를 통과했다. 언제나 깊은 신앙심이 나타나 보였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평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천진하면서도 단순한 신앙심이었다. 그는 또 내 아이들 중에서 내게 가장 다정한, 극단적일 만큼 다정다감한 아이였다.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다. 이 아이가 말문을 열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아이와 함께 수도 성소라는 큰 은총을 청하곤 했다. 그도 첫 영성체를 한 날과 대축일 때마다 이 간청 기도를 열심히 다시 바쳤고,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이다. 그는 1906년 11월 12일에 ‘예수회’에 입회했고, 1908년 12월 8일에 서원을 발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19년 11개월이었다.”(자서전 1,135-138)

(그는 1955년, 스페인의 히혼에 있는 임마쿨라타 대학에서 성인과 같은 모습으로 선종했다 — 편집자 주).

“내 영혼은 줄곧 완덕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끼고 있었다.

내 영혼은 언제나 멀리로 달아나는 초월적인 어떤 것에 도달하려고 열망하고 있었다.

내 영혼은, 어떤 모양으로나 나를 도무지 떠난 적이 없는 고통과 함께 오는, 신적인 사랑의 내적이고 강력한 어루만짐으로 큰 열성이 타오르는 날들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덕행이었을까? 하고 나는 자주 자문해 보았다. 어릴 때부터 내 영혼은 덕행들을 닦기 위해서 이에 대한 지식을 소리쳐 구하고 있었다. 오래도록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잠기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체 축일에 성체 조배를 하려고 대성당에 갔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감싸시어 잠심(潛心) 기도해 잠기게 하셨다. 지금은 이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신적인 작용의 효과라는 점만 느낄 수 있었을 뿐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내가 약속하거니와 어느 날인가 너는 덕행들의 성격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덕행들을, 내가 네 손이 미치는 곳에 놓아 줄 것이니 말이다.』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몹시 놀란 상태로 있었다. 십 년 뒤에, 어쩌면 그보다 더 뒤에, 이백 가지도 더 되는 덕행과 악습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게 받아쓰게 하시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자서전 139-141)

“세속 생활은 나를 아주 지치게 하였다. 나는 내 훌륭한 남편이 일찍 귀가하여 가정이 아닌 곳에서 기분 전환 거리를 찾지 않고 모든 것을 가정에서 찾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했지만, 그는 내가 내심으로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꼭 같이 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또한 온갖 배려로 그를 에워쌌고, 그의 생일이 되면 열여덟 가지나 스무 가지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다. 극히 우아한 태도로 나를 대했고, 내 일을 도와 아기들의 요람을 흔들며 주거나 잠을 재워 주기도 했다.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해 한 모든 것은 그가 받아 마땅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의 행복은 온통 자기의 집과 아이들에게 있었다.”(자서전 142-143)

“나는 하느님께서 이제는 딸을 주셨으면 하고 바랐다. 아들만 연달아 셋을 낳았던 것이다. 마누엘이 태어난 뒤 과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딸을 내게 보내 주셨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마리아 데 라 콘셉시온(=콘차)라고 불려질 이 아기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많이 괴롭혔다. 아기 아빠와 나는 특별한 애정으로 아기를 귀여워했고, 나는 즉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봉헌하였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딸애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할 때까지 백함처럼 순결하게 기르려고 힘썼다. 다행히도 나는 아기에게 필요한 시기까지 젖을 먹일 수 있었다. 이 아기가 아빠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어서 우리 둘은 넘치도록 축복을 쏟아 주었다. 태어난 지 여섯 달쯤 되었을 때 곧 죽을 것만 같은 중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장티푸스에 걸려 40일 동안 그야말로 사경(死境)을 헤매게 되었다. 그래서 첫 영성체가 노자 성체인 셈이었다. 나는 꽃봉오리를 바치듯 아이를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면 천국에서 피어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 세상에서 당신 정배가 되도록 미리 정해 두셨던 것이다... 그리고 콘차가 그렇게 앓는 동안 그분께서는 몇 년 전에 내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덕행들에 대하여 받아쓰게 하셨다...

콘차는 천사 같은 아이였다. 지극히 순결한데다 숨겨진 소질과 덕행이 가득했으며 겸손이 주된 특징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가족들 가운데서, 가정의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덕행을 실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과연 보석이며 진주, 진귀한 ‘콘차’³⁾이며 백합이었다... 열다섯 살에 동정 허원을 하고 이년 반 뒤에 수녀원으로 들어간 콘차는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 받지 않은 순수한 보물이었으니...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택하신 영혼이었다.”(자서전 1,144-149)

“우리가 결혼했을 당시의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 곧잘 폭발하는 과격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에게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들마저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것은 은총의 작용과 나의 개인적인 노력 때문이었던 것 같다. 가엾게도 그는 나라는 단단한 부싯돌에 끊임없이 비벼지고 있었던 것이다.”(자서전 1,151-152)

3. 가족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시누이들로 인해 괴로운 굴욕을 겪게 하셨다. 내가 그들의 눈에 아무 쓸모 없고 별로 호감도 가지 않는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로 여러 해가 지나면서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나 자신을 지배하게 되었다... 남편까지 흔히 그들과 한편이 되었고, 그럴수록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 내게는 매우 유익했으니,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건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고 여기도록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도 항상 시누이들을 칭찬하면서 비난받을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내 자만심을 극복했으며, 남편으로 하여금 내가 그의 가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덕행 때문이라기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행동 방식이 내게 분에 넘치는 존경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매우 아끼셨다. 그런데 그분은 오랫동안 성사를 받지 않으셨다. 나는 모쪼록 고해성사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다. 하느님께서 이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좀 뒤에 그분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시아머니는 나중에 내게 고백하시기를, 결혼 초기에는 나를 전연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매우 큰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심지어 내 남편과 맞서서 내 역성을 들어주기도 하셨으니 말이다. 이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하느님에 대하여, 그리고 힘 자라는 데까지 묵상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드렸다. 시어머니는 배운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토록 순수하고 선량한 분이었고,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아는 분이셨다. 돌아가실 때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성사를 받으러 가지지 않았으나 나중에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고통 중에도 아주 열심이셨다.”(자서전 1,152-154)

3) 보통 명사 concha는 조개, 조가비라는 뜻이다.

“저녁마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나는 ‘하느님의 성 요한 성당’ 감실 바로 옆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바쳐드렸다. 그리고 그분께 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빛과 지혜를 청하면서 내 아이들과 남편과 집안 사람들을 봉헌하였다.”(자서전 1,156-157)

콘치타는 가정에 대한 의무와 사회적인 의무 사이에서 평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갔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하였다.

“어느 날, 한 사제를 방문하러 가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었다. 나와 보니 이미 날이 저물어서 깜짝 놀랐는데 마차도 전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놀랐다... 무척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자꾸 흐르고, 하는 수 없어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길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 보려고 어느 가게로 들어가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 남자가 불쑥 나타나더니, 미처 도망칠 겨를도 없이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면서 따라나서는 것이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내 옆에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같이 계속 걸어갔다. 나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보호에 자신을 맡겼다. 캄캄한 밤이었다. 오늘따라 남편은 한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둔 터인데, 나는 이처럼 멀리 떨어진 채, 매표사,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 지도 모르는 채 계속 걷고 있다니! 내 평생 그런 종류의 불안을 이처럼 심히 느낀 적은 일찍이 없었다. 결국 성모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셨으니,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모를 전차 한 대가 길모퉁이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나를 못 가게 하려고 끌어안는 남자의 포옹을 떨쳐버리고 냅다 전차에 뛰어올랐다. 그렇게 위험에서 구해졌던 것이다.”(자서전 1,42-43)

4. 영적인 진보

콘치타를 이해하려면 애써 특별한 현상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녀의 덕행은 일상적인 나날의 흐름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의 짧은 한 대목이 이 젊은 부인의 영혼 상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도 한다. “남편은 그지없이 선한 사람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은 충만한 생활이 아니었다. 이 점을 보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하느님께로 다가가고 있었고, 결혼 생활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을 그분 안에서 찾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행복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내적 공허감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자서전 1,112-113) 그런즉 그녀는 사랑의 더없이 큰 기쁨 속에서도 모든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와 덧없는 성격을 느끼고 있었다.

성인들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골로 3,3) 우리는 이를 그들의 외적 행동으로 감지하지만 흔히 그들 자신이 그것의 주된 비밀을 드러내기도 한다. 콘치타의 경우, 그녀의 ‘일기’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열어 보일 열쇠이다. 우리로 하여금 서른 한 살 때부터 일흔 네 살 때까지의 그녀를 따라가게 하기에, 이 일기가 우리가 사용할 주된 안내서이고, 물론 보충 자료들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이를 통해 그녀 자신

이 우리에게 알려 준 것은, 자기의 가정 환경,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이례적인 은총과 은혜, 큰오빠 마누엘의 비극적인 죽음, 결정적으로 하느님을 향하게 된 새로운 삶의 참된 출발점, 결혼 초기부터 그녀의 온 존재에 미친 그리스도의 심오한 영향,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극히 사소한 일들을 통한 완덕에로의 부단한 상승 따위였다. 요컨대 하느님께서 외관상 여느 부인들과 다르지 않는 이 부인의 일상적인 삶의 짜임새 안에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한 위대한 성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5. “너의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뜻밖의 일이 그녀에게 침묵과 기도와 하느님과의 만남을 강력하게 살게 하는 계제를 제공했다. 평생 처음으로 “영성 수련”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1889년 안토니오 플란카르테 이 라바스티다 신부가 지도하다가 나중에 과달루페 수도원의 원장 신부가 지도하게 된 피정이었고, 그 때 콘치타의 나이는 스물 일곱 살이었다. 결혼하여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가정 주부인데다 귀가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다소 질투심도 있는 남편의 아내인 그녀로서는 일상 생활과 차단된 피정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아이들을 홀로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왕래하며 거기에 참여했다.” (자서전 1,159-160) 교육을 받기 위해 서둘러 가서 할 수 있는 한 길게 침묵과 명상에 잠기다가 다시 급히 집으로 돌아오곤 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영혼들을 찾아가신다. 성령의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받고 콘치타의 마음 속에 사도적 열정의 불꽃이 솟아올라 이것이 머지않아 온 교회로 퍼져 나갈 것이었다. 그녀는 그러나 단순하고 겸손해서 처음에는 하느님 계획의 크기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 시선이 가정 주부로서의 평상적인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친히 구원 사업의 지평을 그녀에게 열어 보여 주시기까지는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실 모든 것에 대하여 온 영혼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어느 날, 영혼 깊은 곳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이 말씀이 들려와서 놀라웠다. 『너의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나로서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기이하고 불가능한 일로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내 남편과 아이들과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생각하였고, 열성에 넘쳐 매우 실천적인 결심들을 하면서 **사랑이신 분**을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열망을 배가시켰다. 고독과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은 그 나름의 피난처와 평화를 찾아내었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 몸을 데지 않고 불 속을 통과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세상으로, 또 내 본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고, 동시에 이 불꽃도 마음 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내가 배우게 된 복된 가르침을 남들과 나누고 싶은 열정이 삼킬 듯 나를 불사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나는 내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곧 옥타비아노 오빠의 큰 농장이 있는 헤수스마리아에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했다. 이는 산루이스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도착한 즉시 근처의 부인들을 모으기로 결심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설명해 주면서 몇 가지 “영성 수련”을 시키기 위함이었다. 언제나 내게 매우 친절한데다 각별한 사랑으로 나를 귀여워했던 오빠는 그런 내 생각에 곧바로 동의해 주었다. 부인들이 60명쯤 모였는데, 곤혹스럽다거나 어쩌면 내가 말을 틀리게 할지 모른다거나 스스로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다. 내 안에 불이 타고 있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이 불을 붙여 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장의 경당에서 “영성 수련”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 앞의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눈이 왕”이라더니, 이 가련한 부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너무나 즐겁게 들어 주었다. 통회하며 우는가 하면 심지어 내게 죄를 고백하려고 하기도 했으나 나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수련 끝에 몇몇 사제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셨고 그들은 열렬히 성체를 받아 모셨다. 나는 그들에게 내 예수님과 복되신 성모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들이 그리도 감미로운 수련을 하는 동안 시간은 나는 듯 빨리 지나갔다. 때때로 오빠도 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하느님의 도움으로 나는 더듬거리지 않고 이야기를 잘 이어갈 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문이란 문은 다 닫아 두고 행한 일이었다.”(자서전 1,159-162)

콘치타는 하느님을 향해 더욱 안전하게 진보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찾아다녔다. “나는 완덕에의 열망으로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예수님께 이르게 할 문이나 길이나 오솔길은 다만 어렵פות이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자신을 낮추고 이 계획을 곰곰이 생각하는 한편 비탄과 고뇌와 어둠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신적인 것, 곧 예수님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반면, 짓눌려 기가 꺾인 채 어두운 신앙의 길에서 희망도 없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느 사제를 찾아가서 내 안에서 이처럼 부글거리며 끓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 뇌리에서 줄곧 떠나지 않는 완덕의 이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렸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 사제가 내 말을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셨나 보다. 그는 내게 시와 대자연 및 하느님과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하느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끌어가려고 용을 쓰는 통에 피조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내가 이따금 패션 잡지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던 일이다. 주님께서 다시는 그런 것을 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날에야 비로소 뉘우침이 밀려들었던 것이다.”(자서전 1,198-199)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사제에게 다가갔다가 다만 진부한 이야기만 듣고 실망과 슬픔을 느꼈던 콘치타는 기도를 배로 늘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예수회 사제인 알베르토 미르 신부를 보내 주셨다. 이 사제는 그녀가 하느님을 향해 상승하도록 초기 10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다.

6. 그리스도의 모노그램 J.H.S.⁴⁾

4) 모노그램은 본래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양이었으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문자들이 서로 얹힌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콘치타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더 생기를 띠게 되었고, 생활 중의 극히 사소한 행위에도 같은 생기가 묻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도 열렬히 사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같은 사랑 안에 감싸져 있는 것 같았다.”(자서전 1,105)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잘라 내시지 않고 변화시켜 신성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콘치타는 어린 시절 가족의 농장에서, 나중에는 옥타비아노 오빠의 농장에서, 사람들이 벌겋게 달군 쇠도장으로 가축들에게 소유주를 나타내는 낙인을 찍는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자신의 살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박혀 있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우리는 성인들의 생애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도미니코 회’의 복자 헨리코 수소(1295-1366)의 경우이다. 가장 비근한 예는 (프랑스의)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1572-1641)의 경우로서 젊은 과부였던 그녀는 재혼하라는 가족들의 독촉을 받은 끝에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침실로 들어가서 자기의 심장 부위에 ‘Jésus’라고 새겼던 것이다. 이렇게 새긴 자국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 비록 마지막 ‘S’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말이다. (성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성 프란치스코 드 살(1567-1622)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성인들은 때때로 본받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콘치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여러 번 간청한 끝에 지도 신부님으로부터 허락을 얻어내었다. 그것은 1894년 1월 14일 예수님의 성명(聖名) 축일에 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몸에 새겨도 좋다는 허락이었다... 나는 가슴에 칼을 대어 살을 가르며 대문자로 ‘J.H.S.’라고 썼다. 그렇게 하고 나자마자 내 몸을 땅바닥으로 내던지는 초자연적인 힘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때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눈물이 넘쳐흐르는 눈과 불꽃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격렬한 열정에 휘말린 채 주님께 영혼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님, 영혼들의 구원자시여, 그들을 구해 주소서, 그들을 구해 주소서!**』

다른 것은 전연 생각나지 않는다. 영혼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하는 것 — 이것만이 내 소망 전부일 뿐이었다... 영혼의 열정이 육신의 육신거리는 통증을 능가하고 있었고, 마치 소유주의 소인(燒印)을 받은 가축과 같이, 나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자각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을 체험했다. 그렇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행복에 취하여 그날 나머지를 고독과 기도 속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접대해야 할 손님이 한 사람 있었다.”(자서전 205-206)

이와 같은 사실은 성령의 은사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을 따른 광적인 사랑

문양이 되기도 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모노그램 J.H.S.는 라틴어 Jesus Hominum Salvator(인간의 구원자 예수)라는 세 단어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을 드러낸다. 이는 온 세상에 펼쳐게 될 ‘십자가 사업’의 창립자로서의 특수한 사명에 의해서 설명된다. 하지만 콘치타가 가장 좋아한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는 교회 안에서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는 사랑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아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광적인 사랑을 그분께 증명해 보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기질과 각 사람의 개인적인 은총과 사명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같은 영이 불과 피로 새긴 글자로, 또한 이보다는 덜 강력해 보이지만 가장 사소한 희생에 대한 철저한 충실성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같은 사랑의 영의 충동 안에 하찮은 것에 대한 장한 행위와 위대한 것에 대한 장한 행위가 재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노그램 사건으로 하여 콘치타는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게 되었고, 그 영향이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감지된다. 곧

- 콘치타 개인의 삶에서,
- 그녀의 사도적 사명의 현현(顯現)에서,
- 그리고 전(全)교회의 선익을 위한 신적 조명의 카리스마적 방식에서이다.

구원의 섭리적 조화가 이런 것이니, 특은적인 행위들은 종종 그 구원 효과를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에 파급시킨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모 마리아의 “피앗”(Fiat)은 유일무이하고 비할 데 없는 행위이다. 이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는 극히 사소한 것도 세계사에 반영되기 마련이고, 최후 심판 때가 되어야 비로소 정확하게 평가될 것이다.

7. 그리스도와의 영적 약혼

피로 각인된 자기 증여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속하게 된 그 영웅적인 봉헌 행위의 일차적인 수혜(受惠) 대상은 바로 콘치타 자신이었다. “그 사건과 더불어 주님께서 내 안에 당신 은총들을 부어 주시기 위한 문을 여신 것 같았다. 그날부터 그분께서 얼마나 줄곧 나를 따라다니셨는지 모른다! 얼마나 깊이 주의를 기울이시며, 얼마나 큰 애정을 보여 주셨는지! 나처럼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얼마나 놀라운 친절을 베푸셨는지! 그분은 밤이건 낮이건 또는 기도 중이건 아니건 나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다. 『나는 네가 전적으로 내 것이 되기 바란다! 이미 그렇지만 더욱 그렇게 되기 바란다.』 하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다가오너라. 나는 너와 영적인 약혼을 실현하고 싶다. 너에게 내 이름을 주어 크나큰 은총들을 받도록 준비시키고자 한다.』”(자서전 1,208)

멕시코의 대주교이며 콘치타의 마지막 영적 지도자인 루이스 마르티네스 몬시뇰은 그녀가 그리스도와의 영적 약혼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시기가 이 때였다고 보고 있다. 신학자들은, 결혼 생활에 전적으로 매여 있으며 대가족의 어머니이기도 한 여인이 진실로 주님께 의해 탁월한 신비적 지위로 드높여진, 이 전대미문의 경우에

대하여 이런 저런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선물들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이시다.

8. 새로운 단계: 고통 속의 기쁨

한층 더 놀라운 두 번째 결과는 콘치타의 영성 생활 속에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고통 속에서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고난받는 종”(이사 53,3 참조)이 되심과 동시에 영혼의 절정은 지복직관을 누리셨다.

예수님의 성명을 가슴에 새긴 이래 콘치타는 은총과 신적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했으니, 이것이 단 하나의 소망이었다. “그분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직 그분만을 위한 순수한 사랑으로 ... 사도가 되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알리고 싶었다!”(일기 1894년 4월-5월) 콘치타는 “단 한 톨의 영광”(자서전 2,7)이라도 그분께 드릴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았을 것이다. 그녀는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일기 1894년 4월) 살았다. 그런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마치 분위기가 다른 어떤 환경 속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곧 하느님의 내부에서가 아니면 생각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제 안에, 하느님께서 온전히 제 안에 계시고, 저도 온전히 그분 안에, 빛의 천공과 신적인 사물들에 싸여 있습니다.”(일기 1894년 4월-7월)

이제 콘치타는 하느님과의 결합은 고통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감에 따라 십자가가 점점 더 가까이 시야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연한 놀라움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상한 현상이지만, 고통 한복판에서 내가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기묘한 순간들이 있다. 내 영혼이 그 때까지 체험한 적이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고통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은 채 그윽한 단맛을 띠게 되기 때문인데, 이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행위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기쁨에서 태어난 감미(甘味)이다... 일찍이 내가 한 번도 느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으니, **이 때 영혼 속으로 특별한 무엇을, 곧 고통 속의 결합을 체험한 것이었다.**”(일기 1984년 4월 30일)

“고통 한가운데서 기쁨을 느끼는 것 — 나는 이를 내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었다! 하느님께서 숨은 고통에 대한 매력을 내 마음 안에 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등을 돌리거나 피하려고 들었던 내게 그것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현상이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자면 아주 갑자기 영혼이 고통의 심연 속으로 빨려들어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같은 순간에 그윽한 미풍이 일면서 메마르고 황량한 고통을 상쾌한 즐거움으로 바꾸는 바람에 내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고, 장차 누릴 복된 선에 대한 생각도

없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정말이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기쁨에 비하면 내가 장차 누릴 선으로 인한 기쁨은 부차적인 것이거나 그렇게 보일 따름이었다. 오, 은총의 기묘함이며! 나의 영혼은 그 하잘것없는 상태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을 뿐더러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영역 속에 휩쓸려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은혜는 아무 공로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호의인가! 그분 자신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무한하고 끝없는 호의였다.

나는 고통의 결합이 사랑의 결합보다 더욱 강력하고 더욱 공고한 결합이며 이 두 결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십자가의 결합이 지고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사랑을 영혼에서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기심이나 자애심이 섞이지 않은 더없이 순수한 사랑이다. 고통에 대한 사랑은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며 확고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온전히 감춰져 있고 바로 나의 것인 이 보물을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렇다, 정말이지 내 고난을 덮어 가리고 싶다. 이는 이제 또 하나의 보물인 내 예수님과 나를 결합시키는 보물이 되었으니, 나는 이 잔의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실 각오가 되어 있다. —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찮은 인간이오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로지 당신께 영광을 드리려는 것이옵니다.“(일기 1894년 5월2일)

9. 십자가의 사도

콘치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그 모노그램 사건은 한편 십자가의 사도로서의 그녀의 소명을 준비시키기도 하였다. 성녀 요안나 드 샹탈과 콘치타가 가슴에 예수님의 성명을 새긴 그 용감한 행위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같은 사랑의 몸짓임에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성녀 샹탈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유일한 사랑을 증명하는 최상의 확인 행위였지만, 콘치타에게는 예기치 않은 폭발, 이를테면 그녀의 내부에서 타고 있었던 불 —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나눌 수 없는 사랑의 외적 분출이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세운 수도회 가족들은 타당하게도 ‘십자가 사업’이 시작된 날짜를 그 모노그램 사건이 있었던 날짜로 보는 것이다.

그녀가 그 모노그램을 새긴 지 얼마 뒤 자기 고향인 산루이스포토시의 예수회 성당에서 기도에 잠겨 있었을 때에 갑자기 성령께서, 사랑의 성령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시어 모든 십자가 사업들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비추어 주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불타게 하셨다.

“나는 하느님 안에 침잠해 있었다. 그 때 갑자기 한없이 큰 화폭 모양의 매우 강렬한 빛을 보았는데 그 중심은 한층 더 밝았고 온통 흰빛이었다! 이 빛의 바다 위에, 곧 불꽃 색과 금색의 빛살이 수없이 솟아나는 이 빛의 심연 위에, 놀랍게도 새하얀 비둘기가 한 마리 보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개들을 활짝 펴서 그 역수로 쏟아지는 빛의 급류를 통째로 감싸고 있었다. 비둘기가 빛이

기 때문에 내 눈에 분명히 그것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지고하고 불가해하며 심오하고 신적인 현시(顯示)임을 깨달았다. 내게 온유함과 평화, 사랑과 순결, 그리고 겸손의 열매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설명이 불가능한 그 현시를 본 지 이삼 일이 지난 오후, 같은 예수회 성당에서 —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다 — 나는 찬란히 번쩍이는 빛살이 솟는 큰 광원 가운데 있는 흰 비둘기를 다시 보았다. 비둘기는 그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날개들을 활짝 펴고 있었고, 비둘기 아래쪽에, 곧 이 어마어마한 빛의 밑바닥에, 큰 십자가가, 그 중심에 심장이 있는 굉장히 큰 십자가가 있었다.”(자서전 1,211-213)

“십자가는 황혼녘의 불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십자가 밑에서 수천 줄기의 빛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는 비둘기의 흰 빛과 불구름이 내뿜는 빛과는 엄연히 구분되었다. 그것은 마치 등급의 도(度)가 다른 세 가지 종류의 빛 같았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

심장은 살아서 고동치는 인간의 심장, 그러나 영광을 입은 심장으로서 화덕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며 흔들리는 것 같은 물질적 불꽃에 싸여 있었다. 이 불꽃 위쪽에 말하자면 더욱 질(質)이 높은 또 다른 불꽃이 불혀 모양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심장은, 시작 부분은 굽고 끝 부분은 더 가는 눈부신 빛살들에 휩싸여 있었으며, 그 아래쪽에 있는 불꽃과 희미한 빛 및 심장 주위를 원반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매우 빛나는 빛과 구분되고 있었다.

심장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불꽃은 강력한 힘을 받아 튀어 오르듯 맹렬히 솟구치면서 심장에 박아 세운 작은 십자가를 덮어 가리기도 하고 열어 보이기도 하고 있었다.

심장을 에워싼 가시들은 너무나 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그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비둘기는 없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그 십자가가 밤낮으로 여러 차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나는 자문하곤 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신부님은 처음에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시더니, 생각건대 아마 하느님의 감도를 받으신 듯 나중에 이렇게 적은 쪽지를 주셨다. 『당신은 십자가 사도직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요.』 그는 단지 주님의 희생과 결합된 나의 희생에 대해서만 지적하고자 했을 뿐, 이 문구 안에 ‘십자가 사업’의 명칭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추후도 하지 않으셨다. 나로서는 그것을 읽자, 모르긴 몰라도 이 명칭이 주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이미 언급도 하신 ‘사업’을 특징짓는 것이 되리라고 여겼다.”(자서전 1,214-215)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의한 세상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자 일개 평신도요 한 가족의 어머니인 이 젊은 기혼 여성을 택하셨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

씀하셨던 것이다.

“세상은 정욕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이제는 희생을 좋아하지 않으니 희생의 감미로움을 모른다. 나는 십자가가 다스리기를 원한다. 오늘날 십자가가 나의 성심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영혼들을 희생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십자가가 없이는 확고한 사랑도 없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마음 안에서만 내 마음의 형언할 수 없는 감미를 맛볼 수 있을 뿐이다. 십자가는 외관상 가혹하고 엄격해 보이지만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맛을 보게 되면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 여기에 사랑에 취한 영혼의 안식이 있다. 여기에 그 영혼의 낙과 삶이 있다.”(자서전 1,216-218)

여기에 ‘십자가 관상회’ 수녀들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들은 모두 사랑의 제물이 되는 삶에 헌신할 사람들이다.

“기도 중에 있노라니, 크고 붉은 십자가를 든 수녀들의 끝없는 행렬이 갑자기 나의 내적인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 줄로 가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자서전 1,219)

현재 이 수녀들은 4백 명 이상이고 멕시코와 과테말라와 스페인에 주재하고 있다.

“며칠 뒤 주님께서는 『이 여자 수도원을 창립한 다음 남자 수도원도 세우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자서전 1,222-223)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온 교회에 알려질 것이었다. “그렇다. ‘십자가 사도직’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가 내게 큰 영광을 주게 될 것이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콘치타에게 그녀가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의 일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알려 주셨다. 콘치타는 이에 관하여 즉시 영적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마르가리타 마리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두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서로 다른 일을 위해서, 곧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또 한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일기 1894년 5월)

나중에 콘치타는 ‘예수회’의 호세 알솔라 관구장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도직은 내가 복녀⁵⁾ 마르가리타 마리아에게 계시했던 내 성심의 사업을 계속하고 완성하는 사업이다. 너는, 외적으로 보이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신적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게 말하여라. 이제 이 십자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은 십자가 안에 못박혀 있는 내 성심 쪽으로 영혼들을 끌어당기기 위함이다. 이 사업의 본질은 내 성심의 내적 고통을 알리는 데에 있다. 사람들은 이를 미처 몰랐지만 나에게 그것은 그것이 갈바리아에서 내 몸이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수난이었으니, 그 강도와 지속성 때문이었다. 이 수난이 성체 안에서 신비적으로 영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세상이 알아 온 것은 마르가리타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인 내 성심의

5)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1647-1690)는 교황 베네딕도 15세에 의해 1920년에 시성되었다.

사랑이었다. 그러나 내 성심의 고통을 알리는 일은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다만 그 상징들을 외적으로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니 고통의 그 무한한 바다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서 온 세상에 이를 알려야 한다. 신자들의 고통이 내 성심의 고통의 무한성과 결합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 대부분이 쓸데없이 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도직을 통해서 그 고통을 활용하여 영혼들에게는 은혜를, 내 성심에는 위로를 얻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달 전 낮 시간에 갑자기, 『십자가 사업은 내 성심 사업의 계속이다. 이 사업에는 내가 복녀⁶⁾ 마르가리타 마리아에게 주었던 계시의 계속도 포함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1899년 11월 14일, 예수회의 호세 알솔라 관구장 신부에게 보낸 편지)

10. 변화된 일상 생활

우리는 콘치타를, 황홀경에 빠진 눈을 하고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 신비가의 모습으로 상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은 필자에게 거듭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의 외적인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성당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어머니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 정신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적 완덕에 대하여 그녀 나름의 생각을 나타낸 페이지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그녀가 1894년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실행한 영성수련 끝에 “피정 결심들”이라고 제목을 붙인 대목을 검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 때 콘치타의 나이는 서른 두 살이었으니, 이는 어느 수녀의 “결심들”이 아니라 이미 결혼하여 아이들의 어머니요 집안의 안주인이 된 한 부인의 “결심들”이다. 그녀는 지도 신부의 권유로 이 결심들을 꼼꼼하게 세분하였는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결심이 17가지였고, 자녀들과의 일상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23가지, 그리고 의롭고 착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을 대하기 위한 결심은 7가지였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 남편에 대하여

— 그의 신뢰를 잃기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 그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빛을 청할 것...

— 그가 내 안에서 위로와 성덕과 친절과 전적인 희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그가 내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느님을 투시할 정도가 되게 할 것...

— 어떤 모양으로나 그의 가족에 대하여 결코 나쁘게 말하지 말 것. 언제나 그들

6) 각주 5) 참조.

을 용서하고 침묵을 지키며 그도 역시 내 가족을 존중하도록 마음쓸 것...

— 아무에게도 아쉬운 것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절약에 유의하되 지나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비용이 드는 여러 가지 일은 나 자신이 하도록 할 것. 모든 상황에서 재치 있게 행동하며, 힘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 것...

— 아이들의 교육으로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 다 언제나 의견을 같이하면서 활기차고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처신할 것...

· *아이들에 대하여*: 특히 세심한 정성과 주의를 기울일 사항이다...

— 아이들에게 개인용품의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덕을 실천하도록 권유할 것...

— 기도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여 경신 행위에 싫증을 내게 하지 말 것. 반대로 짧고 열렬한 기도들로 환호성이 나오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고 싶어하도록 힘쓸 것...

— 아이들 각각의 특성을 연구해서 좋은 점은 북돋아 주되, 나의 본능적 애정 때문에 굴복하지는 말 것. 나의 결정이나 결심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면 바꾸지 말고 대체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것. 아이들에게 이를 따르게 함과 동시에 그들의 신뢰도 얻을 것...

— 아이들이 자기네 아버지가 실천하고 있는 어떤 신심 행위들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무슨 일 속에서든지 아버지의 모범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할 것...

— 내 아들들로 하여금 극히 사소한 일 속에서도 자제할 줄 아는 남자다운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하느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어, 그들이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몇 번이라도 죽음을 택하게 해 주시기를, 온 영혼으로 간청할 것...

— 내 딸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처신할 것.

· *다른 가족들, 곧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나는 상냥하고 공정해야 한다...

— 품행이 방정하도록 그들의 도덕성을 보살필 것...

— 금전적으로 도와 줄 것. 그리고 병이 들 경우 되도록 나에게서 도움을 받게 할 것...

— 무엇보다도 특히 그들의 영혼 사정을 돌보면서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앙 면에서 그들을 교화하며 반드시 미사 참례 의무를 다하도록 배려할 것.”(일기 1894년 10월 6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콘치타의 모습이다. 서른 두 살의 이 젊은 부인이야말로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가정 주부인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행동 지침이 될 “생활 규칙”을 스스로 작성했다. 그러나 엄격한 규칙이 되지 않게 한 것은 하느님께 충실하고 남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녀가 자기의 정신을 각성시켜 활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구절들이다.

— 항상 더할 나위 없는 완전을 지향하며 실행할 것.

—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찾으며,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를 것.

— 무엇을 실천할 때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심사를 추구할 것.”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현실 감각과 융통성을 심분 살려 이렇게 덧붙인다.

“내 ‘생활 규칙’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생기더라도 속끓이지 말고 침착하게 계속하자. 난국에 처할 때는 융통성 있고 겸손하게 대처할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나 앞으로!”(1894년 8월 21일에 작성한 그녀의 “생활 규칙”에서 뽑은 대목)

콘치타는 세상의 여느 부인이나 어머니나 다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으므로 모임에 참석하든지 여러 가지 흥행물을 보러 가기도 했다. 그런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어디에 가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다. “간밤에는 서커스를 보러 갔다.”(일기 1894년 8월 12일) “오늘은 좀 있다가 극장에 갈 것이다. 내 마음과 영혼은 세속적인 것을 기피하고 있지만 함께 갈 남편에게는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면 남편이 매우 언짢아 할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심분 조심하면서 말이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가 사방에 있다. — 오, 예수님, 도와 주십시오! 저에게 자제력을 주시어 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없게 해 주시며,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충실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처신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일기 1894년 5월 17일)

다음은 사육제에 참석하게 된 그녀의 모습이다. “어제는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오후에 남편과 함께 덮개 없는 마차를 타고 끄찍하도록 야단법석인 군중 속을 네 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것에 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랑과 보속과 고행의 행위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일기 1900년 2월 28일) 그녀는 사육제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세속적인 여자가 아니라, 미친 듯이 즐기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들을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여자인 것이다.

그녀는 다만 자기 가정 속에,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있을 때에만 편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모임이나 축제 자리에서는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나 그녀를 만나고 싶어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이며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특히 자기 자녀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나는 내 여덟 아이의 마음을 교육해야 한다. 그 여덟 가지 성격과 싸우면서 악을 멀리하게 하고 선으로 이끌며 그들 안에 선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 어머니의 이 사명을 경건하게 완수하려면 오랜 인내와 깊은 지혜와 많은 덕행이 필요하다. 모든 기도 중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첫 부르짖음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은총의 간청이다. 물론 나는 위에서, 곧 무한히 선하신 하느님과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이 모

든 기원을 들어주시리라고 바라고 있으며, 특별히 마리아께 남편과 아이들을 맡기며 봉헌했다. 마리아께서 그들의 방패와 빛과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사랑하올 보호자가 되시리라. 그분께 대한 사랑에 찬 신심이, 위태롭고 비참한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리라.

— 오 어머니, 저희를 도와 주소서. 당신 순결의 망토로 저희 모두를 감싸주시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까지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오 마리아님, 당신 순결로 제 아이들을 휩싸시어, 그토록 사랑스러운 그들의 영혼을 절대로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하느님의 것이 되기를, 하느님만이 그들의 숨이요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복되신 동정녀시여, 당신 눈길로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들은 제 아이들이기 이전에 어머니의 아이들이옵니다.”(일기 1899년 8월 16일)

콘치타의 일상은 여느 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이 고통과 기쁨의 교체 속에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어제는 내 서른 일곱 번째 생일 축하연이 있었다. 외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내가 남편과 아이들과 다른 식구들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은 만족한 날이었지만, 마음속은 슬픔과 공허감이 가득했으므로 그런 나를 억제하려는 투쟁으로 괴롭기도 하였다. 내가 기쁨을 느꼈던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많이 타는 것을 보며 큰 박수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그러나 이것이 허영심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애써 쫓아내었다. 나는 받은 선물을 전부 주님께 바쳐드리고 내 소중한 가난 안에 머물러 있었다. 나의 나락을 생각하니 몸이 떨렸다.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할 기회를 너무나 많이 제공하고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제, 하느님의 손에 나 자신을 남김 없이 맡기면서 그 거룩하신 뜻에 바친 전적인 봉헌을 갱신하였다.”(일기 1899년 12월 9일)

집안에는 걱정거리들이 적지 않았고 때때로 건강 문제가 그녀에게 중압감을 안겨 주었다. 그녀 자신이나 아이들이 중병에 걸려 죽음이 가정 생활 속을 스쳐지나가기도 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고하신 계획에 따라 무덤 언저리에서 내게 영원으로 통하는 문을 상기시켜 주셨다. 지금도 글을 쓸 기력이 거의 없지만 일기를 계속하려고 다시 펜을 잡았다. 지독한 폐렴에 걸려 무덤으로 갈 뻔하다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이렇게 허약하고 아픈데, 더욱 괴로웠던 일은 막내딸애도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아이는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 있다. 이 병 때문에 내 첫아이기를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미에게는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고통인지! — 그러나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일기 1898년 4월 21일)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다른 여러 십자가도 지게 하셨다. 오직 하느님의 도움만이 그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지게 할 수 있었다. 나는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고, 진실로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느님의 팔에 나를 온전히 내맡기는 전적인 포기를 실천해야 했으니, 어머니이며 아내인 내가 아이들에게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본성상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매순간 큰 평화를 발견하였다. 그래도 이따금 두려움이 엄습하

7) 그러나 장티푸스로 1893년에 죽은 카를로스는 콘치타의 둘째 아이였다.

여 불안했으므로 어느 밤에는 주님의 품속으로 숨어들면서 『저는 두렵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대답해 주셨다. 『안심하여라.』 그분의 이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평화와 한없는 신뢰를 느꼈고,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얻었다.”(일기 1898년 4월 21일)

이와 같이 그녀는 허약한 몸으로 병치레를 하며 지냈다. 그럴 때에도 고통은 속으로 혼자 견디고 얼굴에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고통에 대하여 투덜거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고통을 드러내 보이면 네 공로가 줄어들 것이다. 말없이 고통 받아라. 침묵 중에 은밀히 십자가에 달린 채 내가 네 안에서 일하며 이 땅을 지나가게 해 다오.』”(일기 1898년 4월 30일)

그녀의 가정에는 즐거움과 활기가 있었다. 자녀들은 필자에게 “엄마는 늘 웃으셨어요.” 하고 말했는데, 1954년에 처음으로 멕시코에 체류했던 필자가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세목에 대하여 질문을 한 다음 그 체류 끝 무렵에 “여러분의 엄마는 위대한 성녀였으며 위대한 신비가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자,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성녀이셨는지 신비가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처럼 위대한 엄마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11. “내적인 수도원”

그러한 삶의 비밀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의심할 여지없이 하느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사랑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녀의 일상 생활은 신앙으로 변화되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점은 도무지 없었다. 다른 모든 부인들과 유사한 생활을 하는 부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 이상적인 모델을 형성하고 계셨으니, 바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오늘날의 부인들을 위한 모델이었다. 가정은 그들의 일상적인 일터이기도 한 바 복음적인 단순함으로 그 일상사들을 행하고, 모든 본분에 충실하고, 너그럽고 헌신적이며 때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용감한 부인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는 현대 세계에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여성적 성덕일 것이다. 주님께서 콘치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는 너를 홀로 나만이 아는 성녀로 기르고자 한다. 내가 너를 돌보며 일깨우고 지도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의 바람은 네가 숨은 덕행들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결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덕행들 말이다. 나는 이 암초가 지긋지긋하다.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에 부딪혀 좌초하거나 멸망하고 말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내 것이 된다면, 또 내 말을 귀담아듣고 너 자신을 업신여기며 그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면, 그래서 마침내 네 눈길과 마음이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된다면, 내가 너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일기 1895년 4월 19일)

이 주인께서는 당신의 겸손한 여종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감춰진 삶의 길을 따라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나는 성인이 되고 싶다. 내 비참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이 끝없는 열망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내 영혼은 그 소망을, 그런 유형의 성덕에 대한 크나큰 소망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열정적으로 주님께 간청했다. 밤의 어둠과도 같아 하느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은밀한 성덕을 바라는 것이다. 낮의 환한 빛은 내 영혼에서 일시할 만한 것만을 드러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더욱이, 세상이 나를 『인간도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모욕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새번역 시편 22,7)로 여겨 주기를 바라는 열망도 마음속에서 타올랐다.”(일기 1897년 9월 19일)

콘치타는 외적인 소란과 매일의 일과 중에서도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기 위해서 그녀 자신의 “내적 수도원”으로 피신하곤 했으니, 마치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가 믿음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뵈기 위해서 자신의 “내적 수방(=독방)”으로 들어가곤 했던 것과 같았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옛날 당신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치의 교훈과 같은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요한 15,4-5 참조) 그분께서는 콘치타에게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마음이 외부로 흩어진 채 사람들과 더불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선 안 된다. 네 사명은 다른 것이니 더할 수 없이 충실하게 그 사명에 부응해야 한다. 쓸데없는 대화나 말은 그만 하여라. 너는 네 영혼 내부의 성소에 은둔해서 살아야 한다. 바로 여기가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성소에서 너는 살고 또 죽어야 한다. 여기에 너의 기쁨과 위로와 안식이 있다. 이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너를 특별히 지어내었다. 그러니 오늘부터 네 영혼 깊은 곳으로, 이 곳의 내부로 들어오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곳이지만 행복이, 곧 나 자신이라는 행복이 있는 곳이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이리로 인도할 길은 겸손과 잠심(潛心)과 침묵이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했던 이 ‘내적 수도원’(claustrum interior)에 은둔하여라. 마리아께서 네 안주인이 되시도록 너를 봉헌하면서 말이다.

여기에서 너는 완전한 순결을 발견하리니, 이 덕행의 크기를 충분히 알아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영혼의 순결 안에 비치는 하느님의 반영을 볼 것이고, 여기에서 너 자신의 성화와 너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성령의 선물과 열매들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여기에서 네 영혼은 날개와 힘을 입고 날아올라 네가 약간 체험한 적이 있는 하느님의 무한성 안에 잠기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층 더 큰 덕행들의 들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스스로 십자가에 못박히면서 그 덕행들을 닦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너의 수도원이며 너의 수도적 완성이다.

수도자가 되려면 육신을 가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적 수도원’이야말로 온전히 내게 속하고자 하는 영혼의 성화에 본질적인 것이다... 너는 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이 내적인 성소에서 나가지 말아라. 외적인 의무도 네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실행하는 한, 부단한 내적 잠심이 오히려 그 활동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하여 완덕을 추구한다. 바로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실천적인 길을 네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순결하고 명상적인 영혼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영혼 안에서 산다. 그런 영혼은 소란과 자만이 아니라 내적 고독과 자신을 업신여기는 희생 안에서 산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여기 이 성소에 참된 덕행이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눈길과 성령의 거처가 있는 것이다.”(일기 1897년 8월 15일)

12. 신적 계시의 조명

콘치타는 그리스도 안에 은둔한 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았다. 그러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녀의 가슴이 교회적 차원까지 확장된 것이다. “주님께서 내 앞에 영적 파노라마를 펼쳐 보이셔서 경탄으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가 갑자기 영성생활의 가장 심오한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황홀한 아름다움과 무서운 심연과 그 기쁨과 위험을 고요히 바라보았다. 그분께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 미지의 영역 속으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한 채... 이 내적인 빛의 섬광이 아무 때나 내 안에서 솟는 까닭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것이 이처럼 환한 빛과 더불어 내게 나타나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고 알지 않을 수도 없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자연적인 것이어서 내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 정신의 조야한 무지와 한계를 아는 까닭에 **이러한 빛은 특별한 것**이며 하늘에서 오는 은총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 비록 내가 그 목적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일기 1901년 3월 21일)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에 빛을 주시려고 학문적인 교양이 없는 일개 평신도 여성을 미리 정해 두셨던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바로 여기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적 빛의 이유가, 곧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비에 관한 그 초자연적인 직관의 이유가 있다. 다음에 그 몇 가지 예만 옮겨 보겠거니와, 이는 콘치타의 생애라는 화면에 비치는 단순한 이야기를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함이고, 그녀의 위대한 영성 주제들은 제2부에서 제시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성덕의 길, 교회의 신비 및 사제들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신비와 삼위일체의 심연에 대하여 서서히 밝혀 주셨는데,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그녀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과의 관련 속에서 밝혀 주심으로써 그녀가 하느님을 향해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던 것이다.

다음은 하느님의 무한성, “있는 나”(새번역 출애 3,14)라고 하시는 분의 본질, 삼위일체와 말씀의 육화, 그리고 말씀의 영원한 탄생에 관한 교리들을 함양(涵養)하는 몇 가지 인용문이다.

· **하느님의 무한성을 비추는 빛**

“나는 하느님의 무한성을 비추는 매우 강렬한 빛을 받았고 체험하기도 했다... 모든 속성 들 안에서 또 각 속성 안에서 너무나 크고 무한하신 하느님을 보았으니, 마치 그 바다 속의 물 한 방울과 같이, 그 무한한 지평 속의 한낱 티끌과 같이 사라진 느낌이었고, 하느님 안에 꼭 잠긴 느낌이었다. 마음의 한없는 욕망이 그분의 무한한 품안에서 넘치도록 충족됨을 느끼면서 나는 그분을 껴안았고, 하느님 안에서는 아무 것도 줄어들지 않고 그분과 같아진다는 것, 정말이지 언제나 그분과 같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에 잠겼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 — 다만 감지하고 맛볼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또한 무한히 높으신 그분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그분의 위대성과 권능 앞에서 나의 무능과 약함을 자각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느꼈다. 내 하느님이신 그분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토록 크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자 나의 무가치와 나약과 하찮음과 허무가 큰 기쁨으로 오는 것이었다...

또 한 번은 내 하느님의 이 놀라운 계시적 현존을, 홀로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이 유일한 존재를, 그분을 향한 한없는 욕망 — 억누를 길 없는 부단한 욕구랄 수 있는 내가 존재 가장 깊은 곳으로 체험한 순간이 있었다... 그 때 나의 내부에는 일종의 조화와 하느님 자신과의 유사성 같은 것이 느껴지고 있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영혼의 존재와 그 불사불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의심하는 가련한 사람들은 따라서 내가 지금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바를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순간에는 커다란 불꽃처럼 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내 영혼의 동경(憧憬)이, 뭐랄까, 거대한 증기터미와 같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치솟아 그 대상 속으로 사라지며 녹아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거침 『하느님! 하느님!』 하고 부르짖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 그러고 위대하신 분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셨다. 내 구원자가 되신 내 창조주... 온전히 거룩하신 이 생명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열망하셨던 것이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이를 묵상하면서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우리 하느님의 무한성을 이리도 격렬하게 실감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일기 1895년 3월 10일)

· **“나는 있는 나다.”**(새번역 출애 3,14)

콘치타의 정신은 그르침 없는 교리에 대한 확신과 아울러 신적 계시의 지고한 절정에까지 올라갔다. 이집트 탈출기(=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절정은 선택된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계약의 하느님으로서 당신 자신의 가장 내밀한 본성을 드러내신 곳이다. 성 토마스는 과학적이고 건축학적인 비범한 재능으로 이 성서 텍스트에서 발견한 “지고한 진리”를, 곧 “나는 존재 자체이다.”를 그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a)의 홍예문을 여는 열쇠로 삼았다. 토마스 신학의 종합은 이 근본 진리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느님께서 한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당신 존재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허무를 자각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이를 영적 상승의 출발점으로 삼게 하시려는 것이리라. 주님께서는 같은 기본 진리를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게도 알려 주시지 않았는가?... 성녀가 신적 현시들을 보기 시작한 초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신 어느 날, 기도 중인 그녀에게 발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네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이중적인 지식을 네가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 자이고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 진리를 영혼 깊이 간직하여라. 그러면 원수가 결코 너를 속이지 못할 터인즉, 네가 그의 모든 함정을 미연에 피하게 될 것이고 내 계명을 거스르는 어떤 행위에도 동의하지 않게 되어 모든 은총과 진리와 계시적인 빛을 쉽사리 얻게 될 것이다.”(Bx. 라이문도 데 카푸에 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전기」 10장)

하느님께서는 거의 같은 모양으로 멕시코의 이 위대한 신비가에게도 말씀을 건네셨으니 그녀는 몸돌 바를 모르도록 당황한 채 그 지고한 신적 계시를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였다.

“『나는 영원히 있다. 곧 ‘나는 있다’가 영원성 전체를 휩싸고 있다. 그런 나에게는 ‘전’도 없고 ‘후’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러니 ‘나는 있었다’거나 ‘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영원히 있다.』

『주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내 영원한 존재의 가장 깊은 데로부터 시작도 없이 나는 있다...지금 나는 있다... 영원히 나는 있다, 나 스스로 나는 있다. 아무 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것을 주는 자다. 나는 나 자신의 본질에서 태어난 모든 완전성과 속성을 내 안에 지니고 있다. 영원하기에 나는 행복하고, 영원한 진리인 나 자신 안에서 항상 즐겁다. 완전한 일치 안에 존재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오로지 하나인 실체 안에 존재하는 삼위가 바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삼중으로 거룩하신 너의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사실 나는 너무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정신이 빠져나간 듯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처럼 높은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내 허무의 깊이 모를 심연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진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믿고 흠숭할 따름이다!...

이것이야말로 겸손에 대한 가장 훌륭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토록 크신 하느님 앞에서 한낱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큰 무엇이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그 무한하신 선성에 비하여 어떻게 자신을 선한 무엇으로 여기며, 그 영원하신 완전성을 비추는 찬란한 빛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그 영원하신 진리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순수하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오! 가련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무엇이라고 여기거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일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느님 가까이에 이르러 그분 존재의 어떤 점을 눈곱만큼이나 마약보게 된 이래, 나는 먼지 속에 이마와 가슴을 묻고 엎드린 채 다시는 몸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일기 1896년 8월 8일)

· 삼위일체와 말씀의 육화

성삼위께서도 그녀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육화의 길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이는 신비가들에게 늘 적용되는 방식이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광채를 보게 하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내 심령을 드높이셔서 말씀의 육화를 관상하게 하셨다. 성삼위의 제이위이신 그분께서 삼위일체에 관하여 매우 심오한 사실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계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데로부터, 당신 자신의 실체와 본질의 가장 깊은 데로부터 당신의 말씀을 낳으셨다. 한 처음, 역시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이신 말씀이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오직 하나의 같은 신적 실체를 이루며 함께 계셨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도 아버지와 아들 양위(兩位)만이 홀로 계신 적이 없었으니, 역시 같은 위(位)로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반영이요 본체이며 본질인 성령도 같은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다. 성령은 같은 신성 안에 계신 하느님의 반영이고, 사랑 자체 안에 계신 사랑의 반영이며, 빛 자체 안에 계신 빛의 반영이고, 생명 자체 안에 계신 생명의 반영이며, 마찬가지로 영원한 완전성 안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수없이 많은 모든 완전함들의 반영이시다. 같은 실체와 같은 본질과 같은 생명과 같은 완전들이 실제로 유일하고 같은 본질과 실체와 생명과 완전성을 이루는 이 친교 안에, 같은 하느님의 영원한 지복(至福)이, 엄위로우신 삼위일체의 끝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오! 우리의 하느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무한히 위대하신 분인가! 게다가 그분 안에는 얼마나 깊은 불가해(不可解)의 심연이 있는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아들을 수 없는 심연이! 하느님의 이 위대성 앞에서 나는 더할 수 없이 작은 먼지 알갱이 같았다. 그러나 영혼은 무한하니까 약하게나마 같은 위대성의 반영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자, 기쁨에 넘쳐 크게 확장된 내 영혼이 자기

하느님의 지복과 영원성과 불가해성과 무한성을 관상하는 것이었다.

아니, 말씀께서 저기 계시잖아? 나는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분께서 저 옥좌에서 이 땅의 한낱 먼지 알갱이를 향해 내려오시다니! 오 영원하신 하느님, 그토록 크신 겸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삼위의 제이위이신 말씀이 마리아의 지극히 깨끗하신 태중에 내려오셨다.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말해 준 대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니, 말씀이 육화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는 홀로 하느님의 사랑만이 실현할 수 있는 더없이 깊은 겸손이었다. 말씀이 인성을 취하심과 동시에 그 몸에서 생명을 주는 거룩하고 지극히 깨끗한 영혼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땅에 내려왔다고 해도 구원자인 그의 인성 안에 하느님의 위격은 그대로 지니고 계셨다.』

이 기묘하고 숭고한 신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심오해서 표현할 말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으니, 듣고 나서도 혼자 간직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극히 거룩하신 육화의 신비를 묵상하노라면 그 일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느님 안에는,』 하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다. 『서로 구분되는 삼위가 계시지만 오직 하나의 뜻과 같은 본체와 같은 권능이 있을 뿐이다. 이 전능하신 뜻이 말씀의 육화 신비를 실현하셨으니, 이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 곧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셨다는 의미이다... 이 제3위께서는 빛과 사랑의 유대이며 모든 생식력의 신적 원천이시다. 따라서 내가 요르단 강둑에 올라서자 모든 이들의 눈앞에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나타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하시는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다.』”(일기 1897년 2월 25일)

다음은 기묘한 일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일이다.

· ‘말씀’의 영원한 태어나심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신성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에 이르도록 내 영혼을 들어올리셨는데 나는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더럭 겁이 났다. 그 날 밤 따라, 할 수 있는 한 저항하며 버티었더니, 그 벌이거나 한 듯 마음이 얼음처럼 싸늘해지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성체를 받아 모신 즉시 신적인 충동을 느꼈다. 다시 할 수 있는 한 억눌렀지만, 미처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국 하느님께 내 영혼을 열고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뜻에 내맡겼다. 그렇게 하자마자 빛과 투명한 광채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의 심연에 잠긴 느낌이었는데, 이것이 내 안의 모든 감정을 휩쓸어 간 채 영혼을 오직 하나의 점에 고정시켜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 같았다. 그 하나

의 점이 바로 투명한 순수와 무한한 광채의 심연이신 하느님!, 하느님이셨다!

거기에서 나는 보았다. —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 ‘보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일찍이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영원한 태어나심이었다. 이는 내가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영원한 태어나심이라니! 하느님의 태어나심이라니! 오! 이 말에서 내가 느낀 일체를, 그것이 내 기억과 마음에 남긴 인상을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이 거룩한 탄생에 대해 그 순간 내가 느끼고 받은 인상은 너무나 생생한 것이어서 아직도 몸이 떨리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 때 내가 본 것은 매우 강렬하고 순수한 빛의 거대한 도가니였다. 원래 존재하는 그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부터 갑자기 눈부신 신적 광선이 치솟았다. 일체가 신적이었다. 그것은 시작이 없는 영원 속에 존재하는 동일한 신성이었다. 내 영혼은 이 때 그리로 옮겨진 것처럼 그 빛과 불과 생명의 격류가 말하자면 출발했던 바로 그 도가니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자신에게 반사하며 자신에게로 다시 흘러드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놀랍게도, 그 동일한 신성의 빛과 불과 생명의 휘황찬란한 광채 속에서, 나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깨달았다!

그리하여 성삼위 각자 사이에는 선후(先後)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지만, 내가 본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여 보게 되었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다.

성부의 모든 완전성을 입으신 말씀의 탄생과 아울러 하느님의 이 양위께서는 하나의 같은 실체와 같은 뜻과 같은 능력과 같은 아름다움과 같은 빛과 같은 생명을 이루셨고, 이 유일무이한 순간에 그 양위 사이에는 기쁨과 지복과 사랑의 결합이, 그렇다, 제3위를, 곧 성령을 낳으시는 결합이 확립되었다. 성령께서 일체를 완성하시니, 그분은 성부와 성자의 결합에 필수적인 끈이시다. 성령께서 부재하신다면 성부와 성자께서도 존재하실 수 없을 것이다. 성삼위의 이 불가분적 일치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느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 누구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 신적 일치가 성인들의 지복과 천사들의 순결과 치품 천사들(seraphim)의 타오르는 불꽃을 이룬다.

— 오 삼위일체시여! 복되신 삼위일체시여! 그늘 한 점 없으신 빛의 빛이시여, 저를 수정처럼 맑게 하시어 제 안에 당신 신성의 빛살들이 비쳐 보이게 해 주소서. 오 영원한 태어나심! 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저는 당신의 불가해한 지복의 숭고한 비밀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단 한 점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저의 생명과 죽음 — 그것이 죄 없는 것인 한 — 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성삼위께서 동일한 생명을 살고 계신 그 행복의 도가니를 관상하면서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정말이지 잘 모르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성삼위께서는 서로 구분되면서도 하나의 같은 중심에 일치해 계신다는 것을, 하나의 같은 사랑과 같은

본체와 같은 행복과 같은 완전함으로 일치해 계신다는 것을!”(일기 1897년 7월 17일)

이러한 교의적 높이로 말미암아, 필자는 어느 날 로마에서, 하느님의 종 콘치타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멕시코의 추기경 각하에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단지 한 여성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추기경은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13. “그들은 내 영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십자가의 사업들’ 창립에 보인 콘치타의 개인적인 신중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의 종의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인데다 내적인 비밀에 싸여 있고 열광적인 환영이나 혹은 심한 반대들에 싸여 있기도 해서 어차피 몇 가지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멕시코의 대주교가 이 문제의 고문역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콘치타의 생활과 기록들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다음에 나타나 있듯이 그녀는 언제나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의 거룩함과 무류성을 믿는다. 교회의 교리 내지 교의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일기 1900년 3월 31일)

콘치타는 1900년 10월, 신학자들과 이런 문제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게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1900년 10월 1일. 오늘 엄격한 심사를 받고 기도를 마치고 나자, ‘마리아 성심수도회’의 순시자요 총장이신 멜레 신부님께서 내 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당신께서 이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확인해 주셨다.”

그 이튿날인 10월 2일 일기에는 단지 이렇게만 덧붙여져 있다. “오늘은 바오로회의 관구장이며 순시자인 델 모랄 신부님께서 내 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증해 주셨다.”

제3장 홀어미 생활

“오 고독과 고뇌와 고통의 밤이여!...”

1. 남편의 죽음

17일 저녁 일곱 시 오 분 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16년 10개월 9일 동안 남편으로 주셨던 사람을 데려가셨다. — 주님께서 그를 내게 주시고 또 주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11일 밤의 격심한 내적 고통이, 웬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남편의 생명을 바치도록 요구하실 것이라는 예감이 들게 하였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내 인간적인 마음은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내적 고통을 겪는 동안 나는 엎드려 있었는데, 하느님의 뜻에 나 자신을 봉헌하면서 내 안에서 희생의 면적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크기 전체가 뚜렷이 가능되기도 하였다.

얼마나 힘든 싸움... 얼마나 큰 아픔... 얼마나 혹독한 고통이었는지! 그 날카로운 칼은 어떤 부드러움도 위로도 없이 내 영혼을 꿰뚫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성작을 내게 주시고 한 방울 한 방울 끝까지 다 마시게 하셨다. 하지만 이 며칠 내가 감실 앞으로 가곤 한 것은 거기에서 지탱할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오, 그분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지 않았다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남편의 목숨이 사그라지고 있는 것을 시시각각 바라보며 확인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남편은 참으로 모범적인 남편이며 아버지였다! 얼마나 올곧은 사람이었는지! 나와 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곱고 섬세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참으로 일거일동이 정중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매사에 성실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맙소사! 내 가슴은 애통으로, 또한 그에게 내 영혼의 비밀을 알려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로 가리거리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별이 가까웠음을 보고 있음에 따라 그에 대한 애정이 갈수록 더 육중한 크기로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지력도 신앙도 이성도 없고 오직 마음만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영성 생활이 딱 지겨워지기도 했으니... 얼마나 괴로운 나날이었는지!...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 괴로운 밤들이었는지!...

— 오! 하느님의 은총이여,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며칠에 걸쳐 내가 바칠 수 있었던 기도는 오직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뿐이었는데,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리하여 내 심장을 똑바로 내리치며 내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앗아가려고 온 그 무서운 타격을 조용히 받아들이 수 있었던 것이다.”(일기 1901년 9월 27일)

“하긴 이에 앞서 나는 그가 고해 성사를 받고 거룩한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배려해 둔 터였다...그리고 ‘임종자를 위한 기도’와 ‘선종기도’를 여러 번 바쳤다. 또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격려해 주려고 되도록 많은 화살기도와 통회기도를 바쳤고, 믿음과 바람과 희망의 기도인 삼덕송도 바쳤다. 그것도 마음 깊이 자꾸 반복하였다. 이렇게 내 마음은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의 가혹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와 함께 임종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아니, 나 혼자 겪은 것

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런 나를 지탱하시며 함께 계셔 주셨다.

아이들 가운데서는 큰아이들 넷만 아버지의 침대를 둘러싸고 임종을 지켰다. 그 엄숙한 순간에 나는 침묵을 명했고, 사제 두 분은 그에게 전대사를 주셨다. 이어서 나는 위령기도를 바쳤는데, 오 하느님! 그 때의 내 심정은... 오로지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즉시 나는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종신 정결 서원을 하였다.

그런 다음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를 모든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였다. 내 생각에 이제 그는 일체를 볼 수 있고 내가 영적 비밀을 털어놓지 않은 사유도 틀림없이 이해할 것 같았다. 종부성사를 받은 그에게 나는 마지막 조언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의 여덟 아이들을 각각 축복해 달라고 청했다. 이윽고 내 차례로 그의 축복을 청했으며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였다.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나는 아이들을 다가오게 하여,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또 선종의 은혜를 얻도록 아버지의 덕행들을 본받겠다고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저마다 약속하게 하였다. 그 뒤 맏아들과 나는 내 동반자였던 그 사람을 관 속에 안치하였다...

오! 고독과 고뇌와 고통의 밤이여!...”(일기 1901년 9월 27일)

2. 묘지 참배

“남편의 생일인 오늘, 아내요 어머니인 나의 마음은 여간 슬프지 않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고 아이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오전을 보냈다. 그의 유해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러자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 생각이 났다... 맏소사, 이는 얼마나 여실한 현실인가! 얼마나 중대한 묵상거리인가! 죽음은 참으로 무섭도록 진지한 무엇이다! 이것이야말로 시간과 영원, 선과 악, 덧없이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실재를 비교 검토하게 하는 것이다. 맏소사! 나는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괴로워하며 또 깨닫기도 했던지! 내가 그리도 사랑했던 사람을 덮고 있는 흙은 최근에 땅을 파서인지 아직도 축축하였다. 내 아이들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다시 흙을 적셨다. 우리가 거기에서 생겨났고 또한 그리로 돌아가게 될 흙을! 그러자 흘러간 세월과 그 추억들이, 곧 그 고통과 기쁨과 꿈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머리 속을 스쳐갔다. 죽음의 입김에 달자, 일체가 단숨에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었다.

오! 인생은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짧은가! 현재와 과거가 얼마나 서로 근접해 있는가! 이 시간을 오직 하느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일기 1901년 10월 4일)

3. 남편의 면모

“내 남편은 매우 선량했고, 그리스도인다운 기품이 있는 신사였으며, 성실하고, 올바르고, 총명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는 (남의) 불행에 민감했고, 나에게 대한 애정이 가득했으며, 자기 아이들밖에는 다른 데에 정신을 팔지 않는 아주 훌륭한

한 아버지였다. 아이들이 그의 행복이었으므로 그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무척 괴로워하였다. 또한 그는 차림새가 단정하도록 신경을 썼으며 행동거지가 섬세하고 예절 바른 사람이었다. 나에 대한 배려도 극진하였고, 단순하면서도 정중하고 고상한,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며, 격하고 불같은 성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드러워졌다. 나를 깊이 신뢰하여 곧잘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자주 내 의견을 물었으며,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다.

결혼 다음날부터 죽는 날까지 나로 하여금 날마다 영성체를 하게 해 준 것도 그였다. 이는 결혼식 당일 내가 그에게 제시한 조건이었거니와 그는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으며 내가 성당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 말기에 병세가 심히 악화되었을 때에도 『영성체하러 가구려.』 하고 말했으니, 그 당시 ‘강생 성당’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나는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무렵에 빠져나갔다가 서둘러 그에게로 돌아오곤 했다.

그가 내 글을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다 ‘일기’ 곧 ‘내심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를 보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당신은 영적인 것에 대한 글을 쓰고 있나 본데, 그것에 대해서라면 난 도무지 알아듣질 못해.』

가끔 나는 그와 함께 극장이나 무도회에 갈 것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특히 우리가 산루이스에서 지낼 때였다. 그가 혼자서는 결코 가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은 죽음을 대단히 무서워했다. 「준주성범」(Imitation de Jésus-Christ)의 몇 대목을 그에게 읽어 주다 보면 ‘죽음에 관하여’란 장(章)과 자주 마주쳤는데, 그는 내가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가 죽기 2년 전부터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더 많이 힘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던 것이다.

그는 질투심도 꽤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번 있었던 일이지만 내가 심하게 아플 때마다 다른 누구도 나를 보살피게 하지 않고 밤낮으로 혼자 간호해 주었다. 주일이면 (국립 성지인) 대성당에 가서 ‘과달루페의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죽기 전에 충고해를 하고 난 뒤 죽음에 대한 그의 공포심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말김으로 바뀌었다. 『내 생각에는,』 하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내가 아이들을 가장 실망시킬 순간일 것 같소.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시면서 하시는 일이니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소.』 나는 그가 선종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내게 그토록 상냥했던 사람의 이마에 내 이마를 갖다 대고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기 위함이었다.”(자서전 1,379-381)

4. 아버지를 여윈 여덟 아이들과 함께 산 홀어미 생활

홀어미 생활이 시작된 초기에 콘치타는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의사들은 그래서 그녀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디에 있건 남편에 대한 생각이 줄곧 그녀를 따라다녔던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그 비극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천 갈래 만

갈래로 찢는 듯한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가장 위안이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었고, 뿐만 아니라 남편 쪽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따랐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죽으면) 너무 어린 아이들을 남겨 두게 될 테니까 자신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던 그가, 『하느님께서 아시면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더욱 그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비통에 짓눌려 으깨지는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어째서 당신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소?』 하기도 했었다.”(일기 1901년 9월 27일)

또 다른 기록 속에, 그녀가 남편과 은밀히 나눈 마지막 대화에 대한 감동적인 기억이 더욱 상세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가 나에게 『여보, 난 죽을 거야.』 하고 말했다... 『아니예요. 당신은 하느님을 볼 거예요.』”(자서전 4,66) “노자 성체를 영한 뒤에 그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 내게는 막내 페드리토를 각별히 돌보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 뒤 나는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다면 부디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축복을 청했다. 그도 나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드리고 싶어요.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고 또 온전히 당신 아이들의 것이 되는 거라오.』”(자서전 4,60)

남편의 죽음은 콘치타의 생활에 돌연한 변화를 초래했으니, 그녀로 하여금 용감하면서도 동시에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게 하였다. “오늘은 내 말아들이 만 열여섯 살이 된 날이다. 그런데 자제하고 있을 때에도 낙담의 순간들 속을 지나가게 된다. 눈물이 어찌나 자주 흘러내리는지 미처 참을 겨를도 없다. 내 인간적인 마음에 수없이 많은 슬픈 기억들이 떠오른다. 괴롭다. 슬픔을 자꾸 찢끔찢끔 마시고 있는 기분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찬미 받으시기를!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내 영혼을 꿰뚫는다... 내 몸도 지칠 대로 지쳤다. 이젠 피로가 속속들이 느껴진다. 내 환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낮도 밤도 없이 계속 옆에 있으면서 몸소 일일이 돌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도 아프다. 막내가 특히 가장 심하게 아프다. 주님께서 당신 십자가로 나를 지탱해 주시기를!”(일기 1901년 9월 28일)

그녀는 9월 30일자 일기에 이렇게 비통하게 덧붙였다. “오늘은 내 평생 가장 고통스러웠던 달이 끝나는 날이다.”

또한 낙담 속에서 성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원한다. “오 저의 어머니, 어머니께 의지한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말을 저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리아님, 저는 당신 안에서 희망하고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의 보호 아래로 피신하오니, 아비 잃은 제 여덟 아이들과 함께 저를 도와 주십시오.”(일기 1901년 10월 3일)

5. 루지에 신부와와 섭리적 만남

콘치타가 펠릭스 루지에 신부를 알게 된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영적 버팀목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들은 장차 ‘성령 선교 수도회’를 창립하게 될 이 섭리적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영적 일기 속에서 피력하였거니와, 이 선교회는 현 시대를 위하여 성령의 고무를 받으며 십자가로 세상 죄인의 사도들이 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될 터였다.

그래서 멕시코의 ‘성령 선교 수도회’는 지금도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고해소를 귀한 유물처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1903년 2월) 3일에 나는 (프랑스인 교구 본당에 붙여진 명칭인) ‘콜레주 드 피유(Collège de Filles) 성당’에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마리아회’의 원장 신부님과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네 시경이었다. 웬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대하여 그 사제와 대화를 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이튿날인 4일, 내적인 어떤 힘이 그 성당으로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설핏 보기에다 완전히 초면인 한 사제가 내려오셨다. 나는 고해소로 다가가서 죄를 고백했다. 그러자 그 사제에게 내 영혼을 열고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의 기쁨에 대해서, 곧 고통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충동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나의 감정이 그의 영혼 안에서도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내 말이 그 영혼의 깊은 데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하기야 그 순간의 내 말은 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어떤 불꽃에, 나 자신을 초월한 그 무엇에 휩싸인 듯 말이 너무나 술술 잘 나오고 있었으니, 바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었다.

나는 그 사제에게 ‘십자가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가 이것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그 영혼 깊은 곳의 성향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가 이 사업을 통하여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리게 되리라는 것을 단박 예측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십자가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십자가에 마음의 급소가 찢려 더할 수 없이 생생하고 거룩한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내가 수도원 이야기를 하자 그는 즉시 멕시코에 그런 수도원이 있는가, 남자 수도원이 있는가 하고 물었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아니, 남자 수도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이 보이는 이 놀라운 만남에 깊은 감동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주님께, 이것이 당신 뜻이 아니라면 그 사제가 나를 다시 만나지도 내 집을 찾지도 못하게 해 주시기를 오랫동안 간청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신부님이 오셨다. 서로 얼굴을 몰랐으면서도 우리는 곧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었으며, 하느님과 ‘십자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시작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이 사제의 영혼에 일으키신 감동과 완덕에 대한 그

의 열망을 이번에도 줄곧 꾀꾀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괜찮으시다면 신부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하고 제안하였고, 완덕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가 이를 수락하자 『그러면 내일 오전 열 시에 그 수도원으로 오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그 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였다.”(일기 1903년 2월 4일)

펠릭스 신부와 이 만남은, 분명한 증표들로 말미암아, 이 신부가 콘치타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삶 속에 항구적으로 들어와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십자가 관상 수녀회’의 지도자 신분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은 콘치타의 첫 지도 신부가 자기 외의 다른 지도자를 용인하려고 들지 않는 어렵고 까다로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콘치타 곁에서 이해심 있고 슬기로운 지주가 될 사람으로 지도자를 바꾸셔서, 하느님을 향한 그녀의 (영적) 상승과 십자가 수녀들의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마리아 수도회’ 소속의 나무랄 데 없는 수도자였던 펠릭스 신부는 이 뜻밖의 만남을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믿으면서 장상들에게 충직하게 보고하였다. 마리아 수도회 총장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으므로 그를 유럽에 잡아 두었다. 펠릭스 신부는 영웅적인 순명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유럽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없이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다.

하느님께서 콘치타 곁에 한 성인이 있도록 미리 정해 두신 셈이었다. 그렇게 십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펠릭스 신부가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첫마디는 단지 이 말뿐이었다. “십자가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가 멕시코로 돌아와 베라크루스 항에 도착한 것은 1914년 8월 14일이었는데, 배에서 내려온 순간에 (박해에 쫓겨) 같은 배에 승선하려고 하는 멕시코 주교들을 만났다. 그를 알고 좋아하는 주교들이었다. 그들은 펠릭스 신부에게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신부는 용감하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라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차제에 제가 당신 사업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펠릭스 신부는 몽상가가 아니라, 안정감 있고 현실적이며 양식(良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고향인 오베르뉴 산악 지대의 바윗돌처럼 흔들림이 없는데다 성인 같은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다. 파리와 로마 및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뛰어난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풍부했던 ‘도미니코회’ 총장 질레 신부는 (펠릭스 신부에 대하여) 1938년에 이렇게 증언하였다. “내 인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만큼 강렬한 성덕의 인상을 내게 남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펠릭스 신부와 콘치타는 생애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일했다. 바로 ‘십자가 사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이었으니, 마치 성 프란치스코 드 살과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상탈처럼 지극히 순수하고 거룩한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고 공동의 계획을 세우며 하느님에 관해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곤 했던 것이다.

6. “나는 신적인 칼이 내 영혼 안에서 세속에 집착하게 하는 모든 것을 잘라

없애는 것을 느꼈다.”

별로 주의를 끌 만한 것이 없는 콘치타의 흠어미 생활은 자녀들의 교육에 온전히 헌신하는 매우 단순한 생활이었는데, 하느님께서 그 일상적인 고통과 기쁨을 통하여 이 간택된 영혼 안에서 정화와 일치라는 당신의 일을 계속하심으로써 그녀 안에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위한 모범을 마련하셨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 슬픔에 짓눌려 으스러진 상태에 있었던 그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는 신적인 칼이 내 영혼 안에서 세속에 집착하게 하는 모든 것을 잘라 없애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각 하느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에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강력한 은총이 나로 하여금 이 새로운 신분 속에서 완덕과 희생과 고독과 숨은 생활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정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것과 그리하여 내가 더욱 당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일기 1901년 9월 27일)

“눈 깜짝할 사이에 생활이 바뀐 느낌이었다. 내 삶이라는 책 속의 한 장이 결정적으로 넘어가 버린 셈이었다.”(일기 1901년 10월 9일)

“이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현세적인 것을 집착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내 남편을 사랑했는지를! 참으로 순수하고 경건한 사랑이었지만 그를 여의기 전에는 사랑의 정도를 헤아려 본다거나 그 강도를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가족과 함께 지낸 어린 시절의 내게는 참으로 많은 결함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로서의 생활에서는 또 얼마나 후회되는 점이 많은지! 소녀가 될 줄도 아내가 될 줄도 잘 못랐던 내가 이제 과부가 되어 어머니로서의 거룩한 본분을 다하면서 완덕의 길을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 두고볼 일이다.”(일기 1901년 10월 9일)

그녀에게 있어서 완덕의 길은 어느 수녀의 길이 아니라, 말의 진정한 의미 그대로 어머니의 길이였다. 이 길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그녀를 성덕의 가장 높은 정상에까지 신속히 드높여 주실 것이었다.

7. 하느님의 은혜들

그렇게 그녀는 하느님을 향해 전진하였다.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집안에 머물러 있었으니,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결코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십자가 사도직을 계속 수행하였다. 기도하고, 항상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여 일기를 쓰면서, 빛과 어두움, 일상적인 어려움과 기쁨의 교체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나아간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점점 더 세차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러므로 아버지 겸 친구이기도 했던 어느 주교에게 이렇게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렇습니다. 저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안고 다니시며 당신의 무한성과 다른 속성들에 휩싸이게 하십니

다. 신비들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열어젖히시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로 하여금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와 성삼위의 친교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지복을, 그 영원한 탄생을, 그리고 향주덕과 순결의 숭고한 기원을 선명히 감지하게 하십니다. 신적 본질의 이 불가견적인 총체, 곧 말씀과 성령과 은총과 빛, 결국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신성한 이 모든 것은 그것이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악마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또 저 자신을 알도록 끊임없이 빛을 주십니다. 이 인식은 저 자신의 비천함 위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해 줍니다. 때로는 그분의 현존이, 특히 제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에, 당신의 빛과 그 빛살들로 저를 꿰뚫어 정화시키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거룩한 음성으로, 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완덕과 악덕에 관한 (거의) 논술에 가까운 말씀을 받아쓰게 하십니다. 저로 하여금 귀 기울여 들으라고 명하시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체할 때에도 그것을 완전히 다 쓸 때까지는 휴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순결과 겸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제 고해 사제들도 그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음란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이어서, 그분에게서, 홀로 그분에게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수많은 의무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곧 과거에는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가 된 4년 전부터는 아이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그토록 많은 와중에도 저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희생을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에 못박히고, 고통과 순교를 갈망하며, 영혼들의 구원과 당신께 크디큰 영광을 드리게 될 ‘십자가 사업’을 위하여 날마다 저의 피를 쏟도록 몰아붙이십니다.

저는 또 고해 사제의 허락을 얻어, ‘예수회’의 몇몇 사제들과 — 그 중 두 분은 관구장이었습니다 — ‘성모 성심 선교회’의 순시 사제 및 학덕을 겸비한 다른 사제들에 의하여, 제 영의 분별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돌려 보낸 뒤 빛을 청하며 기도를 바치고 나서, 저의 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고 십자가 사업도 그분에게서 온 것이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지는 수단들을 취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모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가 (받아)쓴 글에 대해서도, 이는 이를테면 ‘말씀’, 성령, 영적 효력 등 너무나 숭고한 주제들을 다룬 글이어서 저 자신도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과 교의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저는 교회를 제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기에 온 마음으로 무조건 복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충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통 받겠습니다.』라고 한 저의 서원을 따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수년 전에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이를 실현하도록 저를 도와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이 하느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저의 죄들과 비참함을 아득히 능가하는 은혜들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째서 이 하찮은 도구를 당신 은총들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1905년에 몬시뇰 레오폴도 루이스 이 플로레스에게 진술한 내용)

8. 영성 생활의 “중심 은총”

콘치타가 신적인 준비 기간을 거쳐 그녀 영성 생활의 “중심 은총”을 받게 된 것은 나이 마흔 살 때의 일이었다. 그것은 **신비적 강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은총이었다. 주님께서 여러 해 전부터 그녀로 하여금 이를 예감하게 하셨으며, 그것은 은총 중의 은총, 수많은 다른 은사들과 신적인 은혜들의 근원이 되는 은총이었고, 그 일체가 그리스도의 사제적인 영혼의 내적 감정과 하나 되는 점에 수렴되는 것이었다.

콘치타는 이 탁월한 은총에 대하여 글 속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그러나 사건에 가장 근접하게, 또 가장 직접적이고 자연스럽게 서술한 주된 이야기는 그녀의 일기 속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세 국면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다. 즉 그 준비와 실현, 그리고 그녀 개인의 삶과 사도적 광채를 (통해 나타나게 된) 풍성한 결과이다.

· 준비

“나는 교회가 하느님 말씀의 강생을 경축하는 날을 위해 네가 준비를 하기 바란다. 그날 나는 마리아와 결합하기 위해서, 곧 마리아의 지극히 깨끗하신 태중에 육화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왔다. 바로 이날 내가 너의 영혼과 영적으로 결합하여 너에게 새 생명을,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불사불멸의 신적 생명을 주고자 한다.

준비하여라. 너 자신을 정화하여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그 은혜는 아주 큰, 헤아릴 수 없도록 큰 은혜이니 말이다...”(일기 1897년 2월 7일)

이를 알아들은 뒤, 그러니까 1897년 2월 14일, 그녀는 새로운 열정과 천상적인 충동, 완덕과 영혼의 순결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을 느꼈다. 요컨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하여 해가 지남에 따라 그 약속된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쌓아 갔다.

1906년 3월 20일, 그녀는 침묵과 잠심을 열망하면서 새롭게 변화될 각오로 피정에 들어갔다. 피정 강의자는 ‘예수회’ 사제인 마리아노 두라테 신부였다.

피정 초기부터 주님께서 콘치타를 준비시키셔서 그 탁월한 은총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그녀의 특별한 소명과 온전히 맥을 같이하는 준비였다. “나는 피정 중이다... 벌써 그분께서 덕행들을 실천하도록 나를 부추기신다. 벌써 그분의 현존이 나를 빨아들이는 것이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오 저의 생명이시여, 온전

히 당신 소유인 이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당신 수도원의 고독 속에서, 당신 십자가의 배경 속에서 말씀을 주십시오... 영원으로부터 당신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더없이 연약한 어린 시절부터 저를 십자가 쪽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광적인 사랑을 보여 주셨지만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저를 그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일기 1906년 3월 21일)

“주님, 피정의 침묵이 흐르는 이 때에 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은 자애심이 조금도 섞이지 않아 매우 강력한 것이기에, 당신께서 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 당신의 십자가는 그들을 돌려세우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일기 1906년 3월 22일)

피정 동안 콘치타는 과연 자기 자신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았다. 영혼 속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뇌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 형제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따름이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충동 — 완성과 새로운 삶을 향한 충동을 마음속으로 느꼈다.”(일기 1906년 3월 23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게 들려 왔다.

“나는 네가 완전히 내 소유가 되기 바란다... 너의 애정이 송두리째 나를 향한 것이 되도록, 네가 전적으로 내게 속하기 바란다. 나의 안식처인 너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기 바란다.”(일기 1906년 3월 23일)

3월 24일에 그녀는 (교회) 전례가 그 이튿날 경축하기로 되어 있는 **말씀의 강생 신비**에 몰입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⁸⁾ 이를 묵상하자니 마음이 떨린다! 오래 전부터 나의 것이 된 이 말씀에 사로잡힌 느낌이다.”(일기 1906년 3월 24일)

· 실현

그 뒤 콘치타는 아무런 과장이 없는 복음적 단순함으로 하느님의 그 숭고한 은혜에 대하여 서술했다. 자기의 삶에서 그 주된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정성들여 기록하면서.

“3월 25일, 주님의 탄생 예고 대축일.

당신께서는 신중하라는 사람들의 충고에 반하여 저를 이 거룩한 (영성) 수련 피정에 데려오셨고,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즉시 가장 큰 내적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온전히 당신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세속적인 모든 먼지와 애착에서 제 영혼을 정화시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당신께 속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 죄를 뉘우치게 해 주셨고, 할 수 있는 한 제 가련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8) 요한 1, 14 참조.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제 평생의 모든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해마다 저는 기다림 속에서 오늘이 오기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떨며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팔구 년 전에 주님께서 제게 주셨거나 요구하셨던 것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 자정이 15분쯤 지났을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얼굴을 대고 이 숭고한 강생 신비를 찬미하였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신비는 언제나 나를 경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4시 10분부터 한 시간 동안은 ‘장미 (가시들)’⁹⁾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런 뒤 강생 신비를 묵상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련」¹⁰⁾ 방법에 따라 이집트 피난에 대한 묵상을 해야 했다.

미사 전에는 감실 앞에 꿇어 엎드려 되도록 깊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분께 용서를 청하고, 내 서원을 새로이 하며,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더는 세상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여타 모든 것을 비운 영혼 상태로 영성체 예식을 통하여 그분을 받아 모셨다. 사람이 되신 그분(Incarnatus est)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으나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랐는데, 그때 그 순간이 왔던 것이다! 사실, 미사 중에 나는 바로 옆에 계신 내 예수님의 현존에 휩싸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여기 있다. 네 마음 속에 신비적으로 강생하고자 한다. 나는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 (그 동안) 수많은 방법으로 이 은총에 너를 준비시켜 왔다. 이제 내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되었다. 나를 받아라.』

그때 나는 형언할 수 없도록 당황했다. 영성체 예식으로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의 그런 생각을 미리 알아채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오늘 다른 방식으로 나를 받아들였다. 내가 너의 마음을 차지하였다. 너의 마음 속에 신비적으로 강생하였으니 다시는 너와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죄만이 나를 너에게서 멀리 떼어놓을 수 있다. 또한 경고하거니와, 어떤 피조물이라도 네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네 마음 안에 실재하는 나의 현존을 경감시킬 것이다. 나는 도무지 줄어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자함이 너에게 마련해 준 매우 큰 은총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감사를 드려라.』

나는 감히 그분께 이렇게 여쭙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고 또 요구하셨던 것은 혼약(婚約)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한히 더 큰 은총이다.』

『저의 예수님, 그러면 영적 혼인입니까?』

『그 이상의 것이다. 혼인은 이보다 더 외적인 결합이다. 이는 나를 육화시키는 은총 곧 내가 네 영혼 안에서 살고 자라면서 결코 네 영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치

9) 아마 고행용 깔자리일 것이다.

10) 성 이냐시오의 「영성 수련」을 뜻한다.

하나의 같은 실체와 같이 내가 너를 소유하고 네가 나를 소유하게 되는 은총이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호 침투력으로 네 영혼에 생명이 스며들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바로 위대하고 고상하며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신비적 결합이다. 이 결합은 그 성질상 천상적 결합과 다르지 않다. 천국에서는 신성을 가리는 막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신성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모든 것인 하느님과 내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결합도 (저 결합과) 같다는 것이다.』

나는 참으로 그분과 결합되어 있음을 느꼈다. 영성체 이후와 같은 결과가, 그러나 그보다도 강렬하게 그분께서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살아 고동치시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여쭙었다. 『주님, 이것이 상상이거나 착각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분은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일체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신 뒤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한결같이 완전한 충실을 보여다오. 네 영혼 속에 정말이지 실제로 항상 내가 현존하니 말이다. 얼마나 각별한 은총이냐! 내가 아낌없이 풍성하게 은총을 베풀어 온 것은 네 영혼에 대하여 세워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저의 예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없다. 나를 사랑하여라.』 하고 그분은 매혹적인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나를 본받아라. 내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종류의 결합은 대단히 깊고 내밀한 것이어서 네 영혼이 변함 없이 충실하면 영원한 결합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했던 이 은혜를 준 순간 너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준다. 이 생명을 들이마셔라. 이는 완전히 순수하고 거룩하다. 바로 네 예수의 생명이다. 그가 바로 생명이요, 너의 말씀인 예수 다. 영원으로부터 너를 사랑하여 이날을 예비한 예수 자신이다.』

나는 그지없는 생기와 평화와 기쁨이 내 영에 넘쳐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을까? 그렇다. 분명히, 외관상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듯한 그 약속과 더불어 해가 갈수록 겸손해지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약속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토록 큰 호의가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으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기에 합당하게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 주님! 다만 겸손해지는 것, 그리하여 마리아께 저 대신 주님께 감사 드려 주시기를 청하면서 마리아를 본받아 저의 미천함과 무가치함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일기 1906년 3월 25일)

· 결과

콘치타의 영적 여정에서 이 신비적 강생은 중심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에 그 역사

적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주된 중요성이 있다. 즉 단지 그 준비와 실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그녀의 여생 전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은혜를 받은 첫 사람이었고, 그 자신의 소명과 사명의 완전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제이며 제병(祭餅) 곧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교회를 위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었다. 이 사제적 성격이 콘치타의 영성 신학 전체를 포괄하는 특성이다. 신비적 강생은 그리스도의 가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왕의 사제직”¹¹⁾을 뛰어넘게 실현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 속에 강생함으로써 내가 이루고자 했던 계획은 너를 나로, 곧 「고통의 사람」¹²⁾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 너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말씀(인 나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인성과 지극히 거룩한 영혼으로 고통을 받기 위해서 강생했다는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면서 그 자신의 본질을 건네준다. 나도 너의 영혼에 생명을 주겠지만 그것은 고통에 잠긴 생명이다. 이 결합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네가 동의한다면 나 자신과 하나 되게 할 터인즉 이 내밀한 결합 안에는 고통의 길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꼬치꼬치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을 완주하여라. 성령께서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이 신비적이고 실제적인 결합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셨다. 네가 그분께 호응할 줄 알면 행복해질 것이다.』

『저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내 뜻에 순종하여라. 이는 내가 주는 영감 하나하나에 대하여 너의 완전하고 전적인 충실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쓸데없는 먼지 나부랭이를 (마음속에) 모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나의 안식처가 될 것이고, 너는 숨은 삶, 마음을 모아 묵상하며 충실히 사는 삶 속에서 언제나 너를 떠받쳐 주는 내 거룩한 음성을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러자 나는 새로운 생명과 같은 것이 내 안에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완전한 말감과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이탈과 한없는 사랑이...”(일기 1906년 3월 26일)

이 신비적 강생 사건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사랑의 연결고리”(Cadena de amor)에 대한 영감을 주셨다. 그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교회에 봉사할 영적인 정예군(精銳軍)을 일으키려는 것이었다.

“『너는 제단이고 동시에 사제이다. 왜냐하면 네가 갈바리아와 성체성사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 나를 소유하고 있고, 세상 구원을 위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이를 끊임없이 봉헌할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신비적 강생이라는 크나큰 은혜의 가장 소중한 열매이다. 내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을, 곧 나 자신을 너에게 준 것은 바로 이 목적이 있어서였으니, 네가 ‘사랑의 연결고

11) 1베드 2,9 참조.

12) 새번역 이사 53,3.

리'를 시작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던 것이다. 나는 하늘이라도 살 수 있는 엄청난 가치의 재산을 너의 손에 맡겼다. 너 혼자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와 결합되어 함께 있으면, 구속의 몸값과 같은 말씀 자신의 공로에 의하여 계속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로서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어째서 그 은총을 이미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예, 흠송하올 예수님, 저는 오직 당신을 소유하며 당신께 당신 자신을 바침으로써만 영혼 구원이라는 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너는 나의 제단임과 동시에 나의 제물이다. 나와 결합하도록 너 자신을 봉헌하고, 영혼 구원과 영원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는 드높은 목적으로 순간마다 아버지께 나를 봉헌하여라. 일체를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너 자신을 잊어버려라. 이것이 너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도록 하여라. 너는 숭고한 사명을 받았으니 곧 사제적인 사명이다. 나의 인자함을 찬미하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네가 그토록 열망하던 것과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주기도 했으니, 바로 사제가 되는 권한이다. 나를 네 손에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네 마음 속에 나를 지니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너는 결코 너에게서 나를 떼어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 은총의 장엄한 궁극 목적을 실현하여라. 네가 알다시피 그것은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순결하게 제단이며 동시에 제물이 될 의무를 너에게 부과하는 은총이다. 네가 또 다른 제물, 홀로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제물인 성체와 함께 번제의 제물로 살라지는 것이다.

한편 이 은총은, 나를 깊이 감동시켜 세상 구원에 바쳐질 '십자가 사업'의 설립을 얻어낸 네 마음의 부르짖음에 대한 반향이기도 하다.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네가 간청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네 마음 속에 다시 온 것이다. '십자가 사업'의 중재로 수백만의 영혼들이 내 선행의 이 새로운 열정에 동참하려고 오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내 교회는 하나의 지주를 얻을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얻게 되실 것이다, 영혼들을!』”(일기 1906년 6월 21일)

넘치도록 충만한 은총인 이 신비적 강생의 은총이 콘치타에게는 온 교회에 퍼져 나가게 될 특별한 빛의 표징이었을 것이다. 그녀 안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 톨레도의 감옥에서 받은 것과 유사한 숭고한 은총과 은사가 내렸으니, 요한은 가공할 신비적 밤과 변모적 결합의 (영적) 고양(高揚)을 겪은 뒤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곧 그 영성의 광채와 교의상의 종합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비추게 될 성인이요 선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비적 강생의 은총에 뒤따르는 시기의 콘치타의 '일기'는 비할 데 없는 풍부함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위대한 영성 주제들이 그 당시까지보다 월등 큰 폭으로 드러나고 있거니와, 신앙 신비들의 더없이 넓은 지평을 생생하고 구체적인

종합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심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다음의 예들에서 보이듯이), 하느님의 위대한 종들의 삶에는 일체를 밝혀 주며 조화롭게 하는 불가분적인 일점이 있다고 한다.

— 이사야에게는 그것이 최초의 환시¹³⁾를 받은 순간이다. 곧 하느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된 일점이다.

— 하느님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말씀께서 강생하신 날, 곧 주님의 탄생 예고를 들으신 마리아께서 당신의 “피앗”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요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순간이다.¹⁴⁾

— 성 바오로에게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회개¹⁵⁾의 순간이다. 그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친자성과 그분 신비체의 모든 구성원과의 동일성¹⁶⁾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다.

— 우리 시대에 더욱 근접해 보면, 원죄 없으신 동정녀의 발현을 통하여 영혼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루르드의 베르나뎃다가 있다. 그녀에게는 행동과 몸짓과 내적 감정까지 놀랄 만큼 원죄 없으신 분을 본뜨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그 몸과 미소와 영혼이 흡사 그분의 반영과 같이 되었던 것이다. 베르나뎃다는 자기 성성의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저는 (제가 본) 환시처럼 살고 싶습니다.”

— 우리는 또한 「한 영혼의 이야기」를 통하여, 삼위일체 대축일에 하느님께서 친히 사랑과 자비로 빛나는 얼굴을 하시고 리지외의 데레사에게 영적 어린이의 교의적 기초를 계시해 주셨음을 알고 있다. 이것이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데레사가 했던 것과 같이 전적인 사랑의 응답으로 자비로우신 사랑에 그들 자신을 봉헌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06년 3월 25일에 일어난 신비적 강생 사건은 콘치타 생애의 “중심은총”이었고,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의 그녀의 사명과 영적 가르침의 단초(端初)가 되었다.

그녀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영성 수련」 (피정)에 대하여 마침내 이렇게 결론 지었다.

“내 영혼은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 나의 말씀께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거처로 나를 데려가신 듯한 것이다. 이 거처는 더욱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 더욱 내밀하고 더욱 빛나는 곳이니, 내 가장 사랑하는 분께서 살고 계신 곳이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본분을 다하고, 저에게서 당신께 속해 있는 시간을 앗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 원합니다』 ...

13) 이사 6,1-13 참조.

14) 루가 1,26-38 참조.

15) 사도 9,1-19; 22,3-16; 26,2-18 참조.

16) 1고린 12,27 참조.

나는 여기에 혼자서 왔지만 이제는 그분과 함께 떠나겠다.”(일기 1906년 3월 30일)

9. 성지 순례와 로마 여행

십자가 사도직의 이점과 그 관상 수녀회에 내리는 은혜를 확인한 멕시코의 여러 주교들은, 콘치타가 또한 시사한 바 있는 십자가 사제회도 창립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그들은 멕시코의 사목적 필요 때문에 로마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로마는 얼마간 고려한 뒤에 이를 허락했으나, 멕시코에 대한 비방과 모함을 껴한 음흉한 책략들을 경계하면서 이미 발송한 교황 허가서의 시행을 유보하라는 전보를 보냈다. 이 남자 수도원의 창립과 결부되어 있는 사적 계시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라는 것이었다.

교황청립 수도회들의 규정에 따라, 콘치타는 자신의 삶 이야기를 쓴 노트 아홉 권을 로마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영적 일기**로서 그녀가 공개하기를 꺼린 것이지만 자신의 영혼과 삶의 모든 비밀을 교회의 최고권을 지닌 이에게 매우 단순하고 충실하게 드러내 보인 셈이었다.

교황은 그녀의 영신 지도자인 푸에블라의 대주교 라몬 이바라 몬시뇰에게 형제이며 친구인 사람에게 하듯이 친숙한 어투로 몸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십자가의 사제 수도회’의 창립 허가가 지연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 그대의 편지를 읽었소. 우리는 이토록 중대한 일에 있어서 인가를 내리기 전에 진지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니, (교황청) 수도회성과 아울러 본인을 용서해 주기 바라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이 일이 신속히 성성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라는 점과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대의 소망과 그대 형제들(인 주교단)의 소망대로 해결이 나리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소.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오.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일은,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무슨 반대 때문에 지연되는 법이 없으니 말이오. 이러한 희망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에게 사도좌 강복을 베푸는 바이오.”(1910년 3월 2일, 교황 비오 10세의 편지)

몬시뇰 라몬 이바라는 이 일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곧 멕시코 성지 순례단이 출발할 때에 콘치타를 로마로 보내어 직접적인 심사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유럽과 동양을 향하여 떠났는데 이 여행을 즐겨워하는 자녀들 중 둘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건장한 20세의 청년이 된 이그나시오와 15세의 매우 예쁜 소녀 루페였다.

이 여행에 십자가 수도회의 운명과 창설자 펠릭스 신부의 귀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 여정

콘치타의 생각에 이 긴 여행은, 그녀가 그 이야기를 기록한 상세하고 재미있는 책

자의 제목이 보여 주듯이, 무엇보다도 “루르드와 성지 및 로마 순례”였다. 그것은 신심과 동시에 관광과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사도직의 첫 사업의 장래 문제가 로마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짜여진 여정이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참으로 좋은 여행이었다. 이 여행은 여섯 달 이상 지속될 예정이었다.

· 멕시코에서의 출발

“8월 26일. 새벽 6시 30분에 베라크루스를 향해 출발하다... 내 가족과 친지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괴로웠다.”

“8월 27일. 판초와 엘리사가 우리를 배웅하려고 왔다 갔고, 나는 교구 성당에서 영성체를 하였다. 배는 오후 3시 30분에 장엄하게 출발하여 육지에서 점점 멀어졌다. 내 아이들을 떠나는 것이 몹시 고통스러웠다. 이바라 대주교님과 루이스 대주교님, 아마도르 주교님과 32명의 신부님들이 여행 잘 다녀오라고 빌어 주셨고, 우리는 함께 매우 감동적인 성령 성가를 불렀다.”

“8월 30일. (쿠바의) 아바나에 도착. 나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해변에 나가지 않았다.”

“8월 31일. 이바라 몬시뇰의 축일을 기념하여 철야 (기도를) 바쳤다. 선장의 협조가 있었다.”

(이상 1913년 8월의 일기)

· 유럽으로 가는 항해 도중에

무시무시하도록 험한 바다. 도자기는 온통 산산조각이 났고, 콘치타는 지독한 멀미에 시달렸다.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이건 틀림없이 지옥 고통 중의 하나일 거야.”

열흘 동안의 지루한 항해 끝에 그들은 (스페인의) 카디스에 이르렀고, 경치가 장려한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9월 22일에는 특이한 전경(panorama)을 이루고 있는 몽세라의 성모 성지를 경탄하며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딸이 맹장염에 걸렸다. 그들은 나중에 (프랑스 남단의) 마르세유 항에서 여행자들의 무리와 합류하여 독일 배를 탔다.

· 이집트

“10월 7일. 알렉산드리아에 도착. 기차로 카이로에 가다. 나는 계속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내가 여기에 와 있구나. 피난 길에 오른 (성가정이) 밟으신 땅, 여기에서 살고 숨쉬며 고통 받으신 땅에!』 영혼 가득 뭉클한 감동이 일었다. 길을 가면서 줄곧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낙타와 종려나무를 감상하였다. 여러 번 나일강을

건너는 베두인 사람들을 보니 성서에 나오는 감동적인 (탈출)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깊은 감회 속에서, 포로들이 경작했던 무화과와 오렌지와 아카시아 나무로 비옥한 땅을 보면서 (구약의) 성조들과 예언자들, 파라오와 이스라엘인들이 생각났다. 마음을 기억에 잠기게 하고 영혼을 하느님께로 들어올리는 또 다른 환경, 다른 분위기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일기 1913년 10월 7일)

다음에는 카이로 방문과 코란을 공부하는 5천 명의 학생이 있는 알-아자르 대학교, 맘루크(조<朝> 왕족)의 무덤들에 대한 짙은 기록이 나온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가정을 기념하는 장소, 나일강의 굉장한 일몰 광경, 카이로를 떠나 포트사이드를 경유, 터키의 배를 타고 자파¹⁷⁾에 도착한 기록이 있다. “주님, 저는 벌써 주님께서 사시며 가르침을 퍼신 땅, 하찮은 저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땅에 다가가고 있습니다.”(일기 1913년 10월 13일)

· 예루살렘

“10월 13일. 행복한 날, 내 삶에서 무척 중대한 날이다! 내 하느님,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여, 오렌지와 올리브나무의 광대한 과수원을 통과하면서 터키인 목자들이 돌보는 많은 양 떼와 마주쳤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수많은 낙타들을 보았고, 히브리인들의 거주지와 역사적인 명소들을 지나갔다. 그러다가 거룩한 도시가 눈앞에 나타나자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떼 데움(Te Deum)¹⁸⁾을 암송했다. 기차가 멈추자 대주교님은 땅에 입을 맞추었고, 다른 모든 순례자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카사 노바’(의 숙소)에 도착하였다. 나는 내 방에서 온 영혼으로 하느님께 감사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세 시에 우리는 성가를 부르며 행렬을 지어 (주님의) 거룩한 무덤을 방문했다. 얼마나 경건한 감격이 치밀던지! 눈물을 흘리며 무덤에 입을 맞추었다.”

“10월 14일. 나는 갈바리아를 보았다!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제단 아래쪽, 십자가가 세워졌던 구덩이에 이마를 대고 있노라니 눈물이 철철 흘러내렸다. 여기에서 그분은 무한하신 (사랑의) 성심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쏟아내셨고, 여기에서 내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셨으며, 여기에서 그 성심이 창에 찔리셨다. 내 영혼이 극진히 사랑하는 그분께서 여기에 못 박혀 계셨던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 복된 곳에서 몸을 떼어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구덩이에 한쪽 팔을 집어넣었다. 그 속으로 눈물을 쏟아 내기 위해서였다. 또 우툴두툴한 바윗돌을 만져 보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서 계셨던 십자가 아래의 그 지점을 나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였다.

예수님께서 못 벗김을 당하신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도 보았다. 내 사랑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자리도! 나는 그분의 도유를

17) 이스라엘 서부의 항구. 1950년에 텔아비브에 병합. 성서에는 요빠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18) 주일과 대축일과 축일의 독서기도 중 제2독서와 응송 후에 바치는 사운 찬미가.

받은 그 돌에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다. 감동이 감동으로 계속 이어지는 통에 가슴이 뻐개질 것만 같았다.

오후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산으로 갔다. 거기에 (가르멜) 수녀들이 있었고, 수도원의 채색된 타일 벽에 이 기도문이 35개의 다른 언어들로 적혀 있었다. 그 뒤 우리는 올리브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고뇌에 잠기셨던 동굴로 갔다. 그 부근에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무덤에도 갔는데, 여기에는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갔다. 우리의 원죄 없으신 어머니께서 충만한 행복에 싸여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곳이었기 때문이다.”(일기 1913년 10월 13일-14일)

(콘치타는 이와 같이) 거룩한 도시에 체류했던 일과 그 근처의 다른 성지들, 곧 구세주의 탄생 구유가 있는 베들레헴, 세례자 요한의 기억과 동정 마리아께서 나이든 사촌 엘리사벳의 인사에 답하시며 부르신 찬미가(Magnificat)를 떠올리게 하는 아인카림을 방문한 기록을 남겼다. 10월 22일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파와 나자렛 및 갈릴래아의 다른 성지들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인 곳은 나자렛이었다. 나자렛은 동정 성모의 고을이요, 하느님의 강생이라는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난 곳, 인간과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아닌가!

· 나자렛

“10월 25일. 아주 이른 새벽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강생하신 거룩한 동굴로 갔다. 그 느낌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제단이 있었고, 제단 위에는 『여기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여러 번 미사 참례를 하였고, 그 여러 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머무를 수 있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인자함이 또 하나의 은총을 주려고 너를 이리로 끌어당긴 것이다. 여기에서 너는 매우 특별한 모양으로 너 자신을 지존하신 성삼위께 봉헌하여라. 네가 제대로 인정할 줄 몰랐지만, 네 영혼 안의 신비적 강생은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실재이니, 이 냉랭해진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특히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제들 사이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은 성령에 의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성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일기 1913년 10월 25일)

“성지 순례는 다스쿠스와 레바논에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베이루트, 포트사이드, 알렉산리아 및 이탈리아를 경유하여 로마로 가는 중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역사상 유명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인 브린디시, 나폴리, 폼페이, 카프리, 소렌토를 지나갔다.”(일기 1913년 10월)

· 로마

“드디어 우리는 (또 하나의) 거룩한 도시에 와 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나의 관심을 끄는 도시이다. 여기에서 ‘십자가 사업들’의 성패가 판가름나리니,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 될 터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오기를 원하신 이상, 일의 성공을 의심할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그분께서는 내가 굴욕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사업들은 곧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믿음과 신뢰를 가지자! 하느님은 당신 약속을 지키는 법을 알고 계실 뿐더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는 저녁에 도착했는데, 몬시뇰 루이스께서 역에 나와 있다가 십자가 사업들을 위해서는 이 곳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알려 주셨다. 인내하며 하느님께 의탁하자. 나는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고 있다! 아무튼 이 도시는 얼마나 추억들이 가득한 곳인가!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여기에서 피를 쏟았던가! 여기야말로 우리 종교의 요람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예루살렘의 결과일 따름이다. 예루살렘에 구원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여기에도 계시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도 순교자도 증거자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지인 이 곳의 이교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역사를, 네로와 다른 로마 황제들을 생각하였다.

이 거룩한 도시에 도착한 순간, 얼마나 강렬한 인상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었는지 모른다! 나폴리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 곳을 보자 온 몸이 떨렸던 것이다. 참으로 솔하게 꿈꾸었던 곳, 경외심마저 일으키는 곳, 교회가 ‘십자가 사제 수도회’를 인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교황 성하와 아주 가까운 장소에 와 있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성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건만 그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린다.

— 저의 하느님, 당신 마음대로 저를 써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라면 순교라도 하겠습니다.”(일기 1913년 11월)

,

“교황 성하를 사적으로 알현할 일시가 오늘 10시 30분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어제 저녁이었다. 얼마나 뜻밖의 행운인가! 시각이 되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순간이었다. 성하는 당신 집무실에 계셨고 그 앞에 라몬 이바라 몬시뇰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쏟고 있었고 성하는 그런 내게 말씀을 건네셨다. 마침내 내가 울음을 자제하게 되자 성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셨고, 한 손으로 내 얼굴을 받쳐 주셨다. 나는 그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채 『교황 성하, 십자가 사업들을 인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곧 인가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와 그대 가족들과 그 사업들을

위해서 특별 강복을 주리다.』

『교황 성하,』 하고 나는 다시 그분께 말씀드렸다. 『저는 그 사업들에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는 별도로, 저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몬시놀과 이야기를 나누었소. 모든 것이 금년 내에 해결될 것이오.』

그분은 껴쬜는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찬찬히 보셨는데, 나는 마치 우리 주님 발치에 있는 느낌이였다. 성하는 서너 번 강복해 주시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오.』 (Prega per me)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고 나를 한참 바라보시기에, 나는 담대하게도 그분의 가슴에 드리워진 십자가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분의 발에 입맞추자 그분은 한 번 더 강복해 주셨다. 나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오!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저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일기 1913년 11월 17일)

· 결정적인 면담

마침내 콘치타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때가 왔다. 그것은 (교황청) 수도자성의 사무총장 도나토 스바레티 몬시놀과의 면담시간이었다. 몬시놀은 그녀의 나라와 개인적인 생활에 대하여 질의했고, 무엇보다도 특히 십자가 사도직과 관상 수녀회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로마에 발송된 원고 노트들을 그녀 자신이 썼는지도 물었다. 요컨대 그것을 쉽사리 쓸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였다. “나는 그 몬시놀에게, 『저는 문법은 잘 모르지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분은 내 말을 믿으려고 들지 않았다.”(일기 1913년 12월 7일)

몬시놀은 그녀로 하여금 성령과 예수 성심 및 십자가 사도직에 대한 환시를 어떤 모양으로 받았는지 정확히 진술하게 하였다. 그 모든 것을 육안으로 보았는가? 콘치타는 그에게 주님의 모노그램 사건¹⁹⁾과 “받아쓰기”에 관하여, 또 십자가 수녀회의 첫 수녀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콘치타 자신은 수녀들과 살지 않고 자녀들과 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점을 몬시놀은 흡족하게 여겼다... “나는 그분이 여러 가지 점을 명확하게 통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로서는 실제로나 외관상으로나 십자가 사업들에 소속되고 싶지 않으니 그들에게서 나를 분리시켜 주기를 진정으로 청하였고, 성교회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였다.”(일기 1913년 12월 7일)

콘치타는 이 스바레티 몬시놀의 요망에 따라 그녀의 책인 「제대 앞에서」(Ante el Altar)의 스페인어판을 로마로 부치면서 그녀 “자신의 속내 이야기”인 원고들은 되돌려 주기를 청하는 편지를 동봉하였다. 이 편지에는 그러나 성청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도 분명히 담고 있었다.

“각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성교회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순명하면서 교회의 순종적이고 사랑 깊은 딸이 되는 것입

19) 제2장 6절 및 각주 4) 참조.

니다. 저는 그르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법이 없는, 성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언제나 따를 채비를 차리고 있음으로써, 저 스스로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 왔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늘 순명의 인도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저는 숨은 생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포부가 없습니다. 성교회가 제게 지시해 주는 길을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각하, 저를 각하의 기도에 맡기오니, 제 아이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1913년 12월 9일)

이바라 몬시뇰은 모든 일이 수월히 진행되도록 하려고 콘치타의 동의를 얻어 ‘십자가 사제 수도회’라는 명칭을 ‘성령 선교 수도회’로 바꾸기로 제안했고, 교황 비오 10세는 개인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저의 하느님, 제 생명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를 제게 알려 주신 지 어언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노고와 고통과 고행과 실망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피와 기도와 모함과 시기와 박해와 눈물이 여기에 소요되었는지!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사업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보입니다.”(일기 1913년 12월 17일)

“거룩한 성사 대전에서 기도하고 있노라니 주님께서 『내게 감사하여라.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즉시 떼 데움²⁰⁾을 바쳤다.”(일기 1913년 12월 22일)

· 이탈리아를 지나 프랑스를 횡단하며

여행의 주된 목적은 성취되었다! 순례자들은 열흘 가량 이 영원한 도시의 예술과 종교를 엿볼 수 있는 곳들을 방문한 뒤 세상에서 가장 예술적인 도시인 플로렌스를 방문했다. 그리고 파두아와 베니스와 밀라노를 방문했는데 그 각각의 대성당을 보고 콘치타는 탄복했다. 그들은 제노바를 거쳐 프랑스에 도착하여 리옹과 파레르모니알을 방문했고, 파레르모니알 (수녀원)²¹⁾의 열렬한 예수 성심 신심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가능한 일이었다면) 나는 그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일기 1914년 1월 9일)

이제 그들은 파리로 올라갔고, 가로수가 늘어선 큰 도로를 따라 밤에 도착했다. “파리, 얼마나 굉장한 도시인가!” 콘치타는 파리에서 리지외로 갔다. “작은 데레사”에게 ‘십자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서였다.

· 리지외

20) 각주 18) 참조.

21) 파레르모니알의 ‘방문회’ 수녀원에서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가 예수 성심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1월 19일.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의 무덤과 수녀원과 생가를 방문하려고 리지외로 갔다. 눈이 내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갔다. 사실은 내가 ‘십자가 사업’(에 관련된 문제) 전체를 바로 그녀에게 맡겨 두고 있었는데, 이제 막 성공적으로 성사(成事)되었기 때문이다. 『내 영혼의 작은 데레사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원을 찾아가자, 현재의 원장인 그녀의 언니 폴린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일기 1914년 1월 19일)

“1월 20일. 우리는 파리를 떠났다. 몬시뇰은 오늘 아침에, 다른 순례자들은 좀 뒤에 떠났다. 그레비에 부인 및 파스 페르난데스 델 카스티요 부인과 함께 우리는 오전 11시에 도착할 예정인 루르드행 야간 열차를 탔다.”(일기 1914년 1월 20일)

· 루르드

“1월 21일. 기차 속에서 고달픈 밤을 지낸 우리는 8시에 포(Pau)에 도착해서 계속 루르드 쪽으로 달렸다. 눈 덮인 산정이 얼마나 찬란한 장관을 이루는지! 피레네산맥은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루르드 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게걸스럽게 식사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20센티미터쯤 쌓인 눈길을 걸어 중앙 성당과 동굴과 아름다운 로사리오 대성당을 찾아갔다. 참으로 그윽한 감동이 일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현존과 지나가심, 아주 특별한 보호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동굴 속에서 무릎을 꿇고 마리아께서 18번이나 발현하셨던 현장을,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곳을 지치지 않고 줄곧 바라보았다. 생각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마음은 여기에서 풍성히 쏟아져 나온 기적들의 수를 기억하는 기쁨에 설레는 것이었다.

유년 시절에 앙리 라세르의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 주시곤 했던 어머니가 기억 속에 여실히 떠올랐다! 어머니는 이 극적인 신앙 사건의 현장에 얼마나 오고 싶어하셨던가! 온 가족이 여기에 오기를 꿈꾸었건만, 가장 자격 없고 비천하고 아무 공로도 없으며 가장 미지근한 내가 이제 이 황홀한 곳을 탄복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수천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동굴은 발현 지점에 안치된 성모상 주위까지 연기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 성모상 발치에 있는 장미나무만이 눈과 연기 가운데서도 싱싱하게 보존되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얼마나 기묘한, 하느님의 기적인가!

우리는 비탈길을 따라 묵주기도를 하며 걸었다... 그리고 지하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받았다. 나는 십자가 사업들을 위하여, 내 가족 친지들과 가련한 멕시코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바쳤다.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마리아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지! 시간마다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는 종이 마리아를 찬미하라고 권유하며 울리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황홀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 마리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은 심경이었다.”(일기 1914년 1월 21일)

· 아들 마누엘과 함께 스페인에서

여행자들은 다시 스페인행 기차를 탔다. 여기에서 콘치타의 아들 마누엘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있게 된 기쁨을 오래도록 나눈 뒤 그들은 함께 로올라에 가서 기도를 바쳤다. 마누엘은 25세가 된 날을 어머니와 같이 기념한 것이었고, 그의 동생 이그나시오와 누이 루페도 거기에 있었다. “오늘 내 아들과 함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은 얼마나 어지신 분이신가!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에 에워싸인 시골길을 평온한 마음으로 산책하였다. 나는 어느 냇가에서 내 여행 일기를 그에게 읽어 주었다.”(일기 1914년 1월 28일)

그러나 현세에서는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들은 곧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하늘에 가서야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다.

· 돌아오는 길

순례단 전체가 귀로에 올랐다. 산세바스찬, 팜플로나, 바르셀로나, 발렌시아(2월 11일)를 거쳐, 말라가, 카디스, 라스팔마스, 카나리아 제도, 푸에르토리코(3월 1일)에 도착, 다시 아바나를 거쳐 베라크루스 항을 통해 멕시코(1914년 3월 14일)에 돌아온 것이다.

멕시코에 돌아오자마자 콘치타의 첫 관심사는 자녀들에게로 달려가서 껴안는 일이었고, 그 다음은 과달루페의 성모 성지로 달려가서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 주신 것에 대해 거룩하신 동정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콘치타가 감사 기도를 드리며 로마에서 돌아온 것이다. 교회가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따라서 십자가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10. 자녀들의 교육자

성지 순례와 로마 여행이 십자가 사업들의 미래를 보증해 주었지만, 콘치타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그 의무는 항상 자신 삶의 일차적인 관심사였다. 어느 날 자기 지도자인 베르나르도 신부 (곤 몬시뇰 막시미노 루이스)에게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점에 관해서는 저의 이른바 ‘영적 일기’속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그들을, 그들의 육신보다는 영혼을, 끊임없이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들입니다.

— 주님, 주님께서 판초에게 주신 정직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보존해 주시어, 그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결혼이 그에게 적절한 것이라면 이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어긋나는 교제를 할 경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 주님, 이그나시오가 걱정됩니다. 아직 어린데다 위험들 가운데 처해 있으니... 주님께서 주신 깨끗한 양심 속에 머물러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 주님, 파블로가 온전히 주님 것이 되기를 빕니다. 겸손과 순종의 덕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 주님, 살바도르가 주님의 영광과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활발한 성격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 주님, 이토록 생기 있고 수덕의 소질이 있는 루페가 자신의 의무를 벗어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주님, 마누엘과 콘차에게,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가장 좋은 몫을 택해 주신 이 십자가에 달린 순결한 두 영혼에게 항구한 인내력을 주시고, 그들의 소명을 지탱해 주시며,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쓰십시오...

— 주님, 하늘에 있는 저의 두 천사 카를로스과 페드로(=페드리토)가 영원토록 주님 옥좌 옆에서 시종들게 해 주십시오.

오 마리아님, 제 영혼의 어머니이시며 고아들의 보호자시여, 판초 안에 어머니께 대한 신심이 자라게 하시고, 제 모든 아이들 안에서도 자라게 하소서. 모두를 어머니의 아이들로 바쳐드립니다. 당신 망토로 그들을 감싸시고 언제나 순결하게 지켜 주시며, 당신 아드님의 성심에 넣어 주셔서 늘 착한 성향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오 마리아님,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모르고 어머니가 될 줄도 모르지만 어머니께서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그들을 어머니 품에 숨기시어 순결을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일기 1908년 10월 30일)

하느님과 결합되어 사는 생활이 콘치타로 하여금 가족을 멀리하게 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녀만큼 자신의 모든 자녀를 기억하는 어머니는 달리 없을 정도였다.

여섯 살에 죽은 둘째 아이 카를로스의 죽음은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었다.

홀어미가 된 이후 집안의 연못에 빠져 죽은 막내의 죽음 역시 무엇으로도 위로할 길 없는 고통을 초래한 것이었다.

· 페드리토의 시체

“4월 7일, 성주간 화요일. 내 가슴이 미어진 끔찍한 날.

미사 중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기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몇 가지 집안 일을 한 뒤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노라니

갑자기 『페드리토가 정원의 연못 속에 있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페드리토가 정원의 연못 속에 있다.』고 복창하면서 달려나갔다. 달린다기보다 날아간 셈인데, 내 말을 들었던 다른 아이들도 『맞아요, 엄마, 여기 있어요!!!!』하고 소리를 질렀다. 눈앞이 캄캄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아무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를 팔에 안았다. 물에 흥건히 젖은 싸늘한... 시체였다.

『좀 전에 바로 곁에 있었어요.』 방에서 나가면서 내게 설명하는 아이들의 말이었다. 비둘기에게 물을 좀 갖다 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하인 세 명이 연못 가까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할 수 있는 한 소생시켜 보려고 기를 썼지만 심장이 이미 멎어버려서 맥이 뛰지 않았고, 팽창된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맙소사! 영혼이 갈가리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내 아들을 팔에 안은 채 주님께 봉헌했는데, 비탄과 쓰라림과 회한이, 아이가 죽은 것은 나의 소홀 탓이라는 생각이 들끓고 있었다. 게다가 남편이 죽기 직전에 (특히) 나의 보살핌에 맡겼던 아이라는 기억도 떠올랐다.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려고 왔다. 의사 한 사람과 그의 조수도 왔지만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내 어머니와 펠릭스 신부님에게 이 사고에 대하여 쪽지를 써 보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다섯 시간이 지난 뒤에야 오셨고, 펠릭스 신부님은 미처 편지를 전달받지 못해서 밤중에야 오셨다.

나는 나의 큰 십자가상 아래로 갔다. 주님의 두 발을 눈물로 적시며 꿇어 엎드려 내 아들을 희생으로 바쳤고,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아이의 시체를 지켜보며 밤을 지냈고, 자정에 조그만 관에 넣었다. 팔에 안았을 때 아이는 이미 얼음장같이 싸늘하였다. 섬뜩하도록 싸늘하였다.”(일기 1903년 4월 7일)

· 파블로의 죽음

(십 년쯤) 지난 뒤에 이번에는 파블로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죽었다. 열여덟 살의 아주 순결한 젊은이로서 콘치타가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었다.

“6월 21일.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기념일. 오늘 파블로는 마지막 성사들을 받았다. 오전에 페드로 지마네스 신부님을 모셔오기를 바라더니 자진해서 이 사제에게 충고해를 했다고 한다. 끝나고 나자 그의 고해사제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파블로의 건강을 위해 간구하지 말아요. 그는 악을 모르는 순결한 영혼이니, 하늘로 가게 해 주구려. 어린아이와 같아서 몇 분만에 충고해를 끝냈다고.』

(오후) 3시 30분에 파블로는 모든 기도문에 응답하면서 매우 열성적으로 노자 성체를 받아 모셨다. 나는 아이가 지칠까 봐 좀 뒤에 감사기도를 바치게 하였다. 격심한 두통에 시달렸는데 아마도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 때문인 것 같았다.”

“6월 22일. 주일인 오늘부터 파블로를 제 방에서 옮겼다. 열이 펄펄 끓었다. 나는 보기에 몹시 괴로웠지만, 그는 조용히 감수하고 있었다.

병에 걸리기 이삼일 전 저녁 식사 후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엄마, 곧 여기서 죽은 사람 하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때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가 혹시 죽어나 않았는지 보러 갔다. 요즈음, 파블로가 죽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서, 몇 번이나 침상에서 쉬고 있는 그에게 일부러 말을 걸어보곤 했었다. 살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저의 하느님! 설마 그럴 수가!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6월 25일. 파블로는 이미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옆에 내내 붙어 있는데도 『엄마를 보고 싶어요! 엄마를 불러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어떤 느낌이었겠는가? 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의 온 소망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어서 나로서는 죽음이 임박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 예쁜 푸른 눈을 도무지 감지 않더니, 잠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눈길이 내 영혼에 박혀 있다.”

“6월 27일. 내 힘이 아닌 엄청난 힘으로 아이의 선종을 도왔다. 단말마의 고통을 겪는 것과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뒤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곧장 기도하기 시작했다. 죽자마자 내가 늘 가슴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를 손에 쥐어 주었는데, 입관할 때 그것을 다시 빼내었다. 눈꺼풀을 올려 한 번 더 그 하늘색 눈을 보았고, 이마에 입맞추며 작별을 고했다. 이미 더 이상은 내게 속해 있지 않는 아이였다.”(이상 1913년 6월의 일기)

“오 고통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을 방금 잃은 어머니의 심경을 아시는 어머니, 어머니의 손으로,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지존하신 성삼께 제 아들을 바쳐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제게 주셨던 소중한 것을 어머니께서 저의 이름으로 돌려드림으로써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일기 1913년 6월 30일)

11. 예수회의 사제가 된 아들 마누엘

이 주의 깊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애정으로 노심초사하며 자녀들 각자의 삶을 따라다녔는지, 그럼에도 언제나 그들의 인격과 자유를 얼마나 존중하였는지, 이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것이다. 자녀들 중 둘은, 곧 마누엘과 콘차는 어린 시절부터 수도 성소를 받은 터였다.

마누엘이 먼저 집을 떠났다. 콘치타는 “십자가 사제회의 사제”인 그를 보게 되기를 꿈꾸었다. 그러나 성소들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그녀의 아들은 열일곱 살에 ‘예수회’에 들어가서 견실한 기초를 닦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더욱 큰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봉사에 진력하며 용감하게 지냈다.

엄마는 아들의 열정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은 매우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애정 안에 갈수록 더 깊이 서로 결합되었음을 보여 준다. 아들의

최종적인 결정을 알게 된 그녀는 수도 성화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은총이 네 마음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토록 크신 호의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느냐? 진정으로, 온 영혼을 다하여, 조금도 남김없이, 주님께 너 자신을 내맡겨라. 피조물들을 잊어버려라. 무엇보다도 특히 너 자신을 잊어버려라. 하느님을 향해 올라가려면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 순명과 겸손과 극기의 삶을 살아가거라. 너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라. 그분께서 네 영혼 안에 군림하시게 해야 한다.

나는 성인이 아닌 수도자를 생각할 수 없다.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반쯤만 건성으로 바쳐선 안 된다. 그분께 남김없이 바쳐야 한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의 산 제물로 그분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머지않아 유혹과 투쟁이 너를 괴롭히러 올지도 모른다. 굳건하여라. 어떤 형태로 나타나건 십자가를 사랑하여라. 십자가는 외관상 가혹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다정한 법이다.

분명히, 어머니인 내 마음은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괴롭다. 그러나 너의 육신보다는 천 배나 더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을 위하여 하느님께 이 희생을 바칠 수 있어지니 기쁘다. 항상 기도하여라. 나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여라... 가족 모두에게 너의 결정을 알렸다. 그들도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네 형제들은 나중에 너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나는 네가 아기였을 때부터 성모 마리아의 망토로 너를 감쌌으니 마리아께서 네 어머니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분을 무한히 사랑하여라... 밭은 땅을 밟고 있어도 영혼과 마음은 저 높이 하늘에서 살기를 빈다...!”(1906년 12월 9일)

몇 년 뒤 성지와 로마 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 콘차타는 아들을 만나려고 스페인에 들렀다. 어머니와 아들이 반갑게 만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매우 교양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알았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곤 했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1914년 1월) “작별의 순간이 오자 나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도 눈물을 흘렸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는데, 너무 괴로워진 나는 그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께 내 희생을 새로이 바쳤다.”(1914년 2월 2일) 얼마 뒤에 그녀는 이베리아 반도를 떠났다. “잘 있거라, 스페인아. 내 아들이 있는 곳아.”(1914년 2월 19일)

1919년 12월에 콘차타는 마누엘의 오른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도 사제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성인과 같은 포기” 이를 감수하는 아들을 칭찬하였다.(1920년 3월 4일)

그는 사제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젊은 예수회원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을 영혼 속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장상들에게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의 큰 희생을 바치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1920년 6월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장상들의 동의를 받은 그의 결정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다.

“언제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엄마,

최근에 보낸 저의 편지를 받으시고, 그 전의 편지들 속에서 (길을 닦기 위하여) 제가 어머니께 내비치곤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싶어서 속이 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니 저의 장상들을 제외하고는 어머니께 처음으로 이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로 저를 도와 주시기를, 비난보다는 제가 희생의 길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전히 현세적 차원에서 보면 이 일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끼칠 것이 뻔합니다. 저 역시 그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앙의 눈으로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려는 소식이 어머니 마음에 쏙 드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아름다운 희생이며, 우리 주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으로 여겨지니 말입니다. 여러 해의 시험 끝에 순종이 그것을 완전히 입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살고 있기에, 정말 큰 고통이 요구되는 희생을 그분께 바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들에 대하여 좀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의 비추심에 의하여 어머니와 가족들과 조국을, 아들과 형제와 멕시코인으로서의 사랑이 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 모두를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보잘것없는 인간적 본성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적 충동으로, 그 신성한 삼중의 사랑을 희생하면서 저를 번제물로 봉헌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우리 수도회의 총장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제 형제들과 온 가족에게로 돌아가려던 소망과 테페악 산의 동정 성모의 현존과 보호로 거룩하고 복된 멕시코 땅을 제 발로 밟아 보려던 소망이 제게는 온통 끝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리로 오시지 않는 한, 오직 하늘에서만 다시 뵈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픈 소식이지요, 엄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분명히 슬픈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이 소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제 마음이 찾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이 편지를 읽으시면 눈물을 흘리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아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내릴 것이고, 어머니는 저의 눈물과 합쳐 복된 성사 발치에 그것을 바치는 법을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련한 마누엘의 눈물과 함께...

사랑하는 엄마, 하지만 이 길을 저에게 가리켜 보인 이는 바로 엄마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의 엄격한 구원 교리가 엄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가 소유한 하나뿐인 것을, 곧 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결코 멈추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 전진하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동정을 받을 만합니다. 돈이나 혹은 더 천박한 다른 소망을 위하여 같은 희생을 바치기도 하니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 엄마도 아시다시피 사랑은 부재로 인해 감소되기는커녕 증대됩니다. 그러니 엄마에 대한 저의 사랑이, 형제들과 다른 모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 복된 소식을 받은 순간 얼마나 커졌겠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기쁨으로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하나뿐인 참된 기쁨입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합시다.

곧 다시 글월 올리겠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저의 가장 큰 애정과 함께 안부 전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엄마는, 엄마의 마누엘에게 축복을 보내시어, 이 희생 안에서 그의 기쁨이 완전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마누엘, S.J.”

콘치타는 아들의 편지를 자신의 일기 속에 베껴 넣었다.

“그렇다, 이 편지는 내 가슴에서 눈물을 짜내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움으로, 설사 내가 스페인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세에서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하는 이 희생을 받아들이며 그분께 봉헌하였다. 그리고 성품성사를 받은 아들의 첫 미사에 참여하여 그의 강론을 듣고 그의 손에서 성체를 받아 모실 기쁨을 포기하였고,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기쁨도, 누가 알랴, 마지막 전대사를 주며 나의 선종을 도와 줄지도 모르는 기쁨도 포기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이 변변찮고 불완전한 희생을 가납해 주시기를! 이 희생으로 내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 나는 아무래도 그런 아들을 가질 만한 어머니가 못되나 보다.”(일기 1920년 6월)

그럼에도 콘치타는 곧 마누엘에게 다음과 같이 고상한 답장을 보냈다. 이를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용감함에 있어서 서로 겨루기라도 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아들아, 기다리던 소식을 가져온 네 편지를 읽고 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너를 잘 아니까 말이다. 온통 눈물에 젖은 채, 너에게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를 영감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힘을 주신 하느님께 끝없는 감사기도를 바쳐 올렸다. 그리고 감실 근처로 다가가서 네 편지를 바로 옆에 놓아두었다.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애정의 희생을 내가 온 영혼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다음날에는 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영성체를 하러 갔다. 나의 완전한 수락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였다.

사랑하는 애아, 너는 행복하다. 혈육을 뛰어넘은 드높은 위치에 예수님을 모셨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뛰어넘어 너 자신을 높일 줄도 알았으니 말이다. 네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 동안 나에게서 받은 얼마 안 되는 선익은, 그럼에도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느님께서 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성소를 주시면서 무한히 특별한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너를 택하셨으니 말이다. 내가 너의

희생을 예감하고 멕시코에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아직 이교도인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광대한 지역이 있으니 이를테면 타라쿠마라, 혹은 무스키스 같은 지방에서 큰 희생과 여러 가지 궁핍을 치르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은 편지를 네가 받았는지 모르겠구나. 그 편지에서, 설사 이리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런 소망을 네가 드러나게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다. (장상들이) 네 소망을 승인했으니 이제는 순명할 일만 남은 셈이다. 이는 너무나 분명하여 아무런 의혹도 없는 일인즉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그러기에 나는 온 영혼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오! 마누엘, 내 마음의 아들아, 하느님 다음으로 가장 중대한 것 —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룩한 일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성 이냐시오의 좌우명인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ad maiorem Dei gloriam)는 사랑을 표현하는 고귀한 문구이다. 이 사랑이 세상에는 얼마나 알려져 있지 않은지! 십자가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곧 즐기는 것이다. 그들은 이기심 때문에 사랑은 무엇보다도 받는 것, 위안을 얻고 애지중지 여겨지며 욕망 충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증여와 희생으로 자랄 따름이다. 사랑의 양식은 고통인 것이다.

설교는 이쯤 하고, 나는 다만 하늘에 이르는 참된 길을 발견한 너를 천만번이라도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순수한 사랑으로 언제나 하느님께 아낌없이 내어 드려라. 그러면 저 높이 천상 고향에서와 같이 지상에서도 항상 행복할 것이다.

네 형제 자매들은 몹시 큰 슬픔을 맛본 터라 너를 보러 갈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나를 위해 간구해 다오. 나는 그럴 자격이 도무지 없지만 말이다. 네 모든 형제 자매의 안부를 전하고, 너의 (소망에) 완전히 동의하면서 나의 축복을 보낸다.

희생 안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입맞춤을 보내는 네 어머니가.”(일기 1920년 6월)

그로부터 2년 뒤에 마누엘은 사제로 서품되었고, 콘치타의 마음은 기쁨과 뿌듯한 흐뭇함에 싸였다.

“마누엘에게서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일으키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사제품을 받을 날을 뜨겁게 갈망하고 있었고, 특히 이렇게 써 보냈다.

『주님께서 당신 새 사제의 모든 (청)을 들어주신다고들 하는 그날, 저는 어머니의 지향들 중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고, 잊을 수 없는 아빠와 제 형제 자매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혼들과 주 예수님 사이의 영적 결합 안에는 거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그날 엄마와 아빠는 당연히 저의 일차적이고 가장 좋은 지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제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잊을 수 없는 가족을 점점 더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제 영혼의 그 작은 모퉁

이에 고귀한 은총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라, 아들이, 성체를 손에 들었을 때 너는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있다’, ‘여기에 그분의 피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 말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네 안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그분 안에 사라져서 ‘또 다른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지복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엄마, 제가 이제나저제나 사제품을 받으면 그 점에 대해서 편지로 말씀해 주시고, 사제가 되는 것,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슴에 저를 품어 안으시고 예수와 마리아라는 극히 감미로운 이름들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때처럼 저를 엄마 손에 맡깁니다. 이 사랑의 신비, 무한히 위대한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정말이지 자신을 아기로 느낍니다. 엄마에게 빛을 청하고 엄마의 기도와 희생을 청하는 아기 말입니다...」(1922년 6월 23일)

마누엘이 그리스도의 사제로 봉헌되는 장엄한 날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편지 속에 더욱 큰 애정이 표출되고 있다. (다음은 마누엘의 편지이다).

“인생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의당 느껴야 할 느낌조차 없는 때가 있나 본데, 지금이 바로 엄마와 저에게 그런 순간들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글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엄마와 (형제들이) 보충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된 날에는 여러분과 나, 나와 여러분이, 특히 사랑하는 엄마와 저, 저와 엄마가 분리될 수 없는 긴밀한 유대로 결속되어, 서로 사이의 거리도 부재도 그 아무 것도 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세에서나 후세에서나 가장 거룩한 동반, 바로 예수님의 동반 안에 결합될 것입니다...

... 사제가 되자마자 엄마에게 첫 강복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른 엄마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온전히 어머니의 것인
마누엘, S.J.”

정해진 날이 되자 콘치타는 유럽과 멕시코의 시차를 감안하여 밤중에 일어났다. 마누엘의 첫 미사에 참례하고, 공간을 가로질러 첫 강복을 받으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녀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써 보냈다.)

“『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Te Deum laudamus)²²⁾

내가 사제의 어머니가 되었다!... 완전히 압도된 느낌이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얼마나 큰 거룩함을, 얼마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얼마나 완전한 덕행을 실천해야 할지!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울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뿐이다. 그것도 워낙 형편없고 흠투성이인데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나로서는 감사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모든 천상 주민들에게 나 대신 드러달라고 간청하면서 말이다.”(1922년 7월 31일의

22) 각주 18) 참조.

편지)

그 뒤에도 여러 해에 걸쳐 주고받은 편지들에 의해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콘치타는 가족들의 생활에 대하여, 그의 형제 자매들 각각에 대하여, 그들에게 관련된 모든 것과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대하여, 영웅적인 믿음으로 자기 조국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를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극히 사소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써 보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편지임과 동시에 한 친구, 속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절친한 사람, 또는 한 성녀의 편지이기도 했으니, 그녀 자신의 마음을 아들을 마음 속에 쏟아 붓는 것이었다.

다음에 그 마지막 편지들 중의 한 통이 있다. 아마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일 것이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오늘, 너의 고향이고 나의 고향이기도 한 산루이스에서 ‘성령 선교 수도회’의 창립식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 너의 감사를 바쳐 올려라. 일체가 그분의 더욱 큰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그녀는 아들에게 (멕시코의) 반종교적인 법과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위협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오로지 과달루페의 성모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다. 멕시코는 그분의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분의 것일 테니까... 나는 지금 모렐리아에 있다.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주님께에서 잠시 시간을 빼낸 것이다... 마르티네스 몬시뇰께서 해마다 그렇듯이 금년에도 내게 ‘영성 수련 피정’을 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고통 속에서의 완전한 기쁨」을 주제로 택하셨다. 내가 여기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느님께 청해 다오.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수련이 될지도 모른다.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분 뜻대로 되어서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격노를 푸시기를, 그리하여 세계 대전이 터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성인이 되어라. 인생은 도중에서 멈추기에는 너무나 짧다.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하건 그 길은 항상 십자가를 통과하기 마련이다. 첫머리를 대문자로 쓴 십자가(Cruz)는 우리 스승의 것이고 소문자로 쓴 십자가(cruz)는 우리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어쨌든 십자가를 사랑하여라. 우리 구원의 주된 도구인 까닭이다...”

콘치타는 피정 중에 다시 짬을 내어 이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있을 때가 왔다. 너를 위해 많이 기도하마. 그분께서 네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네 영혼의 모든 능력을 채워 주시기를, 마리아를 통하여 너를 그분으로, 또 다른 예수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내게 강복해 다오. 그리고 나의 큰 애정과 함께 이 부족한 축복도 받아 다오.

결코 너를 잊지 않는 어머니가.”(이상 1936년 10월 25일의 일기)

12. 수녀가 된 딸 콘차

세 아들들 다음에 태어난 콘차는 콘치타가 특별히 귀여워한 딸이었고, 가정에 피어난 웃음꽃이었다. 아버지도 이 딸을 애지중지하였다. 여섯 살 때 장티푸스로 심하게 앓았으나 오직 어머니의 보살핌과 지칠 줄 모르는 헌신적 사랑으로 간신히 완쾌되었다. 콘차는 키가 현철한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지만 영혼은 범접할 수 없는 순결 속에서 온전히 하느님께 머물러 있었다. 열다섯 살 때 동정 서원을 했는데, 그녀 특유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사랑하게 된 청년들이 환심을 사려고 줄을 설 정도였다. 한 때 마음이 흔들린 그녀는 엄마에게 더 이상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극적인 사랑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녀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기도와 속죄 고행을 배가시키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콘차의 아름다움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그 아이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콘차는 한 피정을 마치고 즐거운 표정으로 귀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엄마, 저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이 딸과 어머니 사이에 한층 더 깊은 영적 친교가 개발되었다. 그것은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데레사’라는 수도명을 받게 된 콘차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수많은 방문을 섬에 넣지 않더라도 삼백 통이 넘는 편지들이 이를 입증한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세상 구원을 위한 희생이라는 동일한 이상을 공유하며 반향하고 있었다. 콘치타의 영성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딸의 영혼 속에 각인되었던 것이다. 이 딸의 어머니가 바로 하느님 섭리의 영감을 받고 십자가 관상 수도회를 창립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녀는 딸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제 딸이 완전한 십자가의 수녀가 되게 해 주소서.”(일기 1908년 4월 17일)

“그 애에게 향구한 인내심을 주소서.”(일기 1908년 10월 5일)

이 수련자가 멕시코 (시티)에서 트랄팜으로 이동할 때 어머니는 전차 역까지 동행하였다. 그리고 “눈길로 딸애를 따라가면서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를 입 속으로 읊었다.”(일기 1909년 8월 16일) 어머니가 수녀원을 방문하는 것은 두 사람 다에게 큰 기쁨이었다. “나는 행복한 데레사 수녀를 다시 만났다.”(일기 1908년 5월 3일)

초기에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콘치타는 딸이 자랑스러워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제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데레사’ 수녀가 된 콘차의 덕행이 나를 무척 기쁘게 한다. 그 애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늙은 나이이면서도 유덕하지 못한 나를 보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린다.”(일기 1915년 1월 17일)

데레사 수녀는 1916년 10월 23일에 종신 서원을 하였다. “잊을 수 없는 복된 날이여!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데레사’가, 내 딸 콘차가, 영원히 주님의 정배가 되었다! 이 애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부터, 장차 자라나면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겠다고 말하도록 가르쳤는데, 드디어 하늘과 땅의 왕이신 분과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수녀는 불이 켜진 초를 손에 들고 성당 안으로 들어왔다. 순결하고, 겸손하고, 감

격으로 떨어, 기쁨으로 빛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 힘있는 목소리로 서원을 발했다. 무척 아름다운 음성이었다. 홀로 ‘그리스도의 신부여...’(Veni Sponsa Christi)를 노래할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일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 깊은 데로부터 솟는 면목 없음과 끝없는 감사를 느꼈다.”(일기 1916년 10월 23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데레사’ 수녀를 탄복하며 바라본 어머니는 이렇게 쓰기도 하였다. “그녀는 천사이다... 위대한 성녀가 될 것이다.”(일기 1916년 10월)

종신 서원을 한 이 젊은 수녀는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수녀들이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녀는 충실하고 명랑한, 마음에 쏙 드는 동료였던 것이다. 푸에블라와 몬테레이의 자매들도 그녀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녀의 생활은 그렇듯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되었다. 한때 성소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겪긴 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몬테레이의 지독히 더운 기후 탓인지, 갑자기 병에 걸려 피를 토했다. 이때부터 어머니와 딸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시간이 되었고, 병자는 멕시코 (시티)로 옮겨졌다.

“하비에라 원장 수녀님이 대주교님께 내가 데레사 곁에 있을 허락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다.”(일기 1925년 12월 11일) “과달루페 성모님의 국정(國定) 경축일인 12월 12일에 (수녀들은) 대성당에서 가져온 축복 받은 장미 한 송이를 데레사의 손에 쥐어 주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데레사가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데레사에게 마지막 성사들이 집전되었다.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으니,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내게는 데레사가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 애도 얼마나 열렬히 이를 간청했던가! 나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엄마!』 하는 것이었다. 가엾은 것!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 내 영혼이 빼개지고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그 애는 예수님께 이렇게 자꾸 되풀이했다. 『여기에 제 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피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딸애를 바라보면서 울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봉헌하면서,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데레가 주시기를 간청하면서.”(일기 1925년 12월 12일)

“새벽 두 시에 차를 타고 산소 호흡기를 구하러 갔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 애가 숨막혀 죽지 않게 해 주소서! 데레사는 『절망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는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오 하느님!”(일기 1925년 12월 17일)

“데레사는 어제, 12월 19일 오후 1시 45분에 죽었다. 제 마음의 하느님은 천만번이라도 찬미 받으소서!

내 생명의 딸이, 29일 동안 앓은 끝에, 온 몸으로 격통을 겪으며 죽은 것이다...

그 애는 천사였고, 산 제물이었고, 성녀였다.”(일기 1925년 12월 20일)

13. 살아남은 네 명의 자녀들

콘치타의 아들 세 명과 딸 한 명은 아직 생존해 있다. 판초, 이그나시오, 살바도르와 루페가 그들이다.

판초는 순수한 품채에다 자세도 똑바른 노인이다. 그 자신이 설립하고 아직 경영하고 있는 타자기 회사의 용무로 자주 비행기를 탄다. 그는 사업가이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은덕을 많이 입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를 “두 번째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열일곱 살이었는데, 용감하게 일터로 나가서 어머니가 다른 일곱 고아들을 양육하는 것을 도왔다. 주저 없이 유럽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등 남북 아메리카로 사업상 긴 여행을 하곤 하면서 힘든 세월을 살아 온 것이다. 콘치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으므로 다른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그에게 심분 의지하였다.

이그나시오는 콘치타가 매우 사랑한 그의 아내 차벨라와 함께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일으킨 뒤, 어머니가 서거한 산안헬의 집에서 가족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생애를 완성해 가고 있다. 그는 자기를 무척 사랑하며 자기에 대해서 “내 아이들 중에서 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라고 말했던 거룩한 어머니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살바도르는 (살아남은) 아들 중 막내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행복하게 해 줄 아내를 얻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면서 살뜰한 애정으로 보살폈다. “저의 귀여운 아들 살바도르가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일기 1924년 5월 31일)

그가 결혼한 다음 콘치타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게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녀들의 행복을 기뻐하기 마련이다.”(일기 1929년 9월 24일)

루페는 펍 아름답고 매력적인 딸이었다. 살바도르와 그녀는 둘 다 마음이 넓은, 집안의 귀염둥이였다.

콘치타는 자기 아이들을 전부 사랑하였고 그 각각의 삶을 따라다녔다. 필자는 어머니를 닮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그들의 입술에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 자신도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증언을 (글 속에) 남겨 두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미일 뿐이다.”

14. 자녀들이 본 어머니의 모습

필자는 1954년에 콘치타의 자녀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다음에 그들 어머니의 생생한 모습이 있다. 이는 필자가 수집할 수 있었던 것에도다 격식을 갖춘 질문에 대한 자녀들의 구두 답변을 충실히 속기하여 덧붙인, 진정한 증언들이다.

콘치타의 자녀들에게 질문하면서 필자가 더없이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그들 각

자의 기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시각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었다. (우선) 그들 모두가 어머니가 쓴 글의 숭고성과 받은 교육의 초보성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했다. “어머니께서 산루이스에서 받으신 교육은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처녀들이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장신구 만들기, 자수, 피아노 수업 등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었지요.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하고 판초가 말했다). 그녀의 아들 이그나시오는 필자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가 “빠어나게 총명하셨음”을 주목하게 했다. 그는 어머니가 현재의 여성들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면 그 지적 능력 및 본질적인 점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종합력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스승으로서 모든 것을 보완해 주셨기에 “받아쓰기”를 통하여 그녀의 신비가적 재능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녀의 장남(인 판초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쓰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콘치타의 딸 루페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와의 진솔한 사생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콘치타는 약혼했을 때부터 강렬한 사랑으로 그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배우자의 품모와 훌륭한 도덕성, 나중에 부드러움으로 바뀐 강한 성격의 사람을 보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 신분에 따른 의무를 다하셨어요. 아버지께 주의 깊고 애정에 찬 태도를 보이셨으며 늘 순종하셨고, 무슨 일에서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애쓰셨지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유일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러자 판초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보기 드문 남편이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무슨 일에도 끼여들지 않으셨어요. (이를테면) 글 쓰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시려고 어머니를 혼자 조용히 있게 해 드리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에 대한 그녀의 충실성을 증언하였다. 다음은 여덟 명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 (이그나시오)의, 새겨 들을 만한 증언이다. “어머니는 부부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결혼생활은 항상 평화롭게 지속되었습니다. 상호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세례 때의 순수함을 잃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도 순결을 무척 강조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도처에 있는 죄를 보시지 않고 인간사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분은 삶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몸쓸 존재는 우리들이지요. 나중에, 제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가 의미하신 순결이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루페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서로를 완전히 믿으셨거든요.”

· 가정 주부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들과 농장 일꾼들, 그리고 그 당시 멕시코의 농장들에서 일하던 다른 종업원들에 대한 콘치타의 완벽한 태도 — 그녀의 자녀들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증언을 해 주었다. 필자는 늙은 하녀와 몇 명의 종업원들에게도 질문을 던져 보았는데, 모두 한결같이 대단한 경의를 표하며 콘셉시온 카브레라 데 아미다 (=콘치타) 마님에 대하여 말했다. 그녀는 누구든지 극히 따뜻한 진심으로 대했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가끔 화를 낼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 생활 양식

콘치타가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했는지를 보려면, 자녀들 각자의 직접적인 증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달리 없겠다.

주된 증언은 말아들인 판초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녀는 “놀랍도록 훌륭한” 어머니였던 것이다. “우리는 어머니를 엄청 사랑했지만, 비상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평상적인 보통 엄마로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의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엄마를 대한 것과 같이 친숙한 호칭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 늘 존칭을 쓰며 경의를 표해야 하는 성녀와 함께 생활했다면 너무나 불편했을 테니 말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분의 행동거지에는 어떤 과장도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예컨대, 미사 참례를 할 때에도, 물론 깊은 신심을 드러내시긴 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하시곤 했으리라는 상상은 접어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일반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도 거의 모든 이의 마음을 끌곤 하셨습니다. 매우 상냥하고 유쾌한 분이셨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영위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살았던 우리마저 어머니의 (고매한) 성덕을 몰랐을 정도로 말입니다.”

· 가정의 어머니이며 교육자

콘치타의 자녀들은 아내와 어머니와 교육자로서의 그녀의 자질을 그칠 줄 모르고 칭송하였다. (다음은 판초의 증언들이다).

“우리는 아홉 명이었습니다. 제가 말아들로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우리 어머니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내로서 그러하셨으니, 저희 아버지가 가정 생활에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세속과 문화와 사회적인 면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양육하시려고 고심하며 돌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을 떠나신 뒤 우리는 부유하지 못했으므로 옥타비아노 외삼촌이 도와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가장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시려고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아들들은 예수회에서 경영하는 남학교에, 딸들은 성심회의 여학교에 보내셨지요. 저는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이 힘든 과업에 협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친히 앞장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고, 결코 화를 내는 법 없이 엄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곤 하셨습니다. 영신 생활을 위해 보내는 모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소홀히 하신 적이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탈선한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삶에서 가장 탄복할 점은 그 생활의 꾸밈없는 단순함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영성체는 제가 보기에 조금도 이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 생활을 위하여 결코 본분의 일을 해야 할 시간을 쪼개지 않으셨으니, 저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별난 현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형제 자매들도 이 점에 대하여 저와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저명 인사들을 대할 때에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식사 때에도 별난 것을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멕시코 가정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이었으니까요. 이렇듯 어머니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극히 범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어머니의 전 생애에 걸쳐 그분의 성덕을 가리는 휘장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 어머니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글을 쓰시지 않는 어머니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책들을 집필하셨고 많은 부수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서한들도 있었습니다.”

콘치타의 말아들은 증언을 끝내면서 이렇게 의미 심장한 말을 한 마디 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녀 삶의 비밀을 내비치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이그나시오 아르미다도 형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신의 성격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와 42년 동안 함께 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돌아가셨을 당시 제 나이는 44세였는데, 결혼 초기 2년은 다른 집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바로 옆집에서 살았고 식사 때에는 서로 만났습니다만.” 따라서 필자는 그에게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콘치타는 자기 자신의 집에서 여덟 명의 자녀들과 함께 기거하다가 그들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엄마는 매우 활기 찬 분이었어요. 언제나 손님들이 있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현상이나 현저하게 눈에 띄는 유다른 점은 전혀 없었어요. 펍 부드러운 성격이었지만 굳건하고 정력적이셨지요. 일단 어떤 노선을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면 그 누구의 힘으로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점은 사업을 떠맡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나름의 계획과 영감과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따르셨으니까요.”

“어머니의 생활은 어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쾌활하고 정말 쾌활하신데다 기지(機智)가 넘치는 우스개 소리도 곧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책에 모아 두었다가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인용하기도 하셨지요. 산루이포토시의 옥타비아노 오빠 댁에 가시면, 이 유력하고 부유한 외삼촌은 많은 방문객을 접대하셨거니와, 어머니는 언제나 그런 모임들의 중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말씀을 건네며 대화를 능숙하게 끌어가시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는 재간이 있었거든요. 훌쩍 반할 만큼 그들을 즐겁게 해 주셨어요. 말을 타고 어느 농장에 와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도 했어요...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계셨지요. 그들 중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설사 그가 달갑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거기 계셨어요...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달갑고 달갑지 않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성녀로 선포될지 아닐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틀림없이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소를 지으셨고, 푸른 눈은 하늘색이었어요! 그 눈으로 신부님 눈을 바라보면 내심이 간파된 듯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분은 완전한 균형을 잡고 계셨어요! 참으로 안정된 성품이셨지요.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될 경우 어머니의 침착함이 모든 것을 평정시켰습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성격이라든가 신경질적이라든가 지나치거나 시기심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민감하셨고, 이 점이 저에게는 큰 미덕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가정 생활이 비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눈물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고초를 겪으셨지만 남몰래 홀로 겪으셨어요.”

“신부님, 여기까지가 제가 어머니에 대하여 간직하고 있는 기억들입니다. 그분은 신부님의 어머니나 다른 모든 어머니들과 같은 어머니였어요.”

막내인 살바도르도 같은 이야기를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되풀이했다.

“어머니는 균형 잡힌 판단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결코 그릇된 판단을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언행이 조금도 없는, 극히 평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홀로 되신 후에는 자주 외출하셔서 가정의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셨고, 반대로 사람들이 자주 어머니를 만나러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자애로우셨지만 나쁜 짓을 하면 엄하게 나무라셨어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무척 사랑하셔서 자주 ‘과달루페 성모의 대성당’에 가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33세에 결혼하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명랑하고 단순하고 안정감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 대한 사랑도 그야말로 탄복할 정도였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눈에 띄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든지 애덕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한가지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벌어진 채 화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그들이 만나서 화해하도록 조정하셨고, 가족이거나 아니거나 병자들을 극진한 자상함으로 돌보면서 그 아픔을 덜어 주려고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임종자들을 돕기 위해 언제나 헌신하며 장지에도 가시곤 하셨는데,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던 집안 사람일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인이나 할 법한 온갖 궂은 일에 자진해서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콘치타의 딸 루페의 증언이 있다... 이 여성적인 증언은 남자들이 미처 못 본 여러 세목들을 드러내 보인다. 루페 역시 자기 어머니도 어느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였으며 완전히 균형 잡힌 성격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저는 늘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잠도 함께 잤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 어머니는 아주 전형적인 여인이셨어요. 저에게 많은 훈계를 주셨지요. 우리는 어머니가 황홀경에 빠지시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시 어머니의 모범이기도 하셨고, 우리가 일단 결혼하고 나면 설교를 늘어놓으며 방해하는 법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녀의 딸 루페는 어느 날 콘치타가 며느리인 살바도르의 아내에게 매우 중요한 속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주워 들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이 한마디였다). “나는 남편과 무척 행복했단다.” 그 외 모든 점에서, 곧 아내와 어머니와 가정 주부로서의 콘치타의 특질, 그녀의 열성과 사교성, 생활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드러난 영혼의 힘, 그녀의 깊은 신앙심에 관한 루페의 증언은 오빠들과 남동생의 증언과 유사한 것들이었다.

“어머니는 온 생애에 걸쳐 우리에게 탄복할 만큼 꾸밈없는 자발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맨 먼저 남편이 원하는 것부터』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셨어요. 남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더할 수 없이 상냥한 분이셨지요. 집안 일을 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신세 진 만큼의 급료를 지불하셨고, 제가 결혼하자 똑같이 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지불해야 할 정확한 액수를 적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곤 했는데, 초면인 사람조차 어머니 가까이 다가가 있으면 그렇게 느꼈어요.” 루페가 지적한 어머니의 유일한 결점은 단 과자를 몹시 좋아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단 것(los dulches)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나는 말야, 보석상 앞을 지나갈 때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썰라야 제과점 앞을 지나갈 때면 입에 침이 고인단다.』”

“그분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처럼 아주 평상적인 삶을 사셨어요. 웃으며 농담을 하거나 잡담을 하시고,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하면서 조카와 질녀들

을 그 애들 어머니보다 더 즐겁게 해 주시면서 말이지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지나가셨고, 『하느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미소를 지으며 수행하여라.』 하고 제게 충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받는 것 외에는.』

저로서는 어머니가 제 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루페, 지금도 어머니가 함께 계시는 느낌이 드나요?” (하고 필자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럼요, 신부님. 어머니가 십자가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며 지켜 주고 계신답니다.”

15. 어느 어머니의 증언

“콘치타는 자주 아팠습니다. 특별히 위기를 느낄 때에는 자식들에게 감탄할 만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유서이기도 하고 성녀의 유서이기도 한 것으로서 (다음에 한 예가 있습니다).

『애들아, 간곡히 당부하거니와, 내가 죽으면, 곧 하느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면, 너희는 인간적인 것을 중시하지 말고 용감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신성한 충실성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실행하며 너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바란다.

힘써 교회의 지시를 따라라.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드려라.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너희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하여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바란다.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확실히 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아라. 자녀들의 영혼을 기르며,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일이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은 일치, 일치, 일치이다...(1928년 6월 28일의 편지)』 ”

16. 멕시코 — 가공할 박해

멕시코 시티 트랄텔롤코에는 “세 가지 문화 광장”(la Plaza de tres Culturas)이라는 곳이 있다. 이는 멕시코 국민의 기원과 투쟁과 위대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문명을 지칭한다. 곧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 문명들 가운데서 특히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을 상속한 멕시코가 스페인 사람들의 이주로 말미암아 유럽의 특성이 새겨지면서 풍요해진데다, 이 현대 문명의 창조적 재능과 역동성으로 위대한 미래를 예견케도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콘치타의 생애라는 영화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서 당신의 신적 현존에 동양인의 특성을 지니고 계셨던 것과 같이, 콘치타는 온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조국과 밀착되어 있었던 경건한 여인이었다. 따라서 페루의 수호자인 ‘리마의 성녀 로사’처럼, 콘치타도 그녀의 환경을 통해서만, 즉 멕시코의 환경과 관습을 통해서만 합당하게 설명될 수 있고, 그녀의 심리적 반응이나 신앙심의 표현과 형태, 또는 속죄 행위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콘치타가 중년에 이르렀을 무렵 멕시코는 결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그녀의 「영적 일기」 속에서 우리는 그 반향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다음에 보이듯이) 사회주의 혁명이 반종교적인 목소리를 높이게 된 1914년, 그것이 이 “교회의 딸”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였다.

“1914년 8월. 이달을 우리는 전쟁과 임박한 박해에 대한 불안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산루이스와 오악사카와 케레타로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8월 15일. 고뇌의 날. 그들은 (관상 수도원인) ‘십자가의 집’(Casa de la Cruz)을 징발하여 군대 총사령부와 장교들 숙소로 쓰려고 한다. 오늘은 2만의 ‘carrancistas’²³⁾가 도착했는데 앞으로 서너 배 더 올 것이다. 사탄이 멕시코에 들어온 듯 내 영혼이 죽도록 슬프다. 가공할 탄압이다. 하느님의 징벌이다. 전쟁이 교회를 치며 터지리라는 점이 뚜렷해지고 있다. 내 영적 지도자는 숨지 않을 수 없다. 사제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다. 무서운 박해가 다가오고 있다. 하느님께서서 우리 가까이에 이웃을 배치하셨으니, 정부 관리들인 이 사람들은 수녀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8월 17일.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끔찍한 독성(瀆聖), 유린, 죽음, 가옥 약탈, 총성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처녀들을 납치 유괴되기도 한다. 외출하기가 두렵다. 사제들의 대량 학살이 예감되고 있다. 수도자들은 이미 추방되었다. 그들은 교회 재산들을 몰수할 것이다. 강제 징발과 통탄할 다른 일들이 수없이 속출하고 있다.”(일기 1914년 8월)

· 성직자들에 대한 박해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수많은 월권과 성직자에 대한 전쟁이 완전히 표면화되었다. 오 하느님! 제 마음의 하느님! 당신 안에 저희의 희망을 두었으니 저희는 당황하지 않으리이다! 가련한 멕시코여! 지금은 하느님 징벌의 때이니 우리가 이를 활용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일기 1914년 8월 27일)

· “시련은 지나갈 것이다.”

“수많은 걱정거리들과 더불어 새 달이 시작되었다. 반(反)성직자들이 푸에블라를

23) 의미가 불명한 단어.

장악하였다. 내 마음에 너무나 소중한 그 대성당이 모독되었다! 대성당 참사원들은 추방되었고 고해소는 전소되었다. 그들은 주교관에 자리잡고 생활하면서 사제들에게 수없이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모욕이 시작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푸에블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두고 주님께 한탄하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시련은 지나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일기 1914년 9월 1일)

동일한 주제가 1926년에서 1927년까지의 콘치타의 일기에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박해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 박해받는 멕시코 교회

“멕시코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압제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들이 교회와 사제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 수도 공동체들을 몰아내고, 외국인 사제들을 찾아내어 상상할 수 없도록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 주교들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다수의 신학교가 폐교되었다. 제 마음의 하느님, 하느님의 말씀이시여, 멕시코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애 가득하신 어머니, 과달루페의 동정녀시여, 저희에게 용서를 얻어 주소서!”(일기 1926년 3월 9일)

· 계속되는 박해의 참사들

“오늘 그들은 수녀들이 미르토에 있는지 보려고 왔다. 수녀들이 예수님을 감추었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부속 성당이 흙먼지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는 예배 의식을 하지 않는군.』 하였다. 지옥이 교회에 대해 격노를 터뜨리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포로가 된 사제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여기 멕시코로 끌려왔다. 사제들을 한 군데에 집결시키려는 것이다. 주교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혁명이니 전투에 온통 (휩싸여 있고), 술한 청년들이 불시에 붙잡히고 밀고 당하며 순교하고 있다. 레온 지역에서는 그들이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의 혀를 자른 뒤 총살하였다. 이 청년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을 위해 죽자고 동료들을 북돋았기 때문이었다.”(일기 1927년 1월 6일)

·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멕시코는 이미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었으니 이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얻어 줄 것이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만이 순교자들의 수를 아실 뿐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쓰시지만, 당신의 영광이 더 찬란히 빛나게 하시려고 번번이 인간적인 수단을 거슬러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과 기도의 때이다. 그러나 우리

는 또한 지체하시는 그분을 흠숭하고, 그분의 계획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그분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승리와 평화를 모든 희망을 거슬러 희망해야 한다. 멕시코는 마리아께 대한 충실한 신심 속에 머물러 있는 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일기 1927년 5월 26일)

이 시기의 콘치타의 일기나 편지에서 발췌한 인용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녀가 모든 사건을, 더없이 비극적인 사건들까지도 오로지 신앙의 빛으로만 보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그녀는 박해자들을 저주하는 대신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바쳤고,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겼다. 그녀의 열렬한 간청들은 또한 누구보다도 특히 사제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올라가고 있었다.

· **“교회를 위하여 너 자신을 나와 함께 산 제물로 바쳐라.”**

“내 사제들을 위하여 너를 산 제물로 바쳐라. 그들에게 은총을 얻어 줄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나의 희생과 일치시켜라. 영원한 사제(인 나)와 일치하여 나를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너의 사제적 역할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께로부터 교회와 그 모든 구성원들을 위하여 은총과 자비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인 나)와 일치한 산 제물로 너를 바치라고 내가 여러 번 당부한 기억이 나지 않느냐? 너는 나의 것이기에 온전히 교회의 것이며, 네가 온전히 교회의 것이기에 나의 것임을 모르겠느냐? 바로, 너를 내 사랑하는 교회에 묶어 주는 이 특별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을? 네가 온전히 교회의 것이 되는 것은 교회의 사제들을 위해 너를 산 제물로 바침으로써 교회를 위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일기 1927년 9월 24일)

콘치타는 자주 용기를 내어 사제들과 주교들 및 남녀 수도자들을 자기 집에 숨겼다.

그녀는 가시 돌친 말이나 비난은 한마디도 입밖에 낸 적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순수한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드러내 보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창립 당초부터 어느 나라에서든지 고통과 박해와 배반과 순교의 때를 통과해 왔으니,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당신 신비체의 지체들 안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17. 만년의 고독

“라몬 이바라 몬시뇰의 장례식에서 돌아와 감실에 이마를 기댄 채... 미어지는 가슴으로 나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봉헌하였다. 그리하여 내게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디깊은 『고독』이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내 삶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1917년 2월 2일에 일어난 콘치타의 영적 지도자의 죽음사건에 즈음하여, 주님께

서 친히 이렇게 예고해 주신 적이 있었다. “이제 내 어머니를 본받으며 걸어가야 할 삶의 마지막 여정이 너에게 남아 있다. 이는 십자가 사업들에 필요한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다. 큰 폭풍이 내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들에도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를 거두어 너의 화관이 될 것이다. 힘내고, 용기를 가져라!... 너의 사명을 수행하되, 마리아께서 당신의 고독 속에서 닦으신 덕행을 본받으며 수행하여라. 이 고독이 그분 안에서 나와의 결합을 자라게 하고, 나의 뜻에 대한 철저한 동의와 하늘에 대한 열망을 자라게 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리켜 주신 길이었다. 콘치타는 예수 승천 이후의 그분의 어머니와 같이, 말년의 고독과 고립 속에서 지상 삶을 마감했으니, 1917년 2월 2일부터 1937년 3월 3일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그러한 고독(soledad)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외적 사도직이 점차 축소되는 것을 보고, 이때부터 기도와 희생의 사도가 될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그녀를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그녀는 갈수록 더 커지는 마음의 고독을, 특히 영혼의 고독을 알게 될 것이고,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으셨던 것과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듯한 명백한 소원(疎遠)함을 통해 겪게 될 고독일 것이었다.

차례차례 저마다 결혼하게 된 자녀들로 하여 그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외로워졌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삶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콘치타의 민감한 마음은 때때로 지나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다. 자녀들은 애정과 세심한 배려로 그녀를 에워쌌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의 일이 있고 새로 꾸민 가정과 생활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다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녀는 저녁이 되면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다.

· *현세적인 모든 것은 사라져 가고 있다.*

“나는 더할 수 없이 완벽한 영적 고독 속에 잠겨 있다. 그러나 이는 하느님의 뜻이고, 내가 보기에 하느님은 오직 당신 뜻이 있는 곳에만 계신다. 더 이상 아무 것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 내가 곧 하나의 혼돈(chaos)이다. 나의 영혼과 갈망과 느낌을 종이 위에라도 표현할 필요가 있었건만, 그것도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다. 나의 느낌이나 식견, 심지어 고통과 눈물까지도 비밀로 간직하는 경향이 생겼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감춘다. 모든 것이 오로지 그분만을 위한 것이다. 내 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체가 사라져 가고 변하고 종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아무 것도 없다. 이 땅에서는 일체가 티끌이요, 그림자요, 헛것이요, 거짓이다. 실재요 진짜이며 가치 있는 것, 지속적인 것, 존재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 땅과 그 안의 만물은 다만 인간이 그분께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일 따름이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사라진다. 사랑도 고뇌도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열망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사라진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고 내 마음 속을 살펴보면 그 애정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렸다. 지극히 뜨겁던 소망도 지나갔다. 그 허영심, 그 잘못과 무질서한 행위, 이런저런 과장된 열성들도 다 지나갔다. 결정적으로 지나가 버렸다. 내 남편을 무척 사랑했지만 그것 역시 지나갔다. 수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살건 죽건, 저기에서 죽건 어느 허름한 농가의 뜰에서 죽건 내 집에서 죽건, 혼자 죽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건, 사랑 받으며 죽건 혐오와 멸시를 받으며 죽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소망밖에 없으니,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뿐이다.”(일기 1917년 11월 16일)

그러나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마음이 모든 정당한 애정에서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리라. 그와는 반대로 삶과 하느님과의 결합 속으로 전진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인간적이 되어갔던 것 같고, 그러자 그 모든 애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가족들의 모든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고, 자녀들의 사소한 축일이며 모임들도 챙겼으며, 그들의 기쁨과 시련 중에도 충실히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의 엄마요 각자의 엄마로 있었던 것이다. 1931년 아메리카의 금융 공황으로 자식들의 사업이 위협을 받게 되자 그녀는 하느님께 그들을 구해 달라고 간청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들로써 평생토록 일해 온 터에 달러의 가치 하락이 빚은 결과와 맞서서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병은 아직 낫지 않았고, 날마다 굴욕적인 일들과 함께 자식들의 파산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는 심한 고통과 집안의 어려움에 싸여 있다. 이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였건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의 세계를 온통 뒤덮고 있는 나의 구체적인 고통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일기 1931년 5월 22일)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심한 아픔을 느꼈다. 나의 한 아들이, 우리 모두와 연관된 사업을 위하여 30년이나 일해 온 끝에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사업 실패라는 불명예가 곧 닥치리라는 점 외에도, 내 자식들이 저마다 가족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다... 주님, 오직 주님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 필요한 힘과 제 자식들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뿐이옵니다.”(일기 1931년 5월 28일)

다음은 이미 나이 69세로 성화의 길 막바지에 오게 된 이 탄복할 어머니가 하느님께 바쳐 올린 비탄과 뜨거운 간청의 부르짖음이다.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 고통스럽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사업이 풀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고, 따라서 이 재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 가슴이 마구 으깨지고 못박히는 것 같지만, 저로서는, 오 예수님, 저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내치시어 비참과 저버림과 남의 동정으로 먹고사는 거지 생활 속에 있게 두십시오. 저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우는 것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일기 1931년 11월 11일)

그러니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간청으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하실 수 있었겠는가? (결국) 자녀들이 용감하게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콘치타의 만년은 괴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막내아들이 결혼한 뒤 그 쓸쓸한 심경을 일기에 이렇게 적어 두었다.

“하느님께서 아홉 명의 자녀를 주셨다가 다시 다 거두어 가셨으니, 이제 내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분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수도자가 되거나 죽거나 결혼하거나, 그분께서 그 모두를 이 어머니의 가슴에서 차례차례 데려가신 것이다. 남편의 침대를 포함해서 열 개의 침대가 텅 비어 버렸고 나만 지금 혼자, 혼자 달랑 남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죽음도 멀어짐도 없으신 그리스도,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부차적인 애정의 대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하고 그녀는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어머니는 희생과 고독 속에서 기뻐한다. 자녀들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다.”(이상 1929년 9월 24일의 일기)

게다가 콘치타는 남편을 잊은 적이 없었다. 해마다 남편이 죽은 날인 9월 17일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일기 속에서 충실히 기억하곤 하였다.

“남편이 타계하여 아이들에게 지상의 아버지가 없어진 지 어언 3년이다. 얼마나 슬픈 추억인가!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이들은 아빠의 무덤에 갔는데, 나는 발을 다쳐서 갈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계속 싸우고 있다. 정말이지, 눈물로 젖은 빵을 먹고, 눈물로 땅과 내 십자가상을 적시고 있다! 오! 저의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역시 원합니다... 저는 무섭도록 사무치는 고독을 느낍니다. 오 제 어머니 마리아님, 저를 붙잡히 여기소서.”(일기 1904년 9월 17일)

“홀로 된 지 20년이 되었다. 주님, 저에게 너무나 잘해 주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없는 제 지상 남편의 영광을 보존해 주시고 더해 주십시오. 제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는 모범적인 아버지이며 신사,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었사오니, 부디 당신 자신으로 그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일기 1921년 9월 17일)

“홀어미가 된 지 31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내게 주셨던 소중한 남편을 데려가신 지 31년이 되었다.

주님, 그의 영광을 더해 주시고 제 인사말도 전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 그토록 당신은 친절하십니다! 저 높이 하늘에는 남편과 함께 저의 네 아이들, 곧 카를로스과 페드로와 파블로와 콘차도 있습니다. 오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일기 1932년 9월 17일)

이처럼 콘치타는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남편과 자녀들과 하느님께 언제나 충신했다.

영혼의 고독은 마음의 고독을 능가한다. 이 영적 고독은 그녀의 만년 20년에 걸쳐

무서울 정도에 이르렀으니, 십자가 위에서 느끼신 그리스도의 내적 고통과 그 버림 받음과 점점 더 같아지고 있었다. 이때 콘치타는, 아드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겪으신 마리아의 “고독”이 (지상에서 순례 중인) 신전(神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게 큰 공로가 되었는지를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1917년), 사제직의 위대성과 비참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내 이야기”(를 담은 메시지)를 받았으며(1927년-1932년), 마침내 “성삼위의 일치 안에” 이루어질 온 우주의 “완성”에 대한 숭고한 계시들을 집대성하였다.

18.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얼굴

콘치타의 생애라는 영화의 화면을 다시 돌려 보면, 그 영적 여정의 한결같은 감탄하게 된다.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모습을 새겨 넣으신 것이다. “나의 삶 전체에 십자가 도장이 찍혀 있다.”(일기 1925년 7월) 그러므로 우리는 그녀의 온 생애에 걸쳐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각인되어 가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쓸쓸하게 버림받고 어쩔 줄 모르도록 무력한 상태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 주소서.”(일기 1893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생각하면 나의 육체적 고행과 내적 고통이 죄다 가벼워진다.”(일기 1894년 3월-4월)

“나는 십자가 위에 계신 하느님을 만났다.”(일기 1894년 8월 26일)

콘치타가 33세의 젊은 부인이었던 1895년부터 주님께서 그녀의 영성 생활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으니, 그것은 곧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반영이 되는 것이었다.

·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반사하는 거울”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서 그분과 하나인 것과 같이 너도 참으로 나와 ‘하나’이기를 바란다. 네가 십자가에 못박힌 네 예수의 모습을 재현하는 드맑은 거울처럼 되기 바란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대로의 나를 네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편에서는 네 안에 나의 모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순히 너 자신을 내맡기기만 하면 된다.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비탄 속에서 십자가에 못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꿰뚫리고, 무력해지고... 네가 그런 나와 똑같이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인즉,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살아 있는 나의 초상이 되어라. 내 아버지께서 네 안에서 (나를 보시고) 흐뭇해하시면서 죄인들에게 당신 은총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일기 1895년 4월 6일)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하느님께서 콘치타에게 내려 주신 모든 은총은, 특히 신비적인 강생의 은총은 그녀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녀를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재현해야 한다.”(일기 1921년 9월 16일)
이는 하느님께서 그녀 생애의 만년에, 특히 죽음의 순간에 그녀 안에 실현하실 것이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질병, 내적 고뇌, 신앙과 희망을 거스르게 하는 유혹 및 버림받음의 시간들이 콘치타를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반영이 되게 할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동의하였다. 갈바리아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지려고 하였고, 인간 육신의 모든 상태와 노쇠를 나누어 가졌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갈수록 더 거룩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거의 온통 예수님이 되었다!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고통, 나의 시간 —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자유로 그분의 것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사제들을 위하여 좋으실 대로 쓰시기를 빌 따름이다!”(일기 1829년 1월 31일)

콘치타는 모렐리아에서 영적 지도자와 함께 「고통 속에서의 완전한 기쁨」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피정을 마치고 멕시코 시티에 돌아온 뒤, 기관지 폐렴, 단독(丹毒), 요독증으로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리스도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쇠진한 몸에 부과한 고행은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신병으로 말미암아 생의 마지막 3개월을 침대와 안락의자 사이에서 지냈다.

그런데다 영적으로는 절망감을 겪었다. 그녀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계세마니 동산에서 바치신 기도 속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감정은 당신 아버지께 버림 받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분의 그것과 일치하였다. 그녀에게 그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셨기 때문이었다. “그분과 내가 마치 서로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이처럼 되었어.” 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던 것이다. 그녀의 두 아들 이그나시오와 살바도르는 호흡 곤란을 덜어 주려고 저마다 어머니의 한 쪽 팔을 들어올리고 있기도 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임종 중이신 그리스도 같았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기이한 현상도 일어났다. 이는 그녀의 아들들과 호세 과달루페 트레비뇨 (M.SP.S.) 신부 및 다른 증인들도 필자에게 확고하게 증언해 준 현상이었다.

콘치타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일어난 그 현상은 그녀의 개인적인 소명과 교회적인 사명에 대한 하느님의 도장이 그녀에게 찍힌 것과 같았으니, 바로 십자가 영성의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종합과도 같은 것이었다. 임종 순간에 콘치타의 얼굴이 변모되어, 더 이상 한 여인의 얼굴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었던 것이다.

제2부 위대한 영성 주제들

“모든 신비는 십자가 안에 있다.”

제1장 신비적인 저술가

“나는 순명으로 이 글을 쓰려고 한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던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고해사제 복자 라이문도 데 카푸아는 이렇게 말했다. “가타리나에게는 그녀의 삶보다도 훨씬 더 탄복할 만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녀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타리나가 만년에 자필로 쓴 편지 네 통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교회 박사”²⁴⁾이니, 말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교회를 비추어 줄 것이다. 콘치타에 대해서도 유사한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콘치타가 받은 교육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문학이나 신학 수업을

24) 성녀 가타리나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1970년 4월 4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

받은 적이 결코 없었고, 기껏해야 사제였던 외삼촌 루이스 아리아스에게서 다라(Darras)의 「교회사」²⁵⁾역본에 대하여 들은 것이 고작이었다. 콘치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독서를 대단히 즐겼다. 그것도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에서 영혼의 양식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내 기억에는 내가 평생토록 내 영혼 깊은 곳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 같다. 나는 영적인 모든 것, 이를테면 신비적 영성서나 설교집에 나오는 모든 것을 기억 속에 깊이 간직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억력이 나빠서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진실들만은 사무치도록 영혼 가장 깊은 데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그 신비적인 의미가 내 영의 더욱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어서 하느님에 대한 단순한 말 한마디에도 바이올린의 현처럼 떨며 반응한다고나 할까... 나는 언제나 독서를 좋아했고, 신비적인 영성서들 속에서 안식과 빛과 평온을 느꼈다.”(1894년 4월 1일) 콘치타에게는 이처럼 신비가적인 기질이 있었으니, 이 점이야말로 그녀의 존재를 이루는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녀는 항상 글쓰기를 동경했다. 작가로서의 소명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언제나 글이 쓰고 싶었다. 열여섯 살 때부터 온통 하느님이란 낱말로 뒤덮인 생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우리 가족이 페레그리나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그 대부분을 나중에 찢어버렸다.”(자서전 102) 그러나 더 나중에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게 글 쓰는 은총을 얻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녀에게 「일기」를 쓰라고 명한 것은 그녀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첫 지도자였던 ‘예수회’의 알베르토 미르 신부는 「준주성범」 외의 다른 영성 서적은 읽지 말라고 했고, 동시에 그녀가 써 두었던 글을 재차 읽는 것도 금하였다.

콘치타는 대단히 충실하게 순명하였다.

그 지도자의 명령은 하느님의 특별한 개입과 내적 스승이신 성령의 조명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알기로, 콘치타의 영성 교리 속에는 인간적인 영향을 받은 흔적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상당히 다양한 삶의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대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저술을 하게끔 했고, 그 큰 부피는 75세에 이르기까지 쌓아올려진 연륜과 맞먹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주님께서 친히 그녀에게 펜을 잡으라고 몇 번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써라, 써라.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싶다면 (어서 써라).”(일기 1900년 6월 18일)

· 주님에 의한 “받아쓰기”

콘치타는 마지막 영적 지도자로 새로 만나게 된 루이스 M. 마르티네스 몬시놀에게 자신의 영적 여정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삶을 통하여 주님께에서 받은 은총과 은사들을 되돌아보며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얼마

25) Joseph-Epiphanie Darras(1825-1878). 그의 주저인 「Histoire de l'Eglise depuis la création」은 1875년부터 1877년까지 총 25권이 Paris에서 간행되었다.

나, 얼마나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악덕과 미덕들에 대하여 『받아쓰라.』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자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신비를 가리는 베일을 제 눈에서 걷어치워 주셨기에, 저는 마치 응당 그래야 하는 것처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그 신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덧 제 ‘내심 이야기’(곧 영적 일기)가 거의 45권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온통 하느님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권고와 하느님의 비밀로 충만한 세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호의이신지! 어떤 때에는 제게 **받아쓰게 하시면서** 수정도 해 주시는 그분의 자연스러운 육성이 들리고, 때로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온 존재를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당신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하찮은 영혼에게 참으로 많은 은총을 내려 주셔서, 그토록 여러 모양으로 체계적인 방법과 조언과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일기 1925년 7월)

“주님에 의한 받아쓰기”라는 말은 따라서 광의의 뜻으로 융통성 있게 알아들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교사가 불러 주는 말을 생도가 그대로 받아 적는 것과 유사한 “받아쓰기”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질과 교양 정도와 삶의 다양한 상황과 양식(樣式)에 맞추어 적용되는 신적 조명 방식들을 말한다. 이러한 적용 및 진전이 라는 두 가지 근본 법칙은, 예언자들과 성령의 감도로 글을 쓴 다른 저자들에게 내려진 신적 ‘계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하여 이미 확인된 것이거니와, 그것이 사적 계시 속에도 적절하게 발견된다. 하느님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최대로 고려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히브 1,1 참조) 곧 이사야나 아모스에게, 아빌라의 데레사나 폴리노의 안젤라나 콘치타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다. 콘치타의 일기 중 다음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신적 교육법의 유연한 적응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전해 주는 방식은 그 자체 안에 ‘일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기에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나 자신을, 마치 유리에 반사시키듯이 너의 영혼에 반사시킬 수 있다. 이 신적 빛살들이 너의 영혼에 도장처럼 찍히고, 그러면 너는 그 인각(印刻)의 영향 하에서 바라보고 관조하며 이해하고, 네 지성의 즉각적인 협력으로 거기에 말이라는 형태를 부여하게 된다. 그때 나 자신은 너에게 미리 알려 주지 않은 채 네가 상당히 정확하게 그것에 적응하도록 그대로 둔다. 그러나 첫 조명의 순간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의 실체와 본질과 형상을 네 안에 남겨 두었으니, 너는 지성의 능력으로 네 영혼에서 그것을 전사(轉寫)하여 종이 위에 기록한다. 인간에게 쓰는 하느님의 이러한 전달 방식에는 이를테면 오류라는 것이 없다. 인간적인 걱정이 여기에 섞여들지 않아서이다. 인간적인 걱정은 영혼 안에 찍혀 있는 하느님의 자취를 모호하게 하며 변형시켜서 마침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단일성’에서 파생하는 이 전달 방식은 하찮은 한 피조물 속에 단번에 각인된 다음 지상의 언어로 형태

를 갖추게 되는데, 너에게 거둬 말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하느님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달된 것을 영혼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필요 불가결한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며 인간적인 걱정을 조금도 섞지 않는다면, 그 신적 인상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빛나기에 착각할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분명한 것은 신적인 것이 인간 속을 통과하면서 이를 받는 사람의 형태와 개성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극히 부차적인 문제이다. 하느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신 것의 본질과 실상과 형태는 동일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의 호의로, 또 나의 드높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내가 너를 선택한 이상, 너는 결코 네 영혼이라는 거울에 때를 묻히면 안 된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 네 영혼 속에 순결과 순수함과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 풍성하게 쏟아지는 은총들을 받기 위함이다.”(일기 1913년 5월 16일)

콘치타는 ‘일기’를 시작한 초기부터 하느님의 조명 활동을 체험하였고,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감지하였다. “예수님께서 내게 『잘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다, 그분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라고 느꼈으므로 나로서는 달리 말할 수가 없다.”(일기 1894년 3월 4일)

(또한 다음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글을 쓰는 것 역시 그분의 뜻이었다. “주님께서 『써라. 나는 네가 글을 쓰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니까 써라. 네가 쓰고 싶어도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쓸 수 없을 것이다.』 하시기에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의무를 소홀히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글을 쓰라고 명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내어라. 너는 잘 할 수 있다. 할 일을 예상하여 질서 있게 정돈하면서 네 능력껏 처리하여라. 그런 뒤 글을 쓰며 기도하여라.』”(일기 1894년 3월)

그리고 주님께서 콘치타의 마지막 의문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한 대답을 주셨다. “(네가 쓰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라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터이다. 그것이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면 너에게 경고하여 조심시킬 것이다. 또 너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터이니 너는 그 수치스러움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만이 때와 장소와 개입 방식의 주인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좋으실 대로 아무 말씀 없이 여러 달이 지나가게 하시다가 불시에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콘치타는 쓰고 또 써야 한다. 흔히 그녀가 가족에 대한 의무와 사회적인 의무에 몰려 있거나 심한 무미건조를 겪으며 기도도 할 수 없는 내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이기 십상이다. 어떤 때에는 그 반대로 “마치 펼쳐진 책을 대하듯이(일기 1906년 7월 18일)” 삼위일체(의 신비)를 해독(解讀)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눈길에 비추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분께서 그 단 한 번의 눈길로 모든 것

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일기 1906년 7월 18일 참조).

때로는 (쓰는 것이) 지겨워진 그녀가 이렇게 솔직하게 그 심경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일체를 잊어버리고, 쓰던 것을 뒤집어엮고, 생활을 바꾸고 싶다. 이것이, 유혹과 고통에 잠긴 현재의 내 심경이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덧붙인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 투쟁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차없이 나 자신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일기 1897년 3월 26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충실한 여종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 그녀의 영웅적인 삶이 그분의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남김 없이 그분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주저 없이, 당신 마음에 찰 만큼 오래도록 그녀 자신을 온전히 바쳐 주기를 요구하신다.

“『오래 살게 해 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고통을 많이 받고 글도 많이 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너의 사명이다... 너는 영혼들의 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특히 사제들 영혼의 성화를 위하여 미리 정해진 사람이다. 너의 ‘사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고통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성령의 군림을 통하여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라. 어느 날인가는 십자가의 불로 세상을 태울 성인 사제들이 기라성처럼 올 것이다... 나는 길을 닦고 있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교리에 의하여 독특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거니와, 너는 많은 영적 아들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이 수없이 많은 순교적 고통을 감수해야 얻게 될 아들들이다...』 그러자 내 영혼 속에 강한 열정의 불이 타는 느낌이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들을 주십시오. 당신을 영광으로 휩싸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일기 1903년 6월 29일)

콘치타는 그 당시 마흔 살의 젊은 과부였는데, 스승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흔다섯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펜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숯한 고통을 겪을 것을 기꺼이 수락하였다. 과연 작가로서, 무엇보다도 순교자로서 긴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 엄청난 부피의 기록 속에는 그러나 문학적인 허영심의 흔적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면 오늘날 단 한 장의 ‘일기’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첫 영적 지도자에게 성실하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간청하기를,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즉시 그것을 태워 없애 달라고 하였던 것이다. “저는 무릎 꿇고 양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가슴에 얹은 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분께는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으시겠지요? 신부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기록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가 이를 찢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제가 죽은 **순간에는 곧바로**, 가능하다면 그 임자인 저와 한가지로 태워 재와 먼지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약속해 주시겠지요? 제가 마음속 이야기와 다른 모든 것을 여기에 마구 쏟아낼 자유를 누

릴 수 있도록, 부디 약속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일기 1894년)

콘치타의 다른 지도자들은 현명하게도 그 기록들을 태우지 못하게 금지시켰다. 그녀 생의 말기 12년 동안 지도자로 있었던 루이스 마리아 마르티네스 몬시뇰은 그 자신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저명한 영성신학 저술가였는데, 1929년 4월 29일 그녀에게 이렇게 썼다. “그대도 나도 다른 누구도 그 ‘내심 이야기’에 내장된 보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오. 이를 개발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에 걸쳐 일해야 할 것이오.” 그는 또 4월 23일에 “그대 자신도 ‘일기’에 내포된 풍부한 재산을 알 수 없을 것이오... 알다시피 내가 그대의 지도자로 있는 한, 그 일기 중 단 한 자(字)도 없애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소.” 하고 덧붙였다.

그녀의 저작은 과연 굉장한 분량의 전집을 이룬다. 100권이 넘는 저작들이 시복 소송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고 있거니와, 콘치타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글을 쓴 신비가이다. 66권에 달하는 「내심 이야기」 곧 그녀의 「영적 일기」는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신학대전」보다도 더 방대한 것으로서 모든 것을 종합하는 그녀의 주된 저작이며, 온 교회를 위한 보화이다. 하느님께서 아홉 자녀들의 어머니인 일개 평신도 기혼 여성을 쓰시어, 현대 세계에 ‘십자가 복음’ 및 주된 그리스도교 신비들의 심오한 의미를 새삼 상기시키려고 하셨던 것이다.

제2장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 — 이것이 곧 나의 복음이다.”

1.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교 영성의 모든 창조적 흐름은 그 원천인 복음에서 다시 솟아났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탁발 수도회’ 영성과 같은 수도회 영성과 모든 현대적인 형태의 활동 영성이 나타났다. 예컨대 ‘도미니코회’ 영성은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²⁶⁾ 하시며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

26) 마태 28,19-20 참조

로 하는 복음적이며 동시에 독창적인 하나의 표현이다. ‘설교자회’의 영성과 조직의 모든 의미는 창립자 자신이 이렇게 구술한 초기 회헌대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형제들은 어디서든지 자신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수도회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오로지 하느님과 함께, 혹은 하느님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구세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창립 회헌).” 다른 모든 수도회 가족들이나 더없이 위대한 영성 대가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총괄적인 금욕, 곧 (일체의 욕을 끊고 완덕의 산 정상에 오르는 데 있어서 그가 택한) “무, 무, 무 그리고 산에서의 무”(의 길) 역시 사랑의 으뜸성에 온전히 지배되는 복음적인 (자기) 포기의 탁월한 형태이다. 그의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은 오직 「영적 찬가」와 특히 작품 전체에 성령의 숨결이 스민 「사랑의 산 불꽃」의 빛에 의해서만 전적인 의미를 지닐 따름이다.

이와 같이 ‘십자가 사업’에 영감을 준 콘치타의 영적 가르침도 사랑에, “사랑과 고통”(Amor y dolor)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 그녀가 세상에 일깨울 사명을 받은 ‘십자가’ 메시지에겐 고통주의적인 데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구원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진정한 사랑의 신비이다. 이는 하나의 특수한 신심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새로운 표현대로, 하나의 참된 “우주관”인 것이다.

2. 근본적인 관점:

사제이며 제물로서 내적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및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모든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소명과 교회 안에서의 사명에 따라 그리스도 신비의 한 가지 면을 표현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들이 둘이다. 한 아들은 본성상 나의 외아들이나 영원한 ‘말씀’이고, 또 한 아들은 은총에 의한 아들이나 바로 너의 사부 도미니코이다. 그는 말씀 직무를 사명으로 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한가지로 ‘설교자회’의 형제들도 ‘하느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 각의 수도 공동체는 그 특유의 은총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병자 돌보기, 청소년 교육, 그리스도교적인 사회 구현 촉진에 힘쓰는 수도회들 및 여러 형태의 활동이나 관상 생활 수도회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콘치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유의 방식은 무엇이었겠는가? 그녀에 대한 증거 자료들 가운데서 「일기」는 성부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녀 안에 새겨 두기를 원하신 성자의 특징이 어떻게 하나하나 계시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녀 안에 그리스도의 모상을 형성하기 위한 하느님의 그러한 교육법의 적용이 조금씩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콘치타는 우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에게 매우 독자적이고 새로운 모양으로 끌렸으니, “보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제가 왔나이다.”(Ecce venio)²⁷⁾에서부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Consummatum est)²⁸⁾ 하고 말씀하시기까지 극히 사소한 언행 속에서도 사제이며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내적 고통을 감지하며 이에 마음이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당신 아버지께 끊임없이 봉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 자신의 목적에 의거한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께 동화(同化)되는 점진적인 단계가 있다. 곧 또 한 사람의 예수가 되는 것,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가 되는 것, 특히 그리스도 성심의 내적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사제요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에 의하여 당신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을 남김없이 결합시키시면서 교회 한복판에 항구적으로 현존하시는 것은, 신비적인 강생으로 그들 각자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 사명을 계속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예수님”

성 바오로 이후 모든 성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저마다 이 그리스도와 동화를 목표로 삼았다. 아빌라의 데레사나 리지외의 데레사와 마찬가지로 콘치타에게는 영적 삶이 바로 한 인물, 곧 예수님이였다.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이 젊은 기혼 여성은 그럼에도 억누를 길 없도록 그리스도에게 끌리고 있었으니, 그리스도가 그녀 마음의 ‘스승’이며 자신의 모든 사랑들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였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께서 제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시든지 행복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소죄라도 고의로 범하기보다는 천 번이라도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언제나 오로지 당신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일하는 것 — 그것이 저의 모든 행위를 불타오르게 하는 태양이고, 또한 저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밝은 빛이요 동력이며 이상입니다. 저의 기도와 모든 열망의 주제는, 제 영혼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항구하게 온 힘으로 추구할 유일한 결의, 즉 『나의 삶은 곧 그리스도이다.』²⁹⁾ 『오늘부터 나는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 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가 될 것입니다.”(일기 1894년)

콘치타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 어딘가에서 하듯이 전례시기에 따라 색깔이 다른 옷을 갈아 입히는 사랑스러운 “작은 예수님”이 아니다.

콘치타는 신앙의 빛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신 말씀’, ‘성부의 외아들’, ‘교회의 머리’ 및 ‘영원하신 사제’를 발견한다. 그녀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육화한 말씀’의 무한한 풍요를 사랑 겨운 마음으로 관상한다.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의

27) 새번역 시편 40(39),8; 히브 10,8-9 참조.

28) 새번역 요한 19,30.

29) 새번역 필립 1,21.

제이위를 흠송하고, ‘영원하신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의 말씀의 탄생과 말씀의 역할을 보며 낯을 잃는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뿐더러,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탄식이 터질 만큼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녀로 말하자면, 「일기」가 그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왕다운 신적 현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결합된 이 삶을 체험한 영혼은 홀로 살 수 없다(일기 1893년 10월).”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 “예수님 및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서 특히 콘치타의 주의를 끈 것은 그분의 ‘수난과 죽음’의 신비였다. 그녀의 시선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께 집중된 것은 그분을 자신의 삶 속에 건너오시게 하기 위해서였다. 즉 **재현하기 위한 관상**이었다.

“그리스도는 빛이 다양한 광선들로 굴절되는 프리즘과 같은 분이시다.

— 그렇다면 내 안의 지배적인 빛깔은 무엇이어야 할까?

— 그것은 예수님 및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우리를 그분과 최대한 닮게 하는 십자가에 의하여, 그 덕분으로 변모됨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을 재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서 베들레헴의 가난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으실 뿐더러... 나자렛에서 숨은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나,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시는 공생활 중의 그리스도도 원하지 않으시고, 수모와 저버림을 당하시며 갈바리아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및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원하신다.”(일기 1921년 9월 16일)

(다음의 일기에서 보이듯이 그 까닭은) 분명하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분께서는 오늘 내게, 그러한 것이, 곧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닮는 것이 ‘말씀’께서 추구하시는 결합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일기 1897년 2월 26일)

· 그분의 내적 고통

이 주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본문을 인용할 수 있으리라. 물론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교 영성에는 십자가가 찍혀 있지만, 하느님께서 콘치타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유한 방식을 알려 주셨으니, 특히 그리스도 영혼의 내적 고통, 내적 못박힘을 공경하며 본받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면으로서 십자가 영성 전체에 새겨진 독특함이 될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성심의 내적 고통을 더욱 특별히 공경하기 바란다. 이 내적 고통은 강생의 순간부터 시작되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 성체 안에서 신비롭게 연장되고 있다. 이는 세상이 아직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고통이다. 하지만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강생의 첫 순간부터 이미 내 성심에 박힌 십자가가 나를 짓눌렀고 가시들도 마음속을 찔러 대고 있었다. 창이 미리 찔렀다면 그 사랑과 고통의 화산을 분출시켜 후련하게 해 주었겠지만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렇게 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은 배은망덕뿐이다. 이런 이유로 애정이 넘쳐흐르는 내 성심은 항상 가시와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 하느님인 나는 하늘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이 십자가를 만나기 위하여, 저 높은 곳에는 십자가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사람이며 하느님인 내가 무한한 고통을 받음으로써 숭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나는 온 생애에 걸쳐 오로지 십자가를, 십자가만을 원했을 따름이다. 십자가만이 이 땅의 유일한 재산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영원한 지복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십자가 사도직’을 통하여, 십자가와 가시와 창으로 상징되는 내 성심의 내적 고통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십자가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 집들에서, 이 ‘오아시스’ (곧 수도원)에서, 지금은 아직 극소수의 영혼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이 내적 고통의 바다가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내가 가시들을 뽑아 자기네 가슴에 박을 것이고 내 성심에 박힌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그들 자신이 살아 있는 십자가가 될 것이다. 그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내 성심의 십자가 내부에 머물면서 33년 동안 한 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이 내적 고통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아 공경하고 그 무거움을 덜어 주는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이 ‘십자가 관상회’의 이상이다.

내가 갈바리아의 십자가에 못박혀 있었던 시간은 불과 세 시간뿐이었다. 그러나 내 성심의 십자가에는 평생토록 달려 있었다. 수도원들 (곧 ‘오아시스’)는 그 두 가지 십자가를 다 공경할 것이지만, 야릇한 내적 아픔과 고통으로 내 영혼을 끊임없이 짓눌렀던 내적 십자가를 특히 더 공경할 것이다. 그 고통을 나는 일생 내내 감추고 살았다. 그런 상태로 미소를 지으며 일했던 것이다. 홀로 내 어머니만이 내 사랑에 찬 성심을 으스스하게 하는 그 순교적 고통을 감지하고 계셨다. 그런즉 몇 시간밖에 계속되지 않은 나의 외적 수난은, 그칠 줄 모르고 내 영혼을 괴롭혀 온 저 혹독한 수난에 비하면 한 방울의 이슬이나 위로와 같은 것이었다!”(일기 1894년 9월 25일)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준 이는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겪으신 구속(救贖)의 내적 고통은 골고타의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육신의 고통과는 비할 수 없도록 큰 고통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그리스도 영혼의 감춰진 내적 고통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헤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빌라의 데레사와 같은 성녀는, 콘치타도 그렇지만, “내 영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르 14,34)라고 하신 게세마니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뇌에 대하여 각별한 신심을 드러내었다.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이다.

· 죄인들을 위한 산 제물이신 그리스도

곧 이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친 **산 제물**이신 당신을 콘치타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이리하여 그녀도 같은 목적으로 자기를 바치도록 준비시키신 것이다. 그녀는 이 희생 제물 곧 속죄 제물이라는 점을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로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일기」 제1권에서부터 발견된다. “제물인 너와 제물인 나. 그런데 나는 네가 그렇게 되기 전부터 너와 온 세상을 위해서 항구적인 제물로 있는 것이다.”(일기 1893년-1894년)

“나는 네가 정말 나와 하나 되기 바란다. 네가 십자가에 못박힌 네 예수의 모습이 재현된 맑디맑은 거울처럼 되기 바란다.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대로의 나를 네 안에 반영시키고 싶은 것이다. 네 편에서는 나의 모상을 네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순하게 너 자신을 버려라. 나는 네가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비탄에 잠기고, 창에 찔리고, 무력해진 나처럼 되기 바란다... 이 모든 것을 차례로 묵상하여, 살아 있는 나의 초상이 되어라.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네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찾아내시고 당신 은총을 죄인들에게 풍성히 쏟아 부어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일기 1895년 4월 6일)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콘치타의 변모 여정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앞에서 인용한 아주 아름다운 텍스트가 있었거니와, 그것을 여기에 위치시켜도 좋을 것 같다.

· 사제이며 제물이신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이다. 곧 (내가) 하나뿐인 제단, 하나뿐인 제물이다... 모든 영혼은 이 위대한 제물과 결합하여 자기 자신을 바쳐야 한다.”(일기 1898년 6월 20일)

하느님께서는 이 **제물 곧 제병(祭餅)**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지고한 특권이며 십자가 교리의 관건과도 같은 그분의 사제직으로 콘치타를 이끌어 가셨다. 이 계시가 확인해진 것은 신비적 강생이라는 “**중심 은총**”을 받은 순간이었다. 바로 이날 콘치타의 소명 전모가 그녀 자신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십자가 영성은 그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50년 전에, 하느님 백성의 “왕다운 사제직”을 다시 밝혀내며 크게 부각시켰다: “여기에 진정한 사제직이 있다. 제물(인 나와) 함께 제물이 되는 것이다(일기 1906년 7월 17일).” 그러니 이 영성은 그 자신의 가장 깊은 내부에 본질적으로 사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왕의 사제들인 백성”³⁰⁾이라는 계약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30) 1베드 2,9 참조.

이다.

신비적 강생 이후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주님께서 콘치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너는 제단이고 동시에 사제이다. 왜냐하면 네가 갈바리아와 성체성사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 나를 소유하고 있고, 세상 구원을 위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이를 끊임없이 봉헌할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신비적 강생이라는 크나큰 은혜의 가장 소중한 열매이다... 너는 나의 제단임과 동시에 나의 제물이다. 나와 결합하도록 너 자신을 봉헌하고, 영혼 구원과 영원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는 드높은 목적으로 순간마다 아버지께 나를 봉헌하여라. 일체를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너 자신을 잊어버려라. 이것이 너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도록 하여라. 너는 숭고한 사명을 받았으니 곧 사제적인 사명이다. 나의 인자함을 찬미하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네가 그토록 열망하던 것과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주기도 했으니, 바로 사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를 네 손에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네 마음 속에 나를 지니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더는 결코 너에게서 나를 떼어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 은총의 장엄한 궁극 목적을 실현하여라. 네가 알다시피 그것은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순결하게 제단이며 동시에 제물이 될 의무를 너에게 부과하는 은총이다. 네가 또 다른 제물, 홀로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제물인 성체와 함께 번제의 제물로 살라지는 것이다.”(일기 1906년 6월 21일)

콘치타는 신비적 강생의 은혜를 받은 후부터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소명과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지니는 이 사제적인 성격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 일치 정도에 따라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라지는 정도에 따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하지만, 영혼마다 또 성인마다 각기 다른 면의 그리스도를 재현한다. 그렇다면 각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는 영적 범주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그분께 일치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살며 그분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본받아 아끼 그리스도가 되고, 어떤 이들은 성체 그리스도, 또 다른 이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가 된다... 나로서는 그리스도의 동일한 두 가지 면을 본받아야 한다. 그것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여기에 콘치타의 강조 표시가 있다 — 필자 주)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이다. 어쨌든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관련하여 사제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장 숭고한 면은 십자가에 집중된 그분의 사제직이다. 성체성사와 십자가는 하나의 같은 신비를 이룬다. 성체성사는 은총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결합의 형태이고 십자가는 모방에 의한 결합의 형태이다. 신비적 강생의 효력에 의하여 내가 모방해야 하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십자가에 집중된 그분의 사제직이다. 십자가 수도원들 (곧 ‘오아시스’)는 오직 하나의 거대한 미사를 이를 따름이

다.”(일기 1923년 12월 28일)

· 성체 그리스도

“성체성사와 십자가는 하나의 같은 신비를 이룬다.”고 보는 이 동일시 현상은 콘치타가 그리스도의 궁극적 특징을 무엇으로 보는가를 드러낸다. 그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이니,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사제이며 희생 제물이시고, 성체는 아버지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 희생 제물의 상태를 세상 끝날까지 영속화하시는 것이다. 콘치타에게 있어서 성체 신심은 부수적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녀 삶의 “중심”이다. 교회에 있어서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에 대한 지고한 신심 형태는 성찬례이다. 이는 단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투쟁 중인 순례교회 한복판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가지신 참된 존재로서 실체적으로 현존하시게 하는 효과적인 기념이다.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이, 삼위일체와 불가분적인 ‘말씀’의 위격을 아울러 지니신 그분이, 땅에서 높이 들어올려지신 채 삼위일체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밤낮으로 서 계시는 것이다.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리교회 한가운데서 항상 아버지 면전에 계시거니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예전에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갈릴래아의 길을 걸으셨고, 같은 그리스도께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참으로 역사적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언제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성체의 형상 아래 숨어 계시면서 땅과 하늘과 우주와 삼위일체를 하나로 묶는, 지고한 신적 실재의 현존이요, 영원하신 ‘말씀’, 강생하신 ‘말씀’의 현존이니, 콘치타는 집에 있을 때에도 이 현존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고 하느님이시며 다시없는 사랑이신 그분께 밀착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콘치타의 「일기」에 성체성사에 대한 지극히 난해하고 심오한 문제를 다룬 본문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 의외의 일이었는가? 그녀는 전문적인 신학자와 같은 기량으로 성체 축성말씀인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를 주석하기도 했다. 그르침 없는 정통성을 지닌 그녀의 성체 교리는 주님에게서 “받아쓰” 것으로서 「일기」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난 대목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콘치타에게 당신 아들 예수님의 참모습을 이루는 특징들을 조금씩 밝혀 주셨으니, 강생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은 외적인 수난보다도 내적 고통을 통한 십자가에 의하여 사제요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당신 교회에 그분의 실제적 현존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기념을 남겨 두시어, 세기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일치 안에서 인간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그분의 활동을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이 구원 섭리의 ‘원리’이며 ‘목적’이다. 하지만 ‘중개자 그리스도’는, 당신 백성이 참여하는 “왕다운 사제직”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의 구

원을 위한 그분 사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세속적이건 종교적이건 인간의 사상을 집대성한 서적 속에는 그 고유의 모든 특성을 가장 작은 세부까지 일관된 견지로 종합하는 하나의 시각, 하나의 중심적인 관점이 있다. 여기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의 근본적인 관점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 및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종합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사제직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3. 성령의 수위성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고아로 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다른 보호자”³¹⁾를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 시니, 그분이 오시면 그들을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³²⁾ 투쟁 중에 있는 그들을 무적의 함으로 떠받쳐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초기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이 기적적인 도움을 확연히 나타내 보인 것이 사도행전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복음이라고 불렀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초기 교부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들의 교리를 체계화했고 여기에서 하느님의 영을 위한 뛰어난 위치를 따로 떼어 두었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대(對)이교도 대전」(Summa contra Gentiles)³³⁾ 중 정당하게도 널리 알려진 제4권의 세 장(章) — 20장, 21장, 22장 — 에서 이 공통적인 가르침에 대한 요약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다. 순전히 이신론(理神論)적인 두 세기³⁴⁾가 지난 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삼위일체적인 교회”의 표방(標榜)과 활기찬 재건을 도모하였고, 여기에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크게 강조되었다. 십자가 영성 속에 두드러지는 성령의 위치로 말미암아, 현행 교도권의 지침에 의거해서, 공의회 문헌이 교회 생활 속의 성령의 수위성(首位性)을 강조하는 최상의 소개서가 된 것이다.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일을 아들이 세상에서 다하시고 나자”(요한 17,4 참조) 성령께서 오순절에 파견되었으니, 이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에페 2,18 참조) 하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요한 4,14; 7,37-39 참조) 생명의 영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죄 때문에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돌려주시고 인간의 죽을 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살아나게 하실 것”(로마 8,10-11 참조)이다. 성령께서는 교회와 신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살아 계시면서(1고린 3,16 참조; 6,19 참조) 그들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느님의 양자성을 증명해 주신다(갈라 4,6 참조; 로마 8,15-16,26 참조). 그분께서는 “교

31) 새번역 요한 14,16.

32) 요한 16,13 참조.

33) 원제목은 Summa des Veritate Catholicae Fidei contra Gentiles이고, 저작 연대는 1259년부터 1264년까지라고 한다.

34)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인 17-18세기를 말한다.

회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요한 16,13) 하시고, 일치와 봉사 안에 결합시키시며, 교계적이고 은사적인 다양한 은총을 선물로 주시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에페 4,11-12 참조; 1고린 12,4 참조), 당신이 “맺어 주시는 열매”(갈라 5,22)로 교회를 단장하신다. 그분은 또한 복음의 힘에 의하여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고 항구적으로 쇄신하시며 교회가 그 신량과 온전히 결합될 때까지 인도하신다. 주 예수님께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묵시 22,17)하시기 때문이다.

“이로써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교회헌장 4항)

· 십자가를 굽어보시는 성령

십자가가 콘치타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면 성령은 십자가의 맨 위쪽에 계신다. 십자가를 굽어보시며 위에서부터 밝혀 주시는 것이다. “내가 떠난 이래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이는 성령이시다. 승천한 뒤 내가 그분을 파견한 것이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얼마나 공경을 받지 못하시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을 모르고 있는지를 네가 안다면! 그분을 공경하는 성전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그분을 과소평가하며 순제 그분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이 신적 위격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사도직의 십자가 내부에 숨어 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경배를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 사도직’이 온 세상에서 그분께 성전들을 지어 드릴 것이고, 그러한 교회들에서 성령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힘없이 무너지겠지만, 그분은 당신의 신적 숨결로 ‘십자가의 영’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의 지도자에게 알려주어라. 그가 깊이 생각하도록 하여, 이 사도직에서는 첫 화살기도가 성령께서 오시기를 비는 기도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십자가 사도직’을 당신 날개로 휩싸 주실 터인즉, 그분의 신적 영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일기 1894년 3월)

· 개발되지 않은 채 감춰져 있는 보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미지의 존재이다.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이신 성령의 독자적인 신원과 영혼들을 사랑의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상(地上) 사명을 콘치타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스리실 필요가 있고 그분께 대한 예배의 쇄신이 긴요하다고 하신 것이다. (필자는 다음의 일기 중) “그분의 천상 사명, 그분의 생명, 그분의 존재는 ‘사랑’이다.”라는 구절이 기억에 떠오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의 뿌리인 그분 자신의 내적(ad intra) 능력에 닿게 된다. 삼위일체 신비의 외부로 향함(ad extra) 그분의 사명은 사랑의 특성을 반사하는 일이다.

“『감춰져 있는 보물, 개발되지 않은 채 그 진가가 전혀 평가되지 않은 재물, 그러

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 — 그런 분이 곧 성령이시다. 영혼의 세계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분은 지성들의 ‘빛’이시며 마음들을 태우는 ‘불’이시다. 영적인 세계와 내 교회까지도 괴롭히는 미지근함과 냉담과 나약과 다른 술한 악들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께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천상 사명, 그분의 생명, 그분의 존재는 ‘사랑’이다.

그분의 지상 사명은 영혼들을 이 ‘사랑’의 가정으로, 곧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이다.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사람에게 슬픔이 있는 것은 이 ‘위로자’이신 하느님께, 완전한 영적 기쁨이신 그분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약함이 있는 것은 무적의 ‘힘’이신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오류가 있는 것은 ‘빛’이신 그분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성령의 부재로 말미암아 신앙의 불이 꺼진다. 개개인과 온 교회 안에 성령께 마땅히 드려야 할 흠숭이 없는 것이다. 교회 안에 또 영혼들의 영역 안에 있는 통탄할 악의 대부분은, 말씀의 강생과 교회 창립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성령께,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그분께 내가 드린 수위성에 그들이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온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열성 없이 그분을 부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내 사람들까지도 마음 속에 그분에 대한 기억조차 없다. 이 모든 사실이 내 성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지금 성령께서 다스리셔야 할 때이다.』 하고 주님께서 매우 슬픈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그러나 그것은 저 멀리 높은 곳에 뚝 떨어져서 다스리는 식의 통치가 아니다. 물론 그분은 ‘아버지’와 ‘말씀’과 하나의 같은 본체를 이루는 하느님이시니 실상 더 높은 분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런 그분께서 아주 가까이에서, 곧 각각의 영혼과 마음 안에서, 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안에서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이다. 몸 속을 흐르는 피와도 같이 성령이 각 목자와 각 사제 안에서 순환하는 날이 오면, 그 때에는 성령의 부재로 내 교회의 성직자들 안에서도 쇠퇴하고 있는 작금의 향주덕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개탄을 금치 못할 모든 악은 유일한 치료제이신 성령을 멀리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내 교회의 성직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그러면 영혼들의 세계 전체가 신성하게 될 것이다. 성령은 제반 덕행들을 운행시키는 주축이시다. 쇠약해진 상태로 앞드려 있는 내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결정적인 추진력은 성령께 대한 흠숭을 되살리는 것에 있다. 그분의 위치를 그분께,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지성과 의지 안에서 으뜸가는 위치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이 천상적인 부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부족한 것이 도무지 없을 것이다. 아버지와 말씀인 나는 교회 안의 성령의 통치가 열렬하고 활기차게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주님,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한탄하시는 까닭이 무엇이옵니까?』

『실상이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불행하다! 물론 성령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생명이다. 그러나 내가 개탄하는 점은 사람들이 이 천상 선물을 잘 모르는데다가 마땅히 중요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성령 신심은 상투적이고 맥이 없으며 미온적이고 부차적이다. 그래서 무수한 악이 모든 영혼들과 교회 속에 초래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십자가 사업’은 성령 신심을 쇄신하여 온 땅에 펼쳐야 한다. 성령께서 영혼들을 다스리시고 말씀이 알려지고 공경받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변화된 영혼들 안에서 십자가가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정도에 비례하여 오늘날의 지상에 만연한 관능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십자가는 미리 성령으로 다져진 토양 속이 아니면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환시 중에 성령의 모습이 십자가보다 먼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사도직의 십자가 맨 위쪽에 계시는 것이다.

신비적인 강생의 주된 열매들 중의 하나는 물질주의를 사라지게 할 성령의 통치이다.』”(일기 1911년 2월 19일)

· 영혼들과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활동

성령의 활동은 우선 영혼들 안에서 지각된다. 그러나 이 활동은 또한 온 교회에 확장된다.

(다음은 콘치타의 편지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 은총의 원천이시며 결코 활동을 멈추지 않으신다. 나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들 안에서 밤낮으로 일하시기에 이 영혼들은 끊임없이 덕행에 진보한다. 하지만 영혼들이 반항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서 물러난다. 내 은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값진 재산이기 때문이다. 영혼 안에서의 성령의 활동은 매우 섬세하고 미묘하기에 이를 업신여기는 영혼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영혼이 나의 영감에, 내가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그에게서 물러난다.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밀어주어야 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달리거나 날아가는 영혼들도 있다. 은총에 응하는 정도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정해 둔 단계에까지 계속 상승하며 진보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깨어 있어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알다시피 내 말을 이해하려면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계속 희생 정신을 지니고 있어라...』

주님은 거듭거듭 『내 교회를 위하여 너를 희생 제물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저로 하여금 교회와 십자가를 결합시키는 긴밀한 관계를 알아듣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태어났다.』 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확증해 주시려고 성령께서 그 뒤에 오셔서 교회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즉, 교회는 모든 은총의 수탁자라는 것, 그분께서 교회 안에 당신 거처를 잡고 계시며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신

다는 것, 누구든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예식에 당신의 도장을 찍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도장이 없고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1904년 6월 23일, 레오폴드 루이스 이 플로레스 몬시뇰에게 보낸 편지)

· 영혼과 아주 가까이 계신 성령

성령께서는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거처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신다.”(요한 14,17) 그러므로 삼위일체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참조)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은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성령의 성전”(1고린 6,19)이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아주 멀리,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상상한다. 실은 매우 가까이서 피조물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의 한 위(位)라고 할 수 있다. 그분은 어디든지 그와 함께 다니시고, 그를 꿰뚫어 계시며, 그를 부르신다.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살아 있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를 막아 주신다. 그분은 영혼 자신보다도 그 영혼과 더 가까이 계신다. 영혼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그분의 영감 아래에서 그분의 빛을 받으며 그분의 은총과 도움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건만 사람들은 그분께 호소하지 않을 뿐더러, 각 영혼 안에서 그토록 친밀하게 직접 행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네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나를 아는 것, 나를 섬기는 것, 나를 본받는 것, 오로지 나의 뜻과 내 성심과 하나가 되는 것 —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그렇다. 하지만 이 지고한 초월적 존재,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거룩함을 이루며 반영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영보다 비참 속에 있는 피조물과 더 가까이 있고 더 큰 도움을 주는 존재는 없다. 여러 세기가 흘러갔지만 그분은 언제나 만물의 ‘본원’(本源)으로 남아 계신다. 그분은 영혼들 안에 당신의 인장을 찍으시고 사제들 안에 인호를 새기시며, 믿음의 빛과 모든 덕행들을 주시고, 교회의 모든 분야에 물을 대시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분을 잘 모르고 있으며 그분의 영구적인 성화 활동을 고맙게 여기지도 않는다. 세상이 나에게 배은망덕하게 구는데, 하물며 성령께야!

그러므로 종말 시대에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내 성심의 가장 흑독한 내적 고통 중의 하나가 바로 모든 시대에 걸친 이 배은망덕이었다. 성령을 망각한 인간이 과거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 오늘날에는 인간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음욕이 세상을 지배해 왔으니, 육적인 삶은 영

흔들 안에서 믿음의 빛을 흐리게 하고 결국 소멸시키고 만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서 오셔서 음욕(의 잔)으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사탄을 뿌리째 멸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일기 1915년 1월 26일)

· 성령의 활동을 따르신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스도야말로 성령의 걸작이시다. 그분은 ‘말씀’으로서, 영원한 본체이신 성부와 함께 계신다. 성령은 일체를, 무한한 완전성 안에 계시는 당신의 존재를 성자로부터 받으신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단일성 안에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누임 없이 발출하는 사랑 자체이시다.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일체를, 곧 그분의 강생과 존재와 생애, 그리고 당신 신비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그분의 활동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셨다..

“사람으로서의 내 영혼의 모든 움직임은 성령의 영감과 활동에 따라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나의 능력과 감각과 의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를 전부 당신 것으로 삼으셔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게 하신 것이다... 그분은 비할 데 없는 각별한 사랑으로 나의 인성을 사랑하셨다... 성령께서 얼마나 굉장한 우아함과 애정과 광채로 나의 영혼과 능력과 감성과 몸과 마음을 단장해 주셨는지 네가 안다면! 어머니 이상으로 그분은 온통 사랑이시다. 그분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나에게 당신의 권능과 모든 풍요를 펼치셔서 나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든 것의 완전한 모형으로 엮어내셨다. 그러니까 내 성심을 꾸민 모든 재물과 보화는 그분의 은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신성에까지 올라오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지어내어 기르시고 부요하게 하셨으며, 당신 사랑의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내적 고통과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보편적인 속죄 행위의 방식도 그 안에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과 몸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느님께 보상을 바치려면 하느님의 권능과 결합된 하나의 다른 마음과 몸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니, 이 계획, 이 활동, 이 구원 목적 — 내 인성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목적 — 도 성령의 은덕을 입은 것이다.”(일기 1915년 1월 29일)

· 교회 안에서 첫째가는 위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콘치타에게 장엄한 지평을 휘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느님의 사업들 속에서의 성령의 유일하고 원초적인 위치를 드러내 보이셨다.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 성삼위의 회의 석상에 계셨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세상의 운명이 향할 방향을 잡고 계셨다. 그분은 성자의 오심을 준비하시면서 거기 계셨고, 말씀의 육화 순간에 이를 실현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교회 안에 계시며 활동하신다.

“성령께서는 영원한 구원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비추시어 미리 알려 주신 다음, 때가 되었을 때 강생 사업을 실현 하셨다. 내가 인간으로서 사는 동안 그분께서 나를 지탱해 주셨고, 그분께서 나의 무한한 속죄 행위를 내 아버지께 바쳐 주셨으며, 영혼들을 감동시키셔서 ‘진리’ 곧 나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셨다. 나는 그분을 보내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성사들과 그르침 없는 활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 교회 안에서 첫째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니 말이다.”(일기 1915년 1월 28일)

4. 핵심 직관: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랑’을 통하여,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에 도달함.

가장 위대한 천재들은 흔히 긴 세월의 숙고 끝에 갑자기 창조적인 직관의 형태를 띠는 하나의 중심 생각을 발견하고 이를 심화하면서 여생을 보낸다. 그것을 자기네 삶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것으로부터 실제적인 적용의 세계가 솟아나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성인들의 삶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리지외의 데레사와 같은 이는 성덕에 이르는 “온전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우리 가운데에서 걸어갔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³⁵⁾

이와 유사한 점을 콘치타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41세의 젊은 과부인 그녀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께로 점점 더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1903년 1월에 초벌로 쓴 일기의 원고 속에는 그녀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아쓰게” 하신 “사랑에 관한 빛들”이 죄다 모여 있다. “독서말씀을 경청하고 있노라니, 갑자기 내 지성 속에 빛 같은 것이 파고들면서 그분의 구원 효과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였다.” 콘치타는, 나이 사십이 되었을 무렵에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아빌라의 데레사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에 의하여 갑자기 십자가 영성의 중대한 기반이 될 주된 직관을 얻게 되었다.

그 구조는 정상에 사랑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중심에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이 계시며, 그녀 편에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에 전적으로 속하면서 사랑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은 씨앗 상태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그녀에게 일깨워 주신 영적 가르침과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에 대한 그녀 자신의 사랑의 체험에서 온 포괄적인 직관이다. 종합적이며 독창적인 이 새로운 우주관은 드높은 지혜의 시야 속에 구원 계획의 양극(兩極)을 드러내 보인다. 이쪽 극에는 무한한 ‘사랑’이신 분이 계시고, 저쪽 극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랑과 만나고 이분과 하나가 되라는 부르심이 있다. 이 핵심 직관을 명확히 표현하면,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통

35)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가톨릭출판사, 1975년) p. 230 참조.

하여, 사랑이신 분에게서 출발해서 사랑이신 분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영성 생활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형이상학이 도덕의 기초라면 교의는 신비신학을 관장한다. 삼위일체의 신비와 말씀의 강생 신비는 그리스도교 영성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십자가에 대한 모든 교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박히신 하느님관(觀)에 의거한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하느님은 만물을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는 최고선(最高善)이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하느님은 “나는 있는 나다.”³⁶⁾ 하신 시나이 산의 하느님이다. 리지외의 데레사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이다. 콘치타의 하느님은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랑”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하느님의 본질이 온통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또 들었지만, 아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무엇, 내 영혼을 떨리게 하는 진동, 번갯불이 번쩍 하는 듯한 빛이었고, 이 빛이 내 영의 가장 깊은 은밀한 데를 비추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정말이지 얼마나 사랑이신가! 그분은 단지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다기보다 사랑 자체이시고, 영원한 사랑, 창조되지 않은 사랑, 무한한 사랑이시다...”

콘치타의 하느님은, 성 요한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³⁷⁾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한 하느님, 곧 복음의 하느님이다. 이것이 그녀의 영적 가르침의 가장 높은 근본이다. 그녀의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느님”이다.

그녀는 이 초월적이면서도 온전히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창조된 모든 부가 참여의 길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즉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영혼의 세계와 모든 정당한 사랑이, 그리고 신앙의 모든 위대한 영역인 창조와 강생과 구원의 신비,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의 신비, 고통 자체와 십자가의 신비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선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지, 영혼들과 온 자연이 어떻게 하느님의 각인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과연 인간의 마음을 채우는 정당하고 신성한 모든 사랑이 깊이를 잴 수 없는 이 큰 바다의 물 한 방울이며, 이 무한한 빛의 광선 한 가닥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경험을 통하여 바로 (하느님) 당신이신 사랑의 이 끝없는 불가마로부터 어떻게 사랑이 솟아나는지를 알았고, 당신께서 즐겨 인간의 마음 안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랑에의 목마름을 심어 두셨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목마름은 사라지는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사라질 수 없는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36) 새번역 탈출(=출애) 3,14.

37) 1요한 4,16; 4,8 참조

영혼은 참으로 하느님 자신의 한 작은 조각이고 하느님의 거룩한 본체의 한 입김이며 그분 성령으로 생겨난 하나의 숨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 그러니 영혼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가! 영혼들은 사랑에서 태어났으니 영원히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영혼이 창조된 이유다. 영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열매이고, 따라서 불사불멸하다. 사랑에 의해 태어난 천상적인 딸들이기에 필연적으로 무한성을, 순수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신적인 것을 지향한다.

육신이라는 외피가 영혼에 주어진 것은 투쟁하며 공로를 쌓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영혼은 — 이 불멸의 존재는, 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 인간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 의하여 영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심상(image)을 지워 없애려고 기를 쓸 때에도 그렇다. 그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이다. 사물의 다른 질서가 영혼을 끌어당기고, 『저 세상』이 끊임없이 영혼을 부르며, 하나의 내적 음성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영혼에게 이렇게 외친다. 『너의 운명은 여기에 있지 않다.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라)!』 이 거룩한 목마름은 그의 마음을 땅에서 떼어내고, 비록 극히 신성한 애정이라고 하더라도 현세적인 것은 모조리 정화하여, 영혼이 태어난, 깊이도 경계도 모를 저 바다, 저 심연, 저 무한성 속으로 그것을 가져간다... 나는 내 남편과 아이들과 다른 가족들 및 모든 물질 재화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오직 하나의 사랑 안에... 곧 하느님 안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창조사업을 일으키고 구원사업을 실현하고... 교회를 창설하여 이를 지탱하며 모든 마음들을 불태우는 저 영원한 불가마를 어렴풋이 보면서도 정작 내가 체험하고 있는 바를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랑’이신 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분이 성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이겠는가?... 바로 그분께서 창조와 구속... 강생... 십자가상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 사도직’을 일으키신 것이다.”(일기)

· 십자가

그러면 (이 절의 주제를 나타내는) 석 장의 연결된 화폭 중에서 두 번째 화폭에 접근해 보자. 그것은 십자가이다. 콘치타의 하느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하느님이다. 이것이 그녀 직관의 중심점이다. 그녀는 이에 대해서 관념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 모든 신비가들처럼 마음으로 말할 따름이다. 그녀에게는 십자가가 지고한 ‘사랑’의 표지이다. 십자가와 사랑에 관한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사랑으로 살아간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랑과 십자가 사이를 생각으로 끊임없이 왕복한다. 그녀는 십자가를 피해 달아나서 결국 불행해지는 영혼들을 본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사랑을 피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 주어라. 십자가를 보여 주어라.” 그녀가 보기에 십자가와 사랑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드높

은 깃발을 들고” 지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뿐인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라는 매력적인 이름이 솟아난다. 그분이 곧 사랑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다. 그녀의 이 지배적인 직관의 근저와 삶의 심저(心底)에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랑’이다. (다음은 그녀의 일기에서 뽑은 대목들이다.)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고자 하신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이후의 우리를 인도하고 고무하여 ‘사랑’ 자체이신 분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어째서 이 통탄할 잘못이 저질러질까? 십자가를 피함으로써, 따라서 사랑을 피함으로써 영혼들은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린다.”

“내가 알기로 영혼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다. 그러니 돌이킬 수 없도록 멸망하는 영혼을 볼 때마다 하느님의 성심은 응당 미어지는 고통을 겪으시기 마련이다. 영혼들은 사랑의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빛이 가득한 눈길로 창조된 모든 존재 속에 있는 ‘사랑’의 자취를 정관(靜觀)하고 있다... 이는 하느님의 흔적이요, 지칠 줄 모르고 당신 자신을 인간 속에 쏟아 부으시는 그분의 무한히 자비로우신 사랑의 뚜렷한 증거이다. 인간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천하고 하잘것없는 존재이건만... 오! 완전성의 깊이 모를 심연이신 이 하느님의 무한한 위대하심이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분께 몰입하지 못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할까?”

“주변의 모든 것이 내게 사랑, 사랑! 하고 외친다... 사람들이 이 지상의 헛된 사물과 악덕 속에서 곧 그분이 아닌 모든 것 속에서 사뭇 거들먹거리는 것을 볼 때... 나는 전신이 꿰뚫리는 심한 통증을 느낀다. 내 마음이 전율하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다. 『그들을 구하여라...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여 주어라... 그들을 위하여 침묵 중에 은밀히 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마음 속에서 사랑이 열정적으로 넘쳐흐르며 자라난다. 나는 뛰어다니면서 외치고 싶어지고, 내 목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 사람들의 양심을 깊이 찌르고 그 마음들에 감동이 일게 하고 싶어진다. 영혼들의 눈을 멀게 하는 덮개를 떼어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고 싶다... 영혼이 지각하는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불티, 한 번의 번개, 한 줄기 빛살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그 중심으로 되돌아가서 그분 안에 잠겨야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또한 십자가 깃발을 드높이 세우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싶다. 오로지 가시와 피와 고통을 통해서만 성령과 하나 될 정도로 드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다만 그분만이 영혼의 무한한 갈망을 채워 주실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을.

고통, 십자가. 이것만이 단 하나의 거룩한 사다리이니, 이를 통해서만 영혼이 신적인 사랑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만이 영혼으로 하여금 땅에서 멀리 떠나 하늘에, 곧 하느님의 성심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 오소서, 주님, 저의 품안으로

오시어, 저를 당신 안에 못박아 주소서... 나는 고통받고 싶다.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으시게 했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사랑과 고통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고 고통을 받으셨다. 나 역시 고통이 없는 사랑은 원치 않는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순수하지도 참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는 까닭이다. 고통이 크면 사랑도 크고, 사랑이 끝없는 것이라면 고통도 끝없는 것이기 마련이다... 그렇다, 거듭 말하지만, 완전한 희생과 자기포기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와서 아직 남아 있는 속적인 것과 모든 악덕의 찌꺼기와 뱃국을 빨아들이며 제거할 수 있다.”

· 사랑의 응답

리지외의 데레사는 “사랑에는 사랑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콘치타에게도 자신을 줄곧 ‘사랑’에 내어주는, 동일하고 장한 열성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사랑’에 바쳐지는 끊임없는 제물이었고, 이 사랑은 십자가에 달린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일기들 속에 보이듯이)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짖기도 하였다. “저의 하느님, 제가 뭔가를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로채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랑으로 살고 싶다. 내 영혼은 늘 사랑의 심연 속으로 들어간다. 내 영이 마치 그 자신의 하느님이 시며 주님이신 분 안에 빨려들어, 오직 그분 안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순수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 자체이신 분에 의해 사랑의 제단에 스스로를 산 제물로 바치고 싶은 큰 열망과 더불어 내가 하느님과 같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오! 사랑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나는 오직 이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창조된 만물이 수도 없이 자꾸 사랑! 사랑!...을 되뇌고 있다...”

“어느 날 탑승 중인 전차 안에서 불현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성령의 불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고, 거룩한 십자가나무로 그들을 축복하리라.』 나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를 만큼 당황하였다. 그러나 나 자신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이 말에서 나는 사랑의 심연을, 더할 수 없이 맑고 뜨거운 자비의 심연을 본다. 십자가는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영적으로 매우 강력히 느끼며 체험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일체 만물이 내게 이렇게 외치고, 내 영혼 깊은 데서 솟아나는 내적 음성은 내게 아픔과 굴욕과 끝없는 고통을 감수하라고 촉구한다. 사랑과

고통 사이에는 얼마나 경탄할 만한 혈연 관계가 있는가! 나는 하느님 사랑의 영역에까지 올라온 것에 대하여 일종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찾는다... 십자가에 못박혀 그 사랑스러운 두 팔 사이에 나를 내맡긴 채 있고 싶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십자가와 나 자신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이 비참과 십자가와 함께 완덕의 깊이 모를 심연으로 옮겨져서 그 속에 던져진 것만 같다.”

“주님! 주님! 저는 가난과 오물과 비참 말고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땅에 꿇어 엎드려 제 죄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짖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십자가들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며 공덕을 쌓게 하는 사랑의 증명서들이다.”

“사랑의 유일한 형벌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충분히 고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큰 비밀이니, 자원하여 사랑에 찬 마음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영혼들만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박힌 다음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영혼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다...”

“이 빛과 불의 심연에 잠겨 있는 나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찮은 내가 이리도 나를 압도하는 사랑에,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아무 것도 아닌 저를 보니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원가를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로채겠습니다...”

“그렇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 사랑에 목말라 있다. 사랑하기를 열망하지만 너무나 빈약한 내 마음은 나의 안팎에서 넘쳐흐르는 이 사랑의 무한성을 양껏 섭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변변찮은 영혼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다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무변의 망망한 바다 속에... 이 불의 내부에... 하느님의 무한한 본질의 끝없는 깊이 속에 잠기는 것이다. 하느님 소유의 무한성 속에,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점과 같이 사라지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 양극(兩極)

관상에 잠긴 콘치타의 시야에 거대한 벽화처럼 펼쳐진 이 석 장의 화폭은 마침내 장엄하고 극적인 하나의 시현(vision)으로 완성된다. 이는 두 개의 극점 주위에 집결한 우주의 구원 계획을 그녀에게 열어 보이는 시현으로서, 그 양극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사랑하라고 불린 수많은 인간의 사랑에 대한 거부이다. 이 양극 사이에, 곧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다.

“구원 계획이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다. 나는 기적적인 놀라운 빛 속에서 확대경을 통하여 보듯 이를 보았다. 온통 눈부시게 빛나는 이 시야 안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하고 비할 데 없는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선명하

게 나타났는데, 그 양극이 심연의 웅장함 속에 결합되어 있었다.

이 광경을 보자니 몸이 떨린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로 부터 이익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분께서 엄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탄복할 인내심과 인간 마음의 믿어지지 않는 완고함이 보인다. 세상의 헛된 것들의 꿈무늬를 쫓느라고 온 힘을 다 허비하면서도 사랑과 고통과 피의 무서운 빛에 대해 생각하려고 멈춰 서는 적이 없는 인간을 보니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다...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우리가 그토록 둔감한 본성으로 창조되었단 말인가? 아니다. 영혼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은 육적인 생활이다. 육정은 나태와 안락함 속에서 오직 자기만족만을 찾기 때문에 영을 속박하고 영의 날개를 잘라버린다.

십자가의 부재가 모든 악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사랑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서둘러 우리의 영혼을 흔들여 깨워 거룩한 십자나무로 불타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쩌나! 내 마음의 이 격렬한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자신이 느껴지니, 날아 갈 수도 내 목소리를 영혼들에게 들려줄 수도 없음을 알자 마치 외마디 고향을 지르듯 나 자신을 공격해서 산산조각을 내면서 십자가를 만끽하고 싶은 열망이 치솟는다. 나는 비록 쓸모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나 자체로 보상을 바치기 위해서이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내 가련하고 하찮은 영혼이 불살라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여! 겨우 사랑의 입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것이 내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그분 쪽으로 끌고 간다.”

“나는 강렬한 빛 속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현세의 헛되고 사라지는 모든 것과 하느님 속성의 위대하고 신적이고 거룩한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느님의 속성들은 그분의 모든 움직임의 세부에까지 침투하여 흡사 그분의 선성을 증가시키는 것 같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고맙게도 어떤 베일로 가려 주신다. 그리고 분명히 더욱 강렬한 빛과 더욱 뜨거운 열과 더욱 큰 불길이 보인다.”

· 막이 올라간 무대

(이에 대하여) 콘치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지성의 문 뒤에 계시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그분의 열과 광휘와 빛과 광채를 경험했는데,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 명료하게 보면서, 그분의 신비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내 마음은 또한 교회의 필요성과 구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질 승리를 감지했으니, 그것은 마치 극장 무대의 막이 올라가면 장면 전체의 세부가 한눈에 파악되는 것과 같았다.”(일기 1903년 1월)

세계를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콘치타의 지성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그

분께서 ‘사랑의 성령’을 통하여 그녀에게 이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녀의 표현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마리아의 역할, 성체성사와 신비적인 강생의 역할 및 삼위일체와의 일치 안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다만 하나의 개요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창조적 직관과도 같은 것이다. 콘치타는 그래도 이미 다른 지평들을 일별하고 있다. 교회의 신비와 구원 사업을 통한 하느님의 결정적인 승리라는 지평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느님과 우주에 관한 매우 아름다운 장관(壯觀)이다. 극장의 무대가 갑자기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씀’께서 콘치타의 영혼을 조명하시어, 세상 중심에서 찬란한 광채로 빛나는 구원의 십자가와 무한한 사랑을, 번갯불에 번쩍 비치듯 보게 해 주신 것이다.

5. 인간의 운명

“『이토록 먼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오 예수님, 이 허무와 당신의 무한성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면, 그 두 극 사이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양극 사이에, 하느님과 너 사이에 사람이 된 하느님인 내가 있다. 홀로 나만이 그 두 극을, 그것도 긴밀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아무도 하느님의 무한성에 도달할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의 신성을 파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없으면 아무도 스스로를 낮출 수 없고 자신의 허무를 의식할 수 없다. 나는 중심이요 문이며 길이며, 사람이 자기인식을 하게 하고 하느님을 관조하게 하는 빛이다. 나는 만남의 점점이고, 구원자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완성의 불가마이다. 이 책 곧 너의 그리스도를 연구하여라. 그러면 그를 본받아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분은 한쪽 팔을 십자가에 갖다 대고 다른 쪽은 반대편 극에 닿게 하시면서 그 두 극의 결합이 당신 성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셨다.”(일기 1895년 8월 25일)

콘치타의 우주관은 그녀의 신비관과 마찬가지로, 철학자나 학자들처럼 피조물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여정의 길을 트는 것이다. 그것은 “성인들의 학문”이다. 그녀는 아빌라의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과 리지외의 데레사와 같은 위대한 영성가의 부류에 속한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완덕의 길」을 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가르멜의 산길 정상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무의 길”을, 리지외의 데레사는 하느님을 향해 가기 위한 신뢰와 사랑의 색다른 길인 “작은 길”을 나타내 보였거니와, 콘치타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가도록 영혼들을 이끈다. 그녀에게는 십자가가 유일한 “사랑의 길”이다.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느님과 만나게 하는 “다리”라고 말하리

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³⁸⁾라고 가르친 성 바오로처럼, 모두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에 어째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 영성의 근본 관점이 (십자가) 맨 위쪽에 위치한 성령의 빛 속에서 보는 “예수님 및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임을 숙지한 다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일은 그 영적 여정의 다양한 양상과 여러 단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나”를 죽일 때까지 속죄와 참회를 함으로써 악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덕행들의 실천에 의하여, 또한 영혼을 영성 생활의 가장 높은 정상에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선물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향하게 된다. 신비적 강생의 주된 행위이자 근본적인 태도는 강생하신 말씀을 그분의 아버지께 계속 봉헌하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는 것인 즉, 이는 아버지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의 새로운 권고이다.

이 십자가 영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영성 생활의 주체인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온통 인간 중심적인 현대의 사조는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적 인간, 실존주의적 인간, 실업가, 예술가, 학자, 무한대한 개인적 자유를 탐하는 인간,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해서 건설된 우주 속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인 인간을 제시한다. 비정상적인 인간관이지만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수많은 형태로 지구상 거의 모든 장소에 두루 퍼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앙의 빛 속에서 참 하느님 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도록 불려진,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전인적인 소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만큼 그분의 파스카 신비에 긴밀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콘치타의 저술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 것과 같은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이다.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이다. 삼위일체 하느님께 그 기원을 둔 인간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다가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 사라짐”으로써 그의 숭고한 운명을 다한다. 이를 인간 존재의 가장 높은 영원의 실현으로 보는, 극히 고상한 인간관인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³⁹⁾ 빚어내는 것을 기뻐하시며 창조하셨으니,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였다.”(일기 1906년 7월 23일)

“사람이 자신에게 신성이 부여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성령의 성전이고, 그 영혼에는 삼위일체의 모습이 담겨 있다.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은 불사불멸의 존재이다. 그는 각 행위와 움직임으로 하느님께 참여하며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으로 살지

38) 1디모 2,5 참조

39) 창세 1,27

않겠느냐? 하느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피하려고 드는 인간 속의 무질서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느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죄의 얼룩과 어둠이 얼마나 극심하건, 하느님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 영혼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반영을 지워 없앨 수도 없기 때문이다.”(일기 1913년 4월 23일)

“하느님은 다만 기쁨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 그 계획을 뒤집어엎고 말았다. 죄로 더러워진 존재는 영원한 행복으로 불릴 수 없는 것이다. 정화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니, 이것이 바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고통의 역할이다. 고통이 강생하신 말씀의 신적 속죄와 결합되면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주고, 새로이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게 한다.”(일기 1913년 4월 18일)

“영혼은 영원한 것인즉, 그 자신 안에 삼위일체의 모습과 일치의 싹을, 무한과 신성에 대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영혼이 이 지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일기 1913년 4월 15일)

“나는 사람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은 삼위일체의 반영인 까닭이고, 그 육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며 모든 사람의 전형이요 모형인 나 자신의 반영인 까닭이다.”(일기 1906년 7월 27일)

콘치타의 「일기」에서 다소 무작위로 뽑아 본 위의 본문들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시사적인 논의에 해답을 가져오는 그리스도교적 인간론의 요소들을 볼 수 있다. 세례를 통한 믿음의 빛 안에서 인간은 그녀에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가들의 개념과 합류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삼위일체를 향유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노에 이어 성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일치 안에 계신 삼위일체를 뵈는 것이 우리 삶 전체의 목적이요 열매이다(성 토마스, 1 Sent., d.2, q.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같이, 콘치타의 「영적 일기」는 우리에게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고한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사목 헌장 41항 참조).

6. 금욕과 속죄

그리스도교적인 인간관은 실재론적이다. 신앙이 우리에게 죄 많은 인간성을 드러내 보여 준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모든 책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으로 비관할 것이 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1고린 15,3 참조).”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적 ‘계시’의 중심 실체는 ‘구속’의 교의에 있다. 구약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적인 설교는 회개와 속죄에 대한 부단한

권고이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 영성에는 온통 ‘십자가 정신’이 배여 있으며, 이는 성 바오로에 의해 양식화되어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죽음과 삶이라는 강렬한 대구(對句)로 표현된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파스카 신비와 일치하여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에 더욱 깊이 참여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이 복음과 한가지로, 십자가 교리의 중심에 있다. 주님께서 이 점을 콘치타에게 힘있게 상기시키시면서 “속죄는 하나의 큰 덕행이니, 속죄의 정신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주시는 무상의 은총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속죄의 영향력은 범세계적이다. 그것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덕행의 실천을 용이하게 해 주기도 한다. “나는 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선물을 주었다. 속죄는 순결을 보호해 주는 성채이다. 이는 하느님의 정의를 진정시켜 은총으로 변하게 한다. 영혼들을 정화시키고 연옥의 불을 끄며 하늘에서 아주 값진 상급을 받게 된다. 속죄는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도 보상한다. 속죄는 고행의 자매이다. 이 둘은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 속죄는 영혼을 도와 이 지상 위로 올라가게 한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한다. 속죄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며, 그 자신의 미천함과 하찮음에 대한 내적 지각이 골수에 사무치게 한다. 그것은 영혼에 빛을 가져온다. 영혼 속에 있는 순전히 물질적인 모든 것을 태워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을 지상보다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면서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게 한다. 그러나 이 속죄는 순명의 딸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감춰진 채 영혼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일기 1895년 9월 24일)

모든 영성 대가들이 환기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영적 투쟁 및 진지한 회개 이후에도 우리 각자에게 남아 있는 그릇된 경향들과의 투쟁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나는 순간마다 고개를 쳐들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드는 이 끈질긴 ‘나’를 뿌리째 뽑아내도록 힘써야 한다. 은총의 도움으로 이미 약화되어 곧 항복할 것 같은 하지만 완전히 죽여서 더 깊이 파묻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 ‘나’는 그 자애심과 미각과 안락 취향과 더불어 완덕의 가장 가공할 적이다. 일단 이 ‘자아’가 굴복하면 그 자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이미 점령된 집에는 들어오시지 않는 저 예수님 또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것이 되신다. 성령께서는 순수한 영혼의 고독 속에다만 당신의 피신처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그때 성부의 눈길은 당신의 거룩하신 모습이 반영될 수 있는 이 평온한 거처에서 즐겨 휴식을 취하신다.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 전적으로 하느님만이 가득한, 오 즐거운 헐벗음이여! 오 고독과 복된 고요, 창조주께 대한 피조물의 온전한 봉헌이여! 영혼이 자기 것이 도무지 없는, 오 진실하고 완전한 영적 가난이여! 그는 주님께서 자기 안에 놓아주신 것을 독점하는 법이 없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물의 영원한 주인이신 분께 일체를 다시 바쳐 드리는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⁴⁰⁾ 이 가난은 땅에서도 하늘을 소유한다. 하느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일기 1897년 9월 5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할 일이다.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은 언제나 성령과 관련하여 ‘참 행복’의 정신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죄인인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전인적인 정화는 하느님과 결합을 준비시킨다. 사막의 교부들은 그래서 초심자들을 전인적인 정화에 이르도록 육성함으로써 하느님을 관상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럴 때라야 “완전한 영적 순결”이 충분한 의미를 띠게 된다. “그것은 단지 육신과 영혼에 오점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덜 순수한 모든 애정과 행위로부터 철저히 이탈하는 데에 있다. 이 거룩한 덕행의 가장 고상한 단계가 그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천사들의 순결에,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의 유사성에 가장 근접하게 한다. 하느님 안에는 순결이 본질적이다. 하느님은 아무런 흠이 없는 수정유리와 같으시기에,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서도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신적 투명성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느님은 빛이시다. 하느님은 광명이시다. 하느님은 투명함이시다. 주님께서는 내게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본질은 순결 자체이다. 순결이 빛과 광명과 투명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순결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느님의 반영이, 곧 하느님의 거룩함이 빛난다. 바로 하느님이신 이 영원한 순결의 불가마로부터 빛과 광명과 투명함이 솟아난다. 그런즉 순결이 빛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순결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순결한 영혼들 속에 성령의 빛이 환히 비치어 보이는 것이다.』”(일기 1896년 12월 19일)

7. 그리스도교 덕행들과 성령의 선물

성 그레고리오에 의하면, 성인은 하느님을 향하여 “사랑의 걸음으로”(gressibus amoris) 나아가는 사람이다. 교회가 누군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신비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모범으로 삼게 하려면, 시성 소송 기간 동안 그 덕행의 융맹성을 꼼꼼히 심사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기준이 결정적으로 확인된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⁴¹⁾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본 법칙을 일깨워 주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⁴²⁾ 구약과 신약 성서들은 “의인”들에게 모든 덕행들을 닦으라고 부단히 권고한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인내, 너그러움, 기도, 하느님께 대한 흠숭,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과 남의 재산에 대한 존중 따위 솔한 다른 덕행들도 실천하라는 것이다. 야훼께서는 계약의 법전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고, 성령의 감도에 따른 복음의 완덕 헌장인 ‘산상 설교’는 지켜야 할 계율과 피해야 할 악덕을 설파한다. 성덕의 축이 그리스도교적 수덕과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참 행복’의 정신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뜻깊은 일로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세심한 정성을 쏟으시면서 참 행복과 성령의 선

40) 마태 5,3 참조.

41) 루가 6,44; 마태 7,18 참조.

42) 요한 14,21.23. 참조.

물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미덕과 악덕에 관한 일종의 논술을 콘치타에게 “받아쓰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주님께에서 미덕과 악덕에 관한 논술을 “받아쓰” 것은 딸아이 콘차가 장티푸스를 앓는 동안이었다. “콘차가 앓아 누운 수개월에 걸쳐 주님께서 덕행들에 대한 글을 받아쓰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수년 전에 내게 하신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강생 교회’를 마주하고 병든 딸애를 보살피면서 신영성체와 사랑의 기도를 바치며 보냈는지!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펜을 잡게 하셨으니, 이 가련한 피조물에게 당신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위함이었다.”(자서전 I, 146-147)

이와 같이 주님은 그녀에게 미덕 93가지와 악덕 110가지 및 복음의 참 행복들에 대하여, 좀 뒤에는 성령의 선물들에 대하여 구술해 주셨다. 그 글 전체가 실로 그녀의 작은 걸작인 수덕 영성서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신덕(=향주덕)에 대한 설명 중 몇몇 예문만 임의로 뽑아 옮겨 보겠다.

· “오늘 나는 너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해 주고자 한다.”

“『오늘 나는 너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해 주고자 한다.』 그러자 나의 오성에, 아니 차라리 머리 속에 빛이 흘러 들어오면서 황홀한 느낌이 들었다. 이 내적인 잠식 속에서 믿음에 관한, 설명할 길 없는 신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토록 보잘것없는 내가 그토록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으니, 할 수 있는 한 그대로 옮기려고 힘써 볼 수밖에 없다.

『믿음은 성덕의 근본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특별한 빛이어서 이를 통하여 영혼이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다. 이 빛살이 하느님의 얼굴을 비추어 영혼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의 생명이며 힘이고, 영을 뜨겁게 하고 밝혀 주며 항상 완덕과 성덕 안에 성장하게 하는 태양이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의 신성에서 직접 발산되는 이 덕행을 매우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를 소유한 영혼은 이를테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 허락하시도록 하느님의 뜻을 움직일 수도 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주시기도 하는 덕행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물론 겸손한 영혼의 믿음이다.

믿음은 그 빛으로 영의 어두운 데를 비추는 햇불이다. 오로지 이 빛 안에서만 영혼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완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에 완전히 개발된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바친 영혼의 중심점이다. 그 초자연적인 믿음은 영혼 안의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완성에 도달한다. 오직 하나의 점인 하느님께 흔들림 없는 시선을 집중하면서, 삶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

가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러한 믿음이 영혼들 안에 그 빛과 그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면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와 활동을 땅보다도 높이 들어올리며, 이 어두운 영역에서 끝내 굽히지 않고 큰 공로를 쌓게 한다. 믿음은 빛이지만 어둠 속에서 살며 그 자신의 그늘에 싸여 있기에 이를 감지하는 영혼이 극히 드문 것이다. 믿음은 믿음 자체의 내부에서 영혼에게 빛을 뿜어냄으로써 영적인 위험과 풍요를 알게 하며 드러내 보여 주지만, 그것이 외면화되는 일은 거의 없다. 영혼들의 이 평화적인 어둠의 삶이 그들을 믿음의 순교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 영적인 삶은 사실상 순교자의 삶, 곧 모든 덕행을 실천하며 십자가 위에서 사는 삶인 까닭이다.

믿음은 신비들을 가린 막을 찢는다. 이 덕행을 지닌 영혼은 탁월한 신앙의 신비요 사랑의 신비인 성체성사 안에 참으로 실재하는 나의 현존에 도달하고 이를 체험하며 때로는 관상하기도 한다. 그는 이 신앙 신비의 빛으로 자신의 하찮음을 본다. 아직 얼굴을 마주하는 지복직관의 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그 광채를 찬미하는 셈이 된다. 열정이 그를 불태운다. 그리하여 그 생생한 믿음으로 그토록 가까이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다. 』”
(일기 1895년 10월 31일)

· 망덕

“『희망이라는 덕행은 어떤 것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해 어정거리는 일이 없다거나 명성과 부와 영예와 같은 현세적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덕행이 아니다. 그보다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니, 영혼 개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 무한한 공로의 넘치는 풍요에 의하여 하느님 자신을 소유하려고 대망(待望)하는 덕행이다. 이 거룩한 희망을 지닌 영혼은 자신을 위해 거기에서 영원히 나 올 유익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는다. 자기에게 허락된 개인적이고 정당한 유익을 뛰어넘어 더 높이 올라간다. 자신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자기를 통하여 하느님 자신이 받으시게 될 영광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이 초자연적이고 완전한 망덕은 사랑하는 분을 소유하려는 부단한 열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려고 힘쓰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희망이고, 마찬가지로 너의 길이기도 하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걷는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⁴³⁾ 내 핏자국을 밟으며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십자가가 완덕의 거쳐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모든 신비들이, 성령의 선물과 열매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내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일기 1895년 11월 3일)

43) 마태 16,24 참조.

· 으뜸가는 덕행인 사랑

“사랑은 모든 기도 생활과 모든 선행의 영혼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모든 활동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다. 영혼이 이 거룩한 사랑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자신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힘차게 하면서 모든 윤리덕을 실천하도록 스스로를 몰아간다.

나를 사랑하는 영혼은 가시를 밟을까 봐 걱정하지 않고 완덕의 길을 달린다. 그런 다음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어도 방해받지 않고 날 수 있게 된다. 산신앙과 거룩한 희망의 내적 열정으로 장애물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향주덕들은 이와 같이 사랑 안에 자리를 잡고 발전한다. 사랑이 그들에게 생기를 주어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간다. 세상은 그러나 거룩한 사랑에 기초를 둔 이 세 가지 덕행의 위대함을 모르고 있다.

영혼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 게다가 나를 사랑하며 자기를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온 마음을 내게 주는 이는 얼마나 적은지! 거의 언제나 그래서 나는 그들 마음의 한 부분만 받을 뿐이다. 전체를 받기란 너무나 드문 일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아!』⁴⁴⁾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부분적으로 피조물과 세상과 그 자신에게로 쏠린다. 자애심이 그 마음의 대부분을 채운다. 그런 사람은 다만 자기를 위하여 살며 숨을 쉴 따름이다. 나는 일체를 초월하는 사랑을 요구한다. 내가 그러한 사랑의 임무를 부여한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면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나의 이 지고한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사람은 정말이지 얼마 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선택을 원하건만 그들은 저항한다. 나는 그들에게 보물을 선물하건만 그들은 멸시한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건만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린다.

사랑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 — 이것이 사람이 땅에서 누릴 유일한 행복이다.
사랑하며 즐기는 것 — 이것이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지복이다.

악습을 극복하고 덕행을 실천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희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내가 그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다. 너는 그러한 사랑을 내게 다오. 고통 중에 나를 사랑하며 십자가 위에서 기쁨을 찾아 얻는 영혼들을 내게 다오. 나는 그러한 사랑이 목마르다. 나는 순수한 사랑, 사심 없는 사랑, 속죄하는 사랑, 십자가에 못박히는 사랑, 확고한 사랑, 말하자면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원한다.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정화하는 오직 하나뿐인 참된 사랑이며 내 계명으로 요구하는 사랑이다. 눈에 띄는 다른 모든 사랑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사랑 외에는 모든 사랑이 헛되고 거짓되고 흔히 죄스러운 것이다.

44) 새번역 신명 6,5 참조.

강생의 첫 순간부터 내적인 십자가로 내가 너를 사랑해 온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고통 중에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여라. 나는 하느님이니 오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열망한다는 말이다. 이를 소유하고 있는 영혼은 행복하다... 내가 약속하거니와 그런 영혼은 이 지상에서도 천상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것이다.”(일기 1900년 9월 11일)

· 하느님의 뜻과 전적인 맡김

미덕과 악덕에 대한 이 생생한 일람표는 특색에 따라 구분된 전형적인 덕행들만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도 콘치타는 여러 덕행들의 융합과도 같은 종합적인 덕행들도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 열거된 덕행들 속에 **하느님의 뜻과 전적인 맡김**이라는 항목도 들어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은 실천적인 모든 덕행들을 통상적인 모양으로 혹은 완전한 상태로 꽃다발처럼 한데 묶으신다. 하느님의 뜻은 그 모든 덕행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느님의 면전에서 찬란한 광채를 발하게 하신다. 하느님의 뜻은 신적인 저울로 그 각각의 덕행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고, 깨끗해진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흐뭇해하시는 특별한 색채를 그 덕행들에 입혀 주신다. 영혼이 자신의 주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그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덕행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덕행이다. 이 숭고한 덕행은 다른 모든 덕행들의 전체적 실천을 함축한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절정이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덧붙이셨다. 『강생의 첫 순간부터 나는 이 하느님의 뜻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⁴⁵⁾... 하느님의 뜻에 의해 세상에 왔고, 이 뜻에 의해 더할 수 없이 잔혹한 순교로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양육되었고, 내 고뇌를 달래 준 것도 이 뜻이었다. 내가 지상을 거쳐가는 동안 하느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천 번이라도 죽음을 치렀을 것이다. 내 마음 속에서 타고 있었던 거룩하고 활기찬 사랑의 주된 동인(動因)은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구원사업은 바로 이 거룩하신 뜻의 충실한 성취였다. 그 반향이 사랑에 찬 내 마음의 근저에서 끊임없이 울리면서 영혼들의 구원과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고동치게 했던 것이다.

하느님의 뜻 안에는 한결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 뜻에 내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 ‘전적인 맡김’이 완덕의 절정으로 영혼을 이끌어 간다. 이는 모든 덕행 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이다.』”(일기 1900년 6월 6일)

45) 요한 4,34 참조.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들의 개별적인 작용 하에서 거룩한 사물들을 체험하면서 전한 신적인 지혜의 열매를, 곧 (이 체계적인 서술)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콘치타는 게다가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같은 방법으로 분석 검토하면서 간결하고 재미있는 논술을 작성하였다.

복음서의 ‘참 행복’에 대한 서술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 “사랑이 전부이다.”

이 십자가 영성에는 고통이 사랑의 지고한 표현이므로, 고통주의란 것의 흔적은 조금도 없다.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현존을 통해서, 일체가 사랑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 끝난다. 미덕과 악덕 및 성령의 선물들과 참 행복을 다룬 이 긴 논술은 사랑의 유일무이한 가치에 대한 괄목할 만한 확인으로 완결된다. 이는 의미심장한 것으로서 지극히 순수한 복음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구술”을 마치시자 콘치타는 자신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일기」에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다.

“사랑은 모든 덕행과 모든 선업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랑이 전부이다.**”(일기 1900년 9월 21일)

8. 신비적 강생

사랑의 독특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콘치타는 곧장 복음서에서 가장 본질적인 점에 다다른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고... 여기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가 있다.”⁴⁶⁾

영성 대가들은 사랑으로 하느님께 올라가는 상승의 전형적인 세 단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성 토마스의 설명을 들어 보자. 그는 사물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이 세 단계를 사랑의 세 가지 결과와 결부시키려고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구분하였다).

“— 초심자에게는, 죄와 불완전을 피하고, 과거의 잘못에서 자신을 정화하며, 미래를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이다. 사랑의 첫 결과는 장애물들과 투쟁하는 것이다.

— 진보한 사람에게는, 하느님과의 결합에 필수적 수단인 제(諸)덕행의 실천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적용된다.

— 완덕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 목적 안에서, 곧 성삼위를 향유하며 삼위 일체의 일치 안에 완성된 상태에서 안식을 누린다.”(명제집<Sentences> 3권 29,8,1 참조)

위대한 신비가들은 영성 생활의 이 최고 상태에 대하여 길고 소상하게 서술하였

46) 마태 22,37-40 참조.

다. ‘가르멜 수도회’의 비길 데 없는 두 스승인 십자가의 성 요한과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러한 신비가들이었다. 이 두 사람 못지 않게 독창적인 또 다른 형태로, 리지외의 데레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단순화하였다. 가르멜 수도회가 두 사람의 박사가 아니라 세 사람의 박사를, 그것도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의 박사를 교회에 낳아 준 것이다.

(하느님과의) 변모적인 결합의 형태는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 가지, 아니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실현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 영의 창조적인 자유에 의하여, 시대에 따라, 또 그리스도 신비체의 다양한 필요에 의하여 그러한 것이다.

콘치타는 우리에게 새로운 유형의 변모적인 결합을 보여 준다. 그녀 역시 하느님과 (완덕의) 절정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다. 사춘기에 이미 영성 생활의 첫걸음을 신속히 뛰어넘고 있었고, 열아홉 살이 되었을 무렵, 그러니까 오빠 마누엘의 죽음 이후부터 단호한 태도로 우선은 처녀로서, 뒤에는 기혼 여성으로서 굳건히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더 용맹스럽게 하느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서른두 살이 된 1894년, 그리스도의 모노그램⁴⁷⁾을 가슴에 새긴 사건에 이어 (그분과의) 영적 약혼(1894년 1월 23일)이, 삼 년 뒤인 1897년에는 영적 혼인(1897년 2월 9일)이, 나중에는 이를 능가하는 신비적 강생(1906년 3월 25일) 사건이 일어났다. 영적 혼인을 “능가하는” 신비적 강생은 “변모적인 결합”의 상급 형태이다.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결합에는 무한히 많은 등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비 생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들은 바로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성 생활의 길에 대한 학문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점인 까닭이다.

그러나 신비적 강생은, 더할 수 없이 희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때에 배아(胚芽)상태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은총이다.

주님께서 신비적 강생의 심오한 의미를 콘치타에게 분명히 밝혀 주신 것은 그녀가 로마에서 심사를 받은 해인 1913년의 일이었다.

· “신비적 강생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은총이다.”

“신비적 강생은 사람의 원형인 나 예수와의 동화(同化)를 위한 변화 은총이다. 이는 내 무한한 자비와 모순되는 점이 조금도 없는 변모적 결합 은총이다. ‘강생하신 말씀’이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점유하고, 그 안에서 변모적인 결합을 구현할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동화 은총의 생명을 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고, 특히 희생 제물의 길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 나 예수가 그 영혼 안에 강생하여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성(成)육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결합과 변모를 일으키는 성화 은총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다. 이는 아주 특수한 은혜이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예수 생애의 단계들을 내적으로 감

47) 각주 4) 참조.

지한다. 그 단계들의 특색은 항상 고통과 모함과 굴욕이니, 네 예수의 지상 생활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것은 희생과 속죄 제물의 성격을 띤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사로잡으실 때에는 그 영혼 안에, 내가 방금 말한 의미의 예수의 형상을 조금씩 서서히 형성해 가신다. 신비적 강생에 대해 말하는 것은 따라서, 영혼이 동의하면 그의 뜻이 나의 뜻과 동화되며 그가 단순화되도록 이끄는 변화 은총의 단계 속으로 진입함을 뜻하는 것이니,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그가 하느님과 닮을 수 있는 한 가장 완전히 닮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어떤 영혼들에게 선물하시는 신비적 강생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비적 강생은 영혼을 순결과 희생으로 단순화하여 예수와 결합시킴으로써 그의 온 존재가 가능한 한 예수와 유사하게 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변모 은총이다. ‘강생하신 말씀’과의 이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영혼 안에서 기뻐하시고, 사제이며 제물이었던 예수의 지상 사명이 그에게 전수되어,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을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이 나와 닮으면 닮을수록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그만큼 더 잘 들어주신다. 그의 값어치를 보셔서가 아니라 나와 유사성 때문에, 그리고 은총을 얻는 데에 필요한 내 공로 덕분에 그러한 것이다.”(일기 1913년 12월 11일)

요컨대, 신비적 강생은 사제이며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동화 은총이고,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당신 신비체의 지체들 안에서 계속 되게 하는 은총이다. 곧 그리스도의 사제적인 영혼으로 변모시키는 특별한 은총인 것이다.

그러한 것이 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에 설명된 변모적 결합의 유형이다.

· 사랑의 봉헌

신비적 강생의 주된 행위는, 세상 구원과 삼위일체 하느님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봉헌하면서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분에 의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 가지 행위로서가 아니라 불가분적인 동일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주된 활동이 ‘말씀’을 그분의 아버지께 봉헌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자신의 봉헌이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니, 이는 우리의 영성 생활 전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봉헌하는 전적인 봉헌, 계속 새롭게 하는 봉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교회와 함께 봉헌하는 이 이중적인 양상의 유일한 봉헌 —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여러 차례 명확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영성의 요체(要諦)인 이 사랑의 봉헌은 오로지 ‘강생하신 말씀’과 그분 신비체의 모든 지체의 나눌 수 없는 봉헌일 따름이다. 즉, 그리스도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전적인 사랑의 봉헌에 자각적으로 결합하는 전체 교회와 함께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것이다.

“‘말씀’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박히려고 강생하였고 지금도 영혼들 속에 강생하고 있다. 그것이 모든 신비적 강생의 목적이다... 너의 ‘말씀’이 방금 네 마음 안에 신비적으로 강생하였다... 돌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 있는 성전인 네 마음 안에서, 성부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사제이며 제물인 너에 의하여 끊임없이 희생되기 위해서이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나 자신을 원하신다. 내가 산 제물인 네 영혼과 결합하여 너로 하여금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회개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영적 충격과 이런 종류의 은총이 필요한 이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일기 1907년 10월 22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박힌 영혼은 자신의 일상사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원대한 시각으로 살아갈 소명을 받는다. 그리하여 그의 삶은 무한히 값진 삶이 된다.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사제이며 제물이신 ‘강생하신 말씀’의 위격과 결합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무한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러한 삶의 헤아릴 수 없는 사도적 가치가 나온다. 이것이 성인들의 통공의 한없는 풍요성의 비밀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하느님 어머니의 침묵의 삶이, 그분 생애의 말년에, 그리스도 공로의 적용으로 갓 태어난 교회에 부여한 공동 구속적인 무한한 가치는 사도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순교자들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빼어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비적 강생은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순간마다 하느님의 정의를 진정시키면서 하늘의 은총을 얻어내게 된다.』”(일기 1911년 2월 2일) 교회와 그리스도는 구원사업과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 속에서 이처럼 오직 하나일 따름이다.

콘치타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랑으로 끊임없이 봉헌했던 것이다.

· “이는 저의 몸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나의 봉헌을 새로이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 원하시니, 이 신비적 강생의 은총을,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 모든 결과와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은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친히 지적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은총의 주된 목적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에, 곧 너의 뜻을 나의 뜻에, 너의 희생을 나의 희생에 결합시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렇게 영육이 온전히 순결한 희생 제물로 변화된 너를, 그리고 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간마다, 숨을 쉴 때마다 봉헌해야 한다. 우선은 사제들과 내 교회를 위해서, 다음은 십자가 사업과 온 세상 및 선인들

과 악인들을 위해서 봉헌해야 한다. 그러기에 너는 “옛 인간”⁴⁸⁾을 죽이고 나와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인 나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저의 몸입니다. 이는 저의 피입니다.” 나는 제대에서 영원하신 아버지께 매 순간 이 말씀을 거듭한다. 너도 내가 일러주었듯이 세상을 위하여 이 지속적인 희생과 일치하여 너의 몸과 피와 영혼과 네 온 존재를 바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여라. 희생 제물의 표지와 함께 네 안에 나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살아 있는 번제물이 되어라. 너 혼자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이지만, 나와 하나가 되면 하느님만이 아시는 번제물이 되어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너의 지상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다. 신비적 강생의 목적은 지상에서 펼쳐진 나의 생애가 네 안에 그대로 녹아들게 하는 데에 있다. 내가 언젠가 너에게 이야기했고 오늘 또 되풀이하지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잠자코 있어라.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나와 하나 되게 하면서 네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신적 생명으로 너를 변화시키도록 맡겨 다오. 나로 하여금 너를 차지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눌 수 없는 일치 속에 있는 우리 (성삼위) 하느님 안에 하나 되게 하도록 너를 맡기라는 것이다.

나의 드높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면 네가 세상을 위하여 수많은 은총들의 물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 홀로 간청하며 희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내가 영혼들을 위한 선물과 은사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완덕으로 인도하며 성소가 많아지게 하고 사제들을 위하여 천상 은혜들을 얻어내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 수단에 의하여, 다시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하게 될 것이다.』”(일기 1914년 6월 30일)

이 사랑의 봉헌이야말로 십자가 영성의 요체인 것이다.

“나는 네가 나의 제병이 되기를 바라고, 지상 모든 성반(聖盤) 위의 나와 함께 너를 봉헌하겠다는 지향을 되도록 자주 밤낮으로 새로이 발하기를 바란다. 또한 고통과 사랑과 모든 덕행의 실천으로 변화된 네 영혼이 나와 함께 외치는 『이는 저의 몸입니다, 이는 저의 피입니다.』 하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사랑과 고통으로 ‘강생하신 말씀’과 하나가 되고 같은 사랑의 지향을 가짐으로써 네가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을 얻어낼 것이고, 성령과 함께, 마리아를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나 자신을 너와 함께 봉헌할 것이다.

그것이 내 ‘십자가 사업’의 목적이며 본질이다. 위대한 산 제물인 나 자신과 결합된 산 제물들의 유사성, 아무런 사욕의 누룩이 없는 지극히 순결한 그 산 제물들의 특징은 내 수난을 반영하는 것이 되리니, 하늘을 향하여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이는 저의 몸입니다, 이는 저의 피입니다.』를 외치기 위함이다. 영원한 사제와 일치한 사제들로 변모될 그들이, 교회와 형제 사제들을 위하여, 나의 몸과 하나를 이룬,

48) 새번역 에페 4,22; 골로 3,9.

그들의 십자가에 못박힌 몸을 하늘에 봉헌할 것이다. 그들은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 온 세상을 위하여 오직 하나뿐인 제병, 하나뿐인 제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유일한 사제,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인즉, 성령을 통하여 바쳐지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며, 따라서 은총들이 빗물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러한 것이 내 ‘십자가 사업’의 핵심이요 중심이며 구체적인 전체이고 본질이다. 분명히, 하느님의 정의를 진정시키려면 나의 희생만으로도 넘치도록 충분한 것이다. 지극히 순수한 그리스도교 신앙, 곧 복음의 꽃은 모든 제물들을 단 하나의 제물 안에, 모든 고통과 모든 덕행과 모든 공로들을 오직 **하나** 안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결합시켜,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은총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지들과 고통들과 마음들을 내 마음에 결합시켜 내 안에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내 교회 안에서 달리 무엇을 목표로 하시겠느냐? 자비와 사랑으로 내 안에 일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지상 생활 동안의 내 마음의 열망이 무엇이였겠느냐? 지극히 순결한 자신의 삶과 피로 오직 하나의 피를 이루어 속죄하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왔겠느냐? 몸들과 영혼들을 나와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체성사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돌 제단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 있는 성전인 마음들 안에서도 이 제물을 하늘에 바치면서 영혼들 역시 그와 유사한 모습의 자신을 제병으로,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깊이 감동하실 것이다.”(일기 1916년 6월 6일)

요컨대 사랑의 봉헌은 하느님 백성의 “왕다운 사제직”의 지속적인 수행이다.

우리가 “신자들의 사제직”에 관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권위 있는 성서 본문을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본다면, 이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 베드로는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사제단”임을 일깨워 주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새번역 1베드 2,5 참조).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새번역 1베드 2,9-10).”

이번에는 성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로마 12,1).” 하고 권고한다. 더욱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랑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새번

역 에페 5,1-2).”

하느님 백성 전체의 “왕다운 사제직”에 대한 교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장 빛나는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공의회 문헌의 어떤 표현들은 콘치타의 글과 놀랍도록 동일하다. 언어상의 이 일치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다.

“성찬례 집회는 사제가 주재하는 신자 공동체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신자들이 미사 성제 중에 하느님 아버지께 신적 제물을 봉헌하면서 이 제물과 함께 그들 자신의 삶도 바치도록 가르쳐야 한다.”(사제생활 교령 5항)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 있고, 한 분의 같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활기치게 해 주신다는 생각이 든다.

* * *

“나의 가르침은 언제나 보편적인 것이다.” 이는 (콘치타가) 신비적 강생의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콘치타는 십자가 교리의 그 보편성을 숙지하고 있었다. 십자가 관상 수녀들의 양성을 위해서 쓴 “완전한 덕행들”에 관한 소책자(Arco Iris<무지개>)의 서문에서 그녀는 이것이 다른 모든 수녀들에게도 관련되는 것임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십자가 영성은... 복음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주님께서 나중에 몸소 승인해 주셨다. 아퀴노의 성 토마스 생애의 말년에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다.

“십자가에 대한 교리는 구원과 성화를 가져오는 교리이고... 놀랍도록 생산력이 강한 교리이다. 그 안에 수많은 성소의 싹이 있고 아주 높은 단계의 성덕이 있다. 그러나 아직 개척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 십자가 교리는 막으로 가려 두거나 땅에 파묻어 두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널리 퍼져 나가 영혼들을 불태우며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선행이 그 안에 보물들을 넣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뒷박으로 덮어두기 위한 빛⁴⁹⁾이겠느냐? 아니다. 이 거룩한 십자가 교리는 바로 나의 복음이다. 그러니 그 생식력이 풍부한 씨앗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너에게 약속하건대 이것이 꽃을 피우며 하늘을 위한 열매들을 낼 것이다... 내 성심에서 솟아난 이 신비롭고 값진 교리는 또한 가득한 빛을 내뿜으면서 허다한 영성적 오류들을 없애고 모호한 점들을 밝혀 줄 것이다.”(일기 1929년 11월 18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 교리는 바로 나의 복음이다.” 하심으로써 이 가르침에 진리의 최종적인 도장을 찍어 보증해 주신 것이다.

49) 마태 5,15 참조.

제3장 십자가의 동정 마리아

“마리아는 내 수난을 계속한 첫 사람이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마리아의 신비를 하나의 신심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신비 및 그분 교회의 신비와 불가분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구원사의 교의적 차원으로 올려 놓은 것은, 비상한 자질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신적인 영감에 의한 것이었다. 구원 사업 속에서 예수님 어머니의 중심 위상은,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⁵⁰⁾ 하고 말씀하신 갈바리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모든 그리스도인 세대들과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그들의 어머니로 인정하게 한 것이다.

특히 멕시코는 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가난한 인디언 후안(=요한) 디에고에게 발현하신 유명한 기적 사건⁵¹⁾이 있는 다음부터 그분을 멕시코의 어머니로 모시고 뛰어난 열성으로 공경하고 있다. 테페악 산의 동정녀 곧 ‘과달루페의 성모’에 대한 그 이례적이고 자녀다운 애정이 넘치는 신심을 이해하려면 성모 대성당을 방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거기에 도착하는지! 아메리카 사람들이 다 모여온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모든 멕시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면 저마다 마리아께서 그 인디언 아들에게 하셨던 말

51) 요한 19,27.

51) 각주 2) 참조.

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싶어한다. “네 어머니인 내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멕시코의 딸인 콘치타는, 자기 조국 특유의 그 마리아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각인된 정신의 소유자로서, 과달루페의 성모께서 그녀의 삶 속에 언제나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인다.

그녀는 혼자서 혹은 남편과 가족들과 더불어 이 마리아 성지에 자주 가곤 하였다. 어머니 곁에 있는 아기처럼 “자기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였다.(일기 1894년 3월 24일)

그녀의 「일기」를 보면 생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마리아께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자녀다운 신심이 이 멕시코 여인의 가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십자가 사업’도 과달루페 성모의 모성적인 보호 아래 빛을 보게 되었다. ‘십자가 관상 수도회’의 첫 ‘오아시스’(수도원)의 초라한 성당에서 그분의 이름이 발견되었고, ‘성령 선교 수도회’ 역시 하느님 어머니의 마지막 발현지인 로사 성당에서 창립되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업의 상징인 과달루페 성모의 주교 집전 대관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 이 사도직의 십자가가 테페악 산 정상에 서게 되었고 그 때부터 멕시코 시티 전체를 굽어보고 있다.

콘치타의 전 영성 생활은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싸여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일기에 이렇게 적어 두었다. “주님께서 내게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사랑 깊은 감정을 심어 주셨다. 나는 길을 걷는 동안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이 복되신 동정녀께 반복해서 기도를 바치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바치고 있는 기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는 인자하신 내 어머니가 나를 당신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르쳐 주셨던 신심이다.”(자서전 30)

그리고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봉헌이다. 콘치타는 일찍부터 「일기」에 이렇게 썼다. “지극히 사랑하옵 저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는 오늘 특별한 모양으로 저 자신을 어머니께 봉헌하고 언제나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나이다... 이 신심은 무엇보다도 특히 그분의 덕행들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존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사람이셨다. 너는 그 까닭을 알겠느냐? 그것은 그분께서 존재의 첫 순간부터 성령의 모든 영감에 순응하셨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영성 생활의 가장 좋은 스승이시다.』”(일기 1895년 9월 22일)

1. 콘치타의 마리아관

마리아에 대한 콘치타의 신심은 본질적으로 교의적이다. 그녀는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과 주된 구원 신비들을 통해 드러난 그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기를 좋아하였다. 그분의 신앙은 그분이 이미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각 속에 영원으로부터 선재(先在)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신비에 대하여 주님

께서 콘치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너에게는 단지 현재의 순간만이 존재한다.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선재적이다. 삼위일체의 기쁨인 마리아는 이미 존재하셨으니 삼위일체의 생각 속에서 먼저 형성되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이미 삼위일체의 기쁨을 이루었고 이미 천상 여왕이 되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우셨다. 삼위일체의 생식력이 풍부한 동정성에서 나신 동정녀로서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품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결코 때문지 않고 어떤 죄의 그늘도 스쳐가지 않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셨다. 이 영원성으로부터 그분은 이미 (성삼위의) 딸이요 정배이며 어머니가 되셨으니, 하늘과 땅이 세세 대대로 놀라워할 이 완전한 작품 속에 성삼위의 기쁨이 있다. 마리아의 탁월한 위대성은 그분이 행한 여러 가지 완전한 행위들 속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동정의 몸으로 ‘말씀’의 강생을 받아들인 행위 속에 있고, 이는 영원으로부터 준비되어 온 일이었다.

삼위일체께서는 이 비할 데 없는 피조물을 열렬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은 성령의 모든 은총과 은혜들로, 곧 하느님의 풍요함으로 마리아를 준비시켜 그 자신의 살아 있는 성전으로 삼았던 것이다.”(일기 1906년 7월 23일)

이 말씀의 강생 신비와 신적 모성의 신비가 마리아에 대한 콘치타의 모든 묵상의 중심이었다.

강생 신비에 이어 그녀가 숙고한 주된 신비는 골고타의 신비였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거기 십자가 아래에서 내 교회가 태어나는 것을 보셨고, 나 대신 성 요한 안에서 모든 사제들을 당신 마음에 받아들이셨으며, 또한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다.”(일기 1928년 4월 8일)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마리아께서 동참하신다는 것은, (다음 일기에서처럼) 콘치타가 자주 묵상하는 주제들 중의 하나였다. “나는 마리아의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느끼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더 잘 깨닫게 되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 성자의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고 그분의 순결과 무죄하심을 속속들이 아시며 그분을 짓누르는 인간의 배은(背恩)을, 그 한없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셨던 것과 같이, 당신 성자의 내적 슬픔과 고통 또한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셨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마리아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과 일치하여 고통의 삶을 사셨고, 그리하여 죄인들을 위한 은총을 얻어내셨다. ‘말씀’의 강생에 동의하신 순간부터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분의 머리 속에서 지워진 적이 없었으며, 그분의 모성적인 가슴은 미어지는 아픔 속에서 그 ‘무죄하고 거룩하신 순교자’를 관상하셨던 것이다.

이 동정 어머니의 삶은 예수님의 삶 다음으로 가장 혹독하게 십자가에 못박힌 삶이었다. 나자렛의 작은 집에서 미래에 대한 묵상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늘 몹시 마음 아파하며 생활하셨던 것이다. 그토록 순결하신 두 분이 공동의 같은 삶을 사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 안에는 실제로 인류 구원을 위한 더할 수 없이 혹독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 마리아는 인

류 구원 사업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신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그분에게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지!”(일기 1898년 9월 1일)

“모든 신비를 꿰뚫어 보신 마리아께서는 용서를 간청하고 은총들을 얻어내시면서 교회의 활동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다.”(일기 1927년 10월 6일)

콘치타는 마리아 안에 있는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을 찬미한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세상에 존재하고 또 존재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순결하시기 때문이다... 미리 은총을 입은 그분 안에는 그 영혼의 지고한 순결을 흐리게 하는 극히 작은 티도 없기에 단 하나의 은총도 잃으신 적이 없었고, 언제나, 특히 굴욕과 고통의 시간에 늘 힘을 합해 도와줄 태세로 계셨다.”(일기 1898년 8월 29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의 마리아의 위치를 교회의 내부가 아니라 교회의 정상에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마리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앞서 계시고(교회 헌장 53항)”, “그리스도 다음으로 높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시는(교회 헌장 54항)” 분이라고 한 것이다. 주님께서도 콘치타에게 당신 어머니의 신적 위대성을 현연히 밝혀 주셨다. “마리아는 삼위일체와 영광을 입은 나의 인성 다음으로, 천상에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피조물이다. 하느님 자신도, 비록 하느님이시지만 마리아보다 더 존귀하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조물을 지어내실 수 없을 정도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완전성의 반영을 마리아가 당신 존재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늘에서 마리아의 영광은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의 영광을 뛰어넘는 것이다.”(일기 1906년 8월)

“그분은 투쟁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의 보화들을 맡아 계신다. 그 모든 보화들의 원천인 ‘강생하신 말씀’을 지상에서 맡아 계셨던 것처럼 말이다.”(일기 1917년 2월 27일)

이와 같이, 하느님 계획의 전개 안에서 마리아를 본 콘치타의 마리아관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관점과 일치한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적절한 지적대로, 교회가 일찍이 이처럼 방대하고 힘있는 종합으로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마리아를 본 적이 없었다(1964년 11월 21일, 공의회 폐막 연설 참조). 이 분별 있는 관점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전 신비가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다음에, 미래의 마리아론을 조명하며 이끌어 줄 빛나는 등대가 있다.

2. “십자가의 동정녀”

모든 성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와의 친교는 그들 고유의 은총에 의하여 특별한 태도와 형태를 띠게 한다. 리지외의 데레사는 마리아에 대하여 “그분은 여왕 이상으로 어머니이시다.” 하였고, 베르나데타는 마리아 안에서 원죄 없으신 분을 공경하였다. 콘치타는 그녀 **특유의 관점**에 따라, 세상 구원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 아드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긴밀히 결합된 신비 안의 마리아를 관상한다. 콘치타에

게 있어서 동정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동정녀”이신 것이다.

「일기」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그러한 경향의 은총을 감지할 수 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고통에 대한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수난은 곧 마리아의 수난이기도 하였다. 마리아께서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외침을 이해한 유일한 분이셨다. 고통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이고, 사랑의 크기는 은총의 크기이기에, 마리아는 은총과 사랑과 고통이 가득한 분이셨다. 나는 어제 저녁 ‘고통의 동정녀’께 대한 사랑에 사로잡혔다.”(일기 1894년 3월 17일)

콘치타의 삶에 중심 은총이 된 신비적 강생은 그녀로 하여금 하느님 어머니의 지극히 내밀한 감정까지 알게 해 주었다. 그분은 아드님의 몸과 일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시고, 아드님과 함께 아드님 아래에서 구원의 신비에 헌신하시면서 믿음과 완전한 순종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셨던 것이다.

‘강생의 동정녀’는 따라서 사제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다. 사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에 “...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히브 10,5-10 참조). 구원의 신비 속에서 마리아 고유의 사명은 당신의 신적 모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이 당신의 강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다.

“마리아는 당신의 동정 모태에 하느님 말씀의 강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으셨고, 온전히 순결한 동정 어머니인 그분은 그 순간부터 내 아버지께 대한 지고한 순종 속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으며, 아버지께 끊임없이 나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산 제물로 바치셨다. 그것도 이 사랑하올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당신의 모성적인 마음을 희생하면서 바치셨다.

그분은 산 제물이 되도록 나를 양육하셨으니,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나를 넘겨 주셨을 때 당신 영혼의 다시없는 희생이 최고도에 달했던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치른 나의 희생과 그분의 마음속으로 치른 희생은 하나의 동일한 희생이었다...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나를 아버지께 봉헌하셨고, 언제나 그렇게 사제의 역할을 하셨다. 그분은 교회를 위한 은총들을 끌어당기려고 언제나 나와 일치하여 당신의 무죄하고 순결한 마음을 제물로 바치셨다.”(일기 1928년 4월 6일)

3. 선호한 신비: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신비

한 영성가의 내적 비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체험을 통찰하면서 그 자신의 관점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마리아의 생애를 이루는 신비들 앞에서 그가 취하는 특징적인 태도 속에 그 고유의 은총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신비적 강생이 콘치타의 중심 은총이므로 그녀의 마리아 관상의 중심을 이

루는 것도 무엇보다 강생의 신비일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녀가 선호한 것은 다른 신비였으니, 바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신비였다.

그녀는 그 특전적인 신비 안에서 신비적 강생의 근본 태도를, 십자가 교리의 정수(精髓)인 사랑의 봉헌을 알아보았다. 즉, ‘말씀’을 그분의 아버지께 봉헌하면서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도 온전히 봉헌하되,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한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콘치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907년 2월 2일의 일이었다. “오늘 경축하는 신비는 너의 사명을 구체화한다. 네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나라는) 제물을 바쳐 세상을 위하여 희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고통은 거룩하고 숭고하며 탁월하고 매우 순수한 고통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엇을 구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아니고 오직 나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통과 사랑의 완성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매순간 너에 의해 봉헌되고, 너는 이 위대한 제물과 그의 모든 완덕들과 일치해야 한다. 나는 네가 마리아처럼 나를 봉헌하기 바란다. 마리아와 같은 덕행과 능력으로 말이다. 그러니 마리아를 본받고 연구하며 극히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을 본떠서 네 마음을 빛어내어라.”(일기 1907년 2월 2일)

그녀의 일기를 따라가노라면 이 신비에 대한 언급이 다시 발견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1913년 2월 2일. 성모 취결례 축일. 내 영혼에 풍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랑에 찬 신비.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영원하신 아버지께 끊임없이 봉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

“1922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오늘은 나의 날이다.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묵상하다가 이 봉헌 신비를 묵상할 때가 되면, 고통과 사랑 때문에 얼마나 번번이 울곤 했던가!”

(여기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규정한 대대적인 전례 개혁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 개혁으로 성축일(聖燭日)과 함께 지낸 성모 취결례 축일이 주님 봉헌 축일로 대체됨으로써 먼젓번 것에 진정한 의미를 되돌려 준 것이다. 즉, 이날은 “인류의 빛”⁵²⁾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불켜진 초로 상징되는 빛의 축일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느님 대전에서 스스로를 태우는 초에 의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바쳐지는 ‘강생하신 말씀’의 봉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전례의 심오하고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면서 몸소 예식을 거행하고자 했으니, 이는 ‘말씀’을 봉헌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신비체를 봉헌하되, “교회의 어머니”⁵³⁾, 곧 하느님 백성 전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봉헌하는 것이었다.

52) 교회 헌장(Lumen Gentium) 1항 참조.

53) 교황 바오로 6세는 공의회의 제3회기 마지막 날에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공식 선언하였다.

4. “하느님 어머니의 고독”

이 관상에서 콘치타의 가장 독창적인 면은, 아드님의 구원사업에 깊이 결합하신 지상 생활 말년의 마리아를 성령의 빛으로 통찰하는 것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도들에게서 이어 오는 이 성전은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 사실, 전해진 사실과 말씀들에 대한 이해는 이를 ‘마음 깊이 새겨 간직하는(루가 2,19.51 참조)’ 신자들의 관상과 공부를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하여 증진된다(게시 현장 8항 참조).”고 확인하였다. 영성가들의 신비 체험 — 이것이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 영성에 의거한 마리아론의 새로운 면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지상 생활 말년에 겪으신 “고독”(soledad)을 본받는 것에 있다. 그분의 영성 생활이 사랑의 극치에 달했던 그 때, 아직까지 별로 탐구되지 않은 일종의 내적 순교로써 그분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모든 은총을 교회에 얻어 주실 수 있었다. 이를테면 교회 창립에 필요한 은총과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은총이었다.

“soledad”라는 단어는 (편의상 “고독”으로 번역했을 뿐) 실은 번역할 수 없는 낱말이다. 이는 “고독”과 “고립”, 순수한 믿음 속의 말없는 순교를 동시에 의미한다. 마리아 안에 순수한 믿음의 순교가 일어났으니 그것은 하느님의 명백한 부재 곧 이미 승천하신 아드님의 부재 속에서, 그 측정할 수 없도록 큰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크기와 완전히 맞먹도록 끊임없이 증대하는 엄청난 사랑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 *“나는 고독한 만년을 보내신 마리아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새로운 형태의 마리아 신심이 콘치타 안에서 발전한 것은 1917년부터 만년 20년 동안이었고, 이는 신적 영감에 의한 것으로서 바로 하느님 어머니의 만년의 “고독”을 본받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고독” 속에서 사랑의 극치와 충만함에 이르신 그 시기가, 당시에 태어나고 있었던 교회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순례하는 투쟁 교회에 유익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홀로 있기를 바라신다. 지금은 고독의 때이다. 나는 마리아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고독한 만년을 보내신 마리아를 본받아야 한다.”(일기 1917년 2월 14일)

· *“마리아가 너의 모범이시다.”*

“내 어머니는 영혼들 안에서 사는 내 영의 삶 속에서 결코 나와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땅에서도 우리 둘의 삶을 동시에 다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리아의 삶은 내 삶의 판박이였다. 그러므로 내가 구속자였던 것과 같이 그분은 공동 구속자이셨다. 마리아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닮은 영혼은 나를 가장 완전하게 닮은 영혼이다. 그러니 너는 덕행들의 실천에 있어서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 내가 늘 말해 왔듯이, 특히 마리아의 겸손과 마리아의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마리아께서 생애 마지막 단계의 고독 속에서 실천하신 덕행들을 유심히 바라보아라. 줄곧 하늘로 쏠려 있었던 그분의 눈길과 영혼을, 땅에서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 그분의 자기 포기를 살펴보아라. 그분은 하늘에 대한 열망으로, 곧 천국을 갈망하는 열렬한 사랑으로, 태어나기 시작한 교회를 위하여 하늘에서 은총들을 받아내기에 마땅한 공로를 쌓으셨다.

· “네 삶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는 어떤 모양으로나 나의 부재로 말미암은 고통을 느끼실 때마다, 실제로 그것은 계속적인 고통이었지만, 세상 구원과 태어나기 시작한 교회를 위하여 그 고통을 즉시 아버지께 봉헌하셨다. 이 사도적 고통이 바로 그 고독의 기간에 걸친 마리아 안의 ‘십자가 사도직’이었던 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었으며, 하늘에서 강물처럼 풍부한 은총이 쏟아지게 하는 결정력이 있었던 것이다.

너에게도 똑같이 마리아의 그 단계를 반영하게 될 새로운 단계의 삶이 시작되었다.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결합될 때라야 값어치를 지니기 마련인즉, 마리아를 본받아 어떤 고통도 허비하지 않는 것이 네 소관이다. 너의 **고독**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초자연적인 것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아들들에게도 그 풍성함을 얻어 주어라.”(일기 1917년 3월 21일)

고독은 따라서 그리스도 성심의 내적인 수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신비적 강생의 한 결과이기도 하다.

“나는 나와 같아지게 하려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 상처의 흔적들을 외적으로 지닐 은총을 주어 왔다. 하지만 내 어머니에게는, 나의 수난 이후, 내 모든 고통과 상처와 내 마음이 겪은 고뇌들을 드러서 내적으로 나와 완전히 같아지시게 하였다.

너는 그런 면에서 마리아를 본받아야 한다. 그분의 모습이, 그러나 고통에 잠기신 모습이 네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라. 이것이 신비적 강생의 은혜를 받은 뒤 영혼이 도달하는 단계이고, 지금 네가 처해 있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너는 마리아의 쓰디쓴 고통을 맛볼 것이다. 고독 속에 계신 그분 곁에 머물러 있을 뿐더러, 구속과 영광의 같은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겪으며 쏟으신 고통과 눈물의 메아리를 네 마음 속으로도 느끼면서 말이다.”(일기 1917년 6월 21일)

콘치타는 1917년 6월 29일에 계시적인 큰 빛의 비추임을 받았다. 마리아께서 교회의 심장부에 계시고, 또한 당신의 모성적인 성심에 온 교회를 품어 안고 계시는

것이였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은 온 인류의 어머니로 선정되었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모성적인 사명의 성취를 위하여 마리아 안에 또다시 은총을 가득히 부어 주셨다. 그 사명은 신앙과 하느님의 계획에 완전히 맡김과 뜨거운 사랑 및 겸손한 순종 속에서 당신 아드님의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이였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신 몸으로 채우시는 것(골로 1,24 참조)”이였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당신 사랑에서 나온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께 자녀들을 낳아드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의 일기에 보이듯이) 마리아의 비밀에 속한다.

“마리아의 성심은 장미꽃 송이들과 함께 제시된다. 하지만 그 밑에는 가시들이 있다. 장미는 자녀들을 위한 은총들을 뜻한다. 오로지 나만이 그 무게를 짊 수 있는 눈물과 순교적 고통으로, 거의 무한한 고통으로, 그분께서 얻어내신 은총들 말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시와 고통들을 지니는 것이 어머니들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지당한 일이기때, 자녀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장미꽃과 자상한 애정만을 내어 주시는 것이다.”(일기 1917년 6월 30일)

· **더없이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했던 마리아의 말년**

“성령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정배이신 마리아의 그 고독의 순교에 대한 공경은,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교회가 종말적 승리를 거두기로 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유보되어 있었다. 그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이 ‘하느님의 영’의 권능과 힘만이 마리아를 존속시킬 수 있었다. 마리아는 말하자면 사실상 기적에 의해서, 또 오직 인류를 위한 모성애에 필요한 은총들을 얻어낼 공로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다. 성령께서 나의 신성을 증거하신 것과 같이, 마리아는 나의 인성을 증거하며 사셨다. 마리아의 삶은 태어나기 시작한 교회 속에서 성령의 어떤 가시적(可視的)인 도구 같은 것이 되기 위한 것이였고, 한편 성령께서는 온전히 영적이고 신적인 계획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계셨다. 마리아는 유일히 참된 이 교회에 최초의 양식을 대기 위해서 사셨고, 그 결과 자녀들의 ‘위로자’, ‘변호자’, ‘피난처’라는 칭호를 하늘에서 받으시게 되었다.

마리아의 생애 중 이 단계는 그분의 성심이 순교의 골자인 쓰라린 고난 및 정화된 사랑의 원천을 이룸과 동시에 세상을 위한 은총과 자비의 무진장한 원천을 이루기도 한 시기이지만, 이 사실은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의 모든 자녀들이 태어났다. 나의 죽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내 생명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맞기 전에, 나의 부재로 인한 고통에 의하여 자녀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무한한 은총을 얻어 주심으로써 세상에 당신 모성애를 나타내 보여야만 하셨다. 마리아께서는 인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내 죽음 이후의 순교적 고독을 통하여 얻으신 것이다. 세상이 이를 알고 있느냐? 그분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느냐? 이제는 자녀들

이 참으로 자녀다운 태도로, 그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토록 섬세하고 고통스러운 순교를 치르며 살아가신 마리아의 으스스한 성심을 드러나게 공경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대가로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한 은총을 얻어내셨으니, 모두가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일기 1917년 6월 30일)

이처럼 마리아의 고독 속에 자리한 고통의 원인 중 하나는 예수님의 부재였다. 그러므로 이는 자신 속으로 죽치고 들어가는 자폐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렬한 사랑에서 솟아나는 매우 순수한 고통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의 노래 「사랑의 산 불꽃」 첫 절⁵⁴⁾에서 그런 사랑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로 변화된 가련한 죄인들의 영혼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랑이라면,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사랑이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마리아의 생애에서 정점을 이루는 이 단계는 당신을 “주님의 겸손한 종”⁵⁵⁾으로서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맡기신 그분 존재의 완성점이 될 것이다.

· “마리아의德行과 고통은 감춰져 있었다.”

“마리아의德行은 그분의 겸손 때문에 감춰져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고통 역시 가려져 있었다. 이를테면 정결 예식이 있었던 날처럼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무런 투덜거림이나 원망 없이 그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그것도 사랑으로, 그 고통들 안의 하느님의 뜻을 흠송하면서 받아들이셨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마리아의 생명이었다. 내가 승천한 뒤 그분께서 실천하신 내 흠송할 뜻에 대한 이 충실한 고수(固守)는, 나의 부재라는 순교와 그분의 고독이라는 십자가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도록 괴로운 생활을 하시는 동안 특히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 견고한 충실과 단순성, 우리 뜻의 드높고 긴밀한 일치, 그 순교적 고통 속에서의 나의 뜻에 대한 일치, 그분을 희생으로 바치고자 하는 나의 소망과 계획에 대한 순종과 완전한 일치 — 그러한 것이 그 당시 마리아의 생활 방식이었다. 그러한 것이, 사랑 안에서 겸손과 고통과 가슴을 저미는 아픔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뜻에 몰입해 있었던 그분을 지탱한, 지극히 거룩하고 신적인 저 숭고한 충실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러나 ‘순교자의 모후’라는 마리아의 호칭을 그분에게서 알아보지 못한다.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는 마리아의 생애와 고통의 모상이 되어, 네 가슴을 찌르며 으스스뜨리는 나의 뜻에 충실함으로써 그분을 본받아라.”(일기 1917년 7월 2일)

자신의 삶 속에서 마리아의 “고독”을 본받아 갈수록 콘치타의 명상적인 시선은 점

54) 최민순 역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에 이 노래의 전문이 책머리에 나와 있다. 그 1절은 이렇다.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 할딱이며/ 종을씨고 행운이여/ 알 이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55) 루가 1,38 참조.

점 더 깊이 이 신비 속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마리아의 모성은 참여적 모성이었다. 마리아는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말씀’의 깊은 의도에 믿음과 사랑으로 결합하셨으니, 세상 구원 사업에 대한 마리아의 이 참여는 그분의 신적 모성에 연결되는 새로운 특전이 아니고 단지 같은 모성이 그 존재를 충만히 실현하면서 행하는 하나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따라서 공동 구속자요, ‘구속의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곧 “구원하시는 하느님”⁵⁶⁾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고독”은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와 가장 완전하게 결합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극적인 사건은 불가사의하게도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순간에, 그러나 신뢰와 사랑에 찬 응답으로 아버지의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기신 그 순간에 결정되었으니, 곧 최후의 고통에 처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였던 것이다.

“너는 마리아의 일차적인 고독, 곧 외적인 고독에 대해서 오래도록 깊이 생각했지만 내적인 고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더할 수 없이 가혹하고 뼈저린 고독, 가슴이 미어지는 고독이니,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단말마의 고통을 겪게 되는 고독이다.

나의 승천에 이은 마리아의 ‘순교’는 다만 나의 구체적인 부재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분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버림받음의 무서운 시련을 겪으셨다. 내 아버지께서 마리아의 버림받음을, 수많은 은총을 얻어내게 한 나의 버림받음에 결합시키신 것이다.

공동 구속자로서 마리아의 영혼 속에는 내가 겪은 모든 고뇌와 굴욕과 모욕이, 수난의 전 고통이, 내 마음을 피 흘리게 하는 세상 죄들의 무게와 하늘의 버림을 받은 격렬한 슬픔이 고스란히 되울리고 있었다. 이 버림받음의 슬픔은 은총을 얻게 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너는 이 ‘고통의 어머니’의 충실한 메아리가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의 버림받음과 같은 순전한 버림받음, 영혼을 정화시키면서 은총을 얻게 하는 버림받음을 체험해야 한다.

분명 마리아 안에는 정화되어야 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인류 곧 그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으니, 그분은 이 버림받음의 고통으로 ‘어머니 순교자’로서 새로운 월계관을 획득하신 것이다.

그렇게 그분은 당신 자녀들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은총의 초자연적 생명을 얻어 주셨으며, 그렇게 그들에게 하늘을 얻어 주셨던 것이다.”(일기 1918년 6월 22일)

마리아는 참으로 사람들의 어머니이시고, 그 영적 모성은 참여적인 모성이기에, 죄에 물든 적이 없는 ‘티 없으신 분’께서 자녀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다.

56) 마태 1,21 참조.

“마리아의 성심은 어찌할 줄 모를 극심한 고독의 순교로 은총들을 얻어내었지만, 그 고독은 (성 요한과 사도들, 그리고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곁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실제적인 부재 때문도 아니었다. (지극히 생생하고 완전한 신앙이 있었기에 성체로 위안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고독은 영적인 저버림, 삼위일체의 신적인 저버림에 기인한 것이었다. 삼위일체께서 마리아에게 모습을 감추고 숨어 계셨던 것이다...

마리아는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겪은 버림받음 — 사람은 가능조차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있는 말도 없는 그 버림받음과 아주 유사한 것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이 버림받음, 이 절실하고 전율적인 고독의 순교는 사람을 비탄에 잠기게 하는 신적 저버림에 의한 것이었지만, 마리아는 영웅적인 힘으로, 사랑에 찬 자기 포기로, 하느님에 뜻에 대한 숭고한 말김의 정신으로 겪으셨다. 그런데 이것이 찬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작음과 무능함 속에서 그분을 본받아라. 네 마음의 힘을 다하여 본받으려고 애써라. 은총을 얻고 너를 정화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구속 사업과 공동 구속 사업에 참여하도록 영혼들을 부르시어 나와 마리아께 결합시키실 때, ‘십자가 사도직’에, 곧 무죄한 고통의 사도직에, 사랑이 가득하고 순수한 고통이며 죄 많은 세상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 구원적인 고통의 사도직에 부르실 때, 이는 그들에게 큰 영예가 된다.”(일기 1918년 6월 23일)

콘치타는 생애의 끝 무렵에 이르러 「일기」 속에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올 ‘고통의 어머니’, 어머니께서 겪으신 것과 같이 고통을 겪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의 그 무서운 ‘고독’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일기 1936년 10월 13일) “저를 버리시는 하느님께 저를 내맡길 것을 온 마음으로 약속합니다.”(일기 1936년 10월 6일) “동정 마리아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아직 제게 남아 있는 삶의 모든 순간에 어머니의 그 무서운 ‘고독’의 갈바리아에서 느끼신 『완전한 기쁨』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에게 갈수록 더 힘찬 향주덕을 얻어 주시며, 하느님의 계획을 지상에서 완수하지 못한 채 죽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오로지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일기 1936년 10월 20일)

“마리아의 고독”을 본받는 것 — 이것이 콘치타가 생애의 말년에 지향한 영성 생활의 완성점이었다.

십자가 영성에 의거한 마리아론의 이 새로운 면은 비할 데 없이 심오한 신학적 깊이를 지니고 있다.

마리아의 전 신비가 시간의 흐름 속에 펼쳐진다.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신 것은 다만 십자가 밑에서 계셨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십자가 밑에서 그분은 “당신 외아드님과 함께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며 당신에게서 나신 희생 제물에 사랑으로 일치하시어, 아드님의 희생 제사에 어머니의 마음

으로 당신을 결합(교회 헌장 58항)”시키셨지만, 그 고통스러운 지상 생활의 막바지까지 끊임없이 사랑 안에 성장하셨으니, 은총 총만의 완성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느님의 계획대로 승천의 영광을 입으셨던 것이다.

하느님 어머니의 저 “고독”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와의 지고한 동화 현상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적 모성은 극도에 달한 사랑과 자비심에서 태어나는 구원적인 고통에 의하여 확대된다. 거기에서 완전한 기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나오는 것이다.

5. 이 새로운 신심의 사목적인 풍요

이 장에서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주된 점들에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하느님 어머니의 **고독**”은 우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에 대한 교회의 참여에 큰 빛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에 마리아께서 동참하신 데에는 구분해야 할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그 구원 은총의) 획득과 적용이라는 두 측면이다.

첫째 측면은 동정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순간에 나타나서 “하느님의 계획대로 십자가 밑에서 계셨던(교회 헌장 58항; 요한 19,25 참조.)” 순간에 그 절정에 이른다.

이는 마리아에게 **고유하고 유일무이하며 개인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신적 모성과 영적 모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 **적용** 측면의 시작이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 새로운 사랑의 총만을 이루시어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신다. 이 마리아는 이미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고(새번역 묵시 12,2)” 있는 묵시록의 신비로운 “여인”으로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지상 순례를 하는 동안 교회의 심오한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한번에 완성하신 구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공동 구속의 위대한 신비가 있다. 교회는 마리아를 본받아, 순교자들과 성인들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가장 불완전한 지체들 안에서도 거룩하신 스승의 수난을 계속하는 것이다.

공동 구속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으뜸가는 중요성을 지닌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려는 열망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참으로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하느님 어머니의 **고독**”은 인간의 고통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될 때 지니게 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도 없다. 죄의 결과요 쓴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구원의 대가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십자가 사도직”이야말로 더할 수 없이 풍성한 수확을 내는 사도직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정화와 속죄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상 구원에 협력하라는 부르심이다. 고통이 무죄하고 깨끗한 것일수록 그만큼 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화의 “어둔 밤”⁵⁷⁾을 겪고 “변모적 결합”에 도달한 성인들만이, 공동 구속적이며 사도적인 **고독** 속에 계셨던 마리아처럼, 온전히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3) **고독**을 겪으신 마리아는 외관상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범이다. 이들이 마리아를 본받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자기 실현의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인 문제가 새로운 사목 현안으로 교회에 제기되는 시대에, 이 새로운 형태의 마리아 신심은 보다 젊은 층이나 한창 원기 왕성한 중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노인들의 실망과 외관상의 무용성 문제에 해답을 가져온다. 저물어 가는 삶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어야 할 수많은 노인 신자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되찾아 주면서 말이다...

또한, **외관상** 생활 여건 때문에 외적으로 사도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남녀 모두에게도 유사한 문제들이 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 어머니의 **고독**의 삶이 성인들의 통공에 내포된 심오한 이치를 조명해 주는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적은 사랑으로 성취된 더없이 눈부신 업적보다 더 비옥한 사도적 풍성함을 지닌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사랑의 절정과 풍성한 사도적 생산력의 충만에 이르시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것은 당신 생애 말년의 침묵과 고립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였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기적의 눈부신 업적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즉 너는,』 하고 주님께서 콘치타에게 말씀하셨다. 『마리아의 **고독**과 나의 부재로 인한 그분의 고통, 그리고 그분의 혹심한 괴로움을 알면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장미꽃으로 표현되는 것, 곧 그분의 눈물로 얻은 열매는 남을 것이니, 당신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받을 월계관을 마련해 주신 그토록 많은 고통을 기억할 때 감사의 정이 되살아날 것이다.』”(일기 1917년 7월 4일)

그러므로 마리아의 **고독**에 대한 신심은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 오순절의 동정녀께 대한 신심인 것이다.

57) 최민순 역,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둔 밤」(Noche oscura; 1973년, 성바오로출판사) 참조.

제4장

교회의 신비

“나는 사랑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구원의 보편적인 성사인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구원 계획의 성취이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께서 한번에 이루신 희생 제사의 효력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을 아드님 안에 모으고자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당신 영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교회에 관한 콘치타의 영적 가르침은 점진적인 진보를 반영하는 바,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쇄신되도록 하려는 성화의 메시지 속에 그 정점이 있다.

신앙이 두드러지게 개인주의적인 특색을 띠고 있고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콘치타에게 교회의 신비의 본질적인 면과 그 구조적인 면을 분명히 보여 주셨는지, 또 그녀의 영성 생활 초기부터 이 생각이 어떻게 그녀에게 끝없는 시야를 열어 주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터이다.

· “너의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참석한 첫 영성 수련 피정은 1889년 사제 안토니오 플란카르테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

나는 내 아이들을 홀로 둘 수 없어서 낮 동안만 거기에 참석했다.

어느 날, 온 정성을 기울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실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었을 때에, 마치 하늘에서 오는 소리인 듯,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너의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내 영혼 깊은 데서 들려 왔다.”(자서전 1,51)

주님의 이 첫 말씀이 우리에게 콘치타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녀는 전적으로 교회에 봉헌될 사람이었던 것이다.

·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콘치타의 경우 1894년 1월 14일에 (그리스도의) 모노그램을 가슴에 새긴 사건이 그녀를 십자가를 통한 세상의 구원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한 여성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행한 그 용맹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보답으로 그녀 안에 일으키신 변화에 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을 **새로운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일이다. 즉 당신 자신의 구원적 사랑에 참여시킴으로써 ‘십자가 사업’의 씨앗을 배태(胚胎)하게 하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나를 땅바닥으로 내던졌다. 나는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기쁨을 잊어버리고 오직 사람들의 구원만을 생각하였다. 내 영혼이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고, 아무래도 나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은 불길에 휩싸인 채 거듭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다.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자서전 11,33; 편지 10.18.56)

‘십자가 사업’과 그 가르침 전부가 교회의 신비를 이루고 있는 가장 내적인 실재에 대한 이 생생한 체험에서 태어났으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인류 구원 사업에 결함하는 것이다.

1. 원초적이고 포괄적인 교회관

콘치타는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발견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고 있노라니 주님께서 교회와 십자가 사이의 내적인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은총을) 베풀었다. 이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여서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도 없을 것이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태어났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는 이 교리를 확증하며 여기에 생명을 부여하시려고 나중에 오셨던 것이다.”(일기 1898년 5월 28일)

교회의 신비에 대한 최초의 계시는 교회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교회라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참여에의 소명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너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라.』 하고 주님께서 여러 번 내게 말씀하셨다. 『내 교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이기도 하다. 사실 나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상태로 살고 있다.』 (나는 이 말씀으로 악한 사제들을 암시하시는 것이라고 알아들었다. 수없이 많은 비행과 죄를 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찾는 성직자들 말이다).

『나는 네가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기 바란다. 너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으니, 내가 하는 대로 맡겨 다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영혼들은 특별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일기 1898년 5월 28일)

“교회를 위하여 제물이 된 영혼들은 탁월한 제물인 나의 성심과 일치해야 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속죄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기를 희생으로 바치는 제물들을 찾고 있다. 교회를 위협하는 (신적) 의노를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은총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외적인 순교보다도 내적인 순교이다. 이런 이유로, 제물인 영혼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부서진 내 마음과 결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그 영광을 내 아버지께 얻어 드리고자 한다. 성령께서는 나와 결합된 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강복하실 것이다.”(일기 1898년 6월 14일)

콘치타의 용어들 가운데 “제물”, “제물인 영혼”이라는 표현에는 고통주의적인 의미라든지 자기 본위의 어떤 감정적 과장 같은 것은 조금도 없다. 그러한 과장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지만, 한심한 풍자 만화나 자기 학대적 경향의 심리적 복합성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의 굳건한 기초는 그 자체에서 솟아나는 자기 증여적 정신이다.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새번역 마태 20,28)”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분께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구원 사업의 요청에 의거한 것이기에, 여기에서 삼위일체적인 관점이 예기치 않은 모양으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 삼위일체적인 교회

“『교회는 성령의 모든 선물을 맡아 보관하는 수탁자이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당신 거처를 정하셨다. 그분은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모든 예식에 당신의 인장을 찍으신다... 이 하느님의 인장이 없으면 구원의 성취도 그 가능성도 없다. 교회로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 대한 지속적인 찬미가 떠오른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온 눈길을 모아 교회를 바라보시고, 성자는 자신의 신성에 결합

된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현존하면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희생 제사를 영속화하신다.』

복되신 삼위일체께서 교회와 신적인 통교를 하고 계시니, 이 조화로운 일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지금 하느님께서 놀라운 모양으로 당신 피조물에게 펼치시는 무한한 사랑을 교회에서 보고 있다! 고백하지만, 내가 이리도 명료하게 그 사랑을 깨달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또한, 세례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들의 끊임없는 연쇄에 대해서 지금만큼 하느님께 고마움을 느낀 적도 없었다. 주님의 영원한 호의가 우리를 위해 당신 교회 안에 켜져 두신 그토록 많은 은총과 성화 수단들에 대하여 나중에 그분께 어떻게 섬을 치러야 할 것인가!”(일기 1898년 5월 28일)

이 삼위일체적인 시각은 따라서 교회의 구조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수많은 활동의 측면에서 교회를 보는 수평적인 교회관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저 높은 곳에서 곧 삼위일체의 시각에 비추어서 보는 숭고한 교회관이다. 더군다나 원초적이고 포괄적인 종합으로 열려 있는 시각이다. 교회는 십자가적인 교회임과 동시에 삼위일체적인 교회인 것이다.

2. 강생하신 말씀의 교회

“교회는 십자가 위의 내 성심에서 솟아났다. 참으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 내 옆구리에서 태어났으니, 마치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과 같다. 그것은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어, 내가 교회의 순결한 태중에 맡겨 둔 무한한 공로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일기 1928년 3월 14일)

콘치타는 그녀의 개인적인 은총 특유의 관점으로 교회론의 이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주제를 바라본다. 여기에 나타난 “십자가”라는 표현이 그녀의 특성을 훌륭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으로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바치신 사제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십자가는 또한 그리스도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 동화됨으로써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기에 콘치타는 자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아 있는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고 확언한 것이다.

더욱이, 교회를 낳은 십자가는 갈바리아 산정에 세워진 외적으로 보이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십자가, 그리스도 성심의 내밀한 십자가이기도 하다. 이는 그분의 강생과 함께 시작되어, 아버지의 손에 당신 영을 맡기실 때⁵⁸⁾ 완성된 십자가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외적인 십자가로 내 피를 쏟아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제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구원 사업이 완성된 것은 특히 내적인 십자가에 의해

57) 새번역 루가 23,46 참조.

서였다.”(일기 1896년 9월 7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내적인 십자가”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 주제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 신비의 핵심과 본질로 인도하는 것이다.

내적인 십자가는 오직 사랑에서 태어나 활기를 띠는 지극히 순수한 고통이다.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죄 많은 인류의 빛을 갚음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였다. 나는 또 무한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행복하게 해 주고자 하였다.”(일기 1928년 1월 23일)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의 사랑 안에 융합되는 그 두 가지 사랑이 구원 사업의 심장을 이루는 것이다.

· 성제성사를 통해 영속하는 십자가

“『구원 사업이 죄를 씻어 없앴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채웠고, 그것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극복되었다면, 같은 십자가상 희생 제사를 제단에서 영구적으로 바치기로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여쭙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오로지 사랑 때문이다. 오로지 자비 때문이다. 내가 제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이 된 말씀을 불태우는 고결한 목마름 때문이다. 사람이 된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나는 제물인 나의 생명으로 영혼들에게 부족한 희생을 채우려고 여기에 남아 있었다.

나는 영구적인 희생 제사로 사람의 배은망덕을 계속 기워 갚으려고 여기에 남아 있었다.

나는 홀로 나만이 순수한 제물이기에 여기에 남아 있었다. 내가 없다면 어떤 희생 제물도 쓸모 없을 것이다. 나의 희생을 영속화함으로써 용서 역시 영구적인 것이 되고, 사람들의 희생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들의 희생이 나의 희생과 결합되어 바쳐질 때 말이다.

나는 나의 모범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고통을 사랑하도록 영혼들을 끌어당기려고 여기에 남아 있었다.

‘강생하신 말씀’이 자신의 피조물과 가까이 있는 데서 느끼는 기쁨 — 나는 그 기쁨 때문에 여기에 남아 있었다.』”(일기 1906년 7월 25일)

“미사를 통하여 갈바리아에서와 같은 제물, 같은 희생 제사가 영속화된다. 그것은 나의 희생 제사를 단순히 연장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피 흐름은 없지만 같은 희생 제사이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당신 자신의 아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고자 하신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오직 하나이고 같은 뜻으로 십자가에 못박히는, 같은 산 제물인 것이다.”(일기 1933년 8월 2일)

· 교회의 보편적인 사제성

오직 한 분뿐인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온전히 사제적인 백성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성사이다.

교회는 선택된 거례이고 왕의 궁전이며 사제단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 참조)인 것이다.

온 교회가 사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이 교회관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50년 전이었던 당시에 이미 콘치타의 영적 가르침의 본질적인 면을 이루고 있었다.

“기름부음을 받고 사제로 서품된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또한 사제적인 영혼들도 있다. 성품 성사도 사제의 품위도 받은 적이 없으나 사제적인 사명을 띠고 나와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분께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 차원에서 교회에 힘있는 도움을 준다.

사제들로 말하자면, 자기를 선물로 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마땅히 제물이 되어야 한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와 일치하여 아버지께 자기를 바쳐야 하는 것이다.”(일기 1928년 1월 8일)

· 영적인 사제직

사제직은 다만 하나, 그리스도의 사제직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제직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임과 동시에 카리스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직무 사제직은 “그리스도 대신으로”(in persona Christi) 성체성사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봉헌을 영속화하고, 온 교회에 영적 사제직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영적 사제직의 수행이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자기를 봉헌하는 당신 백성 가운데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봉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⁵⁹⁾하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만 사제들에게만 한 말은 아니었다. 물론 사제들만이 빵을 나의 거룩한 몸으로, 포도주를 나의 피로 실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모든 희생 제물을 단 하나의 제물에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믿음과 행실로 제단의 제물(인 나)와 하나 되어 영원하신 내 아버지께 나를 속죄의 제물로 봉헌하는 것은, 오직 한 몸의 지체들인 모든 신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일기 1916년 6월 7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제요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교회, 곧 **십자가적인 교회의 구조**인 것이다.

“나는 이 성스러운 천상적 유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

59) 새번역 루가 22,19; 1고린 11,25.

에 왔기 때문이다. 즉, 나의 보편적인 사제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내 무한한 자비인 것이다.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제직보다 더 적합한 것을 찾아내지 않으셨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제직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중심 또는 심장은 삼위일체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말씀’은 특히 사제가 되려고, 그리하여 자신의 사제직을 영혼들 안에 펼치려고 사람이 되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이고 신비적인 사제직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에 몸담고 있는 수도자와 평신도들은 나와서의 긴밀한 결합을 이루는 정도에 따라 이 신비적인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일기 1928년 11월 29일)

· 교회의 주축인 직무 사제직

직무 사제직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나는 오래 전부터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내 사제들을 보고 있다. 내 사랑이 영원으로부터 그들을 택하여 감싸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나는 내 사랑하는 사제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도 한꺼번에 보고 있다. 각 사제는 저마다 다른 많은 영혼들의 머리인 까닭이다.

끊임없이 사제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제에 의해 태어난 다수의 영혼들이 그 안에 있음이 보였다. 이들은 나의 공로와 결합한 사제에 의하여 속량되고 그의 양육을 받으며 그에 의해 성화되고 구원되어, 영원토록 나에게 영광을 돌려줄 영혼들이었다.

사제들의 삶은 단독적이거나 고립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나는 한 사제의 삶 안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다수의 삶들을, 영원토록 내게 영광을 주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본다.”(일기 1927년 11월 14일)

· “사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이다.”

사제 본연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듯한 현재의 위기 속에서 볼 때 콘치타의 메시지는 매우 감동적인 시사성이 있다.

“나는 인성을 취하면서 사람에게 사랑을 가져왔다. 사람과 같은 피를 지니고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연결하는 형제적 유대를 맺어 사람을 신화(神化)한 것이다. 이는 사람을 ‘말씀’과 접촉하게 하면서 하늘을 열망하도록 지상 사물들 위로 들어올림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나’, 나의 소유가 될 사람들을 따로 골라 놓았으니, 이들은 나를 지상에 내려오도록 하는 사명을 계속할 사람들이었고, 이 사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나온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도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일기 1928년 1월 11일)

“사제들이 내게 있어 무엇인가를 다 말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손이요 일꾼들이며 바로 나의 마음 자체이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의 중심이다.

사제 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반영을 본다. 나 자신과 성령을 본다. 사제 안에서 나는 신비들을 본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및 그 친밀한 일치의 신비를 보고, 미사 때마다 사제가 구현하는 내 강생의 신비를 보며, 사제의 협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성체성사의 신비를 본다. 끝으로 나는 다른 성사들과 내 사랑하는 교회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숭한 영혼들을 본다. 그리고 순간마다 내 사제들 안에서 나 자신을 본다. 이 나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본연의 나, 거룩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나, 사제들의 죄 때문에 흉하게 일그러지지 않은 나이다.”(일기 1929년 11월 20일)

· “교회는 수난을 계속해야 한다.”

“나는 교회의 머리이고, 나의 소유인 모든 사람들은 같은 머리의 몸이다. 그런즉 때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와 하나 되어, 간단없이 속죄와 희생을 바쳐야 한다.

내 수난은 갈바리아에서 완수되었지만, 내 교회를 이루는 이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보속으로 나와 일치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스스로를 봉헌하면서 내적 수난을 계속해야 한다. 제물(인 나와) 함께 있는 제물들로서, 그러나 같은 품격을 지닌 제물들로서 말이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다. 내 교회를 다스리는 법칙이다.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고 속죄이며 결합이다.”(일기 1906년 7월 24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와 하나 되어 같은 구원 사업에 협력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다.”(일기 1907년 5월 16일)

같은 정신이 **성무일도**의 한 저녁기도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드님의 수난을 통하여 모든 이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 사랑으로 불타올라 저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게 해 주소서.”

·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강생하신 말씀’의 사제단인 교회는 이 영원하신 사제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역시 어머니로 모시고 있다.

“마리아는 당신 동정의 태중에 ‘하느님 말씀’의 강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여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으셨다. 온전히 순결하신 동정 어머니께서는 내 아버지께 대한 지극히 완전한 순종 속에서 사랑으로 이를 받아들이셨고, 그 순간부터 간단없이 나를

아버지께 봉헌하셨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제물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모성적인 가슴을 사랑하옵 아버지께 거룩하신 뜻에 산 제물로 바치셨던 것이다.

마리아는 제물이 되도록 나를 양육하셨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나를 넘겨주신 순간에 당신 영혼의 최종적 희생에 도달하셨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희생 제사만이 있었으니, 내가 십자가 위에서 바친 그것을 그분은 당신 마음 안에서 바치신 것이다. 그분은 이를 (내가 승천한 뒤) **고독의 순교** 속에서 계속하시면서, 나와 하나 되어 영원하신 아버지께 당신의 고통을 바치셨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마리아를 남겨 둔 것은, 마리아께서 내 성심에 완전히 성실하신 당신 성심으로, 그분의 모성애와 덕행들로 나를 대신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내 교회의 창립 및 내 사도들과 첫 제자들의 양성에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교회는 그렇게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마리아께서 당신의 고통과 덕행,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지탱하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냈을 때 마리아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으니, 마리아는 이미 나의 영이 가득한 은총 총만의 상태에 계셨지만, 교회가 그분 안에서 자기네 ‘여왕’을 알아보고 사제들도 그분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사제이건 신자이건 누구든지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의 부재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일기 1928년 4월 6일)

3. 성령의 교회

“‘강생하신 말씀’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사람들을 불러모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신비로이 당신 몸을 이루셨다. 머리와 지체들 안에 현존하시는 한 분이신 똑같은 성령께서는 온 몸에 생명을 주시고 온 몸을 일치시키시고 움직이시는 생명의 원리가 되시니, 그분은 바로 이 신비체의 영혼이시다.”(교회 헌장 7항 참조)

“나는 승천한 뒤에 성령을 보내어 그분께서 이 세상과 내 교회를 다스리시게 하였다.”(일기 1894년 3월)

“성령께서 (나의) 강생을 이루셨으니 강생의 열매인 교회 또한 그분의 것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연히 교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존재 의미를 부여하시며 사랑으로 불타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생명과 은총을 주시려고 교회에 오셨다.”(일기 1915년 1월 29일)

‘성령의 교회’에 대한 콘치타의 풍부한 가르침들 가운데서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만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성령은 (교회의 가시적인) 구조의 **영혼**이시다.

둘째, 그분은 교회의 **성화**를 실현하신다.

셋째, 그분은 **일치**의 원리이시기에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 완성되도록 교회를 이끄신다.

· “내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졌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교계제도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 교권적인 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대립시키려고 드는 주장에 대하여, 콘치타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설(邪說)을 일축할 원칙을 일깨워 준다. 교회의 구조와 은사 사이에는 대립이 있을 수 없으니, 강생하신 분의 교회와 성령의 교회는 동일한 교회인 까닭이다.

성령은 교회 “구조”에 생명과 활기를 주는 원리이시다.

“내가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꼭 필요했던 단 한 가지 요소는 사랑, 오로지 사랑뿐이었고, 이것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초였다. 내 교회는 사랑에 의거하여 사랑 안에 성장하고 발전해야 했으니, 사랑이 교회의 마음이고 영혼이며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곧 온전히 사랑이신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사랑하는 교회의 최고권자가 될 사람에게 모든 세기에 걸쳐 기억할 만한 질문을, 아직도 모든 교황들의 마음 속에 메아리치는 이 질문을 했던 것이다.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⁶⁰⁾ 그리하여, 하느님이며 사람인 내 마음이 그의 사랑을 일단 확인한 뒤에, 지상에서 나를 대리할 그 최고 목자에게 영혼들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사랑에게 사랑들을, 곧 영혼들을 넘겨주었다는 말이다. 교황에게는 그것만이 필요한즉,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만 그것뿐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를 아버지로,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아버지로 변화시킬 것이고, 따라서 그는 엄한 가운데서도 다만 사랑, 오로지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내 마음의 애정을 묵상하여라. 하지만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구원한 세상을 맡기기 전에 베드로에게 한 그 감동적인 질문은 다만 영혼들의 수장(首長)뿐만이 아니라 특히 모든 사제들에게도 던진 질문이 아니었겠느냐? 나는 그에게 나 자신과 함께 교회를 넘겨주었고, 나 자신 안에 첫 사람에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구성할 모든 사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 교황은 그의 부성애에 싸여 있는 권한을 특별히 사랑하는 양들 곧 자기 사제들에게 주고, 이 사제들이 나와 함께 또 교황과 함께 영혼들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를 이루는 것이다. 교황은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 있는 나로 변화되어야 할 첫 사람이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 풍요성의 최고선인 ‘말씀’을 곧 나를 그에게 주셨으니, 나는 나를 그에게 내맡겨 그가 온전히 나로 변화됨으로써 교회 안에서 나를 대리하도록 한다. 또한 성령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깊이 스며들어 감동시키시며, 그를 변모시키고 비추어 주고 거룩하게 하고 강화하고 지탱해 주시며, 그에게 당신의 선물들을 주시고, 그가 내리는 결정에 도움을 주시면서 그의 말에 그르침 없는 **진리**의 지극히 거룩한 도장을 찍어 주신다.

60) 요한 21,15.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만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것은 곧 사랑, 사랑, 사랑이다! 내가 이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했으니, 오직 사랑인 영혼만이 나를 대리하고, 사랑이신 아버지의 풍요성을 전하며, ‘강생하신 말씀’ 곧 사랑의 화신이 되고, 나의 성령 곧 사랑의 화신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총체가 삼위 일체의 일치 안에서 틀림없이 내 교회의 우두머리와 결합하고 이 우두머리 안에서 그의 모든 형제들과 결합한다. 그들 모두가 다양한 품계(品階)를 가진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는 교황 안에서, 교회의 일치 안에서, 내 안의 모든 사제들 안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이다. 이 나는 홀로 목자이고 홀로 사제이며 홀로 구원자인, 오직 하나뿐인 나 예수인 것이다.

사실 내 사랑하는 지상 교회의 이 내밀하고 독특한 유대는 얼마나 아름답고 신적 이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신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교회를 뒤흔들거나 동요시킬 수 없고, 교회의 구조를 뒤흔들 수도 그 일치를 깨뜨릴 수도 없다. 교회의 기원은 신적이고 그 풍부한 생산성도 신적이다. 게다가 하느님이며 사랑인 내가 그 안에 살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지탱하고 영화롭게 한다. 사랑이 교회의 머리와 그 지체들을 지탱하는 한, 교회의 목자가 (성령의 내밀한 도움으로 항상) 사랑인 한, 교회는 배반과 분열과 지옥과의 투쟁이라는 폭풍을 뚫고 건너갈 것이고, 전복되거나 가라앉지 않은 채 그 모든 요동을 뛰어넘으며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교회의 조종사이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르면 내 교회가 내 손에서 나왔을 때와 같이 순결하고 그만큼 거룩하며 어머니답고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늘 연안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배반과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설사 그것이 자기 자녀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하기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지만 — 그래도 개의치 않고 무수한 폭풍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러한 폭풍은 어제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언제나 교회를 더욱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대체 누가 하느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모든 세대는 지나가기 마련이고, 박해도 교회 분열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홀로 내 교회만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게, 거룩하고 한결같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신적인 것이기에 변함이 없는 사랑에 의지하면서, 자신 안에 일치의 실체를 소유한 덕분에 사랑에 젖어들고 오직 사랑만을 널리 전파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상에서 찬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성령은 이 사랑하는 교회의 영혼이시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그분은 교회의 모든 행위들 속에 넘치도록 당신 자신을 부어 주신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나 사랑으로 활동하시는 성령께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봉헌되기 바란다. 그분은 세 번에 걸친 베드로의 겸손한 사랑 고백에 의하여 초창기부터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하신 사랑이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무엇보다도 특히 교황과 내 사제들의 마음 속에 타오르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지금은 그분의 차례요 그분의 때이며 내 교회

와 온 우주에 사랑이 승리할 때다. 내가 다시 요청하거니와, 이를 얻으려면 삼위일체의 제 삼위이신 그분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시해서 온 세상이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봉헌되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를 하나로 결합시키시어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위격이며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성령은 하느님 교회의 영혼이요 크나큰 신적 능력이며, 힘이고 심장이며 그 고동이신 것이다.”(일기 1928년 3월 2일)

· 거룩한 교회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하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에페 5,25-26 참조),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켜 당신 몸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셨기 때문이다.”(교회 헌장 39항 참조)

온 교회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소명을 받고 있다. 거룩함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도로부터 이어오고 하나이고 보편적인 교회는 마땅히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보배 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보편적 성화 소명을 상기시켜 주는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제5장⁶¹⁾이다.

콘치타는 1911년 2월 24일에 이렇게 적었다.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주님의 다음 말씀처럼) 영혼들이 내적 생활을 가지며 성령께 자기를 내맡긴다면, 신비적인 삶이 크게 신장되리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총의 수단들을 소유하게 되겠는가!

『영혼들이 성령께 스스로를 내맡겨 성령께서 그들을 차지하시게 한다면, 나의 성인들이 증가할 것이다. 교회는 선택된 도구들을 소유하게 되리니,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일기 1911년 2월 24일)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의 운명은 특히 목자들의 성화에 달려있다.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성화 활동에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동반자와 협력자로 받아들이고자 하셨다.”(사제 생활 교령 5항)

사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위에 참여한다(상동 2항).” 그리스도께서 당신 성직자들의 협력으로 몸소 당신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일개 평신도인 콘치타는 교회에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느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그것은 교회의 현재적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사제들의 성화** 소명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사제들의 드높은 위대성과 나약함에 대하여 토로하신 천 페이지도 넘는 메시지이고, 그리스도교 문학사상 그 선례가 없는 것이다.

61) 「교회 헌장」 39항-42항 참조.

사제들의 성화에 대한 이 긴급한 호소는 공의회가 열리기 3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콘치타의 **예언자적 사명**의 정점을 이루기도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제적, 왕적 사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거니와, 구원 역사 속에서 변함 없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사업을 이룩하시려고 늘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점이다.

콘치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 **“그것은 사제들 탓이다.”**

“영혼들이 (성화의) 길에서 뒤떨어지며 내적인 삶의 불이 꺼지는 것은 사제들 탓이다. 그것은 신비적인 삶으로 개방된 하느님과 통교의 문이 닫히고 마는 현상이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는 사제들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나를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고, 생활이 산만하고, 극기심이 없고, 이 분야의 공부를 하지 않고, 영혼들과 친밀하고 성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희생 정신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기도와 내적 생활과 영혼의 순결 부재, 나와 친교 부재, 성령께 대한 사랑과 신심 부재, 하느님과의 일치 부재라는 결과들을 유발하고 떠받치는 동기 내지 다수의 원인들이다.

이제 세상은 사제들의 마음 속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있으니 너는 이 가공할 원수가 동반하는 악덕들의 수를 잘 알고 있다. 피조물들과의 과도한 접촉이 그들의 열성을 식히고, 외적이고 내적인 명상 부족이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든다.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곳에는 성령께서 떠나신다. 성령께서 한 사제의 마음에서 떠나 버리시면 그에게는 파멸이 있을 뿐이다. 성령 안에서 살고 숨쉬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이기도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사제이다. 성령께서 떠나시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물질 중심주의가 파고 들어온다. 그렇게 물질 속에 빠져버린 사제는 불행하다. 스스로를 파멸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것은 산만한 영혼과 기도도 극기도 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너무나 수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사탄은 내 교회에 대해 지독한 증오를 품고 있으므로, 술한 영혼들과 사제들에게 그토록 으뜸가는 중요성을 지닌 점을 겨냥하여 가장 치명적인 독을 묻힌 화살을 쏘아댄다. 그가 주력하는 것은 사제의 마음 속에서 어떤 형태로나 세속적인 것이 침투할 틈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러고 나면 이 불행한 영혼은 죄에 이르는 내 리막길을 미끄러지듯 내달고 만다.”(일기 1907년 2월 14일)

· **“사제들이 자고 있다.”**

“『너에게 속사정을 하나 털어놓겠다. 내 교회에는 ‘강생하신 말씀’의 공로에서 오는 보물과 재화와 더없이 풍성한 샘들과 함께 은총들이 쌓여 있지만, 날마다 사람

들이, 심지어 ‘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마저 성령께 문을 닫아걸고 있다. 그래서 사탄은 성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의 악함과 방종을 통하여 교회를 해치고, 영혼들은 성령의 차지가 된 지도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진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풍요한 내 교회가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닫아건 채 있어야 하는 판이다. 누구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통탄할 일은 내가 내 피의 대가로 얻어낸 무한한 은총의 보물들이, 거룩한 일꾼들이 없어서 내 교회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영성 생활을 자기네 식으로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어서 무지와 태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다.

내 마음은 내 성직자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 많은 경우 그들은 피상적인 신앙심에 맞춰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다. 영혼들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게 하지 않고, 더욱 나쁘게도 그들에게 성령을 깨우쳐 주지도 않는다. 너에게 또다시 속사정을 털어놓거니와 의례적인 타성이 성소 깊숙이 침투하였다. “영과 진리 안에서”⁶²⁾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사그라진 공동체가 많다. 내 성직자들이 성령의 활동에 순응하며 내적 생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그들 스스로 내적 생활을 가지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를 영혼들에게 전하기도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초기의 활기 속에서 다시금 꽃피게 될 것이다. 내 교회에 성령의 활력이 부족하다. 성령의 활력이 신학생에게도 성직자단의 구성원에게도 부족하고, 따라서 영혼들에게도 부족한 것이다. 영혼들은 그들에게 은총 생명을 주기로 되어 있는, 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정수(精髓)를 먹고 살아가며 자라나는데도 말이다.』

『제 영혼의 주님, 저의 거룩하신 예수님,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의 하나님! 성령께서 되도록 빨리 오셔서 마음들 속에 불을 지피시게 해 주십시오! 저의 예수님, 저는 선교사가 되어 무수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어느 때든지 제 피를 뿌려 주면서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불꽃을 가지고 나날이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일기 1911년 2월 21일)

· 성화 소명

“나는 내 사제들 안의 사랑을 원한다. 내적 생활을 원한다. 이 축성된 영혼들이 나와의 친교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서 냉랭함을 몰아내고 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게 하고 싶다. 나에게 속해 있으나 기진(氣盡)해 있는 술한 영혼들의 신적 생명을 활성화하고 싶다. 하나님의 활동을 마비시키고 사제들에게서 내 은총을 앗아가는 무관심을 죄다 없애고 싶다.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중개에 의해

62) 새번역 요한 4,23,24.

서만 될 일인즉, ‘말씀’을 아버지께 바치면서 자비를 간청해야 할 일이다.”(일기 1927년 9월 23일)

· **홀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나는 사제들이 성령을 통하여 생기 있고 활달하고 분명하고 힘찬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

사제는 이미 그 자신이 아니고 또 다른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하지만 먼저 자기 성화부터 꾀해야 한다.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홀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께서만 성화하실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제는 — 이것이 그의 절대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 성령의 소유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어떤 영혼의 생명에든지 성령은 필수적이지만, 사제들의 영혼에는 성령이 그들의 숨이요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제들이 예수라면, 그들은 분명 예수의 영을 지니고 있지 않겠느냐? 이 영이 바로 성령이 아니겠느냐?”(일기 1927년 10월 9일)

· **긴급한 현실성**

“세상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건, 나는 내 투쟁 교회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추어 언제나 급히 온다. 이러한 신적 활력의 도움이 이 어려운 시기의 내 사제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함이고, 성소에까지 침투한 세속 풍조를 몰아내고 장차 닥칠 악들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내 사랑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갈수록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내 성심의 위로가 되게 하며 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

너에게 벌써 말했던 것과 같이, 한층 더 악한 때가 올 터이니 내 교회에 거룩한 사제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평화와 용서와 자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내 사랑의 가르침으로, 교회로 하여금 원수들을 쳐 이기게 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거룩한 나 자신으로 변화되어 덕행을 발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룩한 사제들의 군대가 필요하다. 지상에 있는 또 다른 나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사제들이 목적과 지향과 이상의 일치를 통하여 내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의 나 자신을 이루고, 나와 함께 오직 하나의 신비체를 이루며, 내 아버지의 뜻과 오직 하나의 뜻을 이루고, 성령과 오직 하나의 영혼을 이루며, 임무와 정의와 사랑을 통하여 삼위일체 안에 일치를 이룰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일기 1927년 12월 29일)

· **사제-그리스도로의 변화**

사제들의 성화 소명은 사제-그리스도로의 변화라는 그들 개개인의 소명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제들에 대한 내 목적은 그들을 나 자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니, 이 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그들을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아버지의 품에서 낚음을 받았고, 성령의 거룩한 활동과 도유(塗油)로 새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 봉사할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일기 1927년 12월 29일)

“내가 당부하는 것은 내 사제들의 그러한 영적 태도이다. 사제들이 먼저 나 자신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하여 나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은 그것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일기 1928년 2월 13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특징이나 덕행들 중 일부를 모방하거나 본받는 것에 있지 않다. 사제의 성화를 이루는 이 변화는 사제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동화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사제는 미사 중에 나로 변화되지만 이 변화는 일상 생활 중에도 계속 일어나야 한다. 내적이고 영적이며 신적인 생활이 되기 위함이다.

사제가 나로 변화되지 않거나 또는 변화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을 때면, 그래도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갈라져 나간 것이고, 내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이신 성령과도 갈라선 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며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비할 데 없이 품위 있는 사제직을 세속적인 어떤 직업쯤으로 여긴다. 그러한 것은 사랑과 덕행을 통하여 완전히 나로 변화하기로 되어 있는 사제직의 고귀하고 거룩한 목적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미사 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나로 변화되는 사제를 보고자 하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로 변화되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실현되는 이 축성 말씀을 영혼 속으로 진실로 발할 수 있는 사제 말이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일기 1927년 12월 31일)

달리 말하자면, 사제는 미사 중에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도구”의 자격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에 참여하여 성체성사를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다. **살아 있는**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 안에 들어가려면 사랑을 통한 결합이 강력히 요구된다. 사랑이 없다고 해서 성사를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극히 우스꽝스럽고 혐오스러운 무엇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변화는 성령께서 성체성사 속에서 실현하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이루는 것이다.

“그분(=성령)의 교회 안에 내가 개탄해 마지않는 모든 악이 나오는 바탕이 있으니, 나로 변화되는 사제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못 민족과 나라와

영혼들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물질 중심으로 전락한 채 신적 영향력이 별로 없음을 느끼면서 — 사제들이 그들에게 전해야 하건만 전하지 않으니 — 육체적 향락 추구와 신앙 결핍으로 인해 깊이 모를 악의 심연 속으로 서둘러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귀가 내 ‘포도밭’의 땅을 확보하는 것은 이 밭에 거룩한 일꾼들이 없기 때문이다. 미지근하고 산만하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사제들이 이 시대의 풍조와 환경에 끌려 다니면서 그런 것에 대항하지 않고 자제하지도 않으며 주로 전념해야 할 일꾼 나로 변화되는 것에는 도무지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일기 1927년 12월 31일)

· 제물-그리스도로의 변화

“내 사제들에게 상당히 부족한 것은 희생 정신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 고통에 내포된 풍요에 대한 지식이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지만 정작 실천하지는 않는다. 극기와 자기 포기를 권고하면서도 사제에게 꼭 필요한 그런 덕행들을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산 제물이었던 나로 변화되는 데에 있어서 희생은 그 기초요 절정이다.

내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려면 제물이 순수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나의 온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더욱이 사제의 실존을 종합하는 아름다운 말로 요약될 수 있으니, 곧 희생 제물이라는 말이다! 나는 지상에서 스스로 원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고, 지금도 제대 위에서 그 희생 제물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고통을 성화하고 고통에서 그 쓴맛을 없애려고 세상에 왔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런즉 가장 완전하게 나로 변화되려면, 사랑이 가득한 고통, 고통이 가득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동화되고자 하는 사제는, 이것이 그의 의무이기도 하려니와, 희생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도 자발적인 희생을 열망해야 한다.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항구하게 자기를 희생으로 바치면서 말이다.

사제란 자기를 봉헌하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요, 자기를 희생하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다.

사제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고 십자가에 못박힌 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야 한다. 내가 그들의 모범이다.”(일기 1928년 1월 1일)

그러한 희생의 삶이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삶이요, 영혼들에 대한 봉사에 요구되는 삶이다. 사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사제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다. 그러니 그들도 나의 사랑과 일치하기 바란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소명이 영혼 구원인 이상, 그들은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내 영을 소유하며 내 영에 잠기고 내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즉 사랑으

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사랑은 단지 몇 가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요구하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에 내주는 것이다.

나는 그릇된 말을 하지 않는다. 변화는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요, 자기 극복과 희생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목숨을 내주는 이 죽음보다 강하다. 성령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끌리는 경향을 주셨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래 십자가가 사랑으로 바뀌었던 것이다.”(일기 1928년 3월 4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게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 죽음은 내 아버지와 영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역작(力作)이었지만, 장차 또 하나의 나 자신으로서 나와 하나 되어 그 자신 안에서 또 제대에서 나의 희생 제사를 영속하게 될 모든 사제들을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나의 십자가와 희생의 삶에 결합시키려는 숭고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그들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하고 거룩한 단 하나의 제물인 나를 바치면서 동시에 내 안에서 그들 자신도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일기 1931년 12월 12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려면 사제이며 동시에 제물이신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 사제의 위대성은 본질적으로 성체성사적인 위대성인 것이다.

로마 미사 경본 중 사제 자신을 바치는 봉헌기도에 그러한 정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사제이며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보시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저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실 제물로 저를 바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 **홀로 변화시키시는 성령**

“홀로 성령께서만 사제를 성화시키신다. 이 하느님의 영만이 사제를 지상에서 신적인 영역으로 들어올려 주신다. 그분만이 당신 숨결로 사제들의 영혼을 영웅적인 용맹과 그 소명의 극치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삼위일체를 영원히 일치시키시는 극히 순수한 즐거움의 끈이다. 또한, 나와 함께 있는 사제들을,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일치시키시는, 그윽한 사랑의 끈이며 사슬이다. 이는 그 모두가 성령에 의하여 삼위일체 안에 일치하기를 바라시는 내 아버지의 소망을 채워 드리기 위함이다.

나는 내게 속한 이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완전히 군림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른다! 이 내적 왕국은 그분의 옥좌요 보금자리가 될 사제들의 영혼 속에 있다. 그러니 내 사제들이 또 하나의 나 자신들이라면 마땅히 나의 영을 곧 성령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일기 1928년 1월 12일)

· 일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시어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시고(요한 11,52 참조)”,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을 가지고 ‘사제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다(묵시 5,9-10 참조).

“나는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성령 즉 사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성삼위의 일치 안에 일치시키는 것이었다.”(일기 1927년 12월 28일)

“아버지께서는 교회 창립에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두고 계셨으니 다름 아닌 일치였다. 그분 자신 안이나 그분의 영원한 생각 속에, 또 창조와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사업들 그 어디에도 일치 외의 다른 의향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분의 이념은 일치에서 갈라져 나가는 사제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홀로 ‘사제’인 내 안에 있는 사제들, 홀로 ‘거룩한 존재’인 내 안에 있는 사제들이 되게 하는 데에 있었다.”(일기 1928년 2월 13일)

특히 (교회에 관한) 교의에 비중을 둔 성서 본문에서 성 바오로는 이렇게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하였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새번역 에페 4,4-6).” 일치는 교회의 가장 신적인 특징이다. 그러므로 악령이 그것을 파괴하려고 든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힘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일치를 도모하시며, 부성적이고 자녀답고 형제적인 관계의 고리를 잇고자 하신다.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 안에 수많은 악이 초래되는 것이다. 내가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 있는데, 내 사제와 목자들이 어째서 오직 한 영혼이, 내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한 뜻이, 내 마음 안에서 오직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겠느냐?

나는 특히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제물로 바쳤으며 오직 항구하게 사랑할 것만을 분부하였다. 그런데 내 사랑은 일치시키는 사랑이다. 나의 바람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하물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집단인 내 사제들이야! 나는 증오나 불화나 분열 및 의지와 감정의 불일치 따위, 마음들을 냉혹하게 하고 미지근하게 하며 혹은 갈라서게 하는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을 두고 탄식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교회 안의 그러한 불일치는 그 자체로 가공할 악이지만 교회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 내 성심에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유감스러운 일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외면하고, 내가 이 말을 누구보다도 특히 내 사제들에게,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격정에 굴복하기 십상인 내 사제들에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⁶³⁾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들 사이에 찬바람이 돌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 결핍을 보고 비난하며 그들을 내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의 일치와 성령의 활동을 통한 일치인 사랑의 일치이다.

여기에서 내가 개탄하는 것 역시 인간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점인 바,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그러한 분열은 오직 나만이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악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그것은 세상 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사제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⁶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의 처세훈을 따라서도 안 된다. 세상에는 내 사제들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유물론적인 것들과 악덕과 걱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분열, 겉치레, 시기심, 이기주의, 사람들과의 불화 —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교계 제도의 모든 구성원이 즉 교황과 추기경, 목자와 사제들이 오직 하나의 거룩한 건물을,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는 바위 성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의 조류와 내 원수들이 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오직 하나의 결집된 덩어리를 이룰 뿐 균열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지옥 세력 전체와 대결할 수 있는 신적인 힘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전부이신 분의 일치, 곧 삼위일체의 일치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일기 1928년 4월 22일)

“그들의 의지와 생각이 내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강들은 여러 다른 길을 통해 바다에 이르며 그 근원도 각기 다르지만, 내 교회 안에서는 그 강들이 사랑의 일치로 오직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런즉 내 주교와 사제들이 바다인 나에게 흘러드는 오직 하나의 강을 이루기를, 내 교회가 그 지류들의 의지와 사랑을 한데 모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일치, 판단의 일치, 내 뜻 안에서의 의지들의 일치 — 이것이 내 교회와 마음들 속에 평화를 안겨 준다.

얼마나 많은 주교들이 자기네 사제단의 불일치를 슬퍼하고 있는지! 사제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끼리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의견의 불일치가 사랑의 결핍과 비판을 초래하고 이것이 순종과 사랑이 가득한 내 성심에 상처를 내기 때문이다.

사제직은 삼위일체의 사랑에 찬 품속에 그 고결한 기원이 있으니 만치, 삼위일체에, 특히 삼위일체의 일치에 동화되어야 할 필연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교회 또한 삼위일체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삼위일체 안의 일치를 들이마시고 빨아들이면서 장상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나의 뜻 안에서 단일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장상들이란 사제들이 종속되어 있는 교황과 주교들이다.

그러한 일치가 세상에는 없다. 거기에서 지상을 짓누르는 술한 악이 흘러나온다. 사람들이 그들의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압박하는

63) 요한 13,35 참조.

64) 요한 15,19 참조.

모든 참극이 발생한다. 인류 몰락의 핵심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으니, 일치에서 벗어나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만한 견해와 다수의 분리파 교회와 (참과 거짓이) 탁하고 애매하게 뒤섞인 혼잡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 자신의 중심으로 즉 그 교회 안의 **삼위일체의 일치**에로 돌아오는 날, 그날에야 세상이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슬픈 것, 내게 가장 큰 고통을 끼치는 것은 내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들의 중심인 단일하고 찬란한 삼위일체에서, 삼위일체 안의 거룩하고 완전한 일치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불목(不睦)이 있다는 사실이다.”(일기 1927년 11월 28일)

일치는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의 경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선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생애의 극점에서 당신 아버지께 교회의 일치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신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최후 만찬 석상에서 내 아버지께 바친 사랑 어린 간청의 기도는 내 영혼 가장 깊은 데서 솟아난 것으로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사도들과 이 사도들 안에서 모든 시대의 내 사제들에게 그들에 대한 나의 지고한 애정과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아버지께 청했으니 곧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⁶⁵⁾

내 아버지와 내 안에 하나 되어 일치의 완성에 이르기를 간청한 그 기도는 과연 불모의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았다. 거기에서 수많은 은총이 땅으로 흘러내렸고, 특히 내 사제들에게 내려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했으니 말이다. 이 때문에, 오직 이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나의 신부인 교회를 주었고, 이와 함께 교회에 대한 충실과 지극히 순수한 사랑의 의무도 부과하였다. 곧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로하며 교회에 영적이고 거룩한 자녀들을 낳아 주고 그 나라를 전파하며 교계 제도를 존중하고 이 지상에서부터 그들 사이의 일치를 이루어야 할 의무였다. 이는 삼위일체 안의 일치에서 나오는 거룩하고 비옥하며 극히 순수한 일치의 반향으로서 바로 내 안에 있는 사제들의 일치인 것이다.

이러한 일치를 멀리하는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고, 일치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죄다 거짓이며, 일치에서 갈라져 나간 모든 것은 하늘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일기 1928년 3월 14일)

콘치타는 사제들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존경심과 특별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사제들을 비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바쳐 사제들의 약점을 보상하고 그들에게 뛰어난 성덕의 은총을 얻어 주고자 하였다. 보고, 느끼고, 침묵을 지키면서,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특히 사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이다.

· **“교회를 위하여 나와 함께 너를 제물로 바쳐라.”**

65) 요한 17,21 참조.

“내 사제들을 위한 예물로 너 자신을 봉헌하여라. 은총들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희생에 너의 희생을 결합시켜라. 네가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은총과 자비를 얻어내려면 영원한 사제인 나와 결합하여 아버지께 나를 바치면서 너의 사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제물(인 나)와 결합한 제물로서 너 자신을 바치라고 내가 자주 당부했던 기억이 나지 않느냐?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교회의 것이고, 온전히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도 함을 알아야 한다. 너를 내 교회에 묶어 주는 이 특별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너는 교회의 고뇌에 참여할 권리와 교회의 사제들을 위하여 너를 희생으로 바치면서 교회를 위로해야 할 성스러운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일기 1927년 9월 24일)

· “**홀로 성령께서만 일치를 이루신다.**”

“내 사랑하옵 아버지의 일치의 이상 — 내 사제들에 대하여 지니신 이 일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전능한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만이, 홀로 그분만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며 마음들을 ‘말씀’과 결합시키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끈이시고, 삼위일체를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듯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분 자신이 사랑이신 만큼 모든 것을 단순화하시기 때문이다.

오로지 사랑만이 결합시키고 단순화하며 거룩하게 한다. 오로지 사랑만이 화해시키고 포용하며 마음들의 유대를 강화한다.

사랑은 교회와 성사들의 원동력이다. 사랑은 아버지 안에 사제들을 생겨나게 하였다. (사랑은) 성삼위 전체의 시작이 없는 본질이고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제들을 형성한다. 사제들은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생각 안에 생겨나지만, 십자가에 달린 내 성심의 고통치는 사랑과 고통의 힘으로 태어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네가 일치야말로 삼위일체의 본질임을 깨닫는다면, 교회가 얼마나 이 삼위일체의 반영인지, 즉 지상 교회의 모든 활동이 얼마나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⁶⁶⁾가 되는 일치의 실현으로 요약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일치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느님(의 본질)이 지고한 일치이기에 일치가 그분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본성상 지극히 단순한 존재이시고, 하느님의 가장 큰 기쁨, 유일한 기쁨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삼위께서 오직 한 사랑의 실체와 본질이 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랑’이 성령 안에 위격화되었지만 말이다. 하느님의 기쁨은 또한, 그분을 완전히 충만케 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유일하고 무한한 극점

66) 요한 10,16 참조.

(인 일치를) 즐기시는 것이다. 여기의 모든 것은 영혼들과 세계들, 곧 사랑의 산물들이고 그것도 지극히 순수한 사랑의 산물들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늘은 놀라움에 잠기고, 피조물은, 만물을 놀라게 하고 경이에 잠기게 하며 신성하게 하고 하느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그 무한한 완전함 앞에서 황홀해하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외치는 것이다.

내가 이리도 거룩하고 고상하며 완전한 일치 — 영원하고 무한한 완전함이신 하느님마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게 하는 일치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 이유는 많은 주교와 사제들이 사랑의 산물인 이 일치 안에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내 교회는 마땅히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 **하나** 되어 그것을 반영해야 하건만... 하느님이요 사람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고통, 내 교회의 솔한 구성원들의 뜻이 분열되어 있는 이 비통한 상황을 너에게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물며,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는 불목과 비판과 음모가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때때로 추문을 일으키기도 한다면, 외적으로만 그럴싸하게 한 뜻이 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형제적이고 자녀와 아버지다운 일치의 결핍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나를 비탄에 잠기게 하는 솔한 악이 거기에서 나오고, 내 교회 안에 감지되는 그 점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주교들은 한 생각, 한 의향으로 단합해서 일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체면치레나 의무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주교단 전체가 오직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어야 하고, 나의 영을 통하여 내 안에서 오직 한 가족을 이루며 내 뜻 안에서 오직 하나의 소망만을 가지도록 힘쓰면서 삼위일체를 본받되, 외관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본다.

사제들도 주교와 한 뜻이 되어 주교의 결정을 이의 없이 존중해야 한다. 주교로 말하자면 매우 중요한 이 점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무자비한 엄함을 피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성과 의지를 일치시키는 화해자이신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본질적으로 일치의 내부를 이루시기에 영혼들 안에 그것을 반영하신다. 교회의 영혼인 성령은 일치의 기수이시고, 일치의 원리이며 중심이고 목적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주교와 사제들이 끈기 있게, 갈수록 커지는 사랑으로 성령께 의지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어 일치에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내 교회에 다만 하나의 사도좌, 하나의 믿음, 하나의 진리, 하나의 목적만이 있기를 바란다. 모두가 증언을 한다면 하나의 순교가, 모두가 기뻐한다면 하나의 기쁨이,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낸다면 하나의 승리가, 모두가 고통받는다면 하나의 갈바리아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랑의 유대가 있어야 할 것이니,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그 유대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모두에게 열을

주는 하나의 태양이 있어야 할 것이니 곧 하느님이요 사람인 나 예수이고,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니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 일체가 성령과 마리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일기 1927년 11월 27일)

·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서의 완성

“일치 안에서의 완성”은 그리스도인이, 특히 사제가 **성령으로 사랑**할 때에 실현된다. 다시 말하자면, 주입된 지식의 영향 아래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영감에 이끌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랑할 때에 실현된다. “선물들에 의해 완성되는 사랑”이 곧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자비로운 사랑이다. 교회의 기원과 그 존재와 생명이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통하여 일치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사랑이 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면 누가 사랑이겠느냐? 성령은 나의 영이니 내가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사제들과 모든 신자들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같은 성령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러한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은 너희를 삼위일체와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요, 성덕 안에 단순화하는 사랑이며, 너희를 일치시키는 사랑이고, 성화와 나 자신으로의 변화를 낳는 사랑이며, 내 사랑이 영원하는 것과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게 하는 사랑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사랑 가득한 눈길로 보시며 흐뭇해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인 나 안에서 모든 사제가 유일한 사제가 되는 것이다.

너는 이것이 교회 창립 당시의 내 이상이었던 것을 알아들겠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교황 안에서 머리를 이루고 내 안에서 모든 사제들이 오직 하나의 몸을 이루며 사랑하올 내 아버지의 뜻과 한뜻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제 다음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서 하나 되어 일치 안에 완성되는 것이다.”(일기 1930년 7월 5일)

4. 새로운 성령 강림

“나는 세상에 새로이 성령을 보내어, 세상이 성령의 빛과 열로 불타오르고, 정화되고, 비추임을 받고, 살라져 깨끗하게 되기 바란다. 세상의 마지막 여정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유출일 것이다. 성령께서 마음들과 온 세상에 군림하고자 하신다.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증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물론 그분의 영광은 성삼위 전체의 영광이지만 말이다.”(일기 1916년 1월 26일)

“그리스도교계 전체가 성령께 평화를 빌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시어 다스려 주시

기를 간청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교황에게 말하여라. 홀로 이 성령만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마음들 속에 빛과 일치와 사랑을 가져오실 것이다.

세상은 성령을 멀리했기 때문에 침몰하고 있다. 세상을 괴롭히는 모든 악이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니 그 치유책이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은 위로자시며 모든 은총의 창시자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한데 묶는 끈이시고, 또한 지고한 화해자이신 것이다. 사랑 —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이 성령께 의탁해야 한다. 성령의 때가 된 까닭이니, 세상의 마지막 여정이 매우 특별한 모양으로 성령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경배하며 현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성령에 대해 설교하고 영혼들이 성령을 사랑하며 온 세상이 성령께 봉헌되게 하여라.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고 동시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반향이 세상을 괴롭히는 악보다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즉시 기도와 속죄와 눈물로, 또한 성령께서 오시기를 열망하면서 그분께 간청하기 시작할 일이다. 그분은 오실 것이다. 내가 또다시 그분을 보내어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리라. 그분은 세상을 놀라게 하실 것이며 교회가 성화되도록 촉구하실 것이다.”(일기 1918년 9월 27일)

“이 재림을,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간청하여라. 내 교회에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제들이 필요하다. 세상이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는 사제들이 없기 때문이다. 선의 길을 밝혀 주는 빛의 사제들이, 술한 사람들을 더러운 진창에서 건져 줄 순결한 사제들이, 온 누리를 신적 사랑으로 채우는 불과 같은 사제들이 없기 때문이다.

간청하여라.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새로이 회복되도록 하늘에 간청하며 말씀을 봉헌하여라.”(일기 1927년 11월 1일)

“나는 사제들 안에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영혼들로 하여금 내 사제들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영혼들의 세계를 쇄신하고,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 내 교회의 사제들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 교회에 강력한 힘을 주고자 한다.”(일기 1928년 1월 5일)

“내가 당부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모든 사제가 성령께 스스로를 봉헌하고,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새로운 성령 강림’과 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오시기를 간청해야 한다. 오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그들을 차지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어 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청해야 한다.”(일기 1928년 1월 25일)

“머지않아 내 교회의 중심인 성 베드로 좌에서 이 세상을 성령께 봉헌하는 날이 오리니, 이를 거행할 복된 교황에게 성령의 은총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하느님의 영’께 봉헌됨으로써 그분께서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 땅 위에 넘쳐흐르게 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일기 1928년 3월 11일)

제5장 삼위일체의 심연들

“나는 이 빛의 광채 속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심연들을 본다.”

콘치타의 전 생애와 가르침 전체에 나타나는 삼위일체적 특징은 그녀의 영성 가운데서 가장 탄복할 만하고 가장 심오한 면 중의 하나이다.

세례의 순간부터 그녀 안에 꽃피기 시작한 개인적인 은총이 성령의 활동으로 갈수록 발전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사제이며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동화되고 그러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게끔 촉구했으니, 이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를 위한 사랑의 봉헌을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콘치타의 영성 생활 전체가 이렇듯 삼위일체의 표지 아래 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심원한 삶을 지향하게 하는 은총의 부르심이 그녀의 「일기」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영성 생활에 진보함에 따라 특수한 빛을 받게 된 그녀는 마침내 합일의 충만한 삶에 이르게 되고, 총명과 지혜의 선물들의 작용에 의하여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심연들 안에 잠기게 된다.

콘치타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쓴 글은 그녀의 「일기」 중 가장 웅대한 부분이어서 책 한 권을 온통 채울 수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귀한 가르침 가운데서 일부 대목만 뽑아볼 수밖에 없다.

1. “성삼위께 대한 크나큰 신심”

콘치타의 성삼위 하느님과 생생한 관계는 끊임없이 상승하는 진로를 따라간다.

영성 생활 시초부터 주님께서 의식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인도하시어 성삼위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의 삶을 시시각각 충만히 살아라. 다음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가 마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라. 나의 뜻에 맡기고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일념으로 네 삶을 채워라. 그리고 거듭 이렇게 말하여라. 『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성삼위이신 당신께 영광!』”(일기 1893년)

십자가 영성과 그 가르침의 상징인 이 사도직의 십자가 환시는 온통 삼위일체적인 심오한 의미에 싸여 있었다. 이를 일견한 콘치타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썼다. “...아버지께서는 승인으로,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박혀 계심으로, 성령께서는 보호자가 되심으로... 성삼위께서 함께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리이다.”(일기 1894년 3월)

하느님의 그 성화 활동의 효과가 콘치타 안에 나타났으니, 그녀는 좀 뒤에 이렇게 적었던 것이다.

“여기 하느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내가 있다. 내가 성삼위께 대한 크나큰 신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 쏟아 이 사흘을 그분께 봉헌하였다. 어제는 아버지께... 오늘은 예수님께... 내일은 성령께 말이다. 나는 지극히 사랑하올 성령께서 당신의 빛살로 나를 비추시며 굽어보시는 것을 자주 느꼈다.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사로잡고 기쁨부음 받은 듯 황홀하게 하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체험하게 하시면서...”(일기 1894년 5월 19일)

· “성삼위 전체가 사랑이시다.”

콘치타는 개인적인 은총인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관점의 중심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를 향해 계신 이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한다. 이는 처음부터 십자가 교의 전체를 해석하게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단연 으뜸가는 텍스트일 것이다.

“성부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다. 성자의 본질도 사랑이다. 아버지께 대한 사랑만큼 인간에 대한 사랑도 어찌나 큰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내어 주어 고난을 받으셨다. 삼위일체의 제삼위인 나로 말하자면 나의 본질 역시 사랑이다. 삼위일체의 영광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일치한 사랑으로서 강생의 신비에 참여했고, 예수의 전 생애에 걸쳐 함께 있었으며, 예수의 신성을 입증했고, 구원 사업을 보증했으며, 내 티 없는 신부인 교회를 보호하였다.

성부의 본질은 사랑과 권능이다. 나의 본질은 사랑과 생명이고, 성자의 본질은 사랑과 고통이다. 이와 같이 성삼위의 본질은 사랑 — 서로 자신을 내어 주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그러한 자기 증여로 말미암아 이를 자비로운 사랑(Charité)이라고 부른다. 더할 수 없이 완전하고 자비로운 사랑인 것이다.

고통 즉 성자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십자가는 이 자비로운 사랑으로 올라가는 오직 하나뿐인 사다리이다. 너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겠느냐?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상징인 고통은 성삼위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기에 우리는 그러한 영혼 안에서 살고, 나는 거기에 내 거처를 세운다.”(일기 1895년 7월 9일)

· 삼위일체와 강생의 신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콘치타를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으로 이끌어 간 것은 강생의 신비였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내 영을 들어올리시어 ‘말씀의 강생’을 관상하도록 하셨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제이위이신 그분께서 이 성삼위에 관한 매우 심오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다. (다음은 그분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셨다.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당신 자신의 본체요 본질로부터 당신의 말씀을 낳으셨다. 한처음, 역시 영원으로부터, 말씀은 아버지와 한가지로 하느님이셨고, 이 두 위격은 오직 하나의 신적 본체를 이루고 있었다. 하느님의 그 두 위격 곧 성부와 성자는 어느 한 순간도 단독으로, 즉 둘로 나뉘어 따로 존재한 적이 결코 없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지만 같은 영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의 반영과 본체와 본질로서 똑같이 한 위격을 이루며 존재하셨다. 성령은 사랑 자체의 가슴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반영이시고, 빛 자체의 가슴에서 나오는 빛의 반영이시며, 생명 자체의 내부에서 나오는 생명의 반영이시고, 마찬가지로 영원한 완전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한히 완전한 모든 것이시다.

같은 본체, 같은 본질, 같은 생명, 같은 완전들이 실제로 오직 하나의 같은 본체, 같은 본질, 같은 생명, 같은 완전들이 되게 하는 이 내밀한 소통이 홀로 하느님이신 분의 영원한 지복을 이루고 지존하신 성삼위의 끝없는 만족을 이루는 것이다.』

오 우리 하느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무한히 위대하신가! 그리고 그분 안에는 인간이나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얼마나 불가해한 심연들이 있는가! 이 위대성 앞에서 나는 자신이 더없이 작은 티끌로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무한한 것이어서 약하게나마 바로 그 위대성의 반영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하여 자기 하느님의 지복과 영원성과 불가해한 무한성을 보는 기쁨으로 부풀어오르고 있었다.

게다가 ‘말씀’이 저기에 계시지 않은가? 나는 완전히 감동된 채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분께서 지상의 하찮은 티끌이 되시려고 저 옥좌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

고? 오 저의 하느님, 그리도 엄청난 겸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성삼위의 제이위이신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태중에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풍부한 생산력을 지니게 하셨으므로, 말씀이 강생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토록 기묘한 낫춤은 홀로 하느님의 사랑만이 이를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단지 내 영혼 속에 간직할 수밖에 없는 너무도 심오하고 숭고한 신비들이었다. 표현할 말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일기 1897년 2월 25일)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콘치타가 받은 빛이 그녀 안에 순전히 추상적인 지식을 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관한 고찰이 아니라, 하느님의 내밀한 생명의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어리석음”⁶⁷⁾에 이를 정도로 뻗어 나간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러한 사랑의 존재 이유를 감지하게 되는 사랑의 체험이었던 것이다.

2. 초기의 체험들

은총의 생명은 부단히 진보한다. 따라서 성삼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콘치타 특유의 개인적인 면이 처음부터 분명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다음은 초기의 경험들에 대한 그녀 자신의 기록이다.

“몇 가지 기도를 외우다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인식,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앎을 체험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일치... 영원한 생성... 여러 속성들... 무한성... 선성... 정의... 안에 계신 그분의 지극히 순수한 본질의 희미한 윤곽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점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의 내적 광점 속에 모여 있는 듯 하였다. 그리고 그 감미로움은 다른 기도들에서 유래하는 것과 달리, 훨씬 더 고양되고 순수한 것으로서 영혼을 몸에서 빼내어 공중에 떠 있게 하는 것 같았지만, 일체를 잊고 자신마저 잊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을 휩싸고 계신 하느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삼위 그림이나 성상을 볼 때에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 오! 내가 아는 분은 이렇지 않아! 싫어지는 것이다. 과연 하느님은 빛이고 순수함이며 거룩한 향기이고 미의 집합이며 온갖 완전함의 불가마이고 평화이며 천진무구함이다. 그분은 사랑, 사랑, 사랑이시고, 불가해한 행복이시고, 시간과 무관한 영원이시고, 일체를 태우고 흡수하는 찬란하고 장엄하고 극히 감미로운 하나의 구심점 — 만물을 끌어당기고 언제나 자신을 내어 주는... 그러나 그 자신의 총만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구심점이다!...

오! 시간과 무관한 이 영원성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 이 하느

67) 1고린 1,18 참조.

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체험으로 느끼고 있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이 하느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하늘에도 없다면, 대체 누가 그분을 일컬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느끼는 것,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저 황홀한 완전함의 바다 속에, 저 아름다움과 직접적인 행복의 영원성 속에 잠겨 있는 자신을 느낀다! (좀더 분명히 말해 보면) 성삼위께서 언제나 생성되는 영원한 기쁨을 나누시면서 순간마다 서로 바라보시는 것이 보인다... 나는 느낀다, 아니 (어떻게 말할까), 영혼으로 본다. 성삼위께서 즐기시는 영원하고 항상 새로운 완전들의 저 영원한 심연을! 주님께서는 내게 삼위 전부가 지극히 순수한 통교의 행복을 만끽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들은 삼위이시지만 권능과 지혜와 선성과 다른 모든 속성들이 똑같은 오직 하나의 신적 본체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오 하느님은 얼마나 무한하신가!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순수하신가! 그분은 ‘사랑’이시다.⁶⁸⁾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에 귀착된다.”(일기 1898년 5월 14일)

3. 합일을 향한 삶

콘치타는, 마치 합일의 충만한 삶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이거나 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에 대한 주목할 만한 빛들을 받았다.

· 삼위로 한 분이신 하느님

“두 분이나 세 분의 하느님이 아니고 거룩하신 삼위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 계시 뿐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깨달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에 탄복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말하고자 한 바를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삼위 안에는 세 개의 빛이 있지 않고 영원하고 똑같은 오직 하나의 빛이 있을 따름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⁶⁹⁾이라는 표현은 양자 사이에 동등함이 있음을 뜻하고, 동시에 동등한 존재가 ‘말씀’에게 전수되었음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위대성과 빛과 무한한 완전들의 영원한 불가마의 반영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 하느님 신비의 결론과도 같이, 성령께서 발출하신다. 성령은 그러나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하지 않고, 아무 것도, 도무지 아무 것도 그분에게 부족하지 않다. 동일한 삼위가 오직 하나의 동일한 신적 본질로 처음도 끝도 없는 오직 하나의 존재, 오직 하나의 불가마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위격도 다른 위격보다 앞서거나 우세하지 않고 처음부터 영원한 삼위이시다. 그렇다, 처음부터 영원한 삼위께서 지고하고 놀라운 참 통교 안에 계시

68) 1요한 4.8.16. 참조.

69)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주교의 「요한 복음 주해」에서
(성무일도 제1권, 공현 후 목요일 제2독서 참조)

고, 이것이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의 지복을 구성하는 것이다.』

내가 이를 인간의 빈약한 말로 설명한 것은 창조된 언어 중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기 때문이다. 하긴, 그러한 언어란 아예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말이다.”(일기 1897년 2월 2일)

· 삼위일체의 무한한 순수성

“주님께서는 오늘 내게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내 책을 펴 거를을 주시지 않았다. 거룩한 영성체로 그분을 받아 모시자마자 내 영혼을 지상에서 아주 멀리 색다른 분위기 속으로 들어올리시면서 깊은 잠심(潛心) 상태에 있게 하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무한한 순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고, 그 본질이 순수함 자체이신 영원한 아버지께서 ‘말씀’의 영원한 탄생 속에서 어떻게 당신 자신의 이 본질을 말씀에게 전해 주셨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신적 투명성을 의미하는 이 ‘순수함’이란 낱말로 나는 광명과 순백과 빛을 가리키고 있거니와, 적절히 표현할 말을 찾아낼 수 없어서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적 광명에 비하면 모든 빛이 어둠이고, 흰 것은 거무튀튀하게 보이며, 태양마저 잉크 얼룩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오 내 하느님! 오 영원한 광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언제나 유서 깊고 언제나 새로운 티 없이 순수한 아름다움, 인간의 눈으로는 그 광휘를 견딜 수 없는 극히 숭고한 광채 — 이 모든 것을 나는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보거나 혹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완전들과 형언할 수 없는 만족 속에서 당신 자체로 영원한 기쁨을 맛보시면서) 당신의 순수성에서 나오는 모든 정열을 기울여 제이위의 신적 위격 안에, 곧 ‘말씀’ 안에 당신 자신을 재현하시는 것을 보았다.

‘말씀’께서는 따라서 아버지의 총만하고 완전한 반영으로 보였고,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거룩한 신적 사랑의 영원한 열정 속에는 그분들의 빛과 사랑의 끈이신 성령이 — 성부와 성자와 구분되는 한 위격을 이루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나누임이 없으신 성령이 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궤도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이로써 성삼위를 완전히 행복하시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그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헤아릴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한 순간에 파악했고, 그럼에도 흠송하올 성삼위를 각각으로 구분하면서였기 때문이다.

— 오 복되신 삼위일체시여! 당신의 투명성에서 발산하는 단 한 줄기 빛살에도 영혼이 온전히 빨려들고 만다면, 대체 누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참으로 그렇다면, 당신의 본성은 무엇이옵니까?”(일기 1898년 8월 28일)

살아 계신 하느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사귀는 친교가 합일된 삶의 특징이라면, 콘치타는 이 분야에서 빼어난 은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이 그녀 삶의 중심을 이룬 것이다.

· “삼위일체 — 내 삶의 중심”

“나의 영은 내 비참의 심연에서 또 내 의지와는 반대로 자신을 허무의 티끌에 묶어 두는 끈들을 끊고 달아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옥좌를 향하여 질주한다. 마치 거기에 자신의 중심이 있고, 자신의 생명도 거기 생명 자체이신 분 안에 있는 것 같다. 내 영은 내가 보여 주는 작은 물웅덩이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기에 자신의 주 하느님이신 끝없이 광활한 바다를 찾아다닌다. 나는 자기 인식이라는 좁은 샘 안에 내 영을 가두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샘을 박차고 날아올라 자기 하느님의 저 무한성 속으로 돌진해 들어간다. 오직 거기에서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다지도 약하고 작고 타락한 내 안에, 어찌하여 이다지도 보잘 것없는 내 영혼 안에, 위대성이 없는 모든 것 곧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 속에서의 날아오름과 목마름과 숨막히는 느낌들이 있는 것일까? 자디잔 물방울 하나도 싸잡지 못하는 내가 어찌하여 큰 바다를 휩싸고픈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주 공간 속의 한 점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영원한 무한성을 껴안을 수 있겠는가?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

내가 알기로는 — 오 저의 하느님 — 물 한 방울이 큰 바다 속에, 무(無)가 무한대 속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다만 하느님께서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차지하실 때라 하더라도, 나 역시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더욱 좋게도,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문 앞에 멈춰 서 있는데, 그분께서 내 팔을 잡으시고 물질적인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거리를 주파(走破)하겠는가! 그 때 영혼은 알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서도, 알고, 보고, 듣는다. 영혼이 한 지점에 온전히 수렴되지만,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지점, 창조되지 않은 사랑의 지점이다. 거기서만 영혼은 생명을 호흡하게 되고, 시간과 무관하게 충만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일기 1899년 5월 31일)

4. 삼위일체와 강생의 신비

영성가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들의 하느님 체험은 성령께서 정해 주시는 사명의 실현이다.

콘치타에게 그렇게 드높은 빛들이 주어진 것은 그녀로 하여금 곧바로 그 가르침을 전하거나 가르칠 권위를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개인적으로 받은 은총을 깊이 생활화하면서 성덕에 이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많은 영혼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녀를 부르시어 성덕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이다.

신비적 강생이라는 탁월한 은총이 성삼위와 친교를 나누는 그녀의 삶에 독특한 묘미를 덧붙였는데, 이 은총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강생하신 말씀 곧 사제요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은총이다. 이는 그리스도인 실존의 근저(根底)에 있는 은총이니,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신 아들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로마 8,29 참조)”,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합당한 예배(로마 12,1 참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성자의 특징을 띠고 성삼위의 내밀한 생명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콘치타의 이 중심 은총은 그 성격상 성삼위 한 분 한 분과의 개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탁월하게 삼위일체적인 은총인 것이다.

“‘말씀’의 신비적 강생 속에서는 홀로 나만이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삼위께서 각 위의 고유성에 따라 일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서 낳으시고, ‘말씀’은 아들로써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영혼 안에서 이 신적 활동을 풍성하게 하신다.”(일기 1927년 9월 22일)

사제요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완성하시는 성삼위의 이 활동으로부터, 한결같은 사랑의 봉헌으로 그분 마음의 가장 내밀한 감정과도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성부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 — 그러한 것이 신비적 강생 고유의 특징적인 활동이니 말이다.

주님께서는 콘치타가 자신의 그 중심 은총을 의식적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삼위의 친교 안에서 사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다음과 같다.

· 사랑의 연결고리

“나는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태중에 강생한 순간부터 은총들을 얻어내었다. 나로 변화된 너도 나 자신의 삶을 살면서 이제부터는 전과 다르게 처신하기 바란다. 너 자신을 잊어버리고, 영혼들의 구원과 완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모든 것을 봉헌할 일이다.

보아라, 너는 이제 하나의 사슬을 엮게 될 것이다. 네가 영혼들의 구원과 완성을 위한 지향으로 네 삶의 각 시간을 봉헌한다면 그 시간들이 저마다 이 사슬을 이어갈 황금 고리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오직 너의 죽음과 더불어서만 중단되기 바란다.

내 안에서 시작된, 지상에 있는 이 속죄의 사슬은 은총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는 내 강생과 함께 그것을 엮기 시작했고, 네 마음 안에 그 반영이 있으므로 순수한 호의로 너를 거기에 결합시키고 싶은 것이다.”

여기의 사슬은 동일한 구원 지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뜻

한다. 그 전체에 생기를 주는 원리는 사랑이다.

“사랑에 싸여 있지 않은 모든 덕행들은, 말씀인 나를 땅에 묶어 두며 술한 배은망덕에도 끊기지 않는 이 사슬 안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면 네 생각에 누가 그것을 땅으로 보냈을 것 같으냐? (내가) 마리아 안에 강생한 날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다.”(일기 1906년 6월 4일)

“너는 제단이며 동시에 사제이다. 왜냐하면 네가 갈바리아와 성체성사의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소유하고 있고, 세상 구원을 위하여 이를 끊임없이 아버지께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일기 1906년 6월 21일)

그리고 콘치타는 이 그리스도를 봉헌하면서 그 봉헌에 그녀 자신의 봉헌도 합쳐야 한다.

“너는 너 자신도 동시에 제물로 바침으로써 사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진정한 사제직이 있다. 즉 ‘제물’과 함께 제물이 되는 것이다.”(일기 1906년 7월 17일)

그런데, 이 사랑의 사슬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내적 생명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시작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총은 인격화되고 의식화되면서 통상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점진적인 동화를 요구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 전체의 중심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 영성과 가르침을 볼 때 가장 감동적인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서 솟아난 것이라는 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의 내적 생명은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길 잃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넘치도록 풍부하게 또 무상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은 신적인 선의 확장에 맞서 인간의 지나친 자유가 쌓아올린 장애를 뛰어넘는 사랑이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자께서는 사랑으로 당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께서는 하느님 안에서 구원 계획의 원리가 되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되신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살아 계신 하느님 신비의 가장 높은 현현(顯現)이다.

이 계시는 따라서 인간에게 건네진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 성격상 응답을 요구하는 호소이며 부르심, 사랑 깊은 권고이다. 사람이 하느님의 주도(主導) 아래 그분의 활동에 마음을 열면, 그 때에는 그 사람 안에 생기가 넘치는 대화 관계가 불현듯 생겨나니, 이는 세상에 내려오신 ‘사랑’에 화답하는 행위가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느님의 사랑(새번역 로마 5,5 참조)”은, 온갖 선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고 봉헌하신 그리스도께 동화되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신적 선의 조수(潮水)가 인간에게 흘러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 주는 사슬이다. 종살이의 사슬이거나 단지 피조물로서의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사슬이 아니고 “사랑의 연결고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체험, 즉 성삼위의 일치 안에 그 완성점이 있는 신비적 강생의 삶에 대한 체험의 종합이다.

사랑의 연결고리는 또한 영적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사제직을 통하여 모든 일, 기도, 사도적 활동,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행해진다.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곳곳이 견뎌 낸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물(새번역 2,5 참조)”이 된다(교회 헌장 34항 참조).

이 영적 사제직의 정점은 성찬례의 거행 속에 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그 제물과 함께 그들 자신을 봉헌한다(교회 헌장 11항).”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교 생활이 열렬해짐에 따라 영적 사제직도 더욱 훌륭하고 온전하게 수행되어, 마침내 성삼위와의 생생하고 지속적인 친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 “너는 성삼위와의 지속적인 친교 안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신비적 강생의 은총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결합하여 이 성삼위와의 지속적인 친교 안에서 살아야 한다. 성부와는 그분의 ‘말씀’을 바치면서, 성자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하면서, 성령과는 네가 그분의 소유인만큼 너도 그분을 네 감정과 인격 전체에 영감을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너의 영으로 모시면서 말이다.

너는 성삼위의 품속에서 살고 숨쉬며 일해야 한다. 성삼위께서 너를 둘러싼 대기, 너의 숨, 너의 삶이 되시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네 삶과 네 인격을 성화하면서 너의 전 존재 및 하늘을 향한 모든 발걸음을 걸음마다 신성한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더욱더 그러한 친교 안에서 살면서 성삼위께로부터 너의 지상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빛과 처신 방식과 힘과 은총 및 모든 도움을 끌어낼 일이다. 이 성삼위를 저 높이 옥좌 위에 계신 분으로 멀리하지 말고, 그분의 품안에서 살고 숨쉬며 머물러 있어라. 그분의 풍성한 힘을 받으면서, 그분 신성의 광채 속에서, 그분 은총의 보호 아래에서 말이다. 네가 성령의 소유가 되면, 곧 성령께서 참으로 너를 차지하시게 되면, 너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아버지와 ‘말씀’과 더욱 친밀하게 결합된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 안에 신비적 강생이 일어나면 이 ‘말씀’에 끌리신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거기에 와 계실 것이다. 성령과 말씀이 것처럼 내밀한 방법으로 너를 거룩하게 하시면, 그렇게 그분들이 네 안에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본성상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풍요와 권능이 비롯되는 당신께 너를 결합시켜 주실 것이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너를 끌어당기시어 당신 완전의 영원성 속에 잠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상의 가난하고 하찮은 피조물인 네가 성삼위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아무리 작은 티끌도 네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면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며 이 세상을 지나가되 네 덕행과 선행들의 자취를 남기도록 하여라. 그와 같이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면, 네가 영혼들을 위하여 넘치도록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고 나에게도 많은 영광을 주게 될 것이다.”(일기 1911년 6월 11일)

· “나는 성삼위의 신비로운 심연들을 본다.”

성삼위와의 지속적인 만남 곧 친교의 삶은 영성 생활의 원동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성령께서 당신의 성화 활동과 조명 활동으로 향주덕을 완성시키시고, 사랑의 동질성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 계신 하느님을 거의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내 영혼을 하느님 안에 빨아들이는 것 같은 이 빛의 광채 속에서, 나는 한 순간 매우 특별하고 기묘하고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삼위의 신비로운 심연들과 광휘를 본다. 성삼위의 일치와 본질과 영원성을 보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말씀의 영원한 탄생과 구원 계획을 보고, 어떤 때는 그분의 속성들과 행복과 무한한 완전들을 본다. 그분 안의 그 여러 완전함 속에는 오직 하나의 본질만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성삼위께서 마치 자신을 통과하는 빛의 색채들을 다 나타내 보이는 프리즘이나 수정처럼 보이실 때도 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께서는 반사광이 아니라 빛 자체이시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오! 그 빛의 심연들 속에서, 아니 오히려 그 빛의 정점들 위에서, 이 불가사의한 신비의 미소한 한 점만을 지성으로 움켜잡은 채, 내 영혼은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른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삼위께서 은총의 끝없는 바다로 보이실 때도 있다. 수많은 강들이 이 바다에서 솟아나고 되돌아와서 잠기듯이, 그분은 모든 은총들이 솟아나는 은총으로 보이는 것이다. 나는 또한 그분을 수많은 분수들이 눈부시게 솟아나는 맑은 샘으로 보기도 한다. 이 분수들은 샘 자체를 황홀하게 하고 모든 관객을 매료시킨 다음 되돌아가서 자신 안에 잠기며 원천 자체의 물과 섞인다. 이와 같이 나는 성삼위의 완전성과 그분의 은총 및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에게서 솟아나서 그분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는, 자신의 매력에 영구적으로 황홀해하면서 그 자신 안으로 돌아오는 찬란한 광채를 본다. 하지만 이쯤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암시적으로 표현해 보면, 샘도 프리즘도 바다도 없지만 이 모든 것과 모든 의미들이 과거도 미래도 없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삼위일체께서는 살아 계신다. 당신 자신의 생명과 존재와 영원한 지복 속에서 생활하시며 기뻐하신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의 실체적인 일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께서 내게, 삼위이지만 신적인 삼위께서 어떻게 단 하나의 본질, 같은 본체, 유일한 신성을 이루게 되시는지를 알려 주셨다. 여러 신들이란 있

을 수 없고 모든 완전성의 영구적인 형상과 본체인 오직 하나의 신성만이, 곧 오직 한 분 하느님만이 계시는 것이다.”(일기 1906년 7월 19일)

5. 결합에서 일치로

우리는 그리스도로의 변화를 하나의 정적(靜的)인 사실로 생각해선 안 된다. 지상 순례 중인 인간에게 주어진 신적 생명은 본래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생활에는 “물과 성령으로”⁷⁰⁾ 새로 태어나는 초기부터 그리스도로의 변화가 시작되지만, 이는 변화의 시초로서 앞으로 성장해야 할 새싹에 불과할 따름이다.

영성 생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생명의 진보는 계속된다. 결합에서 일치의 삶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물론 존재론적 차원이 아니라 인식과 사랑의 지향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치이다.

“들어보아라. 이 변화에는 여러 발전 단계가 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사랑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이 거룩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자리를 내어 주기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신마저 사라지고 없어질 정도에 이르는 변화이다.

그러한 단계는 홀로 그 영혼의 영혼이며 그 몸의 생명이신 성령의 작품이다.

결합으로, 더욱이 일치에로 이끄는 그 단계는 성삼위와 가장 근접한 완성의 단계인 것이다.

사람은 무진장한 은총의 샘이신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없고서는 혼자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신비적 강생이 ‘말씀’의 사랑 깊고 강력하며 거룩하신 성령을 끌어당기는 것은 ‘말씀’이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가장 내밀하고 고상한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일기 1912년 8월 6일)

· 삼위일체의 일치에 관한 빛

“오늘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성삼위의 일치를 밝히 보게 하는 눈부신 빛을 보내 주셨다. 참으로 기묘한 완전함의 심연이여!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러니 천국은 어떠하겠는가?”(일기 1913년 4월 9일)

“오늘은 주님께서 그분의 창조되지 않은 빛의 심연으로 내 영혼을 휩싸셨다. 성삼위의 그 완전성의 빛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아라. 하느님의 완전한 속성들은 모두 무한한 것이지만 오직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즉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 일치 안에 모든 부(富)가 포함되어 있다. 영혼의 가장 높은 완성은 자신을 단순화시키고 사물의 다양성을 제거함으로써 그 본질적 일치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의 영원성 안에서

70) 요한 3,5

풍요한 일치이고, 그 자체의 불변성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서도 영원한 한 순간에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일치인 것이다. 곧 하느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이 삼위가 오직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체, 영원하고 나누임이 없는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 바로 이 일치 안에 하느님의 풍요성의 신비가 있다. 영혼들이 결합을 통하여 이 일치와 하나 될수록 그만큼 더 풍요해지는 것이다. 성삼위에 가까워질수록 넘치도록 풍부한 빛과 은총과 은혜들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일치 안에 성삼위와 천상 성인들의 지복이 있다. 이 일치 안에 땅과 하늘의 모든 선과 모든 은총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피조물이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모든 활동과 모든 존재의 영원한 불가마이다. 그것은 ‘사랑’이다. 곧 하느님이시다.

너의 영을 단순화시켜라. 네 영에서 피조물과 사물들에서 오는 모든 복잡성을 제거하여라. 이 일치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라. 살고 숨쉬고 움직이면서 모든 덕행과 너 자신에 대한 포기가 이 일치를 지향하게 하여라... 너는 이 본질적인 일치 안에,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 안에 살면서, 오직 하나의 사랑이신 그분 안에, 오직 하나의 뜻인 그분의 뜻 안에 네 영적 생활을 수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의지들의 일치이고 여기에 이 일치의 완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미사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다시 기도 중에 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하느님 안의 이 일치에 있다. 여기에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와 지복이 있는 것이다. 갈수록 더 이 일치에 동화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의 완성의 원형인 강생하신 말씀과 하나 되고자 하는 영혼들은, 그리하여 성령과 아버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신화(神化)되는 영혼들은 그야말로 가장 거룩한 영혼들이다. 왜냐하면, 성화는 사랑에 달려 있기에, 사랑이 많을수록 하느님을 더 많이 닮게 되고, 하느님과 하나 될수록 더 완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영혼들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이어서 결합시키기 위한 성령의 비결 중 하나는 그들을 일치 안에 단순화시키는 것이니, 즉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일치의 본질인 사랑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다. 영적 혼인은 성령을 통하여 이 일치를 지향하고, 신비적 강생은 ‘말씀’을 통하여 같은 일치를 지향한다. 그것은 영적 혼인과 신비적 강생의 원동력이며 원인이신 아버지께 의하여 하늘에서 영예를 입게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과 그 체계, 신비 생활의 모든 수단, 영혼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강생하신 말씀의 역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완덕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할 —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영혼을 단순하게 하고 세속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 드높여 주며 하느님과 결합시키고 동화시키는 사랑에 기인하는 일치이다. 그리스도교 생활 곧 신비 생활 전체가 이 일치라는 정점을 향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과 성화를 바라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진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일기 1913년 4월 11일)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와 더불어, ‘말씀’에 결합시키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변화의 가장 높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

· 일치에 이르는 첩경

“『그렇다면 그 일치에 이르는 첩경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말씀’과 결합시키고 그분을 증거하시며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임무이다.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영혼들을 성화하고, 성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아버지께로 이끄시어, 삼위일체와의 사랑에 잠기게 하신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주님께서 흐뭇해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그리고 이 일치의 내부에서 그분의 완전함이 무한히 재생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홀로 계시지 않는다.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느님은 잠자코 계시지 않는다. 당신 존재의 넘쳐흐르는 풍요성으로 말미암아 잠자코 계시실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분이시지만 바로 이 일치로부터 그분의 활동력과 창조 능력과 풍요성을 끌어내신다.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식으로 말해보면, 하느님은 순간마다 새로 나시는 분이다. 이 빛의 심연을 바라보며 다가오너라. 그러나 너는 하느님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은 그 뜻의 유일한 현동(現動) 안에서 영원히 일하신다. 하느님의 뜻이 모든 시대와 영원을, 모든 창조와 모든 일을 오직 한 순간에 영원토록 아우르는 것이니, 그 순간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반사되고 항상 존재하는 저 일치의 영원한 순간이다. 따라서 끝없는 영원들이 하느님 안에 사라지는 순간이다... 너는 네 행위의 연속에 의하여 시간의 흐름을 재지만 하느님 안에는 시간이란 것이 없다. 하느님의 모든 행위들, 자연과 은총의 모든 창조 행위들이 거울 속처럼 당신 성령의 순수성 속에 간직되어 있으니 만큼, 그분은 손 하나 까딱하시지 않고서도 무한한 권능의 유일한 현동 안에서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세계와 상급과 영예의 화관들을,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들을 그분의 가슴 속 그 무한성으로부터 꺼내어 재현하신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증식시키시지만 늘 한 분으로 계시고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적이고 영원하신 그분은 일치의 무한한 순간 속에서 당신의 존재와 수없이 많은 완전들을 향유하시는 것이다.

하늘에서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은, 땅에서 살 때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그분과 가장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던 이들이다. 수덕과 자기 포기, 악한 걱정과 여타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끊었던 이들이고, 항구한 (내적) 이탈과 꾸준한 극기로 무조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해 있었던 이들이다.』

나는 그 사랑하올 성삼위 안의 빛의 심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깊은 심연인지! 게다가 얼마나 높은 완성이며, 얼마나 기묘한 경이인지!

나는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단순해지겠습니까?』 하고 여쭙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너의 뜻에 대해서는 죽고, 그것을 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여라.』”(일기 1913년 4월 11일)

“주님께서는 일치에 이르는 실제적인 길을 보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너의 행위들을 오직 하나의 목적 안에 단순화하여 하느님 안의 초자연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너의 사랑들을 오직 하나의 사랑 안에 단순화해야 한다. 그 오직 하나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이니, 거기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하여 이웃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하느님 안에서 단 하나의 시선, 단 하나의 의향, 단 하나의 애정과 의지만을 가지는 법을 배워라. 너의 삶으로 매우 단순하게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우회하거나 복잡하지 않게, 그분께 이르기 위한 다른 길이나 방법을 찾지 않고 오로지 이 본질적인 일치만을 찾아 그 안에 잠겨야 한다.

네가 닦고 있는 덕행들도 죄다 그 사랑의 ‘중심’을 향하게 하여라. 모든 은총과 성덕이 거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존재, 바로 하느님이기도 한 그 일치를 향하게 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신 성령께서 당신 날개에 너를 태워 그 ‘일치’의 심장부로 데려가실 것이다. 네가 성령 안에서 알고, 움직이고, 숨쉬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거룩하신 영께서 너를 영적으로 만드시면서, 다시 말해서 너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면서 너로 하여금 영의 내부로 즉 신성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행 안에서 또 사랑으로 너를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하신 뒤에 말이다.

그것은 극히 숭고하지만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완덕은 이상적인 완성이 아니라 덕행 실천을 수단으로 하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이는 단순성 자체이신 하느님, 본체의 영성이 “하나”이신 하느님, 셋이 하나이고 하나 안에 불가분적이고 모두 완전한 셋이 포함되는 하느님과 더욱 깊이 결합되기 위한 자기 포기과 단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가 수행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을 되도록 자주 저 일치 안에 던져 넣어라. 언제나 그 새로운 아름다움의 끝없는 완성으로 또 그 무한한 사랑으로 너를 데려갈 일치 안에 말이다. 너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 자기 포기의 행위들, 너의 갈망과 희망, 너의 욕구와 감정 — 이 모든 것을 거기에 던져 넣으면 그 일치가 자신과의 접촉으로 너의 삶과 네 삶의 본질을 단일화시켜 덕행들의 복수성 속에서도 그 자신과 닮게 해 줄 것이다.』”(일기 1913년 4월 15일)

그러한 일치에 도달하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이다. 하느님 자신 안의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이 완덕이지만, 아버지께서 ‘말씀’에게 주시는 사랑, 곧 성령을 통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완덕이다.

일단 한 영혼 안에 예수로의 변화가 일어나면, 덕행 안의 성장에 밀접히 의거하는 이 변화의 강도와 크기에 따라 다소 높이가 다른 정도로, 성령께서 또한 그 사람의 영도 되신다. 성령께서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영을 흡수하시고 바로 성령 자

신이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채우신다. 그러므로 그는 같은 사랑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곧 절대적 사랑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은총 중의 은총이요, 신적 카리스마의 통합이며,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개방된 하늘 자체이다. 이제부터는 이 피조물이 활동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고동치는 가슴으로 그 안에서 사시며, 그를 온전히 감싸신 채 그와 함께 사랑하시는 것이다.”(일기 1913년 4월 17일)

이 영적 삶의 고매함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러한 이상이 특은을 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은총 생활의 일반적인 진보 속에 있는 이들의 것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내가 성인들만 뽑아 내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⁷¹⁾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건네진 말이다. 모두가 예외 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일기 1913년 4월 15일)

· “하느님의 유일한 소망은 모든 이가 그분의 일치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거처를 잡는 것 — 이것이 하느님의 소망, 하느님의 욕구가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당신 자신을, 곧 무한한 사랑이신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러므로 틀림없이 영혼들 깊이 스며들 수 있는 당신의 통상적인 현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피조물 편의 사랑 의지에 따라서 그들을 소유하심으로써 행복하게 해 주시고자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의 일치 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유일한 열망인 것이다.”(일기 1913년 4월 23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치에 이르게 될 때, 그때에는 하느님의 선물에 참여하게 되고 삼위일체적 친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성령께서는” 콘치타의 관조적인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 “하느님의 신비로운 심연 속에” 몰입하게 하셨다.

“성부께서는 아무에게서도 비롯되지 않으셨으니, 잉태되신 적도 낳음을 받으신 적도 없이 그분 홀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해 오셨다. 그분에게는 시작이 없다. 영원토록, 시간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영원하고 시작이 없으신 하느님이셨다. 이미 하느님이셨고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이셨고 언제나 하느님이실 것이기에 생겨나지 않으신 분이다. 그분은 다른 원인을 가지지 않으신 분으로서 당신 존재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시니, 하늘과 땅과 피조물과 영혼들 및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낳으시는 창조력이 풍부한 존재이시다. 그분의 창조 능력은 영원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 자신 안에 모든 지복을 낳으시고 거기에 싸여 계신다. 그분은 지복을 낳으시고, 바로 이 지복 전체이시다. 그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 밖으

71) 마태 5,48 참조.

로 나가시지 않는다. 당신이 행복 자체이시고,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이시며 거룩함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행복은 그분 자신 안에 있고 여타 모든 것은 그분의 존재에서 퍼져 나온 발산물일 뿐이다. 그분은 사랑이시니, 시작이 없는 이 사랑으로 영원토록 황홀해하시며 당신 자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콘치타는 그녀가 받은 은사에 따라 열렬하고 섬세하게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안의 당신을 그녀에게 보여 주신 것에 대하여, 특히 ‘말씀’의 영원한 탄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차근차근 전해 주었다. 또한 아버지의 관대하심과 행복, 아드님에 대해 느끼시는 기쁨을 놀랍도록 훌륭하게 묘사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역시 기쁜 것은』 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일을 상기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항상 현재적인 일인 까닭이다. 내게는 돌이켜 볼 기억이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바로 나 자신인 태양의 희미한 빛한 줄기를 너에게 주어, 아버지께서 당신 밖으로 나가시지 않고 펼치시는 그 거룩한 관대하심을 네가 인식할 수 있어진 것이 기쁘다.』”(일기 1931년 1월 24일)

그런 다음 — 놀라운 연속성이거니와 — 콘치타의 관조는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성령의 **발출** 쪽으로 쏠렸으니,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시지만 스스로의 근간을 떠난 열매나 광채처럼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의 존재론적 필요성에 의하여 나오신다. 성부와 성자는 하느님이시고 따라서 사랑이시기에, 스스로가 무한한 사랑이신 “성령 없이는 존재하실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성령의 발출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상호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같은 성령이 또한 성부와 성자를 결합시켜 단일화하는 ‘생명’이시다.

하느님께서는 홀로 그분만이 아시는 당신의 신비들 속에서 독특한 기쁨을 맛보신다. 이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빛은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되신 이 ‘말씀’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셈이다.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삼위일체의 옥좌이고, 사람이 하느님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문이다.”(일기 1931년 9월 9일)

콘치타는 그 지극히 고상하고 신적인 삶을,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가정 생활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와 약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더없이 단순한 모양으로 살아 내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알아채지 못했다. 콘치타에게는 일체가 내적인 것이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루이스 마리아 마르티네스 대주교만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삶의 스승이고 모범이신 분은 마리아이십니다. 그분을 보시오.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의 모성적인 품에 자신을 맡기시오.”(일기 1927년 9월 17일)

그리하여 콘치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나는 마리아 안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마리아의 덕행과 성삼위께 대한 사랑을 본받으면서 마리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신비적 강생은 영혼을 성삼위와 접촉하게 한다. 성삼위 안에, 또 마리아 안에, 나의 삶이, 영적 삶뿐만이 아니고 물질 삶도 녹아들게 하면서, 이를 아버지께 바치시는 아드님의 봉헌 안에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이 봉헌에 온전히 집중하여, 먹고 자고 기뻐하며 고통을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이 나의 삶 전체를 이 지속적인 봉헌으로 단일화하여 성삼위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평생토록 마리아와 결합하여 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 오직 성령의 충동을 따라 움직이면서 말이다.”(일기 1925년 10월 27일)

콘치타는 영성 생활 전체에 걸쳐 지도자들에 대한 온전한 순명으로 지냈고,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성을 향해 진보함에 따라 갈수록 더 완전히 유순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일체를 초자연적 차원으로 들어올리고, 나의 실제적인 삶을 천상 빛의 찬란한 광채로 이상화하며, 모든 피조물과 사건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취, 바로 하느님을 보면서 내 지도자의 조언을 실현하고 싶다.”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신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삼위의 깊이 모를 신비 앞에서 눈을 감지 않을 작정이다. 즉 그분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하느님의 지복, (말씀의) 영원한 탄생, 성령의 사랑, 자비와 선성의 조수, 성삼위 사이의 내적 친교, 성삼위의 속성, 지극히 완전한 일치, 성삼위의 내적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작정이다. 그분께서 원하실 때마다 원하시는 곳까지 말이다.

오, 얼마나 비할 데 없는 결합인가! 삼위 사이에 얼마나 독특한 관계, 얼마나 기묘한 일치가 있는가! 삼위일체의 이 일치 안에서 하느님은 참으로 얼마나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분이신가!”(일기 1933년 3월 11일)

· 삼위일체의 일치

“일치는 신성의 중심이요, 하느님께 가장 소중한 신비이며, 하느님 자신이다. 단일성은 하느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께서는 삼위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신비 안에서, 본체와 본질의 이 동일성 안에서 기쁨을 누리신다. 삼위께서 오직 하나의 뜻, 오직 하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성으로, 나누임이 없는 그 신성의 같은 본체로, 끝없는 심연 속에, 완전함의 무한성 속에, 그리고 언제나 일치 안에 결합되어 계신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일치를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의 무한한 ‘중심’ 안에서 존

재들과 의지들을 단일화하기 때문이다. 성삼위 안에서 삼위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풍요하게 하여 존재의 충만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며, 삼위를 단순화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단순함이시며, 일치이시다.

성삼위 중 어느 위격도 다른 위격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으며, 더 소유하지도 더 원하지도 더 열망하지도 않으신다. 이 세 위격 사이에는 그분들을 황홀하게 하고 도취하게 하며 그분들의 모든 기쁨을 이루는 즐거운 일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감싸고 있으며 그분들 안에 스며드는 이 일치가 그분들 고유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삼위 안에는 어떤 불일치도 없다. 삼위 모두가 지극히 감미롭고 풍요한, 같은 음률을 내신다. 이 조화로운 음률이 하늘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화음은 성삼위 사이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로 그 반향이 파급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든다.

삼위일체께서는 그분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에 당신의 인장을 찍으신다. 그분 자신의 특징인 일치를 날인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에 의해 낚음을 받은 모든 것은 하느님 자신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일치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무한히 증식하면서 영원토록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일치의 신비이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할 나위 없이 풍요한 일치의 신비이다. 모든 풍요성은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사랑이 아버지의 품속에 ‘말씀’을 낳았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무한한 사랑에서 유일한 신성과 함께 성령이 나오셨다. 그러니 이 사랑의 무한한 강도가 성령을 위격화하여, 또 한 분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안의 다른 위격이 되시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의 신성을 이루게 하였고, 하나이고 영원하고 불가분적인 일치를 이루게 한 것이다.

어째서이겠는가?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는 세 가지 본체와 본질과 생명과 사랑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본체와 본질과 생명과 사랑이 오직 하나의 일치성 안에, 오직 하나의 신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일기 1933년 4월 3일)

6.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신비이고, 복음의 정수이며, 신약의 본질이다. 그리스도교 신비들 전체의 뿌리와 정점에 있는, 원초적인 신비이다.

콘치타는 삼위일체의 빛에 의거하여, 놀라운 결합 속에서 탄복할 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신앙 신비들을 관상하였다. 삼위일체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신비인 것이다.

· 하느님의 신비

사랑이신 하느님은 본질상 “그분 자신 안에서” 선물이며 통교이시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내적 생명의 신비이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만 홀로 계실 수 없으셨다. 거룩한 한 위격만으로는 스스로를 유지하실 수 없으셨으니, 그분은 하느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이치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완전성들과 소통하셔야 했고, 이 사랑은 사실 너무나 강렬하고 무한한 것이어서 거룩하고 무한한 한 위격에만, 곧 성부께만 보유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낳아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그러자 이 거룩한 두 위격 안에서 사랑이 배가되는 것 같았고, 바로 그 사랑이 성령 안에 위격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랑이 이 ‘사랑의 존재’를, 즉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타고 있는 것과 같은 ‘불’을 낳음으로써 이 불이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그분들의 모든 완전들을 충만히 반사하는 일치의 유대가 되기 때문이다.

“성삼위께서는 그분들의 같은 속성과 완전성들을 서로 나누시며 일치를 이루시는데 이 일치가 곧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이라는 말로 모든 말을 다한 셈이 된다.”(일기 1913년 4월 22일)

· 창조 사업 - 사랑의 계약

사랑이신 하느님은 또한 “그분 자신 밖에서” 선물이며 무상의 통교이시다. 이는 창조의 신비이고 피조물이 신적 생명에 이르게 되는 참여의 신비이다.

“하느님의 그 풍성하고 무한한 능력은 ‘영원한 사랑’을 영원토록 내뿜으며 성삼위를 반영하고 또 결합시키지만, 또한 이 능력에서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선물도 나온다. 이 선물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내면에서 나오시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으신 듯이, 말하자면 사람이 없고서는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으신 듯이,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이 존재는 영원으로부터 강력히 그분을 끌어당겼다. 사실, 창조 사업, 구원 사업, 모든 것이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다 현재적인 것이었다. 사랑이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 사랑을 더욱더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게 했으니, 그것은 사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그분은 하늘과 땅과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언제나 당신 자신을 널리 쏟아 부으시며 내어 주신다. 그럴더라도 그분은 감소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분이시다.

이미 말한 대로 그분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은 사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사랑의 한 특성이니, 사랑하게 함으로써 사랑이 솟아난 원천인 존재를

매료시키는 특성이다.”(일기 1913년 4월 24일)

· 구원 사업을 위한 강생

사랑이신 하느님은 아드님을 보내시어, 죄로 파괴된 우주를 새로이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된”⁷²⁾ ‘강생하신 말씀’이며 ‘구원자’이신 분의 신비이다.

그리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⁷³⁾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일까? 사람이 되시어 그분 자신으로 사람을 정화시키심으로써, 곧 당신의 공로와 피로 영혼들을 씻어 주심으로써 죄 많은 인류를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늘과 땅을 결합시키는 것 — 이것이 말씀 강생의 목적이었고, 구원 사업의 목적이었으며, 모범과 겸손으로 일관한 내 전 생애의 목적이었다.

사랑의 계율이 내 설교의 한결같은 주제였다. 그리고 내 생애의 모든 활동과 십자가상 죽음도 영혼들을 이끌어 하느님 안에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지상 순례를 하는 동안 내가 하나 되어 살았던 성부와 성령께 내 기적과 가르침들을 낱알이 보고하였다. 그분들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수행한 활동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역시 모든 영혼들을 사랑 안에, 하느님과의 단일화 안에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일기 1913년 4월 26일)

“너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리아 안에 강생하신 하느님 말씀의 광적인 사랑에 대하여 좀이나마 깨달았느냐? 말씀이 너의 피를 받고 너와 닮기 위해서, 너의 죄를 씻어 주기 위해서, 중개자가 되어 너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강생하셨다는 것을?

창조 사업에서 발산되어 구원 사업과 성체성사 안에서, 또 성령으로 인한 각 영혼과의 결합 안에서 신적인 찬란함으로 완성되는 이 사랑의 송고함을 좀더 알아듣게 되었느냐?

십자가 희생 제사의 위대함에 대하여, 바로 이 십자가에 못박혀 있었던 최후의 순간에 내가 보여 준 내 성심의 무한한 열정에 대하여 다소 이해하게 되었느냐?

이제 영혼들의 가치를, 내가 사랑하는 그 각 영혼이 내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게 했는지를 알겠느냐?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하느님을 끌어당겨 사람이 되게 한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안에 삼위일체의 모상을 지니고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하느님께 저질러지는 죄를 같은 하느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보이느냐?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은 고통을 받으며 속죄할 수 있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인간이 받은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제 하느님의 계획을, 이 계획 속에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언제나 승리를

72) 사도신경 참조.

73) 요한 1,14 참조.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느냐? 또한, 은혜를 모르는 세상을 위하여 그럼에도 연속적으로 베풀어지는 이 호의는, 오직 세상을 일치에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알겠느냐?”(1913년 5월 4일)

“구원 사업은 지극히 순수한 사랑의 신비, 지극히 다정하고 애정 어린 겸손의 신비이다. 그것은 성자의 열렬한 갈망과, 실현의 시작과 그 과정과 최종 결말에 이르기까지 개입하신 성부와 성령의 협력으로 일어난, 영원한 사랑의 폭발이다.”(일기 1934년 8월 1일)

“‘말씀’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자 했기에 흠 없이 순결한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셨다. 사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구원하여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낮춤으로 여인의 순결한 태중에 내려오신 하느님의 말씀 — 이 말씀과의 접촉으로 사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너는 보지 않았느냐?

그분은 사람이 그분으로 인해 신화(神化)되고, 그분과 함께 높아지며, 그분 안에서 깨끗해지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이 사람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고 사람이 되실 정도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하느님이 되어 하느님의 일치 안에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일기 1928년 6월 24일)

· 삼위일체의 사랑의 계획 속의 마리아

“마리아는 삼위일체의 계획 실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셨다. 삼위일체께서 이 ‘원죄 없으신 동정녀’ 안에, 길 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실현의 비밀과 신비들을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존재의 첫 순간부터 거기에 응하셨고, 항상 은총 안에 성장하셨으며, 삼위일체의 소유로 계셨다. 강생의 실현으로 마리아는 동정 어머니가 되셨으니, 이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의 극히 순결한 수정 작용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모든 어머니들의 완전함보다 더 높은 완전함으로 모성적 역할을 다하면서 자신의 거룩한 아들과 일체가 되셨다. 마리아에게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나 소망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자연스러운 행위 속에서도 마리아는 초자연적인 완전함을 보이셨다. 당신 아들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십자가 아래에서 내 교회가 태어나는 것을 보셨고, 요한 안에서 모든 사제들을, 또한 온 인류를, 인류의 어머니로서 나 대신 당신 가슴에 받아들이셨다.

그 뒤 ‘고독’의 순교를 통해서, 나의 공로와 결합하여 모든 은총을 얻어내셨으니, 그 은총은 내 어머니의 성심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새로운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

어째서이겠느냐? 왜냐하면 마리아는 공동 구속자로서 지상에서 나의 수난을 계속한 최초의 사람이셨으며, 내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요, 사제들의 보호

자이며 어머니이시고, 모든 성인들의 여왕이시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는 성삼위와 맺어진 밀접한 관계 덕분에 성삼위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체험한 분이시다. 그분은 성삼위의 본질과 단순성과 본체의 일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셨다. 신적인 광채가 다른 어느 피조물보다도 마리아에게 찬란하고 오묘하게 뽀여 나가서 그분을 꿰뚫으며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리아만큼 신성의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없고, 그분만큼 교회와 사제들 안에서 삼위일체의 거룩한 이상을 본 사람도 없다.

삼위일체의 딸이며 정배이신 마리아께서 사제들을 하나 되게 하여 그들을 삼위일체의 일치 안에 완성시키면서 교회를 조화롭게 하는 일을 직접 떠맡고 계신 것이다.”(일기 1928년 4월 7일)

· 사랑의 교회

사랑이신 하느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⁷⁴⁾인 교회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령은 나의 약속이고, 내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성부의 응답이며 호의이다. 즉 사랑 자체이신 분을 주시는, 사랑이신 분의 호의이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는 내 기도의 열매, 내 열렬한 간청의 열매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며 사람인 내 성심의 사랑, 세상을 위한 내 가장 큰 애정의 부르짖음의 열매이다.

성령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삼위일체의 생각 속에 영원으로부터 착상된 실재인 것과 같이, 성령 역시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부께서 영원으로부터 정해 두신 분이시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곧 생명을 주며 변화시키는 이 영이, 이미 영혼들의 세계 위를 감돌고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교회를 당신 품속에 낳으셨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당신의 것이었던 구원의 기초를 취하시어 그 위에 지상 교회를 세우시고 굳건히 하셨다. 교회는 그러므로 사랑이고, 교회의 법과 모든 교리도 다 사랑이다. 순수한 사랑이다.

성령께서는 어느 하루, 어느 일정한 기간, 혹은 거듭된 여러 세기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계시려고 오신다.”(일기 1928년 8월 29일)

7. “어두운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과 같이...”

74) 교회 헌장 4항 참조.

콘치타는 (말년의) “고독”의 밤에 저 신적인 빛들이 자기 안에 일으키는 결과들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숭고한 글을 쓰면서 나는 내 영혼인지 지성인지 어딘지 모를 곳으로 저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신비와 빛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솟아나는지를 체험했는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비로운 심연 속에 나를 잠그시고, 어두운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과 같이 당신의 광채로 눈이 부시게 하셨다.”(일기 1927년 12월 27일)

“하느님께서서는 어찌하여 성삼위의 신비에 단지 스치기만 해도 나를 눈부신 빛에 휩싸이게 하시는 것일까? 그분의 충동에 떠밀려 간신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것조차 어렵פות한 약간의 그들과 같을 뿐이다. 반면에 한없이 넓게 퍼진 그분의 영역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이다.”

영적인 삶은 빛과 암흑의 나선형으로 항상 상승하는 오르막길과 같다. 콘치타는 이 기묘한 대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커다란 빛과 함께 신비들을, 무엇보다도 특히 성삼위의 신비를 영적으로 보았다. 그럴 때에는 마치 내 눈앞에서 막이 걷히며 올라가는 것과 같고, 매우 강렬한 빛을 내는 광원이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비밀을 갑자기 조명해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극히 명확하게, 심오하고 세밀하게 하느님 안의 완전성의 심연을 보게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는 비탄과 내적 고뇌가 가득한 고통이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건만, 눈물이 가득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을 그토록 가까이 느낀다면 틀림없이 (완전히)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일기 1930년 5월 20일)

“『어째서 나는 빛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동시에 느끼는 것일까?』 이 수수께끼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다. 빛과 고통, 사랑과 고통,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느껴졌으니 말이다.』”(일기 1930년 5월 27일)

그런즉 성삼위와 친교를 나누는 삶은 현세에서도 천국의 서막처럼 아무 그늘이 없는 행복 속에 완성되어 가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성덕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음과 말김 속에 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를 봉헌하는 것이고, 산 제물이 되는 것이며, 섬기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생활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한 세상 구원의 신비에 온전히 결합하는 데서 오는, 충만한 기쁨 속에 있는 것이다.

후기

콘치타 — 교회 안에서의 사명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성령 강림”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게나마 콘치타의 생애와 가르침을 제시하고자 했던 이 책이 이제 결미에 이른 지금, 전체를 종합 내지 개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자문하리라.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당신의 이 겸손한 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

1. 모든 이가 접근할 수 있는, 더없이 높은 성덕.

콘치타는 “내가 아내이고 어머니라는 점이 내 영성 생활에 장애가 된 적은 결코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또한 한 여인으로서 자기의 한 며느리에게 “나는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지냈단다.”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중한 병이 걸린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고, 온전히 당신 아이들의 것이 되는 거라오.”** 주님께서도 어느 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드높은 계획을 이루려고 결혼하였다. 너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과 성화는 조화롭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다.”

그런즉 영성 대가들에 의해 서술된 지고한 신비적 은총들은 하느님께 자기를 봉헌한 사제나 수도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특전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신

분으로 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진실에 대한 생생하고 역사적인 증거를, 하느님께서 콘치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같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그 점을 분명하고 힘있게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이나 계층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일이다.”(교회 헌장 40항)

그러니 부차적인 계층의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최상의 성덕을 추구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콘치타는 스스로를 일컬어 “하찮은 기혼자”라고 했던 신분으로, 위대한 영성가들이 말하는 영적 약혼 및 영적 혼인이라는 뛰어난 은총을 받았다.

그녀는 흔히들 말하는 하느님의 도구로서 오늘날의 세계를 위한 예언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아내와 어머니의 모범이 될 것이지만, 그녀의 사명은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어서 “모든 신분의 생활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성화 능력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친히 알려 주셨다. 그렇다.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와 교육자의 모범이지만, 성삼위의 일치 안에 완성될 때까지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의 메시지는 모든 평신도와 남녀 기혼자도 가장 높은 성덕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 새로운 유형의 성덕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어떤 유형의 성덕이 아니라 같은 복음의 새로운 적용에 대한 것이다.

복음 정신과 십자가의 가르침에서 동떨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될 터 인즉, 리지외의 데레사가 “온전히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의 새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영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한 새로움을 이루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평신도나 기혼자나 **모든 사람을 가장 높은 성덕으로 부른다는 점.**

2) **일상 생활의 변화**로 속된 것을 성화하는 것, 곧 **평범한 생활**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희생 정신에 의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

3) **최상의 성덕.** 십자가 메시지의 탁월성. 지극히 평범한 행동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갓 태어난 교회에 봉사하며 세상에서 지내신 말년의 생활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사랑의 봉헌을 함으로써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

주님께서는 또한 말년의 콘치타에게 가정의 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제물인 영혼들의 십자군』을 설립하여라.

이혼에 대한 보속을 많이 바쳐 주기 바란다. 이혼은 가정 속에, 부부와 자녀들에게, 따라서 사회 속에 수많은 악을 일으키는 근원이다.

감춰진 술한 죄들과,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일에 태만한 술한 잘못에 대하여 보속하여라.

나는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제물인 영혼들의 십자군』을 원하는 것이다.”(일기 1935년 10월 31일)

그러니 누가 이 일을 하느님의 뜻에 의한 시기 적절한 일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2. “너는 내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각 영혼은 고유의 사명을 띠고 세상에 태어난다. 너의 사명은 나의 인자함으로 인한 것인 바, 내 교회를 위한 제물로 너 자신을 바치는, 교회 특히 교회의 목자들을 위하여 사랑 깊은 희생의 삶을 추구하는, 고귀한 사명이다.”

콘치타의 탁월한 사명은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다.

“너는 이제 너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 교회에 속한 사람이니, ‘말씀’이 자신을 위하여 너를 쓰실 것이다. 너 혼자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나와 결합되어 있으면 하느님께서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자주 거듭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여라.”(일기 1911년 2월 5일)

콘치타는 영적 생활 초기부터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는 은총에 특별한 매력을 느꼈는데, 그녀의 영성 생활이 진보함에 따라 주님의 뜻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너는 세상을 구원하고 싶지 않느냐? ‘십자가 사업’이 존재하기도 전에 너의 피로 그것을 내게 간청하지 않았더냐? 이 사업이 왜 세상에 태어났겠느냐?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단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수단이 바로 **거룩한 사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이 십자가 사업의 더없이 높은 정점이다. 이로써 거룩한 사제들을 주기에 내 성심이 참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와 함께 영구적으로 사제들에게 속해 있겠다고 말해 다오. 그들을 위한 너의 사명은 하늘에서도 계속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순교가 있다. 나를 거역하는 사제들의 행위가 너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근본적으로 그들 안의 **내 사제직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충실과 비열함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삼위일체께 영광을 드리리니, 우리는 같은 이유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일기 1928년 11월 29일)

신비적 강생의 중심 은총은 이 사명의 완수를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지만, 이 봉헌의 가치는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교회를 위한 은총의 원천이다.

주님께서는 또 콘치타 생애의 말년에 사제들의 성화를 촉구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말기기도 하셨다. 주님께서 이를 친히 “속내 이야기”라고 부르신 것은 당신 성심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으신 것으로서, 사제에 관한 매우 시사적인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멕시코의 일부 주교들과 신학자들이 그 메시지를 읽게 되면 경탄하면서 이렇게 외칠 것 같다. “이 글은 한 부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어느 교회 박사에게서 온 것이다!” 여기 멕시코에서 콘치타는 교회 당국에 의해서, 곧 신학자들과 유능한 고위층 인사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들 모두가 하느님의 영께서 그녀에게 영감을 주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913년 로마에서는 (조사 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층 더 힘있는 어조로 그녀를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현재는 로마 교회에서 그녀의德行과 기록들을 조사하고 있다. 홀로 교회만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 우리는 벌써부터 신실한 믿음과 온 마음으로 교회의 결정에 찬동하고 있다. **교회의 판단이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판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구엘 다리오 미란다 추기경의 훌륭한 표현대로 “사람들이 마리아 콘셉시온 카브레라 데 아미다(=콘치타) 안에서 교회의 하늘과 성인들의 통공 속에 떠오른 ‘새로운 별’을 보게 되기를” 굳게 바라고 있다.

그러나 콘치타 개인의 이 사명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참여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장 깊은 신비인 **성찬례**의 양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교회와 특히 사제직에 관련된 콘치타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내밀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확실히 평신도는 고유의 영역인 **세속**에서 성화의 길을 가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공통적인 은총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은총과 성화의 신비가 성직의 서품과 축성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다.

그분은 **형제**이시며 성직의 영적 지주이시다(교회 헌장 32항 및 turn 사제 교령 9항 참조). 그러니 성직자도 (그분을 본받아)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되, 사랑과 생활의 성화를 통하여 이 봉사를 실현해야 한다.

“옛 것” 안에서 콘치타의 “새로움”은 구원 계획 속에서의 평신도의 근본적인 활동을 부각시킨 점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각자가 세상 구원에 협력할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콘치타가 어머니와 아내의 모범이며 자녀 교육에도 모범인 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점이다. 그녀가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살 때에만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그녀의 사명에서 가장 독특한 면 중의 하나이고, 특히 현 시대에 설득력이 있는 점인 것 같다.

콘치타는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비판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며, 교회를 인본주의나 수평주의, 혹은 순전히 인간 해방의 시종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아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가련한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계획 안에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평신도에 불과했던 콘치타는 사제들을 비판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고결한 격양 상태에서 삼위일체께 이렇게 외쳤던 것이다. “저는 사제들을 위하여, 순전하고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증여로 제 온 존재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저희 교황 및 추기경들과 대주교들과 주교들, 본당 주임 사제들과 다른 사제들 및 성소에 대해서 주저하며 투쟁하는 신학생들을 전부 제 가슴에 안고 다니고자 합니다.

저 자신은 쓸모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제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교계의 모든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를 써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런 다음, “지상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하늘에서 내려오고자 합니다.”라고 예언한 리지외의 데레사와 같이, 콘치타도 임종 고통을 겪는 순간까지 사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봉헌하고 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녀의 기도를 마쳤던 것이다. “저는 지상에서 사제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제 하늘에서 내려오겠습니다.”(일기 1928년 11월 30일)

3. 십자가 복음

리지외의 데레사나 요한 23세처럼, 콘치타의 존재는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한 은총이다.

기록된 자료들의 객관적인 연구로부터 일부 신학자들은 콘치타가 “이 시대의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를 위한 예언적 메시지가 한 평신도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그녀의 사명은 이 무신론적 시대에 “새로운 성령 강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십자가 복음’을 상기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콘치타 안에 당신 사업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녀에게 모든 교회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환시를 보여 주셨다.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십자가 복음**이었고, 이는 성령에 의해 맨 위쪽이 환하게 밝혀진 십자가로 상징되었다. 그녀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큰 십자가, 매우 큰 십자가였으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꿰뚫린 성심이 있었다.

그 신비로운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 즉 고통과 죽음이 더 이상 저주와 단죄가 아니며, 십자가야말로 인간과 우주 만물의 결정적인 해방의 **망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콘치타의 영성과 메시지와 사명은 “십자가 사도직”이고, 그 상징이 곧 큰 십자가, 매우 큰 십자가 및 그 중심에 ‘강생하신 말씀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성심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위격화된 사랑’이신 성령의 불과 빛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콘치타의 메시지는 보편적 차원을 지닌다. 인간이 현 시대만큼 많은 고통에 시달린 적이 없지만, 오늘날만큼 그 모든 고통이 무익한 것이 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는 십자가의 지배 아래 있으나 불행히도 그것은 사랑이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고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의 고통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때부터는 고통이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는 역동적인 힘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으로 변화된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한 해방에 대한 확신인 희망으로 빛나는 십자가가 되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콘치타의 메시지는 따라서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십자가,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이 되는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도록 요청하는 호소이다.

그러한 “십자가 사도직”의 상징은 복음의 상기인 십자가 영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즉 십자가 영성은 성덕을 요구하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도적” 성덕이니, 자기 자신 안에 틀어박히지 않을 뿐더러, 영혼 상태와 정화된 영혼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에 정신을 팔지도 않는 성덕이다. 그것은 또한 그 존재 이유와 궁극 목적이 인간의 구원 및 성화와 결부된 보편 교회의 영역 안에 있는 성덕이다. 사제다운 성화를 위하여 전적인 자기 봉헌의 길로 인도되는가 하면, 소박한 생활을 충실히 영위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성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 및 가족 속에서건 직장 속에서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성덕이니, **일상적인 시련**을 통하여 십자가와 그 희생 정신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며 무엇보다

다도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성덕이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복음의 근간이다. 모든 성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고유한 십자가를 지기 마련이고, 그 십자가는 복음적인 단순함과 성령께 대한 완전한 순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골격 속에 함축적으로 새겨진다.

홀로 성령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명해 주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적 의미를 계시해 주신다. 또한 십자가를 변모시켜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대가 당신의 십자가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속에 각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십자가 영성은 고통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수동적인 무엇도 아니다. 그것은 구원 사업에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며, “새 땅”⁷⁵⁾의 건설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콘치타에게 분명히 표현하신 가르침 가운데 더없이 경탄할 만한 점은, 십자가의 의미를 단지 **속죄** — 하느님 아버지께 죄로 인한 모욕 대신 모든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배상적인 사랑의 제물로 죄를 씻는 행위 — 의 고통으로 간주하거나 단순한 **보속**, 혹은 죄 많은 인간의 **정화**로만 간주하지 않는 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 의한 구원, 성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⁷⁶⁾ 그리스도로의 변화와 동화라는 심오한 의미 속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구원 신비의 심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성심의 내적 십자가를 이해하고 공경하며 나누어 가지고, 이를 위하여 공동 구속 사업에 몸소 동참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는 호소이다.

“영혼들을 나의 구원적 희생에 결합시키는 것은 내가 특히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 영혼들의 자기 증여가 완전한 것이 되려면 그들을 나 자신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들을 나의 완전한 신비체 안에 모아들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일기 1935년 11월 10일)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성령의 풍성한 유출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4. “새로운 성령 강림”

속화되어 신성하지 못한 오늘의 세계는 하느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다.

75) 2베드 3,13; 묵시 21,1

76) 새번역 요한 13,1 참조.

안락과 쾌락의 조류 속에 침몰하고 있다. 유일한 구제책은 하느님의 영, 성령뿐이다. 그분만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며 다시 활기차게 할 수 있다.

이를 역설한 이는 예수님의 대리자 교황 요한 23세였으니, 교회에 “새로운 성령 강림”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공의회가 열리기 50년 전에, 그러니까 1911년부터 콘치타도 그녀의 글 속에서 거듭 이렇게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세상과 교회에 새로운 성령 강림, 두 번째 성령 강림, 사제적 성령 강림, 내적 성령 강림이 필요하다.”

열렬한 성모 신심가인 이 ‘하느님의 종’은 우리에게 이런 확언을 주기도 하였다. “성령과 마리아께서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다. 콘치타의 예언자적 사명은, 자유를 탐내는 이 물질주의적인 현대 세계에는 오직 **새로운 성령 강림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성령 강림 곧 성령의 성화 활동은, 첫 번째 강림 때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고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공동체 전체에 내려오셨던 것과 같이, 사제들에게서 시작되어 ‘하느님 백성’ 전체에 파급될 것이다.

“나는 내 사제들을 통하여 세상에 다시 오고자 한다. 내 사제들 안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영혼들의 세계를 쇄신하고,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 내 교회 위에 성령을 쏟아 부어 교회 안에 강력한 힘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일기 1928년 1월 5일)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에 오실 수 있다. 성자의 사명과 성령의 사명은 불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내 고난의 희생 제사인 십자가가 사람들의 마음 안에 군림해 있을 때에 오실 것이다. 십자가가 영혼들 안에서 다스리지 않는 한, 그분 역시 군림하지 않으실 것이다.”(일기 1901년 5월 26일)

—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새로운 성령 강림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전구하시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⁷⁷⁾인 교회가 아버지에게서 샘솟는 사랑의 계획을 완수하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77) 교회 헌장 4항.

□ 부록

콘치타 연보

- 1862년 12월 8일: 멕시코 산루이포토시에서 태어남.
본명은 콘셉시온 카브레라 데 아미다.
12월 10일: 세례를 받음.
- 1872년 12월 8일: 첫 영성체.
- 1881년 9월 16일: 완덕에 대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하다.
- 1884년 11월 8일: 결혼.
- 1889년 : 처음으로 영성 수련 피정에 참가하다.
- 1894년 1월 14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슴에 새기다.
십자가 사업들이 태어남.
1월 23일: “전적인 내맡김”(Entrega total).
영적 약혼의 은혜를 받다.
- 5월 3일: 십자가 사도직의 첫 십자가 건립. 하느님의 백성이 모인 다섯 개의 “십자가 사업들” 중 첫 공동체 설립으로 십자가 사도직이 태어나다. 그 목적은 개인의 고통과 노동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노동에 결합시켜 그분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있다.
- 1897년 2월 9일: 영적 혼인의 은혜를 받다.
5월 3일: 두 번째 십자가 사업으로 예수 성심의 십자가 수녀회 창립. 이는 교회를 위해서, 특히 사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지속적인 조배의 관상 수도회이다.
- 1901년 9월 17일: 남편의 죽음.
- 1903년 2월 4일: 펠릭스 루지에 신부를 만나다.
- 1906년 3월 25일: 신비적 강생의 은총을 받다.
- 1909년 11월 30일: 세 번째 십자가 사업, 곧 예수 성심과 맺는 사랑의 결약회 창

설. 이는 각자의 고유한 신분 속에서 십자가 영성을 따라 완
덕을 추구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1912년 1월 19일: 네 번째 십자가 사업으로 사도직 연합회 창설. 이는 이 영성으
로 살아가면서 다른 십자가 사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주교
와 사제들을 위한 것이다.

1913년 8월-12월: 성지와 로마 순례.

1914년 4월 10일: 사제들을 위한 주일 친교회 설립.

12월 25일: 다섯 번째 십자가 사업인 ‘성령 선교 수도회’ 창립. 이는 특히
사제 직무와 영혼들의 영적 지도에 헌신하는 성직자 수도회이
다.

1917년 2월 2일: 생애의 마지막 단계 시작. 이 기간 동안 사적인 고독을 성모님의
“고독” 안에 심화하다.

1935년 10월 31일: 가정들을 위하여 “제물인 영혼들의 십자군” 설립. 이는 아버
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결혼 생활 및 사회 속의 죄들을 속죄하
기 위하여, 고유의 신분 속에서 같은 십자가 영성으로 자기를
봉헌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1937년 3월 3일: 선종.

1959년 9월 29일: 교회법에 의거하여 로마에서 시복 소송 절차가 시작되다.